

2021년도

회 의 례
(Ⅱ)



완도군의회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8대 완도군의회

■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정수	가 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 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 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비례대표
9명	박재선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조인호 김양훈	허궁희 김재홍	우성자

■ 제8대 의장단 구성 현황

구 분	의 장	부의장	재임기간	비 고
전 반 기	조인호	허궁희	'18. 7. 2. ~ '20. 7. 2.	
후 반 기	허궁희	박재선	'20. 7. 3. ~	

■ 제8대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의회운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위 원
전 반 기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후 반 기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최정욱 우성자

|| 목 차 ||

I. 제28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9
개 회 식	11
제1차 본회의회의록	1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8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3
II. 제28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7
개 회 식	29
제1차 본회의회의록	30
제2차 본회의회의록	54
제3차 본회의회의록	56
III. 제28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59
개 회 식	61
제1차 본회의회의록	62
제2차 본회의회의록	6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7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7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80
IV. 제290회 완도군의회(임시회)	85
개 회 식	87
제1차 본회의회의록	88
제2차 본회의회의록	9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9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7

V. 제29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17

개 회 식 119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0

제2차 본회의회의록 123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3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50

VI. 제292회 완도군의회(제1차정례회) 167

개 회 식 169

제1차 본회의회의록 172

제2차 본회의회의록 17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18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0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240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48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58

VII. 제29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265

개 회 식 267

제1차 본회의회의록 269

제2차 본회의회의록 334

제3차 본회의회의록 392

제4차 본회의회의록 439

제5차 본회의회의록 509

제6차 본회의회의록 55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57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583

VIII. 제29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593

개 회 식	595
제1차 본회의회의록	597
제2차 본회의회의록	600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05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2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26

IX.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637

개 회 식	639
제1차 본회의회의록	641
제2차 본회의회의록	645
제3차 본회의회의록	702
제4차 본회의회의록	748
제5차 본회의회의록	800
제6차 본회의회의록	829
제7차 본회의회의록	871
제8차 본회의회의록	939
제9차 본회의회의록	978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98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12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19

X.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정례회) 1023

개 회 식	1025
제1차 본회의회의록	1027
제2차 본회의회의록	1033

제3차 본회의회의록	1045
제4차 본회의회의록	1054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059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73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8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04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18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3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171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225

XI.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1263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6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27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8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95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3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10시2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송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비말 차단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은 농민들이 땀으로 일궈온 결실의 수확이 막바지입니다. 어촌에서는 어장정리, 양식 수산물 채묘 등 쉴틈 없는 일손으로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구슬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들과 바다에서 기쁨의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동적인 지역 활력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 오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팬데믹 현상이 말끔히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군정 업무를 공유할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평소 군정 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정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으로 의사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와 답변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일간 운영하는 제 295회 임시회가 역대 의사일정 중 가장 생산적이고 기대를 충족시킨 의사일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9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4분 폐식)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5일(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시34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회 공고를 거쳐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3개 안건,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외 12건의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6분)

○의장 허궁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범성 의원과 조인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범성 의원과 조인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군정 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78호, 제2779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2021년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779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 간 군정 질문 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7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2인)

김재홍(청가)	조인호(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문송태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군수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장면이 SNS를 통해 영상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답변 시 정제된 언어와 상호 존중하는 품위 있는 자세로 회의 운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는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박재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부의장입니다.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삶이 유난히도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상회복이 안정화될 때까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코로나19 업무에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의회 개원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미래 완도를 위해 군정 방침대로 군정이 무탈하게 돌아가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격려와 질책으로 군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미래 완도를 위하여 우리의 지혜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최선을 다하여 완도군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활성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기부문화 투명성 활성화 대책과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실적 및 방법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완도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기대효과가 큰 만큼 완도군에서도 완도국립 난대수목원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대책 및 홍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소득 또는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연계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개성과 문화적 잠재력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공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 하여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완도군 청년정책계획 수립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년센터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고유의 흥과 멋 등 옛 정취를 살리고 지역문화와 시장이 가진 역사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운영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그리고 과태료 징수 처분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소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안~구도 지방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스포츠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우리 군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실적과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과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완도 전복 ASC 인증 현황 및 활성화 대책과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ASC 인증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ASC 인증 업체에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과 해조류 적정 생산 및 가격 유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우리 군 여객선 야간운행과 관련하여 어장 재배치 실적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도비 수산보조금 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비가 있다면 반납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8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군민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에 담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각

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군 여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전북산업 등은 소비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조류 또한 가격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는 관광객 감소 등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 295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님께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은 공공투자와 더불어 8,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단지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 상황, MOU 체결 대비 유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단지 주변, 특히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의 기존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과의 연계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적공무상 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소규모 투자·개발사업의 지연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개요와 지적 불일치 지역, 그동안의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사·난방용으로 사용 중인 LPG 용기 및 등유 대체를 위하여 추진한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의 완도읍 공급 현황과 미공급 취약지역 LPG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 후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LPG 배관망사업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이용한 통합 관제센터 운영은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 예방에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서 점차 확대 구축되고, 장비도 고성능화에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고 향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현황과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청학동 참살이 마을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은 우리 군 고금면의 유자와 지주식 김, 천혜의 갯벌 등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

고 있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조성 추진배경과 향후 이용객 추이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님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를 답변하여 주시고, 완료사업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사업별 실태와 사업효과, 보수 및 정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일도, 여서도 등 연차별 완료사업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께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귀어가 및 청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사업 종류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정착 사업추진 효과분석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님께 다목적 친환경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등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완도전복주식회사 역할과 전복 수급조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산지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전복 소비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설립하여 경영활동 중에 있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 전복 유통실적은 완도군 전체 생산량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현황, 향후 수매계획 등 전복 수급을 위한 회사차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님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업추진의 목적과 개요,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완도군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지하수 등록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폐공 실적 등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군정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군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의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에 의문스럽고 궁금했던 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읍면에 다양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

역 내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주민 간 정서 차이 및 이해충돌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군이 나서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상생할 수 여건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산 태양광사업에 따른 완도군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약산 태양광시설에 따른 송전관로가 신지면 도로에 매설되는 것에 대해 신지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완도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항 중앙방파제 사업 추진배경 및 완도군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국장에게 2022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개최예정이었던 해조류박람회가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개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조류박람회는 우리 군에서 해조류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는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취소로 인하여 대행사 계약금 지급과 대행사 과업내용 중 완도군 지적재산 귀속 여부와 앞으로 우리 군의 해조류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온라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소통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이런 추세에 맞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유튜브 채널 등 소통매체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건수, 예산 및 효과, 각종 광고별 피드백 실시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민선8기 들어 국장급이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는 비대해지고 기간제, 공무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팀장 1직원인 팀 현황 및 해당 팀의 사무분장, 복수직렬제 개념, 도입배경, 시행시기, 도입효과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또한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과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신뢰도 향상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에 행정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21년 계약업무 중 관내 업체와 계약 현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해 계약분야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과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유치원, 초·중·고에 납품하면 이에 대해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과 식품 구입처, 지원 금액, 또한 공급업체 선정방법과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

중호우가 발생하면 우리 군 읍면 곳곳에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하천 및 도로 등을 사전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농경지 피해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도로 침수현황 및 사고 발생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각 읍면 각종 도로 선형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장보고 한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고한상은 9세기 초 장보고 청해진대사가 청해진을 설진하고 서남해안의 암약하던 해적을 소탕한 뒤 한·중·일 등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동서교역을 주도했던 불세출의 영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데요. 장보고한상 수상자 현황과 연도별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 장보고한상이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2023년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완도군 체육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체전 목적 및 개요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체전 불가능 종목 확충 방안 및 대책, 또한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완도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 수용 대책, 또한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서 먹고 자고 관광할 수 있는 유인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순서이나 청가 중이므로 본안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낮과 밤의 경계를 잊은 채 노력해 주시는 완도군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하여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개선사항 그리고 완도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완도~고흥 간 국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반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도~고흥 간 국도 승격은 20년 묵은 우리 5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함께 완도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부권의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륙교를 원하고 있으며, 이번의 승격 확정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약 반영을 위한 추진사항과 실적, 다음으로 관계기관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읍면 경로 및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오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 요양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화 방지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읍면별 경로 및 요양시설 현황,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 및 계획, 끝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취업 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외국인근로자는 2,000여 명이며, 그중 1,500명이 어업,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어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우리 군 전체가

위기이며, 이 같은 문제는 행정이나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외국인근로자 직종별 취업 현황과 다음 인력지원 수급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청 앞을 비롯하여 완도읍 주요 시가지에서는 연일 현수막과 함께 피켓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직장 폐쇄 이후 노사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연대 노조 측에서는 “자원관리센터의 관리 책임 그리고 임금문제 해결에 완도군이 직접 나서라!”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 실적과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 실효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완도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금일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일지역 급경사지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루 빨리 최선의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시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금일 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현황,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특색 있는 좋은 관광기념품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

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도 위축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매력적인 아이템을 구상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 현황과 그 다음으로 관광기념품 지정, 공모전 등 추진실적,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껏 행사중심으로 이용되었던 시설이 일반 주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2023년에 열리게 될 전남도민체전과 2024년에 열리게 될 생활체육대축전은 완도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3년, 2024년 개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체육시설 현황과 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대책,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

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정화활동 등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언제까지 현재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단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성숙한 군민 의식 성장이 따라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 실적, 그 다음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에게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들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자는 좋은 뜻에서 도입되었으며, 본사업을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은 제도를 발굴하고 도입하여 교통여건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교통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현황, 둘째로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도서 해수담수화사업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도가 많은 완도는 고질적인 식수난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00억 원을 들여 외딴섬 식수난 해결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고 칭찬 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수난을 겪는 곳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와 유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도서 낙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서지역 식수 공급현황 및 계획, 그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내용별 현황,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 집행내용,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개발 이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들의 관심사항, 문제점, 제도개선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현장목소리를 토대로 관심사항과 문제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 완도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니다.

먼저 군수님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완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앞두고 여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완도관광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현실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완도군 관광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관광자원 확충 현황과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 현황을 각 권역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섬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앞으로 방문객 수용태세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방역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 등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국 체제로 조직개편 이후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국 체제가 도입된 후 햇수로 4년째를 맞는 지금, 국 체제 도입에 따른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단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국 체제 개편에 따른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 체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조직개편 이후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분야의 회복대책과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당 부분 침체된 경제, 농업, 수산분야의 회복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실태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상습침수구역 해소대책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예방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종합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영유아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육시설의 신규 설치계획은 있는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도

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이숍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시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완도특산물 중개쇼핑몰인 온라인 이숍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원입니다.

제8대 군의회 회기 중 마지막 군정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금쯤 군민들께서는 농어촌 들녘과 바다에서 결실을 수확하고 국화향기를 찾아 가거나 단풍 나들이로 만추를 만끽할 때인데, 올해도 감염병의 위세에 억눌려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어진 데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건강과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년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사투를 벌여 왔지만 감염병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을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군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감염병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 방역현장에서 헌신하며 사투를 벌여 오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군정 시책과 각종 사업추진 실태, 민원처리 등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며 군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질문은 군민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군민들이 듣게 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며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장애인 주차 관련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노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

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읍면별 현황과 운영기관, 지원내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금까지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행복 정착지원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생계·의료아동 현황, 읍면별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향토유적지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향토유적지 및 문화재 명예관리인 현황, 최근 3년간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 및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 및 지정음식점 현황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복거리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정바다수도 완도 보전을 위한 추진현황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인대학 운영 및 교육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대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 현황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예방 동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없는지, 주민 불안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완도군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군정 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 최정욱은 완도군

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현안 파악과 대안제시로 군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진정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완도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도군수님께 완도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우리 군민의 어선은 물론, 연근해 조업선단의 입항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 조업선단의 경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3만 8,000여 척이 입항하여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연근해 조업선단의 유치에 필요한 완도항 기반시설 확충이 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항 기반시설 현황, 둘째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 셋째 완도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치유산업이 완도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이며, 해양치유 방문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올인하다시피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

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 둘째 해양치유산업 관련 민자 투자유치 추진 현황, 셋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계획 및 추진 현황, 넷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 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제안이나 시책 발굴을 통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 실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선7기 연도별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 둘째 제안시책 선정 방법 및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 현황, 셋째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조류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해조류스파랜드가 준공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본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경위, 둘째 민간자본 투자유치 실시협약 체결내용, 셋째 2016년 이후 연도별 운영실적, 넷째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상황 비교 분석내용, 다섯째 해조류스파랜드의 재산권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 우리 군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석하였고, 올해 우리 군의 인구가 5만 이하로 붕괴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하여 완도군 행정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전입자 지원현황, 둘째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 분석 자료, 셋째 우리 군 전입자가 다시 전출한 사례 조사내용, 넷째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완도읍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읍 권역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읍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현황, 둘째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셋째 추후 공동주택 건축 허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도군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선수, 선식을 포함한 조업선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1년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 둘째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 셋째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농업 생산성 향상

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덜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읍면별 농기계 구입 예산 지원현황, 둘째, 최근 3년간 신청 대비 농기계 보급현황, 셋째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 및 대책, 넷째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읍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교통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읍내 도시계획도로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으로 굴착이 잦고, 지난 LPG 배관망 공사 이후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도로에 매설된 각종 맨홀 등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향후 도시계획도로 포장계획, 둘째 읍내 도시계획도로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지 않은 맨홀 현황 및 정비계획, 셋째 맨홀 정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를 놀이시설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도서

지역 특성상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가정과 놀이시설 간의 거리도 멀어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 셋째 장보고 어린이 놀이터 활성화계획 및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후변화 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농업경영은 기후의존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작목 보급 및 확대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기대효과, 둘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셋째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 내용과 확대 추진하였던 사례, 확대 보급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종결된 사업현황, 넷째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군수 신우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감내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내외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값진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선7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군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실현하는 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양훈 의원님, 조인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 6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화합을 위한 지역 내 갈등 해소방안에 대

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산 태양광사업에 따른 우리 군 입장입니다. 본사업은 주식회사 쏠리스에서 약산면 관산리, 우두리 260필지, 124만 평방미터에 149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85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차로 99메가와트, 2차로 50메가와트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쪽, 태양광사업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도로 점사용, 환경영향평가 등은 해당 기관에서 나머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산면에서 번영회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주민의견을 한데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약산면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발행위 등 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약산 태양광시설에 따른 송전관로 신지면 관로 매설 추진에 따른 우리 군 입장입니다. 약산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쏠리스에서 약산면 관산에서 신지면을 거쳐 완도읍 농공단지까지 지중송전선로 약 21km를 매설하기 위해 우리 군에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식회사 쏠리스에 지역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국도와 국지도의 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굴착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의견과 도로관리청 의견을 수렴하고, 신지면 반대대책위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설명한 후, 11월 초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이와 관련된 우리 군 입장입니다. 현재 신지면에서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본사업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하수도 등 공공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완도항 중앙방파제 사업추진 배경과 완도군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85억 원으로 완도항 북방파제와 주도 사이에 방파제 497M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1991년 완도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해양수산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 확정된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중앙방파제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확정된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어항 내 정온 수면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어선척수를 180척으로 예상하여 항내 정온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중앙방파제 건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16년 9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어선 수 증가에 따른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어선연합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방파제 건설이 재반영되었고, 지난 5월 전라남도에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있는 조류소통 부족과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장단기 방안을 마련해서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군민 화합을 위한 지역 내 갈등 해소방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민

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진방향 등에 대해 사전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초기에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관련법 검토와 민원 해소방안 등 선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갈등사업 및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화합을 위한 지역 내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과 함께 힘써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표방하신 민선7기 군정 구호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인데, 본의원은 이 속에 군민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도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김양훈 의원

그런데 현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

의 상황을 보면 과연 화합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농경지 확보를 위해 간척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완도, 고금, 약산 등 간척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농사가 최우선이었던 간척지, 민간기업이 태양광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찬반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태양광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사업입니다. 또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정책사업이고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그런 경우는 저의 입장에서조차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과 또 의회, 주민, 사회단체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태양광 발전 3메가와트 초과분 발전사항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자부 발전 허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의견을 제시할 때도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의사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 의원

우리 군에서 2번 회신을 산자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그렇고 나중에 2차 재문의검토서에서 보면 “완도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지역 생산성 유세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즉 태양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군수 신우철

아니죠. 지금 현재 약산의 경우도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대로, 찬반이 있는 경우 그대로 산자부에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회신으로만 봤을 때는 정부시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군수 신우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약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앞으로 행정절차가 개발행위 허가와 더불어서 도로점사용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

도록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또 성실히 안내를 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은 주민들 수용성 확보가 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게 대립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찌 보면 법대로만 하겠다는 행정절차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 중에서 개발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면서 도로에서부터 500M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약산 태양광 발전기반이라 해도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에 규정된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법 적용이 꼭..... 개발행위에 적용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유치 반대 측은 대부분 청년들이 주축입니다. 청년들은 약산의 환경파괴를 막고 평생을 살아가고 지키고자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군수 신우철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전문가들은 향후 식량위기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 몇 톤에 어르신들이나 이쪽이 다 농사를 포기하고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완도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좋은 말씀.....

○김양훈 의원

약산면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산 태양광 송전선로가 신지면을 통과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신지면민들의 우려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동향을 잘 알고 계시죠?

○군수 신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지면 태양광 선로를 밑에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본안질문에서 답변해 드린 것처럼 도로점용과 더불어서 굴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 기관 협의를 요청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미 신지면은 풍력발전시설 관련부터도 돈사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일부 주민들 간에 신뢰와 화합, 공동체 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업체 측의 풍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금품으로 일부 주민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관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신우철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갈등들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지면 풍력발전 송전선로 매설을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 업체 측에서 풍력발전 증설을 앞으로 더 계획하고, 관로를 추가로 매설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 없고요. 200mm 관이 10개, 1개 관이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일부 신지나 이렇게 주변에서는 앞으로 추후 것을 계산해서, 앞으로 이런 허가나 이런 것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관로를 추가 매입..... 매설해 놔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려서 그 부분도 군수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지면을 군의..... 이번에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 중심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도로를 비롯한 생활기반, 자연환경이 망가지고 전자파 걱정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지면과 약산면에는 불신과 저주의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내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물리적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지면에서는 벌써부터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송전선로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 굴착 및 매설 허가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대책이나 아니면 지역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행정절차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안내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게 되면 군수님도 따르겠다는 얘기사죠?

○군수 신우철

아니, 이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수용성을 (청취불능)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만약에 주민들이..... 신지면민들이나 약산면민들이 도로 사용 허가를 못하겠다, 굴착을 못하겠다고 막으면서 저지했을 경우, 거기에 그 수용성을 따를 수 있을지.....

○군수 신우철

찬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용, 불수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물론 행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어찌 보면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피해

가 없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부정책을 무작정 거부 또는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주민 이익과 의견도 반드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추진 주민 수용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항상 기억하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항 중앙방파제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항 중앙방파제사업은 민선6기 2016년 9월에 정부 항만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들의 찬반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 부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중앙방파제 축조와 관련된 주민의 해소, 갈등을 위해 군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주민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중앙방파제는 1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정온 확보를 해서. 그러다가 2차 항만기본계획에는 그때 당시 어선척수가 180 척으로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 다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중앙방파제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라남도과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은 지금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고 전라남도가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전라남도과 또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김양훈 의원

사업착공 전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또 행정절차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 신우철

그런데 다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건의에 의해서..... 지금 같으면 전라남도 경우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선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건의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 형태를 취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김양훈 의원

또 완도항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정온 확보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류소통 저하, 해저터널, 완도항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중앙방파제가 생긴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북방파제에 소통구를 만드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 그 주변에 또 선석까지 반영하는데 항만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50M 물양장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지하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수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항내가 오염되었다고 할 때는 식당들에다가 종합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기적으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도뿐만 아니라

고금, 군외, 신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방파제에서 막아져 있고 중앙방파제를 막고 그러면 조류소통이..... 이 선창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하게 조류소통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군외나 고금, 신지 이런 쪽은 배제가 되고, 이쪽 완도 읍내권 항만 정온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방파제 같은 데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조류소통이나 이런 것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방파제 건설은 정온 확보와 청정환경 보전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형사업 관련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사회가 분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원인을 분석해보면 초기대응이나 준비 부족, 주민소통 미흡, 면밀한 검토 미흡, (청취불능) 행정의 조정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이 주민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갈등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특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다음은 8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고흥 간 국도 대선공약 반영 추진현황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년 동안 숙원이었던 완도 고금에서 고흥 거금까지 42.4km가 국도 27호선으로 승격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액 국비 약 9,000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5개소 건설 등 도로 미개설 구간 27.4km의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국도 승격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국도 승격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도 승격 이후 조속한 공사착공을 위해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도~고흥 간 국도 건설을 대선과제로 발굴해서 전라남도에 건의를 하였고 지난 9월 대선공약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야 제20대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전라남도과 함께 완도~고흥 간 국도 건설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약산에서 금일 간 연륙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또는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수정계획 반영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고흥 국도 대선공약 반영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금일 출신 조인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에도 거기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군수님, 백리섬섬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신우철

여수 돌산에서 고흥 명량 구간 10개 섬이 교량으로 연결된 그런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군수님, 총 길이가 39.1km 연륙·연도사업입니다. 여수 돌산, 고흥 명량 10개 구간에 11개 교량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도 우리 고흥~완도 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리섬섬길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리섬섬길은 39km, 완도~고흥 간 국도는 42.4km입니다. 군민께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발전과 총 연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목적이 매우 흡사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예)

이 사례가 우리 군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위한 최적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신우철

예, 우선..... 제가 본안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우선 예타 면제사업으로 하려면 국도로 승격됐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국도 승격이 됐기 때문에 20대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으면 그때 새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타 면제사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예타 면제사업에 특히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경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대선공약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전라남도에 확정돼서 되어 있고, 앞으로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거기에다가 대선공약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호 의원

군수님, 민선7기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일이 고흥~완도 간 국도 승격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할 일이 군수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군수님이 노력하신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서로 다 해나가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인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다음은 10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완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관광정책 기초입니다.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비교우위의 해양자원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도권을 중심으로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등 권역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완도군 전역을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관광자원 확충 현황입니다. 완도군 전역에 3,354억 원으로 체도권에 2,878억 원, 청산권에 77억 원, 남부권에 257억 원, 동부권에 141억 원을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현황과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현황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붙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최근 3년간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승인 20개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미승인지점 3개소를 포함해서 총 23개소를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9년 292만 9,000명, 2020년은 542만 4,000명, 2021년 9월 현재, 439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승용차 1대당 4명을 일괄 계산하는 차량계측 방법으로 인해 2019년에 비해 방문객이 290만 5,380명 증가하였습니다. 2019

년과 2020년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된 것을 감안하여 증가원인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내시설보다는 한적하고 개방된 실외 관광지인 명사십리 해변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관광객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올해 7월 스마트 무인계측기를 주요 출입구 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현황입니다. 기존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도권은 웰니스 관광의 대표 테마가 될 해양치유와 신지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인물을 활용한 사업이 완공되면 역사 콘텐츠와 전국 유일의 국립난대수목원의 산림치유가 결합된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등 이른바 남부권은 소안 항일의 섬 테마공원에 이어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중이며, 윤선도의 시가문학으로 역사를 배우고 완도군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맛볼 수 있는 문화관광거점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과 신흥 생태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등 청산권은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고, 동부권은 생일도 생일레이크 포토존과 남도명품길 조성으로 힐링 콘텐츠를 확충했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금일 명품해변을 연계한 자연 힐링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권역별 특화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섬 관광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안도, 생일도, 청산 여서도, 금당도 등 4개 섬에 전체 1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소안도는 완료되었고, 생일도와 여서도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당도는 금당8경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요트사업 민간유치로 해상힐링 관광상품을 출시하였고, 관광숙박시설과 연계한 요트사업 민간유치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체험형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온라인 관광마케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 여행작가, 블로거 등 여행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섬테마 여행코스과 힐링코스 그리고 차박여행 등 맞춤형 투어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집중 홍보해서 관광행태 변화에 따른 개별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코로나로 인한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여행인식 변화는 저밀집 지역과 야외 중심의 여행으로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무려 93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돌파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1인 세대와 나홀로 여행객을 위한 혼밥 식당도 확대 지정해서 개별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인센티브형 지원사업의 개인, 가족단위 관광객 모객 시 백신접종완료 여부를 반영해서 인센티브 혜택기

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도 방역 단계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수 분산을 유도하고 관광지 내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시설소독과 방역수칙 안내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촌민속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2002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전시물 보유 현황은 어류박제 246점, 패류 1,701점, 선박류 40점, 어구 47점, 미술품 86점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관람객수는 유료 417명, 무료 1,905명이며, 금년 상반기 관람객수는 유료 159명, 무료 456명입니다.

이어서 16쪽,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대책입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구성으로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공간 구성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완도 어촌문화의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 어촌민속전시관 기능을 유지하고 수목원에서 청해포구 촬영장을 지나 정도리 구계등까지 연계한 우리 군 대표 관광코스와 함께 활로를 찾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박물관 유치를 통해 기존 어촌민속전시관과 해양생태전시관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완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관광 분야 세출예산 구성 비율을 보면 7.43%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완도관광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의 현주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번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1기, 2기 완도관광의 핵심은 장보고대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브랜드화한 관광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신지대교를 1998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하는 등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번 자료 올려주세요.

민선3기, 4기, 5기는 해신드라마 촬영장 유치,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조성, 무명의 섬 청산도를 전세계에 알린 슬로시티 청산도, 보길대교 연도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완도관광의 절정이었다고 봅니다. 관내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들 그때가 그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황금기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6기, 7기 들어와서는 계획만 있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이 실종되었

거나 퇴보되었다고 군민들은 말합니다. 민선6기, 7기 기간 중 미래계획이 아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관광정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1기, 5기와 비교했을 시 경쟁력이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안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일도, 청산, 여서도, 금당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해서 17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워드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그에 걸맞은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내 유일하게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서 산림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완도에서 고흥 간 해안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앞으로 완도에 대한 접근성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맞은 곳에 따라서 우리 완도를 해양관광의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여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답변을 우리 군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군정을 함께 하고 있는 본의원 또한 정체 또는 퇴보되고 있는 우리 군 관광산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우리 군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관광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우선 천혜적인 해양관광자원 255개나 되는 섬이 그것도 군도로, 권역별로 모여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이 최대의 장점이 되고 앞으로 다른 데에서 흉내를 낼 수 없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요. 완도를 청정바다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완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바다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해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도 다른 데에서 흉내를 낼 수 있는 관광자원이.....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대라는 것이 타지역에서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천혜적인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의 잠재력은 군수님의 답변처럼 매우 높다고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1기, 5기 및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시 공격적인 홍보 등 대응전략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신우철

만족한다는 표현은 할 수 없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는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3번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입니다.

군수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전남권에서 목포, 순천, 신안, 담양, 여수, 보성 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2020년도에 이어 2021년, 2022년도에도 100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0선에 선정될 관광자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100선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지금 분야별로 선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완도가 여행 만족도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완도가 여행 만족도 1위를 했던 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걸맞은 방역활동을 전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족단위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완도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여행 만족도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말고요. 지금 해양치유산업은 시작단계니까. 민선6기, 7기에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대내외에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완도를 홍보했던 것, 그것이 크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고금면 출신이, 미국 뉴욕에 사는 분인데 완도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조차 완도에 대한 홍보는 정말 잘되어 있더라.”라는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에 나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충분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해양치유를 미국..... 미국 나사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러나 국내 관광객, 국내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많이 데리고 오느냐, 이것도 또한 완도관광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차별화된 관광정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통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자료는 함평군이 추진한 자동차극장 및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나비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극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자동차 1만 700대가 다녀가는 등 비대면 문화행사의 가능성을 발굴하였고 4시간은 바다에서, 4시간은 숲에서, 8시간은 숲속에서 노는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차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한때 신안군은 염전노예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등 몸

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은 2009년도에 반월도와 박지도에 사시사철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도록 보라유채꽃, 아스타국화 등의 꽃을 심어 섬이 퍼플로 물드는 속도만큼 관광객도 늘어나,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2015년 대비 4.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섬을 컬러마케팅을 한 사례로 미국의 CNN 및 폭스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신안 박지도 퍼플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차별화된 관광정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두 지자체 함평과 신안 여건에 아주 알맞은 그런 관광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도에 맞는 관광정책도 앞으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적인 그런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물론 우리 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했겠지만 나타나고 있는 성과와 완도관광의 현주소를 한번쯤은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기조입니다.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체도권,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4개 권역별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총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도에 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해양관광을 접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그동안 완도가 청산과 보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섬 관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듯이 2019년도에 우리 군 관광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태풍이 8개 왔습니다. 전후로 해서 태풍 때문에 입도를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섬을 축으로 하면서도 체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특히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곳은. 그래서 국립난대수목원이 형성됨으로써 섬길로 국도 77호선을 타고 가면서 해안노을길과 더불어서 소쇄포 세트장이 있고 그리고 민속전시관과 더불어서 구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 치유마을이 불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에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서 약산에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과 역사공원이 이루어져 있고. 약산에 보면 해양치유숲과 더불어서 해양치유체험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보면 생일도에 가고 싶은 섬과 더불어서 금일의 해당화 해변, 그리고 금당8경과 더불어서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권은 노하, 소안, 보길권에..... 보길도에 거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예송, 예작 교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송 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전개해 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완도군 전역을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고 바로 현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

의 해양관광자원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선6기 공약 중 해상케이블카 설치, 힐링유람선 투어, 수륙양륙버스 도입 등이 그나마 차별화되고 우리 군이 추구해야 될 해양관광의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약했던 내용들은 답변서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케이블카 부분은 용역을 마치고 타워에서 신지상산까지 계획하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앞으로 더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경쟁력을 본다고 할 때는 상왕산에서, 상왕산에서 타워를 경유해서 상산까지 가는 이것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를 하기로 결심한 기업도 “그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3.2km 구간, 이것 목포보다 짧은 구간입니다. 3.23km 구간이 되는데요. 그런데 상왕산에서부터 타워를 경유해서 신지까지 가는 것,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런 규모의 케이블카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용역을 이미 마쳤지 않습니까.

○박인철 의원

용역이라는 것은 타워에서.....

○군수 신우철

타워에서 신지까지 했고.

○박인철 의원

그 용역은 했고. 그러면 방금 말한 상왕산에서.....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난대수목원까지 이루어진, 더 확충된다면 난대수목원에서 상왕산에 와가지고 상왕산에서 장보고대교까지, 장도까지 가가지고 여러 그런 계획들도..... 저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방금 군수님이 말씀한,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자하고.....

○군수 신우철

우선 기업에서 나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용역을 맡겨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확장력, 지속력 그리고 일관성에 대하여 이런 일련의 내가.....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의문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항 이행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나마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우리 군은 잘 이행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 다만, 공약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실천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관련되는 지역민들로 구성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붙여서 이것이 이 시대에 실천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요. 이것은 지금 상황에 오히려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이 나올 때..... 그동안에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하거나 중단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중단되었다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관에서만 중단되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가 바뀌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입니다. 여기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해양관광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트렌드가 해양관광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관광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위드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치유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미래에 신성장 동력산업은 치유산업이다.”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이 시대에 걸맞은, 가장 알맞은 미래신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12페이지, 해양관광도시 육성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도권 관광자원은 국립난대수목원과 장보고유적지, 신지 명사십리,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중 완도수목원은 우리 군이 다시금 관광 활력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동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청해진 장보고 시대에 이어 제2의 부흥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국립난대수목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데 고생하셨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이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군수님?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산림청과 전라남도, 우리 군이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것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과 전라남도, 그리고 완도군이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빨리빨리 조치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고, 거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수립 초기부터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관계공무원 파견을 제안해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국립난대수목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이나 운영은 산림청에서 할 것이고 문제는 수목원을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로 흡수할 것인가입니다. 군수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존해야 될 시설, 그다음에 연구시설, 그다음에 전시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되는데. 우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저 아름다운 곳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35%의 난대림..... 35%를 차지하고 있는 저런 곳에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저런 상황에서는 힘들어서 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왕열차를 우리가 제안했고 앞으로 기본계획에 상왕열차를 반영해서 누구든지 저 수려한 경관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원이 조성되었을 시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숙박, 음식, 지역특산물 판매 또한 완

도움을 비롯한 타읍면과 연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박인철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외 원동항은 지방어항으로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입구이자 완도의 관문입니다.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완도대교를 지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향이며 완도수목원과 원동항은 반드시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원동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어항은 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의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군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어항인 원동항을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무공 역사공원사업으로 2,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군수 신우철

전라남도과 저 부분은 긴밀히 해야 됩니다. 우선 이충무공 기념사업이 85억과 190억, 275억 사업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에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권역의 범위를 더 넓혀서 역사공원화사업, 그 동안에 이순신 관련해서 35개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분명히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역사공원화사업을 한 2,00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에는 타 지역의 거북선하고 이순신 동상을 세우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고금도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맞게 역사공원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중간에 있었는데 시간상 빠르고요.

다음은 남부권 기준입니다. 남부권 관광객의 80%가 윤선도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보길면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완도관광의 70%를 점유했던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관광객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신우철

그동안 청산과 보길도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루어졌는데 더 비중을 뒀던데가 청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길도가 그동안에 조금 침체되었는데요.

그러나 두 군데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산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치유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어항 미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범바위를 세계적인 명소화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길도는 예송과 예작에 교량사업과 더불어서 예송을 세계적인 친환경 해수욕장인 블루플래

그 인증을 받게 하고, 그리고 완도권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함으로써 앞으로 청산, 보길도를 중심으로 하는 (청취불능) 관광이 이루어지면서도 또 동부권과 제도권의 관광산업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은 완도군 관광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남부 관광의 기조는 테마를 활용된다고 봅니다. 보길면의 수려한 경관과 유적자원을 활용하고 노화읍은 체험과 먹거리 위주의 테마를, 소안은 항일정신을 테마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부권 관광정책입니다. 미리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금당8경을 중심으로 한 금당권역의 관광 활성화도 많이 주문하고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당면은 행정의 중심지인 완도읍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감, 박탈감 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금당면민들의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관심도를 배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8경을 소재로 한 관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이미 금당8경은 금당도 가고 싶은 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당에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추진될 때 금당8경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 최근에 해안수산부에서 주관한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금당권역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4억의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시설 구축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당8경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당면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군민들이 외국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타지자체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을 만들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지자체에서 흥내를 낼 수 없는 것이 치유산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겸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완도의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흥내를 낼 수 없는 것은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것, 그다음에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고, 그리고 바다 밑에 맥반석이 깔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과 더불어서 바다생물 서식이 가장 많은 곳, 그러면서 앞으로 트렌드가 식품의 안전성인데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 곳. 그런데 265개나 되는 섬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모여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 흥내를 내지 못하는 우리 군만이 지니

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 장점들을 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치유나 산림치유는 그렇더라도 나머지 장점들은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에 못 미쳐서 하는 말입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듯이 여수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지만 작년도보다 13만 명이 증가된 397만 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자료와 같이 섬지역 및 농촌지역의 생태관광이 증가하고 전 시관 등 할인, 코레일 테마열차 20% 할인, 렌터카 10% 할인, 관광지 입장료, 백신 인센티브 등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인근 해남군의 경우에는 안심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백신 접종이 완료된 관광객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비대면 시대에 단체관광객보다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흡수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다음은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란 정책의 일환, 추진, 관리, 운영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은 그 정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작년도에 400만 명, 금년도에는 9월까지

44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이제 통계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입니다마는 차량이 1대 통과하면 4명 그다음에 큰 버스는 뭐 30명, 40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대부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사실 허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명사십리에 스마트 계측기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사십리,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요, 저도 그것을 스마트 무인계측기 자료.....

○군수 신우철

입구에 보면.....

○박인철 의원

예, 저도.....

○군수 신우철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인철 의원

계산하면 1인..... 자동차 1대를 4명으로 잡고 해보니까 우리 군에 9월까지 한 100만 대 정도 더 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1일로 치면 하루에 한 2,400대, 방문자는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계측이 정확하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왜 저감되어 있을까. 이 정도의..... 군수님의 말씀,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2004년도에 해신을 촬영했을 때 그것을 더 넘어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남창 아니면 저기 북평까지 차가 밀렸어야 되는데. 과연 무인계측기를, 스마트

계측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가. 그래서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계측 및 측정에 있어서 군수님이 무인계측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11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코로나 이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한 것이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대면으로..... 비대면 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식당과 건물물판매점 등의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고 확진자가 방문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불안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군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에 주기적으로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해서 언택트 온라인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8번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입니다. 이중에서 전남지역은 3곳으로 목포와 해남 그리고 고흥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언택트 관광정책은 모든 지자체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이라든지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관광 100선이라든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우리 군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관광콘텐츠 개발에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잠깐 쉬었다 하십니까?

○박인철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허궁희

그러면 군수님도 쉬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쉬는 그런.....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계속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9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사진상의 광고 알고 계시죠? (예)

군외 교인동에 설치된 완도 명품광어 홍보물입니다. 군수님,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 광고를 보고 완도 광어를 먹고 싶어 하는

데..... 이것은 좀 군수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가서 마땅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식당이나 횡집 등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겨우 회센터에 주문을 해야 광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완도를 찾는 이들이 본의 원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군에서 야심 차게 조성해 놓은 음식 특화거리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식당마다 광어는 취급하지 않아서 광어하고 전복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전복만 먹었다고 하는 민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완도산 광어를 취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류수협, 협회, 음식업계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이 쉽게 완도 광어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소비원 중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먹거리, 즉 음식입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군수 신우철

예, 동의합니다.

○박인철 의원

흔히 완도를 해조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해조류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뷔페식 음식과 함께 찐전복 등이 나옵니다. 다른 음식은 다 소진됐는데 전복은 남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완도의 음식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개발 등 음식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이제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추진과 더불어

어서 치유밥상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전부터 우리 군에 걸맞은 그런 음식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효를 못 거뒀는데요.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서 치유밥상이 같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전복하면 군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1일 1복하면 1월 변신한다는 말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는 전복, 전 군민들에게 먹게 하려면 먼저 맛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맛이 있어야 군민들이 먹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관광 미식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개발 등 운영전담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이제 전복 소비와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활전복 위주로 유통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해 보니 미국 LA로 수출했더니 냉동전복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복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홍수출하를 시킵니다. 이 홍수출하를 할 때는 모두가 다 활전복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대량으로 홍수출하가 되는 이것을 어떻게 수요가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요인인데. 이번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냉동전복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와 같이 홍수출하가 될 때는 냉동전복으로 또는 순살 전복으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1인 1가구가 930만이 넘어요. 그래서 40%를 점유했기 때문에 이제 1kg, 2kg 단위 활전복으로 유통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냉동전복을 유통하는 것을 우선 전복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각 유통에 또 지원을 해서라도 확대해 간다고 그러면 전복 소비와, 또 가격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접 군인 강진, 해남에서는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민관이 전문적으로 협력해서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지역의 관광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현실에 맞는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신우철

저희들이 이미 관광재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지금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공단을.....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한다고 할 때 처음 용역에 수영장, 타워 이런 것들을 넣었던데. 거기다가 마침 그러면 관광재단 설립을 플러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우리 최정욱 의원님이 질문에 넣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용역은 관광을 주제로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 하위조직으로 팀이 만들어져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위치상 접근성도 많이 떨어진 탓에, 일전에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박물관이 유치되면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지금 그것은 발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장보고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해수부에 1차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박인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인근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섬 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의 어촌 생활사를 알아보고, 엿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촌민속전시관은 다양한 전시물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과감한 리모델링과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보완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해양문화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군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들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 관광사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관광도 잃고 더 소외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대중교통 그러면 코레일과 버스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티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시티버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완도를 어떻게 편하게 오라고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광객들이 완도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에 비해 여행지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인근 기차역으로 하루에 두세 번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셔틀버스 예산을 두 번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활용을 하다가, 한 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됐던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추자도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보안되고 확충된 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완도투어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으로 의료관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만 “해양지구, 해양지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완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령화가 3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로, 서울로 이렇게 병원에 다닙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딱 완도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병원까지 3시간 20분이 되니까 딱 병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그런 것까지, 복지차원의 의료..... 완도 사람들의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시나리오별로 위드 코로나 변화상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변화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변화가 예측이 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군의 관광 분야 최대의 강점은 265개의 유·무인도는 저마다의 특색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가능성과 경쟁력이 뛰어나고 전복, 광어, 다시마, 비파, 흑염소 등 건강, 보양, 농·수·축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객 어느 곳이든 간선도로에서 5분 이내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획의 요인은 해양과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이고, 2025년이면 목포, 강진 경유, 부산 고속화 철도교통으로 영남권 관광객들을 유치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차 구간이 2023년에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분야로는 특산물인 어패류, 해조류, 비파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의 관광자원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텔, 리조

트, 레저시설 등 체류 및 이러한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축제, 섬 역사, 문화 자원 등 유·무형의 관광자원 활용이 매우 미흡합니다. 해상교통이 불편하고 태풍, 안개, 폭풍주의보 등 해상날씨가 해양관광의 매우 위협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체류관광객보다는 당일 방문 수요 증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약하고, 급속한 노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관광산업 추진동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가 창궐한지 2년 동안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가을축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2년을 코로나19를 핑계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대규모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각 관광지별 콘셉트를 잘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섬의 날 제정, 섬 진흥원 출발, 섬 엑스포 개최 등 섬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이 부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섬 관광사업이 우리 군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부각시켜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완도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다음은 2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상공인 현황은 식당과 카페, 유흥점, 민박업 등 4,673개소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1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1만 2,573개소에 14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공공 배달앱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 여수 등에 인근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가맹점이 없거나 이용자 수가 적어서 운영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가맹비나 이용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운영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배달앱에 비해서 사용자를 묶어둘 요인인 할인 등이 적어서 민간 배달앱 이용량의 3%에 불과한 저조한 이용률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 공공 배달앱 이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3쪽,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보수 수수료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에 따라서 이달 말부터 지원예정인 7월 7일 이후 집

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정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생하는 지역경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식당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례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군 소상공인의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답변서를 보면 지원사업들이 작년에 받았던 답변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데, 올해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올해 특별히 추가된 것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자금과 전통시장 노점상에 소득 안정지원자금, 그리고 낚시, 어선, 농어촌, 민박 재난지원금과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긴급민생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군비로 낚시어선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또 장례식장에는 방역물품과 위생업소에 무인자동 손소독 디스펜서, 페이스섄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앞두고 서서히 소비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바로 직전에도 지역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지원계획도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들로만 최소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까, 군수님?

○군수 신우철

우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치유산업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내년 해조류 박람회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역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설군 아래에 최초로 해서 전남도민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4년에 생활체육회 축전 등이 개최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본의원이 최근에 접했던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해남, 화순, 영암, 함평, 무안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군수 신우철

아니,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내용은 대부분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한 것이고요. 저기를 보니까 영암에서, 영암에서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박인철 의원

아, 우리 군하고 동일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별개로 군에서 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의 4,673개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들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님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잘 알죠? (예)

코로나19 이후 외식시장의 소비패턴이 상당히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이 기존에는 짜장면, 치킨 등 일부 메뉴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비대면 문화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메뉴가 다양하게 되고, 배달시장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연계되는 할인혜택 부여, 이용수수료 절감 등을 공공 배달앱으로 개발,

도입하면 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아까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상공인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질문과 별개의 몇 가지만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남동발전 금일읍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에 제출한 금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29일 완도군과 남동발전사는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월 6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총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수님도 수차례 직접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의 본안질문 내용과..... (웃음) 좀 떨어진 것이라서.....

○박인철 의원

아니, 이럴 때 아니면 군수님한테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군수 신우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인철 의원

아니,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가 왜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설명회 때 군수님께서 직접 남동발전으로부터 처음에는 2,000억, 나중에는 1,500억입니까? 주

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돈으로 금일~약산 간 연도별 사업에 투입하면 빨리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군수 신우철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완도에서 고흥에 가는 해양관광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조인호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듯이 20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간다고 의외로 빨리 순국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안과 지금 사안이 달라진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에 걸맞게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고흥을 거쳐..... 그것은 군수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군수님 아주 고생하셨다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5km 1,500억을 주민사업비로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 사업비 1.5%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1,500억 원을 주민지원금 사업비로 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남동발전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비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1,000억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매몰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상풍력은 전기사업 허가 취득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시행합니다. 이때 SPC에 투자한 주주와 이사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줄지 말지, 또 주면 얼마를 줄지를 결정할 사안이지, 남동발전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마치 1,500억의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주민지원금이 금일을 주민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안군청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운영수익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인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안질문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인철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 제가 답변하면 끊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한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군수님과.....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도 승격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협의각서가 있는데. 이 양해각서, 협의각서에도 남동발전이 우리 군에다

가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군수 신우철

별도의..... 우리가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의장 허궁희

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의장 허궁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뭐 해상풍력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뭐 3020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군수 신우철

그래서 그 박인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나중에 간담회 때 시작 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앞으로의 계획,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신우철

다음, 다음은.....

○의장 허궁희

마무리 됐습니까?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다음은 2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의 기본현황입니다. 완도항은 1991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후 2010년부터 지방관리로 전환되어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은 방파제 915M, 물양장, 잔교, 야적장 등이 있습니다. 공사 중인 시설은 현재 514억 원을 투입하여 중앙방파제 497M, 유선부두 246M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완도항 이용현황은 여객 71만 명이 이용하고 화물 331만 8,000톤을 수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2020년 기준 연안 및 소형선박의 이용실적은 출항이 약 8만 2,400여 척이고, 입항은 8만 1,900여 척입니다. 다음은 완도항 항만기능 활성화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완도항의 선박 정박 수용 가능 용량은 여객선 등 대형선박 기준 4선석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형 및 연안선박은 물양장과 어항구 및 잔교를 포함해서 약 460척이 수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29쪽, 각종 보급시설 현황 및 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완도항 내에는 2만 8,000제곱미터의 야적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야적장 및 어항 관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지원시설은 얼음 지원시설 1개소, 급수 지원시설 1개소, 급유 지원시설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급시설의 추가 소요량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

와 우리 군, 전라남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항만 보급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도항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대체부두 240M, 여객부두 2선석, 진입도로 1,000M, 물양장 496M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과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추진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조업선단 전용부두 신설 등 완도항 기능 활성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코로나19 방역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잘 대처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우리 군이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의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1년의 한 번 뿐인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개인이 아닌 최정욱, 최정욱이 아니라 군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군수님께 질의하는 것이니

다소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도항은 타시군에서 보기 드문 천연의 풍광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관문입니다.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물양장 및 주변 경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척수 증가와 (청취불능)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항만시설 중 선박, 정박시설과 보급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본의원은 완도항을 항만 및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춘 종합항만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신년사와 군에서 발행한 희망완도 소식지에 우리 군의 백년대계라 생각되는 완도항 개발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민선 6기와 7기에 완도항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신우철

모든 것은 항만기본계획에, 평가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항만기본계획과는 별개로 해서 전라남도과 해양수산부에 (청취불능) 부잔교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북방파제 인근에 부잔교를 재배치하는 것. 그리고 환경 정비와 더불어서 야외 경관등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1부두 물양장을 증설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시공완료로 하였으며, 그리고 접근성과 접안 기능 향상을 위해서 완도항 입항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더불어서 완도항 배후부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등 완도항 개발에 관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해수부에서는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수정계획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추진될 제4차 항만 기본수정계획 수립 시에 조업선단 전용부두와 더불어서 북방파제 일원의 환경오염원 정비 등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다시피 완도읍에 등록된 전체 어선이 722척이고 군내리 어촌계 어선과 레저, 선박 등 360척이 완도항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연근해 선단 입항 선박 수가 지난해 5,000척이 넘었고, 올해도 벌써 3,000척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어선 수로..... 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8,000척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완도항 물양장에는 해양수산부 기준 어선 340척이 정박 가능합니다. 태풍 시에는 우리 지역 선박에 대피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 어민들이 어선을 정박할 장소가 비좁아서 외지 배들이 오면 배를 못 세우게 하고 밧줄을 풀어버리는 일도 있어서 외지 배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수님, 본의원은 완도항의 선박·정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

리 군에서는 부족한 저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서 향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정박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본의원은 80~90년대에 꽃게철이면 수많은 꽃게잡이 어선들이 완도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많던 꽃게잡이 어선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4, 5년 전만 해도 통영 삼천포 장어잡이와 연승어업선 입출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신우철

여기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꽃게 배가 우리 완도항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11월까지는 서해안에서 어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로 진도를 중심으로 서망항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11월이 넘어가면 우리 완도에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만 연안 연승과 그다음에 통발, 이런 것들이 선석이 부족하죠. 선석이 부족해서 여기에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멀치잡이 그 자망이, 선석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보더라도 연안 연승과 통발,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박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꽃게도 사실 예전 같이는 지금 안

옵니다, 우리 완도에.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 추자도 인근에 천혜의 어장으로..... 전국 각지에서 각종 어선들이 몰려드는 조업지입니다. 이곳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은 어획물의 하역 및 어구 손질 등을 위하여 근거리 항구로 이동하는데, 조업지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목포항까지는 약 2시간, 여수항까지는 6시간, 통영항은 10시간, 부산항은 14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사실은 추석 무렵 연휴 때 제가 우연히 걷다가 현장이 하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워서 갔더니,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동안에는 저도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는데. 물론 “우리가 배가 부족하다, 배를 댈 데가.”라는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하니까 또 달라서요. 오늘 사실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저 동영상도..... 외지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군수 신우철

예, 여기서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요. 항 관리는 전남도가 하고 그리고 모든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것과 같이 선석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방파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의대로 얘기해서 강독에다 무엇을 만들고 성동에다 무엇을 만들고..... 한계 밖입니다, 한계 밖이

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우리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한다면 진즉 됐을 겁니다. 다만, 국가 기본계획의..... 그러니까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면지 이렇게 해야 그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런 부분은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전라남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요. 저 선석 확보를 위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북방파제 주변에 선석 확보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물론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보면 현실을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요, 또 역시 뭐라 해도..... 군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실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으면..... 아니,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북방파제로부터 농공단지 해경부두까지 해안도로 및 물양장을 개설하여 중·소형 선박이 정박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신지 강독에 외지 선박 전용부두를 활용하여 하역 및 어구 손질과 입출항 시 기름, 얼음, 부식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군수님이 기존에 추진했던 것 맞죠?

○군수 신우철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정부인 전라남도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전라남도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미

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농공단지 해경부두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를 조성하여 선별장과 급냉동창고, 제빙과 급수시설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군수 신우철

이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서부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안 됐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로 했으면 좋겠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이럴 때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예, 계속 추진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겠죠?

○군수 신우철

이것은 이미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품광어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예산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또 희망을 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이 정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연근해 선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면 외지 배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올 것이고. 1일 50척, 배 한 척당 한 2,500만 원, 우리 군에서 빼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 정도 비용으로 하루에 1억..... 12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우리 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큰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군수 신우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류뿐만이 아니라 생필품, 그다음에 출하하기 위해 준비, 이런 것 포함하면 약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한 척당 쓰고 간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요즘은 통영에서 가족들이, 여기에 입항을 하면 봉고차로 가족들이 완도까지 올 정도로 한 척이 쓰고 가는 돈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선박 유치를 위해서 우리도 얼음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예, 선박 유치는 개별관광사업과는 달리 그 계절에 상관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매우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완도항 개발 관련 관계기관에 많은 건의와 중앙부처 방문 등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도 중요하지만 완도항의 미래지향적인 개발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도항 개발이 늦어질수록 우리 군 발전도 더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의 완도항 개발계획이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의 많은 규제 때문에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완도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정치적 역량이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완도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예,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다음은 24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어촌의 현실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활력이 떨어져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웰빙과 웰니스 치유산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양자원을 특화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신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완도 해양치유사업과 계획은 2030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로 우선 1단계는 2022년까지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99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해양치유산업 추진방안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인프라 기반구축을 통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3단계로

해양치유 전문병원과 해양건강리조트로 헬스 투어리즘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우리 군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 헬스소재 생산기지로 개발하여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각 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산업 추진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서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후속조치로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시설의 준공에 대비하여 해양치유시설 관리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을 개최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해양치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해양기후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214일 1만 6,000명이 참여하였으며 116명의 지역강사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국가개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 협력사업으로 확보된 공동협력연구소를 금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50억 원의 해조류바이오 생산시설, 160억 원의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관련시설의 운영주체 선정을 앞두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를 비롯한 지역신문과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는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투자설명회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잠재적 투자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전략산업으로서 지자체 소멸을 위해 대응하고 어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관련하여 먼저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할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군수 신우철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져서 내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최정욱 의원

예, 아마 지금 본의원도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보통 개장을 하려면 그

렇게 보는데,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단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지금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요. 공단이 설립된 후에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요. 적어도 6, 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공단 설립 후에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내년 봄에는..... 한 1, 2월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6, 7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다면 심의가 끝난 후에도 한 6, 7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른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만 꾸준히 하시고 충분히.....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준비만 많이..... 장단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토론, 또 서로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결정을..... 예를 들자면 공단이 좋냐, 공사가 좋냐, 경영 위탁이 좋냐, 이런 것에 따라 어떠한 준비만 철저히 하고 나서.....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군수 신우철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이..... 동네 목욕탕이나 스파가 아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완도만 하더라도 16개의 테라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6개의 테라피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테라피까지 이렇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치유산업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있고,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에 준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준비 과정이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벌써 5개 지자체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는데 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지자체가 우리를 따라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다. 저것이 단순한, 이런 것들..... 대중탕이나 그다음에 스파 같은 곳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시설이 끝나면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돌리면 되지만 여기에 치유, 해양 치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워치와 연동시켜 나가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에 공단에 대한 심의가 끝나더라도 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빠듯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욱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해양치유센터를 어떻게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저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에요.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왜 저것이 꼭 공단으로만 가야 되는가. 사실은 저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공단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군수 신우철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해양치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작년 전부터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국내에서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해양치유라고 하는 것은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지만 그 테라피가..... 지금 16개 테라피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하는데 반드시 전문성이 따라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 효과를 4조 2,000억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것이 공공성이라고, 손해를 다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수적으로 주변의 치유산업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거기에 호텔과 리조트 그다음 골프 테마파크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저것은 공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독립성입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한테 할 때에는 저것이 이익이 남아야, 이익이 남아야 민간사업자가 따를 수가 있는데요. 저것이 정

착되기까지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론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하기도 어렵고. 또 민간사업자가 그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성을 갖추는 민간사업자를 국내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렵다. 다만 공단 설립 후에, 공단 설립 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은..... 아까 박인철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재단과 같이 연계시켜서 일정부분은 중복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과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국민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조금 더 지역여론이나..... 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 번쯤은 더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서 서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좀 길 것 같고 그래서요.

○군수 신우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하고 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충분한.....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가졌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이 됐고,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다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단이란 또 치유산업은 아까와 같이 전문성과 공공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민간과 이렇

게 또 연기하는 부분도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서서는 해양치유산업을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군민께 큰 기대 심리를 주고 계십니다. 또 군수님께서서는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수입을 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영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적자가 8억 7,200만 원, 우리 군 부담액이 1년에 9억 4,2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달라서 그때와 뭔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치유센터 하나를 중심으로 그때 계획서를 수립한 것이죠, 기본계획을.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치유센터와 문화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이것을 포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몇 만을 보느냐, 방문하는 숫자를..... 그때 우리 때는 아마 10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더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숫자를 10만으로 할 것이냐, 6만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치유센터 하나로 분석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포함해서 할 것이냐. 이런 차이였죠.

○최정욱 의원

예, 이제 그것이..... 저도 그것을 다 보긴 봤는데요. 사실은 그 금액보다 평가원에 보면, 보고서를 보면 본의원이 계산을 하면 한

30억 적자가 나와요. 물론 군수님 지금의 말씀처럼 10만이나, 지방공기업은 한 6만으로 1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4만이 덜 온 것으로 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공기업 평가에서 해놓은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게 해놓아도 사람이 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도 받아봤습니다만.

주위에 이렇게 보면 보성은 430억? 우리보다 백 몇 십 억이 더 큰 것으로 짓고 있죠, 주위에 보면.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거기도 우리보다 한 20억 더 들여서 340억이던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바로 준비를 하고.....

○군수 신우철

그것은 스파 아닙니까, 스파?

○최정욱 의원

그것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것만 봤어요.

○군수 신우철

그래서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대중탕하고 보성 녹차탕이나 그다음에 온천욕을 하는 데,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다.

○최정욱 의원

아니, 보성 녹차탕이 아니에요. 거기는 보성..... 우리하고 엇비슷해요, 조금 구조가 다를 뿐이지.

○군수 신우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구분해 말씀을 드리면, 치유와 치료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치료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약이나 주사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건강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16개의 기본적인 테라피가 운영되고 여기에 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배쓰용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이 일반 온천욕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해수탕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용역서에 보면 2022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우리 치유센터를 건립해서 매년 1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연초마다 흑자를 내서 10년 후에는 26억씩 이렇게 흑자를 낸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님, 이것 예전에 용역에 의해서 했던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신우철

그것은 그 수치를 얼마만큼 예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자, 치유산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연간 몇만 명이 올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85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15만 명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과 6만의 차이, 이런 것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이나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그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벌써 지역경제에는 4조 2,000억이라는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1년에 22억을 투자합니다, 장보고장학회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정도는 군에서 투자가 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여하고 있다,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군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하고 했더라면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익을 내겠다, 또 이것이 옴으로써 이러한 부가가치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떤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 해양치유가 옴으로 해서 어떤 기대심리를 엄청 준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 지금에 와서 공공성이니, 어찌니 이런 적자를 이야기를 하니 까 군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왜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공공투자와 민자유치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성공한다고 보는데. 2022년까지 3,000억 해양호텔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를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 분야와 민간투자 부분으

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분야는 993억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부분, 민간투자 부분에 호텔 앤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 테마파크, 레지던스, 주로 이러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호텔과 리조트는 부지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우리 군과 교환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골프테마파크는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민간투자에 들어가면, 우리가 8,000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대로 계획이 된다면 민간투자 부분도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규모 있게 우리가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할 수도 없고. 물론 최정욱 의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완도 섬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향을 나타냈고, 헬기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워드 코로나 선언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러한 투자자도 완도에서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열심히 노력하는지는 압니다만 민자투자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1단계로 볼 때 3,000억이면 내년에 3,000억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돼서 질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민자가 같이 활발하게 우리 공공과 같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군수 신우철

예, 특히나 최정욱 의원님이 염려를 해주셔서 지금 투자의향을 나타낸 정도라면 당초의 계획보다 오버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고민했던 것이 중복돼서 투자의향을 나타낸 사람, 그때 고민을 했던 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소 지원되고 있지만 해양치유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완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해양치유가, 또 산림치유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예,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것이죠.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소, 문화치유센터, 실증센터 및 생산시설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준공 후 시설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는, 이것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이것은 지금 우리 완도에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해양생물바이오 연구센터,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서는 해조류와 전복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침투하는데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해양..... 마린드럭스에, 세계 마린드럭스 학술지에 게재를 했고요. 조선대학교에서는 공동협력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무래도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위탁비용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요?

○군수 신우철

아, 그 위탁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네요? (예)

2000년부터 식탁 다변화를 위해 해조류 연구개발을 줄기차게 해왔으며 국가에서도 식품연구개발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각 지자체 지정 업체가 대학교 교수님들과 공유하며, 식품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많은 개발을 했으나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식품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해조류 관련 식품을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열정을 가진 기업들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빛을 못보고 사라지곤 합니다. 민선6기, 7기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중요한 특별한 정책 지원 및..... 특별한 정책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6기, 7기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중 특별한 정책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조업체의 관리 및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신우철

우선 지금 이 시대에 걸맞게..... 그동안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역의 가공업체들과 중국, 홍콩 그리고 미국 LA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수출상담회 등을 개

최해서 상당한 성적을 올렸고요. 지금과 같이 그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에서도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은 뭐냐면 ‘야, 이제 그 시대에 걸맞은 그런 식품,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930만이 넘어가요. 전체 세대수의 40%가 돼서 거기에 걸맞은 식품, 가공식품 개발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식품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생길 것인데, 거기에 알맞게 이제 간편식품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새벽에 배송될 수 있는 새벽배송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가공식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그런 활성화 대책이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선 이런 상품들이 개발되면 같이 기존 업체들도 거기에 대한 가장 소비가 많은, 수요가 많은 상품들을 개발해 간다고 그러면 동반성장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지원도 좋지만 우리 제조업체는 그래도.....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하자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로, 경제지역 역할로, 여러 가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민선3, 4, 5기 때는 보면 공무원 1명당 공장 하나씩을,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두 번씩 서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개발을 또 해내고 지원책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만 받게 돼요. 그러다 보

니 소외된 업체들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번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무리 전문연구원들이 해조류를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여 생산을 한다 해도, 기능성 식품으로 소비되는 해조류가 우리 군 생산량의 1에서 5% 미만이라 전체 해조류 생산량에 소비 한계가 있다고 그러합니다. 오히려 군민들은 음식문화가 기능성식품보다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 해조류를 찾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신우철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앞으로는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어업인들이 없는 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염되지 않고 청정지역에서 자란 해조류를 꾸준히 생산할 대책과 우리 군 젊은 어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완도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한데. 군수님,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신우철

정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해조류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매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이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조류바이오산업인데, 여기에서 감태라는 해조류를 통해서 이미 치매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섰고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어서 그것을 개발한 기업은 2025년도에 우리 군과 25만 톤을 제공, 공급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해조류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인데,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전문적인 것으로 어업권 재정비와 더불어서 이제 육상양식의 필요성까지 대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질 배양까지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해조류 양식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남과 북의 교류 협력,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해조류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이후에 가장 알맞은 품목은 해조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어업인들이 앉으면 하는 말들이 파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런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래도 섬이나 어디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 울음 소리도 나고,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 해조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런다면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한들 오염되지 않는 해조류를 누가 생산할 것이며, 이제 그런 것이 걱정돼서요. 군수님도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군수 신우철

예, 그래서 젊은 청년들과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완도 해상, 특히 해조류와 전복, 희망이 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유통하는 변화를 통해서..... 아까 전복의 경우에 활전복 위주로만 했던

것을 냉동전복으로 이렇게 유통을 하고. 그리고 해조류산업이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할 때 “해조류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전복도 전망이 있다. 그래서 완도의 수산업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국민성, 그리고 문화에 맞추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해양치유산업을 건물만 지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아픔을 우리 군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진정 우리 군 발전을 걱정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작은 것부터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과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문제점과 장단점을 찾아 보완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치유를 알려야 되고, 그래서 완도를 찾아오게 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금부터라도 하늘에서 주신 천연의 섬, 완도의 장점을 살려 타군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완도를 가야만 볼 수 있고, 완도를 가야만 해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신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
 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부군수
 - 자치행정국
 - 경제산업국
 - 해양문화관광국
 - 기획예산담당관
-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부군수 봉진문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봉진문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공직자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답변을 계기로 군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체제로 조직 개편 이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2일부터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해양문화관광국 등 3국 체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국 체제 운영으로 군정의 분업화를 통해 책임성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 체제의 장단점으로는 일부 권한의 분산을 통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군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자율성 확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국과 부서 간의 상하관계 통솔범위의 혼란과 결재라인 증가로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어서 2쪽, 국 체제 조직개편 이후 성과입니다. 부서별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분업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중이며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체제로 조직개편 이후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7일자로 2국 1단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완도군에 국이 신설된 지 어느덧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처음 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했을 때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조례심사 때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체제인가. 답변서에서 기재된 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국이 꼭 필요한 조직인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이제 조직 내부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서에 나온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인구 10만 미만인 우리 군에서도 국 조직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을 신설, 2019년 11월에는 해양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총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의 3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부군수 봉진문

예, 맞습니다.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행정안전부에서 동규정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자치분권시대에 맞도록 지역별 특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 중앙부처에서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아무래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제도 개선이 주요한 개정 취지였습니다.

부군수님, 2018년 8월 국 체제로 조직개편 이후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2018년 국 체제 개편 시 29명이 증가하였고 2019년은 26명, 2020년은 14명이 늘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8년 8월 2국 1단 설치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원 조정 및 변경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국 체제 1차 조직개편 시에는 당초 정원 666명에서 695명으로 변경되어 2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자료는 정원관리기관표 직급별 정원비교 표입니다.

3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자료는 완도군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5급 사무관의 정원은 기존 5%에서 6%로 증가, 9급은 기존 11%에서 10%대로 조정된 모습입니다. 2018년 8월 국 체제로 조직개편에 따라 완도군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환경 및 주민서비스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민생행정 분야를 강화하

기 위하여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 간부공무원이 늘어나면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직결되니까, 아니면 업무 최전선에 있는 하위직이 늘어나면 행정서비스에 직결되니까?

○부군수 봉진문

일반적으로 간부공무원보다는 하위직이 등용되면 주민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본의원 생각에는 최전선에 있는 하위직이 주민서비스와 직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국 체제 개편 이후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국 체제가 도입된 2018년 인건비 집행액은 420억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18억, 2020년에는 34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증가는 매년 공무원 임금상승이나 정원 증가, 호봉승급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자료는 2018년도에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정원은 29명 증가하였고 인건비가 해마다 16억 가량 투입되어 5년 동안 총 80억 가량이 증가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이 자료는 2019년도 연말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변경표입니다. 당초 695명에

서 26명이 증가해서 72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자료는 2019년도 11월 1국 설치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에 따라 제출된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상 인건비는 매년 12억 가량이 투입되어 5년 동안 60억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합쳐서 조직개편에 따른 5년 동안 인건비 증가액은 약 140억 가량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결원이 많아서 현원과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시다마는.....

부군수님, 우리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예)

작년 11월에는 5만 인구가 붕괴되었고 점점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증가는커녕 유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조직은 방대해 지고 비대해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군수님께서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지역시책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인 코로나 예방이나 재난안전, 주민 공공의 구축사업 등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은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있고, 줄어드는데도 행정이 복잡, 다양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조직개편 이후 현재의 국체제를 완성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서에 나와 있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인 국 체제로의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3명의 국장이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국장들이 소관별로 전담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조직개편 이후 현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답변서에서 국장의 역할을 보면 대외협력 강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예)

아, 강화되었어요?

○부군수 봉진문

예,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조직개편 전 의원간담회에서 그 당시 담당 과장께서도 중앙부처 방문 등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5급 사무관인 과장보다 4급 서기관인 국장이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볼게요. 우리 군에서 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아무래도 국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국 체제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최초 의회 보고 때도 그렇고 본의원은 아직도 국 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렸다 줄이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답변서에는 간단하게 장점 3개, 단점 3개를 기록해 놔지만 우리 군 실정에는 여러 면에서 국 체제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보이고 국 체제로의 조직개편은 조직만 살찌우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 시간 이후에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군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조직운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조직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2019년 12월 민선7기 조직개편 때입니다.

○박인철 의원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시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가 없어진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런 안내판조차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팀별

로 조직개편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관리책임자가 아직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그전에 장보고사업소가 있을 때 번호 그대로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부착된 안내판은 군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허심탄회하게 현 국 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꼭 조직개편에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다음은 3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분야 회복대책과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구매가 훨씬 많았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밀키트,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구매와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역

시 입국 제한, 일정기간 격리 등으로 해외바
이어 접촉이 곤란하여 비대면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분야 현
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소비
자 심리지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위축된
경제 분야 회복대책 및 위드 코로나 대응전
략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
여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해양치유 특화시
장을 브랜드화하고,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정
기 야시장, 플리마켓 운영,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을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지
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3%였던 협약 이자율을 2022년 3.2%
로 인하토록 재협상하고,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해 대출한도액 상한선인 5,000만 원을 유
지하며, 재신청 요건을 완전 상환 후 2년 경
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여 대출 대상을 확
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
려금,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
다. 세 번째,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구입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공공요금 납
부 등 추가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8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속 운
영하여 착한 임대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완도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할인율을 유
지토록 하겠으며, 금년 300억에서 내년도
500억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농업 분야 회복대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농축산물 라이브커머
스 지원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도장터
와 완도군 이숍 등 농축산물 판매채널 입점
을 지원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유통비용 절감 및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물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농축산물의 출하물류비와 포장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의 상품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
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완도
자연그대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시
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소규
모 비닐하우스 50동, 농기계 800대, 벼 재배
1,368헥타르에 병해충 방제 등을 지원하겠습
니다. 러시아 등 해외시장을 개척한 완도쌀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홈쇼핑과 인터
넷을 통해서도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
는 한편, 노화, 고금 권역에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한 우
리 군 수산물 판로개척 대응방안입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판매채널을 확대하여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온라인 쇼
핑몰인 완도군이숍은 2004년 3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군에서 직접 운영했으나 2022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모바일 마케팅과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판매, 우체국쇼핑몰 연계 할인쿠폰 지원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수산 간편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대부분이 원물 상태로 거래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가공을 통한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편의성 중심의 즉석·동결식품,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개발을 지원하여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위축된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과 해외 주요 온라인몰 입점 등 비대면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수출시장은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치중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분야 회복대책과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 완화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우리 군도 그동안 위축된 분야를 어떻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상황 진단과 동시에 회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온라인, 모바일쇼핑이 신선식품 유통을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간편식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봉진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해외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수출상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의 식품박람회, 세계경제인대회 등의 온라인 수출상담회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공문과 외국어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원, 온라인 비대면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에서도 그렇고, 어제 군수님도 그랬고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에서도 그런데.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국내시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정이고. 국내에서 판매가 잘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판매가 잘됩니다. 우리가 당장 오징어게임이나 한류,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히트를 치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히트를 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해외, 해외.”만 부르짖는가. 우리 국내시장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그래도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영역이 더 넓기 때문에.....

○박인철 의원

아니, 영역이 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어디에 많은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에 한번..... 방금 말했듯이 자꾸 “코로나,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국내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저는 국내시장이 해외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한 발 앞서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 회복대책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치유 특화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완도군 지역특화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겸비하여 다양한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여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가 해양치유에 되는 뭐가 있습니까? 상품이 나오는 것이 있으며 또 해양치유가 지금 우리가..... 뭘니까, 노르딕워킹 말고는 뭐 또 있습니까, 지금?

○부군수 봉진문

예. 음식에도, 치유밥상도 개발하고 있고.....

○박인철 의원

아, 이번에 치유밥상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경제 활성화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해양치유산업은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해양치유, 군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백년대계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군민들은 배고파합니다. 당장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 당장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부군수님한테.

○부군수 봉진문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면..... 부군수님, 모든 것이 해양치유로 통합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해양치유로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다인가. 마차도 두 바퀴가 있어야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바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는 미래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군수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야시장 및 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우리 군에서 어떻습니까, 적합합니까?

○부군수 봉진문

과거 완도 전통시장 내에 야시장과 플리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500명의

방문객이 방문했고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 도에 계실 때나 여수에 가봤죠? (예)

통영도 가봤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가봤습니다.

○박인철 의원

여수 어떻습니까, 포장마차. 제가 매번, 올해..... 이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즉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완도에도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 없습니까? 완도에 포장마차가 있다면 인근에 완도뿐만 아니라 강진, 해남, 장흥 인근 분들도 다 완도로 올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놀이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수에 가보면 여수 원주민보다는 가까운 순천, 광양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의 대책으로..... 또 완도에 관광을 오신 분들이 밤의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그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얼마 전에 직원시책보고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완도의 야경이 저는 여수나 통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경관도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상가 상

인들과 잘 타협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인철 의원

요즘에는 접근성이 떨어져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죠? (예)

우리가 전에도 코로나 이후에 야시장도, 5월 시장에서 야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좀 더 크게 눈을 돌려서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e-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부군수 봉진문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리스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배달앱 이런 것과고는 다른 것이죠?

○부군수 봉진문

예, 다른 것입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물론 타시군, 시 단위에서도 배달앱으로 해가지고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실적은 민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어때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온라인시장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 농수산물 특산품 판로 개척이라든가 방금 부군수님이 말했던 완도군 이숍, 이랬는데. 이런 데에서 올해..... 다른 데에서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판로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군 완도이숍은 어떻습니까, 판매가? 예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월등히 늘어났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9월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판매.....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쪽에 개척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8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5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비해 2조원 이상이 늘었고. 이 분야에서 판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 주기 바라구요.

그리고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는 300억 원, 내년에는 500억 원을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완도 내수경기 활성화에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상품권 발행이. 그래서 내년에는 500억 그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더 늘리기는 어려울가요?

○부군수 봉진문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리고 지금 상품권 구입한도도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발행규모도 늘리고 한시적으로는 좋으나..... 구매한도액을 증액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군수님, 완도사랑상품권을 카드형으로도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상품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거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부분에 대해 잠깐만 묻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처 입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남도장터 홈페이지 입점 지원과 농수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외면 유자 제품 홈쇼핑 방송을 10월 중에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효과는?

○부군수 봉진문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완도가 수산군이면서도 반농, 반수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화 같은 곳을 보면 다 전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화도 농사가 많습니다. 완도군에서는 농사로 좀 그런 데가 금당, 생일, 노화도, 금일도 동백리 앞에 들녘이 있고, 저쪽 해수욕장 앞에 들녘이 있고 그런데. 이런 판매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로 온라인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동부권과 남산면에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설치하는 서부권역은 노화지역을 거점으로 소안, 보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부권은 고금지역을 중심으로 약산, 금일, 생일, 금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부권역 분소는 노화에 내년 국비 8억을 투입,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노화하고 고금이 됐든 금일이 됐든 두 군데에 분소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완도읍 대야리에 있는 것도 처음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노화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각각 운영인력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분소가 설치되면 운영인력은 정규직 1명하

고 공무원 1명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

하여튼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우리 생활에도 변화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소비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사항이므로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조속히 경기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우리 군 수산이나 농업 생산된 물량들의 판매추이를 보면, 올해도 보면 전복도 4~5월까지는 그런 대로 하고 5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 홍수출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때에, 이 시기에 뭐 특단의 대책들을..... 그냥 해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뭐 군수님이 냉동전복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 시기에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이것이 뭐야, 관계법령상 되는가, 안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다른 것처럼, 다른 수산물처럼 수매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해수부예다가..... 무슨 멀치나 이런 것들은 다 수매해 가지고 저장하지 않습니까. 전복은 빠져 있는데. 전복도 중앙정부에 수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군수 봉진문

예,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활전복에서 냉동전복이 활성화되면 그래도 홍수출하가 된다든가 했었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

들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우리가 그 시기만 넘어서면 전복값이..... 지금도 보니까 추석, 올해도 전복값이 좋고. 지금도 이범성 의원님도 유통을 하지만 어제 물어보니까 전복값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만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면 전복어가들이 그래도 한숨 돌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원도 좋지만 그런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다음은 8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최근 10년간의 환경변화 실태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기온변화입니다. 기온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으며, 평균 최고기온의 기온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 연평균 최고기온은 34.76℃였으며 최저기온은 6.58℃였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4.61℃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기온 14.06℃보다 약 0.5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폭염 및 열대야 현황입니다. 지난 10년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을 기록한 폭염 일수는 평균 9일이었으며, 최고치는 2013년으로 22일을 기록했습니다. 밤 최저기온 25℃ 이상인 날을 나타내는 열대야 일수는 평균 14.2일이었으며, 폭염이 심했던

2018년 28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30년간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폭염은 3.5일, 열대야 일수는 3.8일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해수면 상승 현황입니다.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해수면은 연간 3.12mm씩 상승하였으며 남해안은 2.65mm, 완도해역은 연간 1.92mm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수온 상승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최근 10년간 전 연안의 해수면 연평균 상승값이 지난 30년 상승값에 비해 1.18배 증가한 것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0쪽, 연안 수온 현황입니다. 대마난류 유입 및 남해 서부해역 냉수대 규모 감소로 연안 수온 상승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우리 군 해역 평균 표층수온은 15.99℃, 저층수온은 15.55℃였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각 0.63℃, 0.88℃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강수현황으로 지난 30년간 연 강수량은 평균 1,531mm였으며,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던 2017년을 제외하면 큰 편차 없는 강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심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8월 3일 시간당 강수량 75.2mm, 일 강수량 200.3mm의 비가 내리면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발생 시기의 변화로 2020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총 23개의 태풍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7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10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발생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30℃ 내외로 대류활동이 활발하여 태풍 발생의 최적

의 조건을 갖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신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2016년 제1차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재난, 재해, 건강 등 총 8개 분야의 19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42개 사업 중 32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기후변화 자료와 바다수온 예측 관련 연구사업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2021년 제2차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입니다.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인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계획이며, 현재 최종 검토완료 후 환경부 승인 대기 중입니다. 2021~2025년 5개년 계획으로서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보완하여 우리 군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취약성 분석, 리스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7개 분야의 추진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7개 분야 4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사업의 예산 및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발굴사업인 쿨루프, 쿨링포그 설치 지원사업, 고수온 내성 신품종 양식기반 기술사업,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차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확정 후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통해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현황 점검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배수펌프장 보강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금일 감목 외 3개 지역으로 금일 감목 배수펌프장 시설은 준공된 지 20년 된 노후 시설로 교체가 시급하여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동송지구는 2022년 신규 설치사업비 33억 원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은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 관리하고 있으며, 여름철 장마 전 일제 점검 및 보수정비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내 상습침수구역 해소 대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지구와 군내지구 등 2개소의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읍 가용지구와 우수관로 개량 8.8km와 배수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계속해서 19쪽 및 20쪽, 사업효과 비교 및 침수 해소방안입니다. 그동안 완도읍 상습 침수지역은 희래등, 5일시장 인근, 완도고, 행가촌, 빙그레공원, 완도초 주변이었습니다. 5일시장 인근, 완도고, 행가촌 등은 가용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으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래등 주변은 집중호우 시 배출구 유역이 협소하여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완전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토구인 해변공원 배수관문 내 배수펌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희래등 앞 침수구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공원 일대와 완도초교 주변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한 후 최대한 빨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군내지구 하수도정비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향동리, 완도초등학교, 삼호 아파트, 미림아파트 등 군내지구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관 준설과 우수관로 개량 7.2km 및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침수 예방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전년도 7월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후 9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든 행정절차 완료 후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침수피해 현황도입니다. 현황도 안의 사진은 2019년 6월 집중호우 시 완도초교, 삼호아파트, 미림아파트 일대의 침수 피해 사진이며, 나머지 사항은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종합 대응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9개 유형별 자연 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22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용역은 관내 자연재해 위험 감소를 위해 종합지역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9개 유형별로 구분, 종합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협의,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 최종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고, 우리 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제29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후위기대응 촉구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료를 세계 기후위기 현상 관련 지난 7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런 기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도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이상기후로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고수온에 의한 수산물 폐사와 해조류양식포자 탈락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대조기 기간 부두와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록적인 가뭄으로 노화, 보길 지역 제한단수가 시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지성 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아주 잘 알고 계시구먼요.

그러면 민선6기, 신우철 군수님이 막 들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할 때 선도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위기팀을 신설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이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 올해도 어민들이 미역 포자를 해서, 수온 문제로 해서 탈락이 많이 포자도 많이 탈락되고, 포자도 탈락이 많이 되고 감았던 미역도 많이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민들과 많은 협력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정보들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에 있는? 안 그러면 해양 뭇니까, 경영수산..... 뭐야, 수산경영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런데..... 물론, 자연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대한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농업하시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기상관계도 뭐 별정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도 뭐 퇴사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충원하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생겼는데 그 조직들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실생활을 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 있는가, 선도적으로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 뭐 사례가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그런 사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도·광역적인 차원, 우리 기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완도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좀 우리 군에서 하기는 벅차죠, 전체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면 대기 불안정 등으로 지역별 강수 편차가 심했고 야행성 폭우가 잦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34mm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기존 7~8월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에 태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에 군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2016년도에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해 왔고, 이번에는 2021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응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계획은 나와 있고 현재 환경부 승인만 기다리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 계획과 2차 계획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제1차 세부시행계획에서 광범위하게 수립된 분야별 대응대책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적응기반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6월에 탄소중립 지방정부실천연대라는 것이 있던데, 우리 군도 가입했습니까? (예)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예, 현재 가정 부분 온실가스 단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비산화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진행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략, 신재생에너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차 지원사업,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완도군 배출 온실가스를 감축함과 동시에 탄소흡수원을 증가시키는 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예.

에너지전략, 쓰레기 분리배출, 일회용품 자제 등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관내 상습 침수구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답변서에서 나온 상습 침수구역 외에도 이번 집중호우 때도 잠긴 곳이 있죠? (예)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도 이번에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왔죠, 가을비치고는. 그런데 그

런 비에도 잠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장마철 등 그런 폭우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화 층도 같은 데, 약산 가래입니까? 이런 데도 보니까 수확철에 그렇고. 보길도 통리 같은 데 염해피해, 뭐 가지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은 뭐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마는 그런 데에도 부군수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데도 보니까 지하수도 많이 필요하더군요, 비가 와도. 뭐야, 보길도 통리 같은 데는 대형 관정 정도..... 보니까 작년에 비가 좀 왔다고 해가지고 예산들이, 그 전에는 안전건설과하고 농업축산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들이 다 없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안 잡혔으면 지금이라도 부군수님이 챙겨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농업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등 제도적인 근거에 의한 기부 및 기탁 현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현금 30억 7,700만 원, 물품 23억 3,800만 원, 총 54억 1,5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기관별 기탁현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고장학회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30억 6,8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총 22억 9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고,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는 총 5,000만 원,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총 8,800만 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되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하여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7명, 민간인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최근 4년간 서면심의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4년간 기부 및 기탁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부 위탁받은 금품이나 물품 사용내역 공개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장보고장학회의 경우, 매년 4월 말 국세청 홈텍스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와 출연재산의 운용, 공익사업의 운영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매년 3월 말 홈텍스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사용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4월 말에는 홈텍스와 재단 홈페이지에 연간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기부금 모금액 및 배분사업 실적을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부자,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복복지재단의 경우 최근 4년간 고액기부자와 장기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사은증과 기념품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 명단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장보고장학회는 총 3,006명, 행복복지재단은 총 438명의 기부자 명단을 보존 중입니다. 매달 1회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기부사례를 홍보하고 있으며, 매월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기탁자에 대한 예우방안입니다. 기부증서 수여, 감사패 전수 등과 함께 기부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기간행물과 군 SNS 등을 통해 기부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기부자, 기탁자 감사의 날을 운영하여 모든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문자를 전송하고, 완도군정 홍보소식지 등을 함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부로 연결시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자 예우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추

진한 결과, 올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의 기부 한도는 지자체별 합산 연간 500만 원이고,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만 기부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제한됩니다. 모금 주체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각각 가능하며, 연간 모금 한도액은 없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역 특산물로 제공 가능하며 기부액의 30% 이내,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내의 기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될 것입니다. 100만 원 기부시 24만 8,000원, 500만 원 기부 시 90만 8,000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기부 강요는 엄격히 금지되며,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을 활용한 모금 또한 제한되며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모금만 허용됩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한도액 합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위원회와 고향사랑기부금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률에서 기부금의 모금방법에 대한 제약이 많아 시행령 및 지침이 마련되면 제도의 틀 안에서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고향사랑 챌린지와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4개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완도군의 기부금은 두 가지 있죠? 장보고와 행복복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기부금을 기탁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인재 육성과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하기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탁하고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지원해 준다고나 또 이렇게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해 지정해서 기부하기도 합니다, 지정기부금은. 그리고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금품은 어떤 절차에 한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기부금 배분사업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잘 기부하면 (청취불능) 대한 것은 꼭 좋은 곳에 이렇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청 홈페이지이나 홈택스나 이런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기부자가 기부모집 상환 및 그 사용명세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기부한 접수..... 모집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장학회 하고 행복복지재단에서 1년 사업 종료 후에 재단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에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홈택스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기부자 예우를 위해서 기부문화를 했을 경우에 그런 현황들을 결산하는 그런 부

분을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은 어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아까 보면 서면심의를 하고 또 모금한 기부금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을 통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떨습니까, 대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자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대면회의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올 9월에 이렇게 국회를 통과했죠,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을..... 고향세, 아까 이야기했던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그 마음이 딱 우리 지역사람들, 고향 향우들이 이런 지역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또 수도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많이 지역을 사랑하는 만큼 지방재정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향 납세를 한지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82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만간 우리 지역도,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향인들이 비교적 이렇게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고향사랑기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이라든지 호별 방문이라든지, 이런 모집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는 그런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아마 시행이..... 발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의 모집, 운영비용에 우선 충당을 하고 기금위원회나 재단을 설치해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보호, 문화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복지라든가 문화, 의료 이렇게 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확하게 잘 쓰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따져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례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우리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답례품

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금방법도 엄청나게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고요. 기부금에 대해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방지대책도 해주시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답변내용 부족으로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은 산림청 주체 2025년까지 군외면 완도수목원 일원 400헥타르 면적에 국비 약 1,872억 원이 투

입될 국책사업입니다. 계획방안은 한반도 난·아열대 식물 보존과 복원을 통해 군민복지와 행복을 위한 국립수목원을 조성 및 한반도 최대, 최고의 난대숲과 다양한 미지의 동물이 살아 있는 Living Museum, 즉 살아있는 박물관 조성입니다. 즉 지구별 주요사업별로 보존·복원지구에 전망대, 수석 확대, 연구시범지구의 전시 및 증식온실, 전시·관람지구에 교육특화 주제원 서비스·교육지구에 방문자센터 산악열차 탑승장, (청취불능) 지원·시설지구에 시설창고, 주거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전국 최대 난대림 군락지가 풍부한 우리 군 완도수목원을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및 산업화로 산림자원을 도모하여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바다와 산림을 어우른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2019년 올해 전라남도 내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로 우리 완도군이 확정되어 9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11만 466명의 서명부를 산림청에 전달하였으며 10월 대상지 평가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는 리조트, 호텔 분야 투자협약을 1개 기업과 체결하였습니다. 11월은 우리 군 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 달까지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20대 전라남도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이에 따른 잣은 청장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국립난대수목원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련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의 조기조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20

일,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올해 11월 이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청취불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청과 전라남도 간에 국공유림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2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시 연간 방문객 약 85만 명이 예상되나 실제로는 그 숫자에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로 약 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1만 8,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계획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우리 군에 큰 역할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기에 앞서서요. 답변서를 보고 참 유감을 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을 참 좋

은 수목원으로 만들고자 우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장짜리 답변서를 저한테 처음에 보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홍보도 좀 하고 더 많은 것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사실 나중에 받아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국장님, 난대림이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난대림은 아열대기후, 온대기후 사이에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림으로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일본지역이라든가 전세계 22개 국에서 중요한 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완도수목원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도군에 유치하고자 했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우선 완도군 난대수목원은 3,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최대의 자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대수목원의 가치를 알리고,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입지의 당연성에서 국제적인 위상이 될 것이고요. 또 생태

적, 자연적 조건, 또 역사적, 국가적, 연속성, 국가적 정책의 연속성과 가치공유 측면 또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완도수목원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즉 보조금 가치라든가 또 부족한 관람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립화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국가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전국민이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도수목원은 난대림 자연생물의 보고이자 남대림 연구성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식 중인 생태적인 자원이 몇 종류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 좀.....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지금 황칠이라든가, 동백 (청취불능) 770여 종 정도 되고요. 총 식물은 한 4,150 정도 다른 수달이라든가 (청취불능) 법적보호종은 한 820여 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하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엣그제 며칠 전에 22일 전남도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식을

했죠? (예)

그 협약식 내용이 뭐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국립난대림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라든가 행정절차 협력 및 조성, 운영인력 지원, 이런 것.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 교환 부분이라든가 진입로 개선, 직원숙소라든가. 아무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협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로 하지 않습니다.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전액 국비하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주변 환경까지도 다 전부 국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수목원을 주민들과 동반성장하자고 이렇게 했고 또 환경조성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우리 군에서 난대수목원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공 평행공간이라고, 그 복합공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방안을 개발해서 주민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특판 분야 개별화된 먹거리, 로컬푸드푸드존과 국립난대수목원을 하기 위해 가능한 조경수라든가 경관 화훼류, 그다음에 주민들이 영농화훼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소득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행정절차나 당면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현재 산림청에서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에 집행부에서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면, 선정될 경우에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난대수목원의 예산 확보로 인해서 이전에 기재부에 가서 한번 방문도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그전부터 기재부하고 유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선 의원

완도 국립난대수목원이 이렇게 개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또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관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승격되었다고 해서 도와 산림청에 그냥 이렇게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같이 이렇게 힘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예비타당성을 이렇게 통과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 이렇게 국장님께서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화훼농가라든가 육성, 향토 먹거리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에도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국장님, 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 리조트 호텔 분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진행사항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은재 과장님에게.....

○박인철 의원

예, 괜찮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투자협약 건은 저희들이 영무 토건하고 여수 예술랜드 두 개 업체에서 각각 1,000억 원씩 투자해서요. 총 2,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리조트와 호텔 이런 부분 투자계획이 협약되었는데요. 현재 당초에는 완도읍이나 군외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양쪽 투자자들께서 완도 군외보다는 신지 해안가와 접해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립공원지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 해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다 물 건너갔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일단은 국립공원지구 해지되면.....

○박인철 의원

아니, 이야기하십시오. 국립공원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 빠졌잖아요, 우리가 개발하는 데가. 신지면 국립공원을 할 때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국립공원 해제 건은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요, 신청된 상태이고. 금년 12월쯤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도 대체부지를 제공한 만큼 해제가 된다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은 불확실한.....

○박인철 의원

지금 불확실한..... 그러면 그것 국립공원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가 끝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리조트하고 호텔을 한다고, 짓는다고, MOU를 체결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국립난대수목원이 산림청하고 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이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이것이..... BC가 나온다면 바로 개발에 착수할 것인데. 모든 것은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뭐 투자를 한다고 해봤는데. 주민들은 군외면이나 어디 그

런 부위에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들어올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예술랜드도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고 완도도 고금 쪽에다가 땅을 샀다는 말이 있고, 또 듣기로는 신지 쪽으로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혀 제로로 갔습니까? 아니면.....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로베이스죠. 전혀 지금..... 신지 쪽의 국립공원이 해제가 안 되면 전혀 가망 없는 것이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박인철 의원

사업자들이 돈이 되어야 투자하지, 무작정 난대수목원이 들어온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거제하고 해가지고 완도로 이렇게 됐습시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타당성이죠?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의원

특히 예비타당성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도나 산림청에 다 위임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우리 군에서 선정할 때 우리 주민들 11만

4,000여 명 정도 서명운동을.....

○박인철 의원

아니, 그 서명하고 예비타당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야, BC가 나와야 예비타당성이 있지. 이것이 뭐 500억이 넘어가고 2,000억 돈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나 산림청에 맡겨 놓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니까 2021년도 7월에 중간용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저희들이 산림청을 할 때, 지금 거제하고 할 때도 산림청 쪽에 많이 방문해서 우리 군의 의지를 말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갈 때도 저희들이 같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같이..... 3자가 같이 해서 계속 산림청을 다녔고,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기재부에 갈 때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닌 것은 아는데. 특별히 우리 군에서 예비타당성을 넘기 위해서 우리 군만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좌석에서) 지금 예타 그 부분은 현재 산림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BC 기준 1.03

정도 시설투자를 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내년에 상반..... 원래 예타 부분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신속히 추경에 기본설계비 33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부분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로 나오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입니다.

그동안 지난 4년 가까이 지역 군정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행정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조류박람회의 개최목적입니다. 박람회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해조류산업 발전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박람회를 지난 두 번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하고자 했습니다만 팬데믹 상황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취소까지 하게 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최목적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대행사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위약금 지급 등 정산내역입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총 45억 8,1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그리고 해조류박람회, 해조류심포지엄 그것을 해가지고 3,900만 원을 집행했구요. 집행 잔액은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박람회 준비기간 중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홍보비, 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시면 작년도에 박람회를 한 번 연기를 했구요.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람회를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 결정이 남과 동시에 대행사, 행사운영 이벤트하고 전시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대행역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박람회..... 대행사하고 행사 계약을 하고 작년도 12월에 박람회를 일부 연기하면서 공사 중지를 해놓았는데 그때 기간 중에 지금까지 공사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행사 측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준비한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부분은 타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리고 타절 정산금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해조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완도 해조류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관광까지 포함해서 3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조류양식은 지금 나중에 수산경영과에서도 해조류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7,000 어가수에 57만 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해조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부표 지원사업, 김 활성화처리제 지원사업 등 보조금 약 50억을 보조하고 있고요. 고품질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안 김 우량종자 개발, 감태 시험양식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차 산업 분야입니다. 관내에 해조류산업의..... 해조류박람회의 주된 목적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고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해조류박람회의 하나의 꼭지였는데요, 지금 관내 해조류 가공공장은 190여 개 업체에서 주로 단순 가공 위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차 가공이라 하는 것이 후코이단,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현황은 여러 개의 업체는 되지 않고요. 해조류가공공장 신축, 기계설비, 냉동·냉장저

온시설 등 보조금 21억을 보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수송을 통한 바이오 어떤 산업을, 해양바이오산업을 이제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2007년도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설립된 뒤로 올해부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30년 남해안권 발전 종합.....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이제 완도군의 꼭지를 하나 넣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업무협약은 그동안 프랑스에 있는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조류 기능성 연구를 통한 산업화소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 콘택트가 조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보타메디하고 해조류 감태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화 사업을 같이 협약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다 보니깐요 저희가 이제 해조류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 5월경에 150명의 국내외 조류학 연구자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해조류산업 분야하고 양식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연기되고 또 취소됐죠? (예)

완도군이 지금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해조류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는데, 방금 그 국장님께서 목적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조류박람회는 2014년도에 처음 준비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 지역의 해조류산업이 1차 산업과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고차 산업화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을 해보겠다, 그것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놀러오고 찾아오고 그럴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완도가 더 알려지고 많이 오게 되면 지역의 각종 경제도 활성화되겠다.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본의원은 해조류박람회는 국내는 물론하고, 해외에 해조류의 가치를 소개하고 청정바다 완도가 해조류 생산지의 최적지임을 알리는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조류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 개발 등 가공, 유통의 발판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용하면서 국내 해조류산업의 선도를 위해 개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국장님, 그 답변서에 해조류박람회 개최 목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관광거점 육성산업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치유산업 그리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 그런 모든 군에서 하고 있는 주된..... 그러니까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국내,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러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치유산업도 그렇고 관광산업도 그렇고 해조류박람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양훈 의원

지금 그 연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치유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단지 관광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도 관광은 1년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새벽으로 생각하고 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도 관광산업은 기지개를 펼 때이고, 지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박람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면 관광산업은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을 항상 같이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지금 탄소흡수원은 육상에 있는 식물들, 주로 나무들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해조류 관련 학자들을 자주 모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해조류박람회 그리고 심포지엄을 하면서 “해조류가 지구상에서 차지하는 탄소 정화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흡수원 소재로 해줘라.”라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시다.

○김양훈 의원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해보지는 않았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용역 관계는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김양훈 의원

요즘 해조류나 이런 것이, 육성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정부정책도 탄소중립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조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좀 찾아 가지고 충분히 해조류가 치유산업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했던 박람회는 이미 취소 결정이 되었고, 기초지자체에서 또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차제에 해조류 산업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박람회에 버금

가는 이벤트 행사를 해수부나 전남도가 나서서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물론 이벤트 장소는 완도군이 제공하고 예산이나 행사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부터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존에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제행사를 승인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에서만 신청권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조류박람회를 우리 완도군에서 두 번을 했지만 앞으로 해조류박람회는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를 통해서 저희가 해조류박람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도, 그리고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제 국제행사를 하려면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2022년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후반기에 만약에..... 상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 2023년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늦어진다면 2024년도, 그러니까 시간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2025년도에, 그쯤에 박람회를 준비한다면 걱정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용 등 일부 집행했지만 대행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손해나 이러한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 담당 박람회 사무국장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사운영은..... 2020년 8월경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11월경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용역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짧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준비한 부분,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준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은 얼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아주 적을 것으로.....

○김양훈 의원

위약금이나 이런 손해 문제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으로 추후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페널티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코로나 팬데믹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불가피한 어떤 자연적인 재난이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의원

페널티나 이런 적용은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조류양식 현황이 답변서에 표로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 통계를 잡을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다른 데에서도 점차 해조류양식을 확대하고 있어서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50%에서 60%는 전국에서 완도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에서 제공하는 그 해조류 생산량에 대한 통계수치가 그때그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정확성을 올리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로 만든 식품이나 제품 중에 단순 포장, 유통하는 상품 외에 가공하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 몇 가지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공직생활을 하면서 완도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가공제품을 고차가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 군에서도 설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데요.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 가공에 머물러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이나 의회에서 생각되는 것이 식약처에 기능성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한 15억에서 20억을 임상시험까지, 2상, 3상까지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성음료, 컨디션이나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하려면 15억에서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완도에 가면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다,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지역관광산업, 지역의 해조류산업 그리고 관련 산업도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다짐..... 지금은 너무

단순한 것이 많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저 김은 김밥, 미역은 생일날 먹는 것 또는 출산하고 먹는 것, 또 다시마는 라면스프에 국물 내는 것, 이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자세하게 어느 제품이 있고 가공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는 전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은 해조류를 보면..... 참 이것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조류 건조 시에 그게 조금 비위생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국장님도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저희도 현장에서..... 저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지에 가면 툇을 도로 옆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가 밟고 지나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지시를 하겠지만 실무과에서도 진짜 지도점검을 잘해서 우리 해조류가 다른 인식이 안 되게끔,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친환경적 이미지만 남길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엇그저께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개관식에서 경과보고 때 해조류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저희가 저기.....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는 어

차피 취소돼서 못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과 담당부서가 얘기를 한 결과, 그래도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뭔가 나름대로 규모는 적더라도 축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해조류페스티벌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7억 8,000만 원 예산 요구를 예산팀에 해놨습니다만 장보고 수산물축제, 거기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훈 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거기에서 장보고재단, 그 관장 경과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의회에 보고한 적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이것 이?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저기.....

○김양훈 의원

방금 예산 확보까지 다 되었다고 했는데.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니, 저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조류박람회 사무국은 내년에 해조류박람회를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1월에 인사가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고 아직도 결정..... 아직도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결정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인원이 남아..... 지금 다섯 팀이, 팀장들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몇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직원은 다 본청으로 전보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그대로, 박람회 사무국 일부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해조류페스티벌, 그러니까 장보고 수산물축제를 하면서 해조류 관련.....

○김양훈 의원

아니, 국장님.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김양훈 의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날 거기서 경과보고를 하실 때 “해조류페스티벌을 하면서 한상어워드 수상자를 전부 다 초대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초청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니, 저.....

○김양훈 의원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아닌 그쪽 관장님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 일을 추진하면서 100가지의 일이면 100가지 일을 전부 다 의회에 보고를 먼저, 선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공감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다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내부에서.....

○김양훈 의원

아니, 국장님. 그래도 이런 경우는 틀리지 않습니까? 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고 사후대책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먼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그 외부에 있는 외부사람이 그 수장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개관식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냐는 얘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내년에 다 올려놨다.”,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저희가 박람회를 하지 않을 때는, 그때 3년, 4년 그 기간에 하지 않을 때는..... 할 때는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엔 해조류박람회를 못하기 때문에.....

○김양훈 의원

예. 그 이유는 알아요, 아는데.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진행 순번이.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진행 순번이 지금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뭐 해서..... 하면 좋죠, 물론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하는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해조류페스티벌이 아니라 “장보고 축제 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없이, 아직 확실히 100% 정해지지 않은 그 내부계획, 계획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해조류페스티벌 그 명칭이 나온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바로 그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순번도 틀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전혀 차질 없이 이런 일 없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공식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2021년 해조류박람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내

외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유관기관 또 해조류 관련 기업 등 각계에서 다양한 문화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심포지엄이 개최 목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개최 후 후속대책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이 국내 최고 해조류 생산지임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국내 해조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에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상으로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소관이니까 물어보렵니다.

엇그저께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준공식을 하셨죠? (예)

그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뭐니까? 장보고한상 사무국장님, 우리 군에 (청취불능) 같던데.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저기..... 명예의 전당,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서요. 일반공무원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서 별도로 이제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할을 지금 하

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날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분이 경과보고를 하고 나중에 5분 정도 발언하던데, 그 발언 들어봤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뒤에서 손님들을 보느라고 정확히.....

○박인철 의원

도대체 그분이 뭘니까? 그분이 뭘데 우리 군민들한테 선전포고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한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 군민의 여론입니다. 아니, 그분이 도대체 뭘데 한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전포고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그분이..... 황상석 씨인가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정확히 듣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분이 어떤, 우리 완도군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날 분개해 가지고 치를 떨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계시고, 도의원님이 계시고, 의원님들이 계시고..... 외부 손님들을 모셔놓고 선전포고를 합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좌석에서) 예, 당일 경과보고 시에 장보고글로벌재단 황상석 사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를 두서없이 함부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사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 전체가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주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아무리 우리 군에서나 집행부에서 좋은 것을 하더라도 다 생각의, 판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군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군민들을..... 5만 군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야기도 뭐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라면 100번, 1,000번을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대표발언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주의해 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완도 유튜브 및 SNS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총 4개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2013년에 개설하여 10월 5일 기준 구독자 수는 1,317명으로 지난해 대비 72%가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8,9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6건의 영상을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명 수산물 전문 유튜버인 수빙수를 통해 전복 홍보 콘텐츠 네 편을 제작, 게시하였고 공무원 브이로그, 관광객 VR 영상 제작, 해양치유 프로그램 소개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SNS 운영실적입니다. 올해에는 콘텐츠 플랫폼 사용료, SNS 이벤트, SNS 기자단 활동비 지급 등 7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SNS의 주요 실적으로는 중요한 군정소식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총 238건을 제작, 게시하였고,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상황 등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군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면 쓸 데 있는 완도 잡학사전의 알쓸완잡을 매주 1회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

선방안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제작 기간과 업로드 주기가 길어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 획기적인 구독자 증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상대적으로 재생기간이 짧고 임팩트가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유발해 구독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향 홍보를 지양하고 매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쪽,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건수, 예산 및 효과입니다.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해양치유산업, 전복, 광어 등 우리 지역특산품, 주요 관광지 등을 지면, 인터넷, 옥외광고, 방송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광고별 피드백 실시 현황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간을 정하여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불특정다수로 지역특산품 판매, 해양치유산업 인지도 상승 등 구체적인 효과를 계량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품의 생산시기, 집중 출하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오래 기억하고 구매하며 방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양훈 의원

예, 담당관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1년의 홍보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중 유튜브나 SNS 홍보비는 어떻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금년도 기준 우리 군 홍보 예산은 1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유튜브와 SNS 운영 예산은 8,140만 원으로 전체 홍보 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군정 홍보 시에 우리 군이 어떤 점을 고려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군 홍보의 중점은 먼저 전복, 광어, 해조류 등 특산품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나 업무를 우리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게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예, 그 군정 홍보든 어떤 홍보든 그 주요 공약대상, 홍보할 분야든 정확한 목표를 정한 후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홍보방식을 보면 과거부터 시행해 온 방식 계속 그 연례대로 반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고. 타지

자체나 기관에서 세운 형식을 흉내 내는 용도로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답변서에 나와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구독자 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남 같은 데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3,400명, 장흥은 1,900명. 이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그 유튜브와 SNS 구독자 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SNS나 유튜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직원도 채용하고 전문 유튜버와 연계도 시켜보고 브이로그 등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체의 특성상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야 많이 구독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유튜브 운영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산 편성에 비해 제작 건수가 너무 작게 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단순한 그 게시 건수를 따져보면 2000년도에는 외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EBS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코로나가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든지 이럴 경우에 담화문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외주 제작이 한 8건, 담화문이 12건 또

하나는 타기관의 영상을 게시했는데 이게 수협에서 다시마 요리 등 해조류 요리법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채용해서 게시한 건수가 한 14건 정도 됩니다. 이런 건수의 차이이고 금년에 특별히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은 지난해 약 7,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주 제작, EBS하고 계약한 금액이 한 5,000만 원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담당관님, 유튜브 우리 군 것 많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튜브를 볼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 담화문 아니면 코로나19 상황 그런 부분. 아까,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협에서 음식 요리하는 것 몇 가지, 그 외에는 제가 크게 보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군 관광정보라든가 아니면 특산물을 알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홍보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 이렇게 좀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의 유튜브 제작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5분에서 8분까지 제작기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장에 가서 또 찍어 와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까지, 이것을 일반공무원이..... 전문직을 채용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좀 시

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작시간 자체를 굉장히 축소합니다. 지금은 한 2, 3분대로 축소해서 이 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이라든지 계절별 음식 아니면 우리 해산물 생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시켜서 앞으로 제작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완도군은 12개 읍면이 섬으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섬마다의 특색이 있고 또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 12개 읍면을..... 원래는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면 또 촬영해야 하고 편집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며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2개 읍면만 돌아도 엄청 많은 홍보 효과나 광고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관리는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직원이요? (예)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 일입니다만 그 전담했던 직원이 한 2개월 병가 중이어서 최근에 또 제작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요. 가을에, 지금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좋은 관광지, 청

산도 같이 풍광이 좋은 곳이 있어서요. 요즘의 트렌드는 또 관광지에서 춤을 추면서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이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우선 외주를 줘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 지역의 유튜브나 그 지역 SNS를 보고 많이 찾아가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하는데. 저희들은 그 SNS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보신 분들이 전화가 와요. 여기 완도 관광지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수목원, 완도타워 이쪽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섬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그 홍보 타겟은 무엇이고 그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홍보의 그 타겟은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품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이 무엇이나. 또 우리가 활용하는 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SNS나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일반 TV라든지 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특산품이나 관광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별로 차별화시켜서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군정 홍보대상이 군민이라면 조금 더 군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관광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답변자료를 보면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성과 향후 계획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이 홍보라는 부분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기초라든지 방향을 조금 더 보다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그 군정 홍보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각각의 매체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서 유튜브는 관광객 위주로 좀 한다면, 페이스북은 군민 소통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 광고 건수.....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중 광고건수와 또 광고에 들어간 예산 대비 우리 군의 광고 효과나 그 피드백은 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광고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 광고를 하면 1년 내에 하는 양이 일정, 특정 기간을 정하면서..... 특정매체를 통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특정다수가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관광지 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라든지 우리 군정 홍보가 얼마만큼 이렇게 높아졌나 하는 부분을 계량화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에 대한 피드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한번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통, 홍보 효과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 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고 운영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단위든 분기별이든 피드백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광고 운영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 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더 추진하면 파급력이 더 강한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실에 홍보팀이 있죠?
(예)

시책홍보하고 관광홍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 시책홍보는 주로 아마 대부분 지면을 통해서 많이 되고요. 관광은 아무래도 방송이라든지 SNS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철 의원

거의 뭐 홍보팀이 시책홍보에 바쁘죠, 관광홍보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니, 관광홍보도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박인철 의원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따져 보면, 제가 쪽 봐보면 거의 관광홍보보다는 우리 군의 시책홍보, 거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러한 말을 물어보느냐면요. 우리 조직개편하기 전에 시책은 홍보부에, 관광홍보는 관광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통폐합이 됐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존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홍보는 관광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시책홍보는 홍보부에서 하고 관광홍보는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 홍보를..... 그전에는 영상미디어팀이라는

것이 아마 관광파트 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쪽 부서에 있다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영상홍보를 하면서 관광과에 있다 보니 관광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영상미디어 홍보 자체 범위가 커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담당관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과에서 이 홍보팀을 빼면, 영상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팀을 빼다 보면, 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시사철, 적시적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냥 굼직굼직한 것, 각 홍보계에서는. 청산 슬로시티, 장보고 축제 그리고 전복이 조금 뭐 했을 때 전복, 지금은 계속 해양치유를 하더구먼요. 담당관님, 해양치유를 계속 홍보하는데 그 홍보를 듣고 우리 군에 오신 분들이 해양치유를 뭐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작대기를 들고 하는 그런 것은 빠요. 우리 군민..... 제가 말하기 참, 의회석상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사회단체에서 오라, 이장들 오라. 가서 보면 우리가 흔히 옛날 지계를 질 때 작대기 두 개 짚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해양치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 해양치유담당관님 계시죠?

지금 당장..... 우리 홍보부에서 해양치유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군에 와서 해양치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기후치유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기후치유도 보니까, 내가 자주 신지면에 가 보면 요가하고 기후치유를 한다고..... 엇그저께 준공을 했는데 거의 문이 닫아져 있던데. 뭐를, 그 뭐니까? 우리가 걷기 하는 것.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노르딕워킹.

○박인철 의원

노르딕워킹 빼고는 뭐를 합니까? 노르딕워킹도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돈,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른 예산도 SOC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라고 그러는데. 다른 예산들은 다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앉으십시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군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우리 군에 오면 어떤 것들이라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따로 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훈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담당관님, 우리 1년에 유튜브를, 완도군 유튜브를 몇 명이 봅니까? 달로 봐서는 한 달에 몇 명 정도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약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인철 의원

달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전체 구독자 수입니다.

○박인철 의원

전체가요? (예)

우리 의회가 월요일에 해가지고 어제 2차 본회의를 했습니다. 내가 방금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니까 2차 본회의 구독자가 497명입니다. 의회는 예산 안 들어갑니다. 저기 유튜브 방송하면서 5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유튜브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당관님이 보고하듯이 거의 유튜브 같은 것도 시책, 그 누가 시책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관광객이 보겠습니까. 미끼도 좋아야 만이 고기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직개편 시에나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쫘 떼십시오. 진짜 우리 군민들은 배고파합니다. 배고파하는 군민들한테 무엇인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군에서는..... 어제 군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은 보지 않고 먼 미래만 보고, 미래의 사람들에게만 먹거리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하여튼 담당관님, 이것은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음은 4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시책 발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민선7기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민선7기 기간 동안 국민 제안은 676건을 접수하여 29건을 채택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시책은 1,628건을 발굴하여 70건을 채택하였으며, 올해 신규 시책은 238건을 발굴하여 이중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연도별 제안 및 시책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국민 제안 및 공모시책의 불채택 주요 사유는 제안의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효과성, 효율성 미흡, 기시행 중인 사항, 단순업체 홍보 등입니다. 제안 선정 절차입니다. 제안이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부서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또는 효율성 등을 평가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채택된 제안은 제안 중 우수제안 평가 및 심사, 심사등급 결정, 불채택된 제안의 재심사 등을 위해 전 부서장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현황입니다. 채택된 제안은 국민신문고시스템 및 관리카드를 통해 실시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7기 동안 국민이 제안하여 채택된 29건 중 실시 15건, 추진 중 12건, 실시불가 2건입니다.

이어서 6쪽, 공무원이 제안한 시책 중에서 채택된 70건 중 실시 24건, 추진 중 25건, 실시불가 21건입니다.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이 채택된 이후 군정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 어려움, 예산 대비 효율성 미흡, 실제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발생 등입니다.

다. 제안자 및 발굴자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국민제안시상금은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시상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지자체 중복 채택으로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에는 8명에게 총 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책 제안자 및 시행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으로 건당 0.2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8년 33명, 2019년 31명, 2020년 22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제안, 시책 발굴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 제안과 시책 발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찾기 위해 군민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제안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군정 참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 시책 발굴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
을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연초에 해서..... 국민 제안 같은 경우에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마감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국민 제안은 시기에 관계없이 들어오기 때
문예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마감
을..... 이 예산에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
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를 테면 12월 말에 들어오면 부서로 통
보해서, 부서에서 심사해서 채택여부를 결정
하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반영이 된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시기라든지 특별한 안
건이 있으면 그 시기, 시기마다 공모를 통해
서 시책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시작과 마감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네
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답변자료를 보면 군정 제안과 시
책이 2,066건 접수되었으며 채택은 99건,

5% 이하인데, 채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단 국민 제안이 굉장히 많이 신청되는데
요.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예산 대
비해서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기시행 중이거나 우리 군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
한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채택률이 저조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주로 매년 이렇게 국민 제안도 많이 들어오
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많이 들어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 제안도 지금
보니까 지금 4년에 1,628건이나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군정 제안과 시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실시
불가능으로 분류된 건이 23건 있는데, 이것
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일단은 채택이 되었으면 다시 부서로 통보
해서 부서에서 그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책들은
우리 군만이 할 수 없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통신하고 관련
된 부분은 통신사하고 또 협의가 필요하다든
지, 이런 과정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쪽으로
판명이 난 경우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은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한 이런 경우
가 있거나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때는 이것이 실시과정에서 또 추진이 안 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뭔가 발굴이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를 테면 예산이 뭐 몇 천만 원이라면 관계없는데 20억, 30억, 이것이 10억..... 10 단위 이상의 억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에서도 다른.....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가 있다 보면 그것 추진을 못하고 이 모든 경우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대로 끝나버리나요,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서 계속 이어가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과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과다보다는 적정 예산인데 예산이 과다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다음 연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신청한다든지 나름대로 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계속 이어져서 해본 것은 없네요. 거의 거기에서 소멸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보면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절차를 보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누가 하는지,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부서에서 부서장하고 팀장들이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창의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는데, 우수제안이라든지 심사등급, 그다음에 혹시 채택이 안된 제안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부서장들이.

○최정욱 의원

부서장들이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서장들이 제안심사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민간인은 그 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현재까지 민간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민간인들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우리가 제안이 들어오면 차라리 민간심의회에서 한 번 거치고 공무원들과 같이 하든 해서 그다음 부서로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 제안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해진 전국적인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부분은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래도 공무원은 그 짜인 틀에서, 법 규정에 맞춰서만 보려고 하는 눈이 있고. 우리 민간인들은 그래도 이것 좋은 대안인데, 대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소 예산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눈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안이나 시책 발굴에 참여한 사람은 많이 고민하고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자료도 찾고 자문도 얻어서 제안을 했을 것인데, 쉽게 처리해 버리면 아까운 제안이나 시책이 무의미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자 입장에서 어렵게 구상해서 제안한 시책인데 한번쯤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 위원이나 각 분야별 전문가들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인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의원님. 동감하고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로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마 분야별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욱 의원

아마 부서로 가면 우리 부서별 장들이 또 예산 확보하기 어렵고, 귀찮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채택된 제안이나 시책 중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아마 우리 우성자 의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이런 것은 이미 읍면하고 공동주택 24개소에 설치되어서 현재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 청사 앞에 그전에는 주차라인 자체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차간끼리 굉장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최근에 주차라인을 확대시키면서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계속되고 있을 때 금년 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 제안을 받아서 주요관광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동선을 설정한다든지, 청산도 관광지 같은 경우에 발열 체크 후에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든지, 전 식당에 080 안심전화테이블텐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금년하고 작년에 제안이나 시책을 통해서 발굴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정욱 의원

보통 생활시책에 가깝네요, 지금 말한 것들

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에 어떤 좋은 공모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것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금년도의 시책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청산도의 일부가..... SNS를 보면 밤에 밤하늘이 아름답다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밤하늘..... 국제기구가 있는데 국제기구에 등재를 시켜서 이것을 아마 우리 청산도 관광 밤 상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그런 제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제안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하고 밀접한 것도 있고 또 관광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낸 제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통 올해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는데.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시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채택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택이 되더라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형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담당관님은 혹시 아까운 시책이나 대안, 공고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이참에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국민 제안이나 공무원들이 시책을 발굴할 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제안사항을 발굴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모 지자체에서는 군민 4대 걱정거리 해소 분야로 자녀교육 걱정, 어르신 노후 걱정, 농수산물 판매 걱정, 자영업 걱정 등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제안을 공모하여 채택된 제안은 군수 표창과 함께 상금도 푸짐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관광분야는 공무원들이 휴가기간에 관광지나 여행지에서 목격한 특색 있는 안내판이나 이정표 사진을 촬영해서 자체적으로 온라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공모하고 시상금이나 공무원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해 봤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일부는 기간을 정해서, 특정항목을 정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좀 필요에 따라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공모전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필요한 제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한번 줘보면서 하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군 발전을 위한 군정 제안이나 시책 발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아무튼 담당관님이 중심이 되어 인센티브를 더 지원 하더라도 군민을 위한 획기적인 많은 시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고영상

최광윤

박창희

안태호

김성수

황창령

박은재

천종실

차재철

정광민

이성용

권 혁

김 일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해양치유담당관

- 총무과
- 주민복지과
- 여성가족과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 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지 해양치유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등을 건립하고 민자시설인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 해양치유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민간투자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세계한인상공협회, 사학연금공단이 사장, 전남개발공사 이사장, 고려대 총장 등을 면담하고 해양치유산업 및 투자 유치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테마파크, 호텔 앤 리조트 사업투자자 사업계획안 제안 및 사업 대상지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유치 실적입니다.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대상 토지소유자 파악 및 대상 마을임원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치유레지던스는 투자 대상지역 현장답사 및 사업시행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투자자 사업 대상지 설명 및 현장답사를 완료하고, 우리 군에 사업계획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치유단지 주변 기존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연계방안으로 치유단지 주변시설은 숙박시설 20개소, 음식점 16개소, 휴게음식 6개소, 기타 5개 시설로 총 4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업소, 음식점 등 기존 상가와 MOU를 체결하여 센터 장기 치유고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해양치유고객 유형에 맞는 대상별, 유형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MOU 체결 대비 유치 실적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관련 MOU 체결은 5개 업체입니다. 해양치유레지던스는 LA 하

버드 부동산과 2019년 9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더불유 아일랜드와 2020년 6월에, 해양치유 아토피스파는 주식회사 힐링웰과 2021년 2월, 테마형리조트와 호텔은 예술랜드와 영무토건과 2020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분야 추진이 미흡하지만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은 2030년까지 1조원이고 2022년까지는 3,500억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계수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3단계 추진계획에 의한 계획표에 2022년까지 3,500억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까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각각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공공투자는 전체 2,000억 원이 투자목표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320억 원이 확보되었

고 해양기후치유센터하고 해양문화치유센터, 치유공원 또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등 블루존 180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290억 확보 등 2단계 사업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8,000억을 투자목표로 2022년까지 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지면(청취불능) 사업대상지 현장답사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투자심리 및 투자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온라인 투자설명과 SNS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담당관님, 공공부문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까. 그런데 민간투자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고 또 골프테마파크는 소유자를 파악중이고 해양치유레지던스는 사업시행사를 선정중이고. 그러니까 민간투자는 1단계 계획대로 공공부문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민간투자 부분이 조금 뒤따라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느슨하게

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본의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투자 부문을 2017년부터 기초작업을 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밑에 부분은 2017년부터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또 닥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지 매입 부분이 늦어져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치유센터가 준공되면 이용객과 관광객들을 치유산업과 연계할 시설을.....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의원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민간투자유치시설은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4년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2023년까지 목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년 이내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해줘야 어떤 부분들이..... 해양치유산업을 뭔가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느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담당관님,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도에 해양치유시설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는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의 소문이 그렇게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원은 엄청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담당관님, 2020년 11월에 고려대학교 총장 면담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군수님과 같이 총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군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고려대 청해진 수련관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제안..... 사업화 모델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대 측 관계자와 고려대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대표하고 완도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고려대에서는 은퇴자 마을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네 군데의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 운영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상 애로가 많이 있어서 다른 대체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 좀 호감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경영에 좀 어려움이,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자리가 참 명당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월을 흘리고 하다 보면 해양치유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 군민들을 선도해 가지고 가서, 고려대학교에 가서 대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가서 군수님과 같이 가서 매입도 희망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군에서도 그 부지를 고려대에서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치유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저희들 힘이 부족했을 때는 군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어떤 플랜을 짜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요, 진도 대명리조트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벤치마킹 과정을 아마 담당관님께서 전부 다 계속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진도에 대명콘도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자 유치가 중요

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고 거기에 따른 우리 대책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대명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관련한 법률이..... 대명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조트 관계에 따르면 부지 매입은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군에서는 토지 매입 관련 행정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까지만 해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도 부지 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상황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지금 연합뉴스 2019년 면을 보면요, 피서철 진도 방문객이 작년보다 67% 증가, 41만명 방문. 진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르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쏠비치 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4억 정도 판매를 한다, 이런 보도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커다란 발판의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쓰서 가지고 민자를 어떻게, 어떤 좋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진짜 완도를 발전시키고 완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산업의 시작부터 좋은 이미지로 성공을 거두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당장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실행 가능한 일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완도만의 해양치유음식 개발 보급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모래뜰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보는 과정은..... 아직도 많은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얘기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이나 청산도 치유체험센터 주변 등 주요 거점지역 음식과 메뉴 공유를 통해 저렴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숙박시설 개선입니다. 먹거리 개발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 하룻밤 자고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해양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지 주변이랄까. 오래된 그런 숙박업소도 어떤 부분이 되든지 해양치유에 걸맞은 주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

니다)

셋째는 주민들과 치유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과 군에서 알고 있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 회만 갖지 마시고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실행 가능한 일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해양치유센터 공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행정 해석상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설계변경이야 공사를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은 착오가 아니고 기본이죠,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기본을 놓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대단위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최우선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맞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런 것을 놓치고 뭐가 그렇게 바빴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의원님, 이제.....

○박인철 의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저희 부서에서 관광지구 때문에 관광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관광과에서 영산강유역청으로 의뢰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재개되니까? 기약이 아직 없습니까, 환경청에서 영향평가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승인이 안 떨어지면, 그러면 저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조만간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은 우리 군의 바람이고요, 조만간 빨리 나길 바라는 우리 군의 바람이고. 조만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 보완자료를 어제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 보완자료가 한두 건이 아닐 것 아닙니까? 자꾸 하면 또 “보완하라.”, “보완하라.”하는 지금 그런 사항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것을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접수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회사에서 공사지연금을 우리 군에다가 청구할 것 아닙니까. 거기 회사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기계, 화일기계를 뺐다,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사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원청회사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겠네요, 나중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공사 중지를 내려서.....

○박인철 의원

공사 중지를 했어도 그 회사직원들이 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장비 철수까지 시켰습니다.

○박인철 의원

아, 알아요. 장비..... 수시로 가보니까 압니다. 가봐서 아니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따지고 따져서 들어가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영향평가지역인데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것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아니, 행정에서 법과..... 법이 우선 아닙니까,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내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체 면적 중에 일정 부분 미만이 되게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 미만이면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바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스스로 판단을..... 환경부에다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 뭐 1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2019년도에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퍼센티지가 좀 초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대단위.....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한 백년대계를 꿈꾸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도 다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치유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어서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는 군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이 요구됨에 따라 풍부한 해조류를 관광산업과 연계발전 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4년 신활력사업을 기초로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본시설은 신지면 대곡리 397-2번지 외 2필지의 군 소유부지에 건축면적 892.76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비를 지원하여 해조류체험관과 판매장,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민자 부분으로 실내 해수사우나, 스파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5쪽, 본사업의 총괄 추진 경과로는 2004년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에 공모를 통해 선정,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참여주체의 사업포기로 인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공모를 통해 희망업체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국민통신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 MOU 체결,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실시협약의 기본방향은 BOT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30년간 관리운영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완도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6월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6월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 실시협약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를 완도군이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보조금 보존을 위해 투자지분에 따라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30년간은 주식회사 국민통신에서 운영하며, 이후에는 완도군에 무상 이전한다는 조건입니다. 운영비용은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는 국민통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도군은 토지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7쪽, 운영비의 조정 및 수익금 배분입니다.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되, 사업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별도로 최정옥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통신에서는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계획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초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개장 시기는 2021년 10월, 기존 세미나실을 중형급으로 확장하고 노후화된 해수찜질방을 객실로 변경, 해조류 전시판매장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배분 문제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익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가 투입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양치

유 프로그램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 정부의 신활력 지역발전 구상계획에 의거 전국 70개 지자체 중 완도군이 선정, 고시되어 우리 군에서 해조류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민들은 완도군이 민간투자유치산업 홍보를 너무 잘하여 본사업이 완공되면 완도 관광뿐 아니라 해조류산업으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완도군이 떠들썩했고 기대 아닌 기대를 해왔습니다.

담당관님, 올해로 완도 해조류스파랜드가 건립된 지 어언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건립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완도군의 변화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스파랜드 건립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공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야외 해수풀과 해수찜질 등으로 인해서 해양웰빙체험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가 제공되었고, 또 작년에, 2020년도에 전라남도 2020년 휴머스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휴머스 시설로 지정되어서 숙박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고객유치 지원을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보면 해조류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양 생물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전시, 홍보, 체험, 판매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민자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에 대해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 및 홍보 및 판매로 3차 산업으로 전환, 해조류체험센터 건립으로 관광객 유치,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해조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구호로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이 사진을 보다시피 2005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그렇죠? 그전이면, 어떻게 보면 딱 지금..... 해양치유산업과 어떻게 보면 구호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전에는 아마 저것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저런 것을 듣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구도가 똑같아. 그때와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 정말로 “저것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해조류산업 발전, 지역경제 뭐 3차 가공으로 인해서 판매, 전시함으로 해서 이것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 구호를 저는 지금도 안 잊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대단하게 우리들이 듣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 해조류산업하고 아주 엇비슷한 이런 구호더라고. 그래서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해서 큰 효과는..... 담당관님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크게 우리가 느낄 만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그때와 그 홍보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말했던 그런 “부가가치나 해조류에 대한 3차 가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구호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해조류가 지금 딱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민통신과 우리 군이 2008년 12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사업준공으로 운영을 개시하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협약서가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데. 운영 제시 후 협약내용 변경 등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게 되면 협약을 개정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 없이 최초 실시협약서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실시협약서를 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은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받아드릴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래도 저희들이..... 30년까지 본인들이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군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욱 의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제가 그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사업 초기 5년간 초기 운영자금을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익금 배분을 유예하고 수익금 분배 개시를 2016년 6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수익금 분배 절차를 밟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수익금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분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본안질문에서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3억 800만 원을 가지고 군에서 투자한 20억 5,000만 원과 민자에서 한 62억 5,800만 원을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군 자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 배분율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배분 수익금 징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그 계약서에는..... 보면 정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배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최정옥 의원

지분, 수익금액을 배분한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반 배분한다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얼른 보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것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의원

담당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을 받아서 그러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참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기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것을 잘 따라서 우리가 한 대로 이행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갔을 때는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리고 건물만 본인이 한 것이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은 국민통신위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운영계획과 달리 사업 변경을 할 시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조류스파랜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 사업시행자인 국민통신위에서 운영상 한

계 또 시설 노후화, 이런 적자 운영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시설 유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의원

이제 우리..... 이것은 처음에 지은 것을 약속에 의해서 구조도 다 협의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꿀 때는 갑과 상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약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옥 의원

이랬을 때 과연 본인들이 순수하게 우리 군의 말들을 따라줄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후에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의원

어때요, 하여튼 담당관님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잘하겠습니다.

○최정옥 의원

예. 어쨌든 우리가 2016년부터 배분한 것에 대해서요. 적어도 그때부터 재무제표, 또는..... 또 말로 듣기로는 그때부터 임대를 월에 1,500씩 줬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예)

완도 해조류스파랜드와 관련된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해조류스파랜드의 금융권 등 재산 변동사항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재산 변동사항 관련해서는 협약서 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운전자금 차입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어서 동의를 해줬고요. 2016년 8월에 금융기관 변경과 근저당권 재설정에 따른 동의를 요청해서 동의해준 바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 이후로는 어떤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재산사항, 재산 변동사항은 저희들한테 뭐 특별하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직 조사는 제대로 안 해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대출 금융권을 많이 받아서 뒤로..... 완도군에 기부체납 시기 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등기부등본상에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된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어도 신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 매출과 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파악해서 대출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잘해도 건물이 사실 30년이 되면 거의 노후화는 되는데. 그래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건물 그 자체를 받아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때 시절에 그 문화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건물을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출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줄 때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은 담당관님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30년이 다 되었고 저희들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1년 전에 사업시설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 보완 이렇게 할 부분은 미리 해서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어쨌든 군이 협의해 준 것이거든요, 담보 설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이것이 채무 없이 본인이 그대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동의를.....

원래는 처음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동의를 해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이 다 지어서 다 하기로 했지. 그런데 우리 군이 그것을..... 원래는 금융권에서 땅을 할 때 군이니까 군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겠어요, 했죠. 그것은 군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담당관님, 무슨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뭐 처음부터 많이, 정말로..... 우리 해양치유산업 같이 그 떠들썩했던 사업이 결론은 이렇게 오는데. 그

나마 민자라 지금 우리가 큰 피해는 없는 거 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민들과 약속한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자본투자 유치로 해조류를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완도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민간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자는 민자 나름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군은 해조류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0년에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고, 스파랜드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종 기업 연수나 세미나,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숙박시설 제공, 그다음에 청산도 관광버스와 연계해서 숙박시설 운영 등의 이런 지원 쪽으로 노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사실 민자 유치라도 우리 군과 잘 협의하게 되었으면 그분들만 노력하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했어야 맞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했던 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않

우리가 정확하게 할 것은 갖고 가야 맞겠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나 지금 해왔던 내역, 다시 한 번 금융권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언제쯤이나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11월 중 내에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 있어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완도 스파랜드는 민간자본투자 유치 시행방식 중 BO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년 후 협약이 종료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소홀한 관리로는 우리 군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여 해조류 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는 물론, 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한희석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1쪽,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 인력 내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사항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팀장 1직원 팀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투자유치개발팀 외에 5개 팀이 팀당 직원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결원이 현재 해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팀장과 직원 1명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과 세 차례에 거친 군 자체 경력채용을 통해서 총 73명의 신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경우에는 1명 또 본청의 경우에는 2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휴직자가 복직 예정 중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수직렬제도 개념 및 도입 배경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위의 정원에 대하여 4

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 직렬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 보장의 취지로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월부터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직 외 다른 기술직렬과 소수직렬에게 다양한 업무 기회 제공은 물론, 승진, 전보 등 인사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제도의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렬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고 또 개개인의 업무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서 복수직렬제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술직과 소수직렬 간 승진과 보직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렬 간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 배치와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입니다. 우선 조직과 또 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아 공무원의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인사 또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등 우대방안을 확대, 실시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우리 군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 현황과 실적입니다. 우리 군 인사상 인센티브는

다자녀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우대, 또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0.5점부터 최대 1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 희망부서 반영과 승진 시 양육 등을 위해 갑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는 근무평정 시 상위평정과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보 우대조건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상여금 등급 적용 시 1단계 상위등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8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면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또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아마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구 변동이라든지

정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1팀장 외 직원 1명,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팀이 6개의 팀이 있는데 사무분장표를 보더라도 업무내용이 팀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원만 1명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문제는 결원이 발생해서 그 팀에 직원을 배치한 부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팀으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판단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부서보다는 현업에 시달리고 있는 격무부서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수직렬제도의 도입목적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생활에 희망을 더 주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조직 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사관리 기준을 형식적인 소수직렬보다는 개인의 능력, 실적으로 확립해서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풍토를 확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 및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는 부서별,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7일자로 개정된 정의 규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지금 그 개정 내용대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현행 완도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서는 직급별 규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렬별 정의, 뭐 정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33개의 직렬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부 부서에 5급과 6급 직원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6급 인원은 부서별 정원과 직렬 배치가 정원 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6급 무보직을 포함한 정원별 현원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는 7명인데 현원 6명, 해양정책과는 5명인데 현원 6명, 수산경영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 6명,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 7명,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6급 직렬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와 해양정책과에는 복수직렬에 책정되지 않는 세무직이, 여성가족과는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정원 규칙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잘못된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는 한 가지 문제하고요. 하나는 직렬 불부합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직렬이 가야 할 자리에 다른 직렬이 앉아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6급 무보직에 정·현원이 배치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6급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포함해서 총 50명이 6급 무보직 상태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 부분들을 실과의 결원 문제와 맞물려서 배치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6급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6급에 못 미쳐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결원 문제와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소수직렬에 대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다 보니 특수전문직렬들이 6급 승진을 하고 본청에 그 전문인력 성격에 맞는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상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렬

문제보다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직렬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100%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좀 최소화시켜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무보직이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정부에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11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겼고 또 정부에서 정원의 30%에서 10% 늘려서 40%의 범위 내에서 6급 정원을 확대 운영해 주다 보니 직원들에게 6급 승진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직을 부여하는 부분들은 그 직위가 늘어나야 보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잘해서 무보직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총무과 6급 직렬 중 시설, 사회복지, 해양수산, 사서, 농업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이 직무 전문성을 보았을 때 총무과 6급 복수직렬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당하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수직렬을 도입하면서 한 개의 직위에 4개의 직렬을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사운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1개 직위에 다양한 직렬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와 함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필요 없는 이런 직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복수직렬 책정내용을 보면 5급 정원 35명 중 행정직이 35명 정도 책정되어 있고, 6급은 정원 185명 중 16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책정함에 있어 5급, 6급에 행정직렬이 95% 이상 책정된 것은 기술직과 또 소수직렬에게 승진, 전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수직렬제도의 도입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복수직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렬하고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 폭을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직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렬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복수직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직렬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행정직 (청취불능) 어떤 복수직렬 운영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놓

고 보면 행정직 외에 일반 기술직렬이나 소수직렬이 갈 자리가 그만큼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직군을 나눠서 보면 행정직군, 크게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행정직군,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나머지는 기술직군이라 하는데 한 쪽으로 행정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 자리가 총 35개의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직 외에도 11개 직렬이 지금 그 5급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직 중심의 복수직렬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는 이것은 인사운영상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직렬이 좀 불평등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기술직과 소수직렬을 위한 복수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을 위한 복수직렬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이 제출을 받은 자료를 보면 기술직과 소수직렬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기간입니다. 이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 기술직 역량 행정직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역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735명 정원 중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

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는 공평의 기회를 본다면, 어차피 많은 인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40%에 육박하는 행정직렬하고 10% 이하의 직렬하고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수직렬과 기술직렬이 너무 차별화되지 않냐, 너무 폭이 크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축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자료를 받아보면 9급에서 6급까지 행정직이 6급을 다는 기간 또 소수직렬이 6급을 다는 기간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마는 너무 폭이 커요. 그래서 그런 폭을 조금 좁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수직렬제도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들도 열심히 평점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민선6기, 7기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인사패턴하고 지금 인사패턴하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직 중심의 인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많은 직렬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좀 더 이렇게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열심히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획일화된 직렬 탈피, 선의의 경쟁 강화, 형식적인 업무 경쟁을 넘어서 탄력적인 조직, 인사운영, 인사고충 해소 등 훌륭한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 때마다 기술직과 소수직렬들의 불만이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불만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인사..... 저도 인사담당 과장을 맡은 지 한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의견이 다양해서 업무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조직의 측면에서 인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사가 조직 큰 업무이지만 대부분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신상의 문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죠, 100%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입사동기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100% 인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직과 소수직렬을 좀 늘려서, 정원도 좀 늘려 가지고 이런 인사불만을 해소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한희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 특히 현장에서 기술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좀 더 늘려서 직원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은 탄력적인 조직, 인력운동을 위해서 직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직렬 운영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지위에 복수직렬을 부여할 경우 해당직에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사직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려는 복수직렬 제도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것 진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읍면단위에 가면 기술직들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그랬을 때 그분들이 빨리 전문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사업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쪽을 좀 더 늘려서 애로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중심의 승진인사로 조직 내에선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우대 받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또 이런 공정한 분위기가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녀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3명은 0.5점, 4명은 1점 점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3명과 4명의 차이가 이렇게 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이 총 101명이더라고요. 101명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점에 대한 변동이 필요하면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이 1명을 키우기가 엄청, 갈수록 힘들어

지는 세대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명과 4명, 별 차이는..... 물론, 분명 차이야 많이 나겠지만 고려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희망부서에 적극 반영하고 또 승진 시 갑지로 꼭 보낸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 적이 있죠?

○총무과장 한희석

올해 하반기 인사 때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해서 육아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우대 부분들은 하반기 인사 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약속했으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냥 노조에서 몇 급 때 혜택을 봤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런 것을 신경을 쓰지 마시고 항상 정해놔요면 이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직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죠. 여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고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약속을..... 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본안질문과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의회와 집행부 인사권이 분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과 똑같겠지만요. 그러면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금년도 1월에 지방자치시대에 참 의미 있는 법률이 하나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는 부분하고, 하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런 법률이 개정되어서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내용을 보면, 내년도 신규인력 채용에 정원을 내려준 것을 보면 의회에 정책전문지원인력 쪽에 두 분,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에 대한 한 분 그래서 총 3명이 신규정원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도하고 22개 시군이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실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가 아마 11월 중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요.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할 것인가요?

○총무과장 한희석

일단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짜봤고요. 아마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을 수요조

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의회와 집행부 양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조율해서 정말 협의점을 잘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긴급지원사업 지원현황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생계급여 4억 500만 원, 의료급여 4억 200만 원, 주거급여 70만 원 등 8억 87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2019년 94세대 1억 2,800만 원, 2020년 125세대 1억 7,100만 원, 2021년 8월까지 79세대 1억 5,000만 원, 3년간 298세대 4억 50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현황입니다. 의료급여는 2019년 71세대 1억 3,400

만 원, 2020년 87세대 1억 6,400만 원, 2021년 8월까지 51세대 1억 300만 원, 3년간 209세대 4억 29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019년 1세대 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인 1인 130만 원, 4인 36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고 있으며, 긴급지원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완화된 지원기준에 의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배치를 통해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완화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행복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과장님, 이 지원사업을 많이 하죠? (예, 그렇

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읍면에 가서 보면 이렇게 소득하고 금융재산권 때문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사유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긴급지원세대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적업무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수용하기 때문에 탈락되신 분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높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행복복지를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본인 의료비 부담 600만 원 이상이 되신 고액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자식이 보편적으로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긴급지원입니다. 자식하고, 부양의무자하고 상관 없습니다. 본인들.....

○박재선 의원

본인들..... 그러니까 금융재산에 대해서, 통장에 돈이 얼마..... 방금 600만 원 이야기 하듯이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5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박재선 의원

예.

그런데 자식이 잘되어 가지고 부모님에게 주는 통장이 있을..... 돈이 있을 것이고요, 어

르신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직접 가서 확인 좀 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긴급지원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약간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거든요, 완화가 되었는데.

그 이상 초과되신 분들은 방금 행복복지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요. 금융조회를 해버리면 금융실명제 보호법 때문에 다른 돈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원이 높은 어떤..... 행복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그랬을 경우 어르신들께서 이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NS를 통해서라든가 또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간에, 읍면 간에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긴급 지원실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기초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가 완화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7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지원대상자는 감소하는데 나머지는 행복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굉장히 월등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마을이장님들을 통해 홍보해서 더욱 더 대상자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표를 보면, 읍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서지역이다 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너무 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탈락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에서 많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참전용사 그 기념탑이요. 그것 민원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이 지금..... 예, 발생해서 세 차례 상담을..... 아니, 미팅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 이후로도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것 이전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3개 단체..... 그때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훈단체 3개 단체하고, 관리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갖고 전체 뜻을 여쭙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3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전우회하고 6.25참전자전우회 3개 단체에서 총회는 할 수 없는데, 이분들하고 회의한 결과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는 방안하고 장소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제안하셨던 의원님들하고, 몇 분하고요. 군하고 보훈단체하고 해서 장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신축, 건물 새로 짓는..... 탑을 짓는 것하고 이전하는 관계는 전문가의 용역을..... 아니, 전문가가 의사를 다 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전하더라도 좋은 곳으로 해서 움직여야 다음에 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또한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그 단체와 같이 꼭 협약하시고 또 의회에도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가지고 한적한 곳에, 정말 좋은 곳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했었는데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과장님께 지금 현재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장소라든가 또 이전할 수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요. 좀 잘 선택해서 좋은 곳에 기념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

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로당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07개소로 경로당 254개소,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이어서 6쪽, 최근 2년간 읍면별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 사업 127개소에 9억 893만 원,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비품 지원 105개소에 1억 6,253만 원,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의료기기 지원사업 77개소에 1억 2,085만 원, 총 309개소에 11억 9,231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173개소에 6억 8,579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7쪽, 2021년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115개소에 5억 6,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개보수 등 읍면별 지원현황은 6쪽, 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양로시설 1개소, 노인요양시설 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로 우리 군 노인요양시설은 총 11개소입니다. 시설 노후화 대책으로

증·개축 및 개보수 사업은 매년 시책을 받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 수의 증가로 경로당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의 노후화로 개보수 사업비 등 매년 요구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부서별 보조금 한도액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금년 예산액 대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250만 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따른 상한액 및 내부 현황 등 세부기준을 금년 9월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경로당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읍면 경로 및 요양시설 현황 노후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로 및 요양시설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우리 군은 현재 2008년도에 시행된 요양시설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서지역 시범사업으로 시행 2년 전부터 추진하여 타시군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양로원

1개소, 요양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로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총 316명의 입소 정원에서 297명이 입소되어 있어 완도군 전체 입소일로 봤을 때 시설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거에 우리 경로복지센터를 타시군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완도군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65세 이상이 33.2%로 전국 평균 15%보다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유소년과 청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인구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출산장려도 좋지만 노인인구정책 관리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우리 군 노인인구는 1만 6,000여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33%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574명으로 노인의 돌봄이 주요 사업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후사업으로 독거노인 1,727명에게 사회복지사 9명, 생활지원사 117명이 안부 살피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중 615세대에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하여 고독사 및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군 자체사업으로 보행보조기 지원,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 보청기 지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노인건강 및 문화체험 활동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앞으로 미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인구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보조적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금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노인 2,125명의 어르신들에게 현재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일자리사업을 2,472명으로 늘려 더욱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노인인구 증가 추세가 커지는 만큼 경로요양시설 현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완도읍 체도권에 총 열두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노화의 로템의 집, 금일 소망의 집. 우리 낙도에 그 두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사정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소안, 노화, 보길권은 계속 건의가, 부지를 방문할 때마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16인 시설인데 지금 32인 시설을 총원해서 46인 시설로 현재 건물을..... 76%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운영을 할 경우에 노화, 보길권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금일권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6인 시설의 소망의 집을 2013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6인 시설에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지역에 타지역에서 입소해 있는 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지금 고금에 세 분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금일권역 동부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증축 또는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그 금일, 생일, 금당 이 어르신들을 제가 면담을 해보면요. 완도 체도권 말고 지금 화순이나 장흥, 나주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시설에 들어가시더라고요. 파악은 안 됐을 것입시다만 이분들이 외지로 안 가고, 섬을 안 떠나고 고향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노후를 좀 보냈으면..... 요양시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중부권하고 남부권은 해결이 됐으며, 동부권이 지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생일권에..... 금당권은 지금 생활시설을 11월부터 착공을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금일, 생일권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소망의 집 운영 법인에서 증축이나 신축을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어르신들이 입소하고 친한 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어르신들을 밖으로 모신다면, 또 어르신들을 버리는 것 같이 자식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이.....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바뀌져 나가야 해요. 우리 경로당 가면 다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요양원이 그런 형태로 변해야 '아. 거기 가서 아는 분들하고 노후를 맞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가서는 참 피눈물도 많이 흐르고, 또 보호자들, 보호자들이 이 바쁜 시기에 또 한 번씩 가야 되고, 배를 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동부권에..... 소망의 집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경로당이 한 20년쯤 되다 보니까 안마기 천이라든지 또 의료기 같은 것이 많이 노후화되었다는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우리가 올해 9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 의료기기는 5년 이내에, 5년 이후에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리 또는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특히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천갈이가 안되고 AS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행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민복지과장직이 제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 직렬에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 과장님의 그 성품을 많이 받아야 우리 군민의 행복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요. 12년째 보고 있습니다, 한결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항상 감사하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또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3년간 153건 1,290만 원을 부과하여 148건 1,242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입니다.

이어서 11쪽, 문제점입니다. 2021년 과태료 부과 61건을 분석한 결과 장보고마트 23건, 농협하나로마트 11건, 진아리채아파트

15건, LH주공아파트 7건, 기타 5건으로 대중 이용시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단속요인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2명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 및 아파트 등에 일반 주차구역 확보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유지 관리하도록 시설주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13종류를 포함해서 한 4,56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6월 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만 6,000여 대고 완도의 인구수가 4만 9,000여 명으로 해서 인구 대비 차 보유율이 53%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차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다가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장애인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불법주차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방해 불법주정차 위반행위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는 있다고 해도 사실 61건

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좀 적은 숫자 아닌가요? 우리 완도 전체에서 1년에 61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많이 숫자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음, 그럼 요즘에 주정차를 단속하고 신고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파파라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읍 장애인 일자리 두 분이 불법주차 단속활동 중인데, 그분들이 그 단속한 실적은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이 두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특별한..... 그 장기간 동안 그렇게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잠깐 주정차할 경우에는 계도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만약에 적발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찍고 다니시거든요. 찍고 그래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는 그런 주정차를 할 경우는, 위반을 했을 경우는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게 앓은 경우에는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낮은 실정입니다.

○우성자 의원

이분들이 지금 계도를 위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 같은, 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

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따로 구역을 정해서.....

○우성자 의원

따로따로요.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완도읍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밀집지역이요. 공공시설 그쪽에 지금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공공시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속을.....

○우성자 의원

그럼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생활권을 순회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완도읍권만 순회하면서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 과태료를 징수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기한 내에 수납을 하면 20% 감면해 준다고 그러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금 그 기간 안에 미납되지 않고 납부하면 2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도 그분들이 뭐 순순히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그렇지 않는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한테 몇 번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럼니다만 그것이 카메라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제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자기는 잠깐..... 방금 말 그대로 주정차를 했는데 그것을 갖고 그렇게 사진을..... 앱을 통해서 주민신고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계도 위주인데 이렇게 찍혀 있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주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그 인식이 덜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단속해서 돈을 받아낸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인식해서 계도를..... 좀 조정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그 장애인 주차장 앞에다가 팻말이라도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방법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군청이나 관공서는..... 지금 관공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생활밀집지역도 의원님 말씀대로 강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또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 장애인, 예.

이 사진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지금 주차금지라고 써진 곳이 이전

에..... 완도읍사무소에 장애인 주차장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완도읍사무소 민원실 앞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장 위치가 장애인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 주차구역과 민원실로 진입할 수 있는 휠체어 진입로가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다. 주차난이 심각할 때 휠체어로 진입로를 가기 힘든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경사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도 무인발급창구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이래 가지고 제가 어제 사진 찍으러 갔더니 어제 저렇게 다시 새로 다 바꿨는다고요. 그래서 대처를 빨리..... 적용했구나 하는 것을..... 저 가운데에 있을 때는 아주 불편했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는데, 어제 가니까 저렇게 금방 바꿨더라고요.

다시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지금 완도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는 그 팻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다시 또 한 번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완도여중 저 위에다가 그 장애인복지관을 표시할 수도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것은 주관 부서가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우리가 볼 때는 저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완도여중 밑에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혹시 우리도 보기 힘든데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나 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적극 참여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전혀 일반인이 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협조를 하고요. 또 이제 행정에서도 팻말을 제작한다든지.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계도가 되어서 정착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차를 주차하는 지역은 좀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계속해서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50명에게 1억 5,424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0명에게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주 1회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식사배달 및 안부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관련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801명에게 10억 335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사업을 주 1회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권은 한국부인회에서, 타읍면은 지정된 식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 생활지원사들이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쪽, 경로식당 급식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400만 원 예산으로 종합복지회관 1층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결식노인 및 일반인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자부담 1,000원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727명 중 식사배달 및 밑반찬을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331명으로 161명이 추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내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식사배달 전문식당 무료급식사업 대상자가 33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읍면은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읍면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상자는 수급자, 저소득자, 거동불편 노인. 불편 노인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다음에 거동불편, 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자가 3순위입니다. 그래서 1, 2, 3순위를 적용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대상 선정은 읍면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요. 그럼 전적으로 읍면에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혹시 지도 감독은 군에서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도감독은 읍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관리는 생활지원사들이 배달을 하고 안부서비스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배달, 밑반찬 확인 및 배달 여부 등은 읍면 생활복지팀에서 지금.....

○우성자 의원

복지팀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 확인해 봤더니 현

재까지 밑반찬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받으면 계속 그 분들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 물론 한번 드리다가 또 안 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잖아요. 불편이 많겠지만, 그러나 계속 그분들만 드린다면 다른 분들이..... 아직 차례가 돌아오려면 너무 멀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1,917명인데 331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아직 17%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도와고 확인,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과장님, 여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진정으로 의향을..... 확보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도와 매칭사업인데요. 도가 25%고요. 군에서 75%를 해서 지금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30명 부분 추가분을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우선 확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다른 시군에 좀 남아있는 예산을 끌어와서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경우 군비를 좀 세워서라도..... 거의 한 61명이 신청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내년부터 계속 도와 협의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 정말로 선정을 잘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다가 어떤 가정에 어떤 일들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옆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바로 옆집인데. 이제 그 옆집에 혼자 사시니까 관리지원사가 다니면서 반찬도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그쪽 행정예다가 의지해 버리고 안 돌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진짜 혼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혹시 과장님이 들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방금, 행정에서 해주다 보니까 친인척들이 안 돌봐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장님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또 그분 가정실태를 조사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가 매일 다니면서, 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닙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사람들이 식사배달 이런..... 식사 같은 것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전년도하고.....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매년 도시락 배달도 50여 명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매년 바뀌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새로운 대상자가 될 경우는 방금..... 옆에서 더 돌봐주기 (청취불능)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제외를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방금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방문조사하고 실제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구제를 받도록, 그렇게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식당을 지정해서 밑반찬을 지원하는데 읍면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어디 읍면은 잘하고 어디 읍면은 못 한.....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맞습니다.

○우성자 의원

지금 그런 것은 아직..... 혹시 그 반찬 점검은 못 해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은 군에서..... 방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론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12개 읍면이 통일되도록, 좀 반찬이 부실한 데는 촉구를 하고 잘 되는 데는 계속 격려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제 어떤 분은 도시락을 거부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나 이것 안 먹으려니까 이것 가져다 주지마라.”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요. 어떻게 그분들 입맛을 다 맞추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2만 원이었다가 2만 2,500원으로, 올해부터 2만 2,500원이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올랐습니다.

○우성자 의원

일주일치가?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오르긴 올랐습니다.

○우성자 의원

2만 2,500원인데. 사실 5일분이 2만 2,500원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받은 분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다 해가지고 “주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할 때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노인들이 단백질 보충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부실하지 않은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일하기도 싫은데 도시락을 가져다주면서 또 와서 관리지원사가 말벗도 해드리고 이렇게 독거노인을 챙겨 드리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더.....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경로식당 올해 급식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운영이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성자 의원

예, 그러면 남은 사업비는 반납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반납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중간 정산을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그립니다. 그러니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어르신들을 골고루, 또 소외된 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요. 관리지원사를 교육도 좀 시키고 해가지고 옆에 꼭 주시는 분들만 드리지 말고요. 또 여기에 지원받지 못 하는 그런 분들도 발굴하시라고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과장님의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여성단체나 적십자나 새마을회에서 지금 했었거든요, 처음에. 자체로 했는데, 저기에 이제 열성적인 회장님들은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장님들은 굉장히 지금 반찬이 부실해서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해보니까 그래도 식당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영양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음식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도읍만 지금 여성단체하고 부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고금도에서도, 고금도 민간단체에서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경우에는 읍면에서 전향을 해서 수혜를 더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도읍과 노화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꿈틀에 위탁 운영되고, 노화읍은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6개 사업에 4억 6,863만 9,000원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6,997만 2,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군 도서지역에 맞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보수를 하지 않아 비가 새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할 예정입니다.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까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운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예)

완도군에 이제 2개 있는데.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러 위탁을 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은 한 명이 근무하면서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 대책을 2000.....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현

실이 그대로예요. 방법을 좀 취해야 되는데. 그 인원도 전에 얘기했듯이 “인사부서하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어떻게 추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인사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직원 한 분마저도 그만두겠다는 말씀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지금.

○박재선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사부서하고는 현재 그 조건에 맞는 기간제 근로자 직원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 기준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업무에 3년 이상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1차적으로 기간제로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서 안 오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금년 1월 정기인사 때 정규직을 좀 배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재선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데. 또 관리 는 이렇게 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

가족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섬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잘 관리가 되겠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금년에 우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교육팀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하고 또 옥상에 있는 그런 지저분한 부분들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직접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 내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아직 인사부서에다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차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노화율에 이렇게 인원을 정원으로 해서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을 하고 있는 완도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방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완도읍 청소년 문화의 집의 지부식으로나 지소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위탁을 해볼까.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검토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결단 자체를 좀 내려서.....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꼭 직영을 못 한다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읍에다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위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 옆에 아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전부 다, 주차시설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작해 놓으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똑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도군에 2개밖에 없는 데 운영 자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아까 책자에 보니까 청년이 18세부터 39세까지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노화율만 보면 한 1,400~1,500명이 돼요. 그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빨리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운영이 잘 되어야지 만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알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계속해서 4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청년정책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27일 완도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설자리, 보금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에 31개의 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평가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사업비 내역입니다. 보고서의 표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정책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청년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교육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 창업으로 연계되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활동 지원입니다.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는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명의 위원으로 제2기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년협의체가 청년정책

을 논의하고 의제 발굴과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등 정책 파트너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에는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조건이 3년 만기 후 수급자에서 탈퇴되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창업교육 등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아이돌봄 교사들의 활동수당이 시간당 8,730원이기 때문에 저임금에 따른 이직이 많습니다.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활동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보니까 대선 공약하는 후보님들도 보면 거의 청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년이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터지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 청년정책 기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일자리, 설자리, 보금자리, 놀자리 등 네 개 분야에 31개의 사업으로 지금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4개의 분야에 31개가 이렇게 부서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책자에 보면 전부 다 과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31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제가 봐서는 부진한 사업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창업에 꼭 필요한 기본 및 실무소양을 거양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해양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발전협의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청취불능) 프로젝트 또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거주 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이자나 또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 전세자금 같은 것 이자 지원을 월 최고 10억 원에서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잘되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해야 되겠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거기에 또 개선을 빨리 좀 해서 (청취불능)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추가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프로그램 한 다섯 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을 했는데. 그 참여하신 청년 분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두 가지를 좀 더 확대해서 청년수요에 맞게끔 일자리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좀 도입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초기 기반이, 시설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권에 있는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서 창업에 좀 도움이 될 수가..... 그런 부분을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재선 의원

타지자체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정책회관 리모델링이나 이끼 빈집 정비 이런 것이나 하는 데를 보면 순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공감하고요. 코로나 방역체계가 개선이

된다면 제가 직접 한번 현장도 보고, 도입할 부분은 도입을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이, 실행계획이 또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성과는 좀 우리가 보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타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금년 다음 달 말일까지. 11월 31일까지 지금 준공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약간 준공 날짜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되면..... 엇그저께 우리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고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현재 센터를 이번 11월 말일 날 준공이 되면 처음부터 위탁업체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기반을..... 기본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마련을 해놓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 2년 정도는 군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하고 또 청년발전협의회체나 또 관내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 의원

예. 책에도 보면 이제 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 단체라도 보면, 어디 사이에 보

면 임용, 채용하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신경을 쓰셔서 그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우리 센터가 들어서면 아주 또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창업이라든가 취업, 이렇게 지원하는 일자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술, 교육 문제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아까 일자리 창출을 다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서지역은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청년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타지자체보다는 우리 군 특수성이 또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드론 교육이나 이렇게 청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문화기획자가 와서 교육을 해보는데. 일부 섬에서 이렇게..... 일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일기상에,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를 했다가 또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아쉽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12개 읍면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발전협의회체도 일부에서는 “완도읍권, 체도권 위주로 가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12개 읍면보다 더.....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또 읍면에 두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해결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군 체제로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회의실을 임대한다든가 권역별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읍면 협의체를 또 구성하고 읍면에서, 방금 말씀처럼 두 분씩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분들하고 잘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아까 드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만 와서 교육을 잠깐 받을 뿐이지. 전체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공감해서 안계꿈 과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센터가 운영되면 차질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청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답변할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에서 개최하는 치안협의회 참석관계로 이후 회의진행은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계속해서 7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총 24개소이며 아동복지시설은 11개소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규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영유아 현황은 1,596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는 1,365명입니다.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황 충족률은 72%로 보육시설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0월 현재 신규 설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신규 인가의 총

족률은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 영유아 수가 매년 감소 추세로, 어린이집 이용도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경영 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사로 이루어진 우리 군 지역 특성상 보육시설이 없는 군외면과 생일면 지역은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영유아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규 인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 등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서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육교사들의 인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각 연령별 아동수당, 보육 교직원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보육교사 수는 정원 대비 적정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 특례에 인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보육교사1인당 그 0세는 4명 그리고 1세는 7명, 2세는 9명, 3세는 19명 그리고 4세 이상은 24명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24개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원은 적정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보육교사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계 법령을 들여다보니까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 집의 경우 간호사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우리 군은 여기에 해당도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니, 그 24개소 중에 한 군데가 지금 132명 정원에.....

○박인철 의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저기 대가용리에 있는 옥토 어린이집입니다.

○박인철 의원

옥토 어린이집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간호사 한 분하고 영양사 한 분, 그 법정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맞춰져 있습니까? (예)

예, 영유아보육법 제15조 4를 보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던데 우리 군 보육시설에서는 CCTV가 다 설치되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그 특별.....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보육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24개소에 지금 17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주1회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본의원도 작년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상당 부분 개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렴해 주시고, 특히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는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차후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다시 한 번 말씀을.....

○박인철 의원

아동급식, 급식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동 급식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박인철 의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그런 아동은 아동수당으로 별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부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참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 이렇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부분이 없어서. 아이돌보미를 지금 별도로..... 4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시간당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 아이돌보미도 저기.....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습니다.

그 본안 저번에..... 그 청년정책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시간당 8,730원이기 때문에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직률이 많이 있고. 그만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명을 교육을 해서 충원을 했습시다만 55명까지 갔는데, 엇그제께 현황 보니까 또 다섯 분이 그만 두셔 가지고 49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것을 우리가 국가 최저임금하고 관계해서 조금 더..... 자꾸 이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수당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딱 이래 가지고 8,270원인가로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기준단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인 보건여성가족과에 좀 요구를 하고요. 차후에 조금 우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이돌보미를 하는 분들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교육은 매년 한 3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미루다가 6월, 제 기억으로는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아이돌봄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충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인철 의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결과, 둘째 아 이상은 자부담비를 군에서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 시에 “1인 자녀도 좀 이렇게 전액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연간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군 재정상 좀 시기가 그럴지 않겠냐 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한 6억에서 8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써 인구가 5만이 무너지고 4만 9,000도 무너져 가는 이 시기에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보통 돌보미가 부족해서 꼭 돌보미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정으로 해서 금전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인구 절벽도 그렇고 보

육서비스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가 줄어든 만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육 서비스 문제로 우리 군만큼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잘해 오신 만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계속해서 1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우리 군 결혼 이민자는 총 398명이며,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대상자 200명을 선정하고 가정방문, 통화, 문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실정이 미흡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 실적이 미진한 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타지역 출타 자제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생업 종사로 나타났습니다. 11월 방역체계가 변경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부득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인솔자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은 398명 중 171명이며, 취득률은 43%가 되겠습니다. 행복정착금 지원기준은 금년에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및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한국어 교육 이수자는 58명이며, 한국어능력시험 3급 합격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행복정착금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정착금 지원방법을 2회 분할 지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에 대해서 1차 1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적을 취득할 경우, 2차도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398명으로 작년보다 10명이 더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가족들을 접할 수가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문제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고 또 지난 7월 본회의장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이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군수 공약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종합건강검진에 대하여 건강상황을 체크하고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다문화가정 종합건강검진을 업무 보고 당시에 17명이 검진을 받았었다고 했죠? (예)

그 후에 18명이나..... 이제 35명이나 검진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의원님께서 지난 군정 보고 시에 지적해 주셔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월에 군에서 직접 우리 주무부서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12개 읍면을 전체 방문하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해본 결과, 코로나로 우리 지역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은 또 부부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했습니다.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했는데, 그 단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부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생계에..... 다시마나 전복 이렇게 어장에 가게 되면 부부가 같이 출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혼자 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은 11월, 12월에,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본인은 받고 싶은데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세대를 파악해서 군에서 직접 봉고차를 하나 빌린다든가 다문화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의료기관까지 모시고 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제 그때, 이전에, 작년에 군정 질문 때 본 의원이..... 혼자 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그래서 남편하고 부부로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뒤로도 전혀 호전된 것이 안 보이고. 사실 남편이 심고 가야만 이 병원도 갈 수 있고, 가서 문진표도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원 대상 목표가 200명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마 11월에 방역체계가 좀 바뀌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 달 남았습니다만 한 번 더 독려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원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갔는데 문진표를 본인이 작성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개인 문진표를 작성해 주고, 또 안내하고 이러니까. 뭐 서너 명이 같이 가도 하루가 걸리더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못시켰다는 그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전혀 홍보가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사실 저희들도 그때 다문화가족 한글교실을 할 때 일대일 멘토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동네마다 이렇게 차로 데리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몇 시경에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약속합니다. 한글교실을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시간에 가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바쁘다고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저희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공약사업이고, 또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지금 200명에 5,000만 원이라는 돈, 예산을 세워놨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않아

가지고 불용 처리된다면 이건 또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그러면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은, 1년에 혹시 우리 군에서 몇 분이나 가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저희들이 친정나들이 사업을 금년에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성자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외부가 통제되어 있어서.....

○우성자 의원

못 갔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난 2회 추경 때 그 예산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럼 이제 통번역서비스 사업에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서비스 그 통역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일본이나 캄보디아, 뭐 필리핀 이런 지역도, 태국도..... 이상 인구수가, 다문화가정 수가 많은데 통역사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역사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분쯤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는 캄보디아 분 한 분을 국비로 하고 있고요. 두 분은,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은 군비로, 순수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리핀 부분을 한 번 더 충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적마다 다 채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자 의원

결국은 예산 배분이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통번역도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자 의원

예.

다음은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 거주하는 그런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금년부터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지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자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다문화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중에서 방금 보고서에 나왔습시다마는 43%, 171명이 지금 국적 취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에 국적을 취득하면 하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그 조건에..... 3개 조건에 맞는 분이면 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였습시다만 문제가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법무부에서 국적심사,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 9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 금년에 국적을 다섯 분이 취득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또 한국어능력시험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합격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본안질문 답변 때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빠르면 11월 중에 한번 시행을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자 의원

예.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9개월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을 이분들이 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이제 하나 딱 하나,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또 하나에 더 도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가서..... 아까 다섯 명이 했는데 합격을 못했다고 했죠, 올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니, 다섯 명은 했는데 한국어시험.....

○여성자 의원

예, 그것 못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토익, 예.

○여성자 의원

그러면 보통 합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프로 수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성자 의원

좀 어렵죠?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 여론을 들어보면 토익 3급이 조금 어렵다. 1년에 한 7건 정도, 제가 보니까 7건 정도 있더라고요. 3월부터 이렇게 쭉. 금년은 11월이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 그 한국어능력,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통되어야 만이 법무부에서 면접을 볼 때 그 부분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하고 또 생활, 실생활하고 그렇게..... 언어 소통하는 능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한글이 되신 분들에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지금..... 자격증취득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5년차..... 5년 이내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기초과목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어 이수교육 부분이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58명이 금년에 이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지금 58명이 이제 시험을 봤고, 58명이 이제 이수를 하였고. 능력시험 합격자가 15명이었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중에서 열다섯 분이..... 예, 그분 중에 열다섯 분이 이제 자격증 3급을 취득을 했다고 말씀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적 취득이 되면 행복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렇죠. 조건은..... 한 가지는 취득이 됐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내년에 다 받을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가지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분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도 많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두 번에 나눠서라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국적 취득을 해서 우리 인구도 증가시키고 또 우리 문화를 많이 배워가고, 우리하고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들어가는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다 같이 한다고, 활동이 많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 더 촉구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더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끝으로 15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정위탁 아동은 12명이며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 아동은 125명이 되겠습니다. 생계 및 의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딤씨앗통장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8명이 가입하였으며, 만기해지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대상 45명에 대하여는 매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총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입가능 대상 60명 중 15명이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미가입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저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가입자 15명에 대하여 개별 가정방문과 전화를 통해서 가입을 독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연이어 고생하십니다.

아동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가정위탁 아동 및 생계

의료 아동은 이제 그 12명..... 생계의료 같은 경우에는 152명인데요. (예)

가정위탁 아동과 생계의료 아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제 가정위탁 아동은 부모가 안 계셔 가지고 (청취불능) 그 양육자라 합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성자 의원

생계의료 아동은요?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좌석에서) 보육아동팀장 이영술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은 부모가 있거나 또 그런데.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동 중에서 결손가정이 나..... 예전에는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너무 낙인을 찍는다고 해서 요즘에 용어를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이 나, 있는데 부모가 같이 살지 않고 지금 조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후견인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생계의료는 이러한 아동 중에서 생계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생계의료..... 일반가정의 아동도 이 생계의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아동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연령대별로..... 물론 다르지만 아동수당, 아동급식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문화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울림 한마당, 장난감도서관 등.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뭐 1,000원에서

부터 5만 원까지 자기가..... 내가 한 만큼 같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5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성자 의원

예, 5만 원까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제 그분이 1,000원을 하면 군에서 또
1,000원을 하고.

○우성자 의원

지원해 주고. 내가 2만 원 하면 2만 원 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렇죠.

○우성자 의원

이것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아직 이제
그..... 이분들이 다 영세하니까 우선 쓸 돈이
없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성자 의원

우선 먹고 사려고 하니까 이제 저축은 하기
힘들다 그런 시점에서요. (예)

이제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신한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신한은행이 지금 완도에는 없죠? (예)

그러면 이것,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은 이제 가입대상 아동이 읍면 사무
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괄 군에서 그 신
청서를 접수받고요. 의료기관인..... 아 참, 금
융기관인 신한은행에다가 그 신청서를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직접 안 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장이 개설이 됩니다.

○우성자 의원

그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군에서 직접 은행으로 대리 신청을 하
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것을 찾을 때는 목포까지 가야 된다고,
본인이..... 요즘에는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
에. 가야 된다는 말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
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그 보
통..... 그 아동들하고 사시는 분들도 나이 드
신 분들이고 다 열악하신 분들인데, 이것을
찾으러 목포까지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마 금전적인 부분이나.....

○우성자 의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개설할 때는 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
런데 돈을 찾을 경우에는.....

○우성자 의원

본인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우성자 의원

또 본인이 가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또 금융실명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
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성자 의원

그때 그.....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까운 우리 농협이나..... 정부 시책이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겠지마는 혹시 이런 농협이나 수협이나 우리와 가까운 금고나 이런 데에다가 할 수도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이 사업은 정말 적은 돈이지만 한 달에 5만 원이면 5만 원을 더 붙여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가입하더라도 찾으러 가려면 그것을 어떻게 찾으러 가겠어요. 누가 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누구 마음대로 옮겨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더 알아봐서 이 아이들이 이런 통장이라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요.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모아놓고 찾을 때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쓰시고 대상자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홍보를 잘하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챙기도록 하고요.

○우성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까 금융관계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 좀 건의하고 기회가 나는 대로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 지역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민원봉사과
- 세무회계과
- 경제교통과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심한 훼손과 오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측량조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수치화된 전자도면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331개 지구 3만 8,816필지의 불부합지를 재조사하며 80억 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합니다. 측량조사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정한 경계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결정된 경계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으로 지급, 징수합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완도군 지적 불일치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2만 필지 중 17%인 3만 8,816필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이며, 완도읍이 1만 1,234필지, 고금면이 9,843필지로 가장 많은 지적 불일치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13개 지구, 5,035필지를 사업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불부합지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경계복원 측량이 정지되어 주어진 사업기간에 민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전담인력의 부족과 매년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토지이동, 경계복원 측량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소유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사업지인 장용3지구는 경계협의를 마무리 단계이며, 11월 경계를 결정하여 2022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인 보길면 예송지구, 부항지구는 내년 6월까지 경계협의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불목1지구 외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관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11월 말까지 경계협의 후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량이 331개 지구 4만 8,816필지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물량은 완도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아닙니다. 완도에 등록된 22만 4필지 중 17%인 3만 8,816필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입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지적 불일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주요 원인은 1910년도에 토지 조사사업으로 지적도 작성 시 작성 기준된 지적기준점 좌표값 오류도 있었고요. 또 도면과 현장이 적게는 30cm 또는 3m, 8m 정도까지 경계가 밀려 있어서 불일치한 지역이 발생합니다. 또

한 과거에 저희들이 개발사업, 토지개발..... 생활도로 등 대부분이 측량없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 불일치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범성 의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챙기서 가지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임에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나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추진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지금 저희들이 지적 전문직들이 있는 (청취 불능)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1개 지구를 담당하면 한 1,000필지 정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3개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원 1명으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1명이 더 충원되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완도 시가지 권역도 정비대상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완도읍은 어떤, 어느 지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완도읍은 밀집지역인 군내리 가용리 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군청 옆과 완도읍사무소 주위 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또는 비석거리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도 구도심 일부 지역은 재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물고 남은 건축법상 길도 없고 면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옆 건물을 철거하길 기다릴 수도 없는 그래서 방치하는 집들이 다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또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 사실상 완도읍 시가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시가지권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역 내에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완도읍의 경우는 땅값도 높고 조정금 산정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안에서 말했듯이 인원을 충원하거나 보충해서 지적재조사팀을 구성하게 되면 아마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답변서에 보면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이것이 가장 지연된 이유들 중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지적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공무원들은 정원제가..... 지적직공무원 12명은 현재 정원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세분화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별도의 정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제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인원이 충원되어야, 인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사업진행이 추진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가지

고 그런 부분들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총무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직 현재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에는 지금 12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올해 초에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행안부에서 1명 추가인원을 배정해 줘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자체 경쟁..... 경채를 통해서 1명을 보충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 인원이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공채로 지적직 2명을 요청했는데 아마 시험에서 다 탈락되어 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국비사업이고 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들이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원충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일은 엄청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데. 이 지적재조사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효율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다들 집행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음은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면 당인리 군유지 내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군유지 대부계약 주요내용으로 계약자 이xx가 2013년 8월 6일 경작을 목적으로 군유지를 대부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자가 통기타공연장 소리창고를 건축해서 대부목적 외 무단 건축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28일 군외면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군외면 당인리 425-3번지에 건축면적 191.37평방미터, 연면적 245.50평방미터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및 공연장 용도의 조립식 판넬 구조로 2016년에 불법 건축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조치사항 현황입니다. 민원봉사와 주택건축팀 소관으로 2020년 10월 15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계고 조치하였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2월 23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 및 고발 조치되어 현장조사 결과, 위반자는 당초 경작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하였으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30일에 1,053만 2,000원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10월 20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과에서는 균유지 대부계약 해지 이후 2020년 7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균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2020년 8월 20일 254만 원, 2021년 9월 27일 9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신축한 위반건축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군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자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건물 철거 시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면 당인리 균유지 내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분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현재 공유재산 재산관리가 지금 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외에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계도를 거치고 철거명령까지 했

으며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것 당초 대부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비용들을 이분한테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이행금만 하면, 이런 이행금들은 이분이 납부했습니까. 납부 안 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박인철 의원

전혀 뭐 다른 것이 없는데. 아니, 이것이 제 기억에는 저번에 폐관됐습니다마는 완도포커스에서인가 한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 이후로는 전혀 변동사항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외 당인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됐기 때문에 고발된 것은 사법조치하고 강제대집행을 해서 철거도 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징수를..... 금액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균유지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은 이분한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절차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박인철 의원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계속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인지를 합니다, 불법인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채무 통보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런 과정들은 중요하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고.

또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대부를 해줬다고 했는데 관리감독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작물을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중간에 한 번도 군외면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가. 거기 는 길가 옆이어서 그냥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산속도 아니고 서부길에서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안에 이것을 처리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꼭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이렇게 계속 강제부과금만 하면 뭐합니까, 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허궁희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음은 7쪽입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타 기관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각종 전염병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발급가능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일읍과 노화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금일·노화읍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하고 청산면 등 5개 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외면을 비롯한 4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타기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 굳이 할 일은 아닙니다.

마는..... 사실 이것이 비대면 무인발급기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사업 아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청산면을 포함해서 7개의 면에..... 7개의 면 맞죠? 7개의 면에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설치예정이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여기 청산면을 포함한 7개의 면은 서류 발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이 한 대당 보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성자 의원

무인발급기 1대당 5,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돈이 많이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구입비가 2,500만 원이고 옥외로 빼야 되니까 옥외로 빼면 강화유리부터 해가지고 CCTV 또 안전검사기 때문에 대당 5,000만 원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에 하려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도 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1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 멀리 일하다가 나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불편을 느낄 민원인들이 있어서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전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런 것은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읍면에서 한쪽은 1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또 다른 읍면은 빨리하고 이러면 늦게 설치한 그런 읍면들은 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해주시면 좋을 듯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더불어 보건의료원 같은 데에도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다면 병원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인근 농공단지나 또 민원인들이 여기 군청이나 읍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고 발생하는..... 특히 경찰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처럼 추가로 할 수.....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설치하면서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골고루 빨리 완공돼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음은 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입 6개월 후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전입자 3,870명에게 1억 8,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조사 자료로는 도내에서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목포 등 14개 시군으로 최소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주시 등 8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전국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입니다.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대부분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 군도 전입유도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전입자가 타시군으로 다시 전출한 사례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전입자는 4,846명이며 전출자는 5,325명으로 479명이 감소되었으며,

직업 또는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전입지원금을 5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좀 더 높게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타시군 전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셋째 전입자의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 인구 유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입자가 관리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무슨 이유로 전입, 전출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안질문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우리 군을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우리 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군의 철학이 아닌 혹시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은 지금 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시군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인구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시군별로 특수하게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남만 해도 21개 시군에서 7개 군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사회적 유출입니다. 군 단위에서 거점도시로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으로 3,870건에 1억 8,4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사업추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전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예전에는 완도사랑상품권과 쓰레기봉투 등을 줬습니다. 그러나 전입 후 바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완도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전출이 많은 것을 보면 효과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사업의 효과적, 종합적인 검토성이 필요하므로 저희들이 별도로 인구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민원봉사과장님이 사실 이것을 할 일은 아닌데. 우선 지불만 지금 하고 있는 처지죠.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구..... 전입자나 전출자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들이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답변자료를 보면 올해 한해만 해서 우리 군 전입자가 4,846명입니다. 전출자가 5,325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입하여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시군으로 전출을 간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전입자는 본인이 직접 현

재는 인터넷으로 전입,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입, 전출에 대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전입전출신고서에 사유를 세분화해서 기재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쉬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원인을 조사해 보면 직업, 주택, 교육 다양하게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은 교육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의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직업에 대한 그리고 다소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도시 기반의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농수산업 일자리가 계절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렇게 보면 1년에 전입자가 4,800에 전출자가 5,300명입니다. 전출자가 약 700명 더 많은 셈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기초적인 것인데. 전입자는 어떤 사람들이 전입을 하고, 전출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어야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파악도 되어야 우리가 어떤 자료분석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데에 전입해서 전출하는 그런 것도 대책은, 방지할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전입자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전입자가 계절적으로 왔다 그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새로 배치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있는, 각 읍면에 맞춤형담당팀에서 우리 군의 사례관리 조사나 노인들, 어르신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병행해서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서 상황이라든지 전입 후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전입자, 전출자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입 사유와 전출 사유를 분석하면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맞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전입지원금 확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면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과 발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예.

전입하고 전출자, 아까도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늘

려서 또 한 번 더 지원함으로써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런 것이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인구정책을 타시군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등록업무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묻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또한 인구정책업무에 대한 도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주민등록 전입자, 전출자 관리자료가 인구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군만의 인구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은 “전입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요. 혹시 완도의 유관기관단체는 몇 %나 이쪽으로 전입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인구정책, 이제 세부 부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을 보면 완도 출신은, 완도에 거주하는 분은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시면서도 전입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작년에 내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기관으로 뭐 공무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기관, 사회단체 회의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뭐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주민등록 전출입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하면 기관 장려금을 확대하면 기관별로 인구 전입에 대한 서로 경쟁관계랄까, 그것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완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완도로 전입해서 서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완도에서 살면서 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도 더 이쪽으로 전입하기 쉽겠죠. 물론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가지고 완도군에 근무한 공무원이라도 정말 다 전부 100% 이쪽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음은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관련입니다.

완도읍내 아파트 등 다주택 건축 현황으로 아파트 47동에 2,519세대, 연립주택 49동에 580세대, 다세대주택 53동에 420세대로 총 149동 3,519세대가 완도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쌍용 더 플래티넘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발파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쌍용 시공사 측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림아파트 103동 앞과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민수용성 등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동아..... 학림아파트 103동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완도군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 1차 변동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완도읍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2021년도 인구는 2020년 대비 257명이 감소되었으며, 2019년 대비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주택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전망입니다. 신

축아파트의 브랜드화 및 경관적 가치 향상으로 도시민들이 주말에 쉬고 싶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완공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구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예정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공동주택계획 문의가 있어 향후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건축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다세대 주택 건축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완도읍의 공동주택이 149동에 3,519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완도읍 거주 인구 대비 공동주택의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 완도읍은 2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반면, 현재 예전 구조는 방이 3개였는데 현재는 방이 4개, 화장실 2개 그런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주택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현재 예전 단독주택들은 거의 비어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의 뜻은?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단독주택은 별도로 가는데요.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화장실 하나에 방 2개, 3개 거실에 사시는데, 아파트에 거의 방이 4개짜리가 들어옵니다, 화장실 2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섬에 있는 자녀들이나 섬 주민들이 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완도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완도읍에 대한 것하고, 섬 주민들 자녀들이 완도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 중이고 개통되면 접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대비 투자비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금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업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도 완도읍의 공동주택은 그래도 지금도 이상 많이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빌라하고 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그런데 건축에 따른 인구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계획안

문의로 향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완도읍 인구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인구는 약간 감소세가 있으면 주택은 증가세에 있는 이유가 주택 1가구, 1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집을 선호하는 형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 사람이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들은 생활하기 진짜 편리하게 건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거기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주택과 인구 유입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생긴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된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많은 효과는 없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소음, 진동과 주민수용성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집단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본안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 등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수용성 같은 경우에 1층 학림아파트 주변에 조망권, 환경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반대건의가 있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불응하겠다고 강력하게 제

재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건축 관련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존부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축허가 신청 서류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행사나 시공사보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경로당 시설계획이 반영되어 허가된 건이 얼마나 되고,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경로당을 공동주택에 하기 위해서는 150세대 이상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허가해서 추진 중인 것은 쌍용 더 플래티넘만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 들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일반신축하고 있는 다른 동들은 그냥 16세대나 연립주택형 그리고 120세대 규모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권고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시설이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중에는 준비 중인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건축 규모

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진행 중인 건은 7건을 하고 있습니다. 총 369세대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던 것은 2건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롯데슈퍼센터 부지에 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리 585번지 내에 보면 가리포진..... 하늘정원 아래쪽에 거기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52동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하늘정원 자리에 1단지, 2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도 40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요. 오션아파트 인근 거기도 78세대 (청취불능) 소방협의회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40세대로 5층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 한우명가 자리에, 거기도 18층짜리 39세대가 계획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서류 문의가 들어왔거나 접수가 되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법적검토 중인 사항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최정욱 의원

예. 현재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7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수산고등학교, 거기 옆에도 아마 들어온다는 말들이 있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별도로.....

○최정욱 의원

아직 접수는 안 됐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자문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정욱 의원

거기도 꽤 큰 것으로 아는데, 세대수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거기 그러지. 또 지금 회센터 뒤에, 학림회센터 뒤쪽 거기도 말이 나오던데. 거기도 꽤 큰 것으로 지금..... 40 몇 층인가 3동, 거기는 어떤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학림회센터 아직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아, 지금 군청..... 그 향만터미널 앞입니까?

○최정욱 의원

여기 향만터미널.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거기는 주택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이 포기를 한 상태여서 사후 시공사가 와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높이는 말씀하셨듯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그 서류접수 후에 조사해 보니까 토지소유권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또 지역지부라든지 이 부분은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다 들어보셨죠,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지, 지금 망석리도 있지. 망남리로 넘어오는 고개, 거기도 지금 한다는 말이 있지. 여기 등기소 있는 데, 그쪽에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현재 접수된 것만 7건이 진행 중이었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시공사라고 그러면 자문

을 구하고 법적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몇 층인지 몇 동인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최정욱 의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현재 들어온, 지금 된 것은 일곱 군데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추진 중입니다.

○최정욱 의원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어차피 경로당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부서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경로당 시설계획을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우리 군에서 경로당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들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

신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21년 계약업무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계약 총괄은 총 1,282건에 917억 7,000만 원입니다, 917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관내 업체는 822건에 377억 4,2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64%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사가 총 547건에 540억 3,6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480건에 290억 8,8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87%입니다. 용역은 총 474건에 227억 9,2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233건에 51억 7,8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49%이고, 물품은 총 261건에 148억 7,9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109건에 34억 7,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41%입니다. 공사와 달리 용역과 물품이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등록된 면허업체가 없거나 관련 전문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쪽,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입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가 적용 중입니다. 이 특례는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종합공사가 기존 2억에서 4억,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 전기 등 기타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용역과 물품은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금액이 2배로 확대되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에서는 추정가격 기준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률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1,000만 원 이하 95%, 2,000만 원 이하 94%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98%로 상향할 경우, 2,000만 원 기준 계약금액은 1,960만 원으로 상향 전

대비 8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 수의계약 등 금액의 범위 상향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이렇게 본안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업체계약 현황하고 인센티브 방향밖에 없습니다. 답변서가 좀 많이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성의하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회계업무는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또한 쉽습니다. 본의원은 회계업무를 청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뭐 실시한다면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답변 한번 해 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 관련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2013년에 우리 군에서 회계 운영 5억 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있는 이후,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 전산 구축 강화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례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에는 회계 실무와 결산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회계결산 교육을 실시했구요. 작년에는 직접 품의, 전자결재 연계 시행에 따라서 본청과 읍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호조라고 그러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업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재무회계 관리규칙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관련해서 지출과 계약 업무 그리고 5월에 실시했던 전라남도 종합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계약회계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군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회계규정, 모음집, 사례집 등을 책자로 발간한 적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2019년도에 회계실무편람을 만들어 책자를 배부한 적이 있고요. 금년 1월에 회계 관련 훈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매뉴얼을 새롭게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 배부를 하면서 1, 4분기 중에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가지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서 읍면에도 배부하고, 이런 적절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에서 임용된 지 1년에서 3년차 직원들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에게는 회계 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2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와 별도로 신규임용, 1년에서 3년인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공사계약 중에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64%로 나와 있습니다. 주위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전체적으로 입찰, 수의계약, 총괄..... 뭐 공사, 물품, 용역 총괄해서 전체적인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64%입니다마는 다른 타시군 대비 공개적인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공사는 저희들이 87.8%, 약 88%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물품과 용역은 우리 지역 내 전문업체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 단위나 대도

시 지역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인 물품과 용역은 공사에 비해서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렇죠. 저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시군에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는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대충 해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낮다는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는 몇 개나 되고, 관내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먼저 9월 30일 기준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368개의 업체가 현재 9월 30일 기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재 계약특례가 작년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는데요.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종합공사 등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2배로 확대돼서 금년 9월 말 기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요. 194건에 약 145억 원의 사업이 지역 관내 업체에 추가로 혜택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낙찰률이 다릅니다. 그런데 목포나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낙찰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희들은 95%까지 적용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9월 말 기준 784건에 약 18억 원의 이런 사업이 지역업체로 혜택이 부여되었고

요. 방금 본안질문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 관련한 낙찰률 적용을 95%에서 9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연간 건수가 나온..... 건수를 대략 적용해 보면 약 9억 원 정도의 혜택이 추가로 지역업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관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 생각에는 1년 더 연장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특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꼭 건의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찾아가셔서 좀 더 연장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술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전
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상권 르
네상스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방안 검토입
니다. 완도군 특화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
계하여 해양치유전통시장으로 특화이미지를
조성하고 노르딕워킹 건강체조교실 등 체험
형 콘텐츠 개발과 시장 장옥 내 고객휴게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휴식공간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완도군 전

통시장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지원내역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특화시장
으로 브랜드화하고, 워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
한 야시장 및 플리 마켓을 정기적으로 운영
하여 완도군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서
비스 개선, 워크숍 및 견학, 문화체험 프로그
램 운영 등 상인 역량 및 자생력 강화에 힘
쓰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 감소와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워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
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에 전통시장이 3개 있죠? (예, 그렇
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런 현상이 일
어나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
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이것을 관광성으로 다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일부 이렇게 알아보면요. 제가 완도 같은 경우 5일장으로 해서 5일, 10일하고. 또 다른 도서지역을 보면 2일, 7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상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상시 운영은..... 지금 현재적으로, 정기적으로 2일, 7일장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일장이 또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나 이렇게 관광까지 같이 합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이렇게 여쭙본 것이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LPG를 하면..... 각 섬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PG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상 도서지역이나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선 의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도서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LPG를 이렇게 가스를 들고 다니고 운반하는 것은 참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또 여객선도 안 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섬 단위들은 인덕션, 전기 가스레인을 사용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처음에 어르신들은 사실 사용하는 데에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가스를 가지고 운반하는 지역주민들은 인덕션으로 해서..... 뭐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완도읍 공급현황은 완도읍 중심지역 19개 마을

3,996세대이며, 시설별로는 공동주택 1,443세대, 일반주택 2,268세대, 기타 285세대입니다. 사업신청 세대 중 미공급 세대 현황은 14개 마을 295세대이며, 주요 사유는 암반지역 72세대, 붕괴위험 39세대,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굴착 불가 등이 184세대입니다. 미공급 취약지역은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향동리 새뜰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진입로 협소로 불가하였던 미공급 세대 중 20세대에 LPG 배관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준공식 개최 등 사업완료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10월부터 세대별 자부담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10%이며, 세대별 평균은 10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LPG 배관망 사업 확대 보급계획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존세대는 150세대에서 1,000세대로서 각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존세대는 100세대 미만으로서 우리 군은 2016년부터 도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당 울포마을 등 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생일 덕우마을 등 5개 마을이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취사난방용으로 LPG 용기와 등유 등으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현재 미공급 세대들은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배달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아, 우리 LPG 배관망을..... 배관망 시설이 될 때는 저렴해 가지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아니, 그 동향에 대해서는.....

○이범성 의원

일부 구간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체들한테..... 업체도 마찬가지로 또 시설이 안 된 부분들은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LPG 배관망 업소가요, 7개에 달하는데. 조만간 1~2개 업체로 통합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고지대에..... 도로 폭이 좁아서, 굴착이 안 되어서 못했던 데랄까. 아니면 지대가 높아서 LPG가 못 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급업체에다가요, 배달해 주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네.”, “길이 좁아서 배달하기 어

럽네.”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PG 배관망이 깔아진 사람들은 “옛날보다 50% 정도 LPG 값이 싸졌네.”라고 웃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LPG 한 통을 시키려면 벌써 부터 사정한데요, 사정. 업체가 줄어들어 버리고, 업체가. 이런 부분들에 현상이 오는데, 군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사실 한 바는 있습니다. 배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협조를 했는데. 지금 업체가 4개로 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업체와 협의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좀 경제교통과에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은 배달이 안 되는가, 진짜로 안 되는지 또 지역민들이 말로만 그러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LPG 배관망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를 지금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소외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파악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모든 군민은 우리 완도군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과장님이 좀 체크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에 다가서서 또 앞으로 더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향도 제시해 주고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요, 홍보물인데. 읍

에 다니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라 처음에 80만 원인가 자부담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계속 국비를 들여다가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니만 또 돈을 주라고 하냐. 또 돈을 주라고 하냐고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경향이 많거든요. 아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의원, 왜 또 돈을 받아가. 그것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야?”라고 이런 것이 홍보 미흡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LPG 배관망 사업에서, 사업단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저놈들한테 맡겨놔더니만, 군에서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니만 저 애들이 또 돈을 받아 가면 이것은 뭐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렇게 나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처음에 다 고지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사소한 것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크해서 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쓰다 보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편리함과 경제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은 2021년 9월 말 기준 2,140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제도로써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는 동남아 16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인을 국내산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기간이 기본 3년입니다.

이어서 6쪽, 인력수급의 문제점은 관내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배정인원이 부족하고 등록된 외국인도 도서지역을 기피하며 농어가는 단기일감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또한 직업소개소 확대를 위한 신청서류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의 인력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장님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군에서도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 또 계절근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확대를 해서 고용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인력난 문제가 시급한지 몸소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도가 수산업 위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력난이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더욱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일용직 인건비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남자는 17만 원, 여자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것이 섬에 있는 일용직의 현실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510만 원, 한 4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고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직업소개소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인력수급대책회의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외국인 유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혹시 완도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알고 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0명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올해해서 딱 1명이었다고 합니다, 1명. 그러니까 외국인을 수협에서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주된 수입이 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이 문제가 무너지면 완도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력난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협의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협의된 일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앞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인력난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호 의원

지금 전국 지자체가 시군 단위가 그 인력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시장, 군수, 의회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인력난입니다. 특히 완도는 더 섬지방이라 심각하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간단하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398세대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외국인 가족들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통해서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문화가정한테 한 분당 친인척을 모시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검토해서 그것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 부분은 군에서도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돈 벌러 오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대우만 잘해주면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근로자들이 빨리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방향을 연구해주시고. 또 고용주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물입니다, 보물,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또 특히 경제

교통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 축산, 뚝 수산 관련해서 다 부서가 있습니다. 마는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마지막으로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완도항에 정박한 조업선단은 약 3,220척입니다. 조업선단이 완도 군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조업 선박이 입항하면 면세유 구입, 선원 경비 및 숙식비,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한 척당 약 2,54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8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으로는 지난 6월에 구 해경 전용부두를 매입하여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 시설, 비가림시설,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급랭창고, 선별시설, 제빙시설, 물품 공급시설 등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업선단의 원활한 야간작업을 위하여 조명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

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조업선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내 대형선단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조업선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업선단 전용부두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이번 추석연휴 전에 농공단지와 고금면에서 작업 중인 고등어선단 작업장에 찾아가서 선주 및 고등어 종매인을 만나보았으며, 완도항 일원에 정박 중인 외지 선박의 선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1일 입항 시 어획물 반출 및 어구 손질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얼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본사안을 안건으로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말 현재 조업선단 3,220척이 완도항에 입항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근해 조업선단들이 완도항에 입항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어획량 증가 시 선석 포화로 인한 입항 대기, 접안의 문제와 또 얼음 공급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78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에 따른 공급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한테도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는 해서 간단히만..... 배가 사실 접안하기 어렵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외지선단들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완도금일수협 위판장 인근에 조업선단이 정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완도읍 농공단지 구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 6월에 해경전용부두를 군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업선단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야간조명시설 같은 것들은 설치를 완료했고요. 비가림이나 배수시설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현재 거기까지만 지금 추진 중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정욱 의원

예.

제주 추자도 인근이 천혜의 어장지로 전국 각지에서 각종 어선들이 몰려드는 조업지입

니다. 이곳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은 어획물 하역 및 어구 손질 등을 위하여 근거리 항구로 이동하는데, 조업지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목포항까지는 약 2시간, 여수항까지는 6시간, 통영항은 10시간, 부산항은 1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단거리인 완도항은 정박시설이 부족하여 거의 입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은 80~90년대에 꽃게철이면 수많은 꽃게잡이와 어선들이 완도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많던 꽃게잡이 어선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또 4~5년 전만 해도 통영, 삼천포에 장어잡이와 연승어업 입출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정말 단거리라는 것은 어선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지리적 요건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최적지라고.....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잘 안돼서 이렇다면 참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도 말했지만 한 척이 오는데 약 한 2,400, 2,500.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2,540.

○최정욱 의원

2,540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2,540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척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약 한..... 내가 봐서 10 몇 억 한 20 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배에 와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 경제를 살려주면 아마 그 경제가 바로 다른..... 파급효과는 다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저런 것은 타시군이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좋은 조건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구 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시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현재 아까 임시시설은 저희들이 완료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필요한 시설이 제빙 그다음에 선별, 하역시설 그다음에 가공공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국비 확보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너무 놓치면 안 되겠다 싶고. 또 민자유치만, 이것을 꼭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그러면 아예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국비 확보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완도금일수협 의 일일 얼음 생산량이 78곽이고 2일 생산 후 1일 휴식으로 올 20일 1,560곽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등어선단 한 척 입항 시 500에서 1,000곽, 유자망어선의 경우 5개에서 10척이 같이 작업하면 한 척당 50에서 100곽의 얼음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생산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목포 얼음공장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얼음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외지선단을 기다렸는데 목포까지 얼음을 가지러 가서, 목포에서 안 해주면 또 씻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 배가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우성을 봤었는데. 정말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의 얼음이 있어야 배들이, 외지선단이 싣고 바다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더구면, 저도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민자유치가 안 돼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완도금일수협에서 제빙시설을 할 때 총 60억 9,400만 원을 들여서요. 국비 23억 6,800, 도비 5억 3,300, 군비가 12억 4,300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빙공사에서 약 한 270곽을 생산했다고 해요,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1일 생산이 70밖에 안돼요, 70

곽. 그러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제빙시설을 할 때는 그전보다도 더 현대화시켜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250곽인데 70곽으로 줄어서 이런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나면 현지전문인들과 상의도 안 해봤고 그런 것을 시설할 때는 우선 돈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 건물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지. 생산량,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생산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가. 이런 기초자료와 같이 전문가들의 소견도 듣고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지역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국비하고 해서 할 때 이런 잘못된 현상이 나오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제빙공장을 하면서 이런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입항장 부두 현장에서 얼음 공급 관련 서로 싸우는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이처럼 얼음 공급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것 동의하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조업선단의 정박시설 정비의 원활한 공급 등 서비스, 충분한 작업인력 확보 등 시급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외지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굳이 부산, 어디로 다니면서 유치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기반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이 좋은 조건에서 가까운 데로 오려고 그러지, 먼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선단들이. 경비를 들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꼭 좀 투자유치가..... 기대만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군비, 아니면 국비라도 해서라도 지어서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조업선단이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 가보니까 고등어선단인 것 같은데 물을 바로 바다에다가 빼더라고요, 그것 핏물이던데. 물론 그것을 오폐수라고 볼 수는 없는겠지만 외관상으로 보나 환경, 연안에서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볼 때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기왕 할 때 그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기왕 하는 김에 그것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마 타시군도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야..... 왜냐하면 다음에 그런 물을 못 빼게 하면 다른 시군으로 안 가고, 우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먼

저 선제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외지선박들이 완도항 입항 시 우리 군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올 8월 말 기준 약 800억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최정욱 의원

맞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유발 효과는 정말 크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그냥 지나쳐만 왔지만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선단들의 입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숙박시설과 식당이용 및 식자재 구입, 어획물 선별과정에 작업인력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완도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완도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1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입니다. 학교급식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87개교 5,43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Non-GMO 식재료 지원의 경우 고등학교를 제외한 81개교 4,37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도군 학교급

식 식품구입처 현황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처는 완도군 관내 5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타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최근 3년간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입니다. 2018년도에는 Non-GMO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Non-GMO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간 친환경 농산물 집행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8억 원 수준이었으며, 2021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선정방법 및 모니터링 여부 실시현황입니다. 공급업체는 올해 초 고시공고를 1개월 간 실시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모집하였고, 선정기준인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부합하는 업체를 현장 확인 후 심사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급가격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및 공급업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공급업체의 교육 및 지도감독은 매월 2회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를 방문하여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급업체 운영의 적정성 및 식재료 위생 보관상태 및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식재료 안전성 검사영역을 시행하여 매월 업체별 2개 품목씩 시료 수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학교급식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교육지원청, 각 학교영양사, 공급업체 대표들이 모여 가격을 협의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로는 관내에 납품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친환경 농산물 외에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점과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타시군에서 공급받아야 하므로 사업비가 과다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다품종 소량의 식재료를 원하지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내농가의 경우 소품종 대량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대하여 납품단가 할증 적용 및 친환경 농작물 재배품목 다양화와 영농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급식을 공급 확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급식대상 학교를 식자재..... 그 다섯 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데에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공급업체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 그래요.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우수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으로만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지역 식품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곡류는 지금 현재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업체류 하고 기타 품목에서 약간의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방금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납품하는 업체들이 저장창고가 좀 작죠, 저장시설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맞습니다, 예.

○김양훈 의원

작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때 수확한 것을 전부 납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어 하고, 납품업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시설이 안 되니까. 그렇다 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정집에서, 농가에서 일일이 다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하려다 보면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납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뭐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급업체..... 농산물 공급업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량의 소품종으로 이렇게..... 소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서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통해서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소량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급업체는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저장시설을 좀 늘리든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업체가 관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관리해 오는 것만 가져가니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정확히 정리해서 농가한테 좀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해서 가능하도록 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식재료 공급자가 학교에 납품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도에서 정해진 부분이 45개 품목이고요. 나머지 품목은 한 15개, 1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60개 정도의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럼 쌀은 전부 우리 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김양훈 의원

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쌀도 같이 품목으로 쳐요.

○김양훈 의원

거의 다 완도 것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거의 완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100% 다 보장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김양훈 의원

뭐 채소류는 몇 종류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것 타지에서 들어오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채소류나 기타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대형 공급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농산물시장이나 뭐 나주 쪽.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를, 공급업체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저희들이 채소를 하는 농가는.....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그쪽이 단가가 싸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완도에서 그것을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이나 일반 소비자한테.....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맞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맞습니다, 예.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어차피 그 부분은 친환경 품목만 지금 납품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은 많이 확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는 품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농가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요즘에 GAP 인증이라고 그래서 뭐 아기 때부터 성장기까지 중금속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 그런 인증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봐서 철두철미하게 좀.....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친환경적으로 먹고 탈 없이 자라야 되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식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타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까 5개 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관리감독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관리감독은 우리가 매월 2회 2번 정도 공급업체하고 학교급식업체 이렇게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월 2회 점검을 빠짐없이 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김양훈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타지에서 오는 제품들을 전부 다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싱싱하고 친환경적인 것만 가지고 오겠지만 그 감독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먹었을 때, 급식으로 갔을 때 잘못하면 탈나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공급업체에 매월 가면 그 제품별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제품별로 해서. 그래서 순천에 있는 그 한국농식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그럼 검복된 식품 중에서 수산물은 우리 지역 것이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김양훈 의원

수산물,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것. 이런 것은 급식할 때 우리 군에서 납품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아, 우리 품목이 한 12.5% 정도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수산물은 뭐 많이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아, 수산물은, 수산물은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51%요? (예)

어떤 종류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뭐 해산물 종류도 있고요. 어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요목별 품목 정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그럼 지금 나머지 49%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품목도 자세하게 한번 서면으로 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87개의 교육기관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비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매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학교와 같이 해서 수시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양훈 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완도군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식품비 중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도비, 군비, 교육청비 해서..... 그 100%를 하는데 도비 15%하고 군비 45%, 교육청에서 한 40% 지원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럼 타 지자체는 몇 프로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타지자체는 시군별 그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광양시를 포함해서 15개 군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광군은 90%, 강진, 신안, 장흥, 목포, 완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우리 군이 지원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이 조금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양훈 의원

자부담하고 식재료 조금 하다 보면, 100% 안 되면 약간의..... 업체 쪽이나 이쪽에서도 조금 질 떨어진 급식식품이 좀..... 그렇게 납품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꼭 챙겨서 100%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다음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들장논 연혁입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독특한 관개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와 2014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았으며, 올해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등재 신청을 위해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이사회에서 구들장논 관개배수시스템이 후보군으로 결정되어 6월에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1월 말에 모로코 집행위원회에서 유산등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들장논 보존을 위해 2014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를 설립하여 농업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0년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들장논 휴경 논 복원, 정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경관 보전사업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식품 장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원사업입니다. 구들장논의 정비 개발 및 환경 개선, 가치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 다원적 활용사업 15억 원

의 사업비를 받아 농업 유산 기초자료 및 자원조사, 구들장논 오너제도 운영, 정비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2억 원의 농업유산 보전 관리 사업비를 받아 휴경 및 복원 정비, 복원된 구들장논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경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는 최근 3년간 보존협의회 주도로 10헥타르 면적의 구들장논을 복원, 정비하였으며 4개 마을에 구들장논 생태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관내 및 광주, 서울, 서울지역,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초청하여 구들장논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구들장논의 생태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와 유사한 농업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 주민 자체사업을 발굴하였고, 복원된 구들장논에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피크닉 운영, 청산 장기미에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보존협의회 주도로 관광상품 개발과 농업유산 관광 자원화에 힘써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 농업유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와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비 2억 원 중 구들장논 복원 정비 및 경관 관리사업 등 1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보존협의회 운영과 사무국장 인건비 2,600만 원을 군비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존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용역을 구축하고 구들장논에 보존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구들장논 매매 현황입니다. 청산도는 전체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2021년 10월 현재 청산도 답은 1,541필지에 106헥타르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들장논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388필지에 30.1헥타르가 거래되었으며 관외자는 67필지에 6.6헥타르로, 전체 거래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면서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구들장논 역시 훼손 및 방치된 논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과 인력투입에 한계가 있어 전체 구들장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핵심 보전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경험이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상의 얼과 숨결이 깃든 구들장 논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1월 말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발표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어떤가요, 잘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지금 현재 구들장논 보전두레라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거기에 지금..... 그 핵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양지, 상서, 청계 그쪽 마을 주민들, 이렇게 돌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예)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 보면 지금도 이제 많이 매매가 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조금 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물을 보존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 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관리가 지금..... 그 지정해서 지정된 지역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것이 지금 외지인들한테 많이 팔리는 부

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청산구들장논협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개인사적인 관계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차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게 가능하다면 매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들장논협의회에서 그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존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보전두레에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관리를.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그 김재홍 의원님께서 안 나오셔서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홈페이지 가끔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자주 들어갑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보고 외지인들이 다양한 홍보 같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한 점을 다 해소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산도 구들장논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굵직굵직한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관리에 소홀한데. 과장님, 직접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사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당초 이것이 2015년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2015년대에 사실 구들장논보존협의회에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구들장논보존협의회에서 관리자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산도 구들장논 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완도군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사업비가 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좀 개편하면서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그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연동할 수 있으면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청산도 관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해 온 구들장논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농업유산 구들장논과 슬로시티 청산도 관광 활성화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우리 청산도 관광 활성화사업은 농업분야 쪽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정비사업하고 경관관리,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 지원을 2014년도에 받았고 2018년도 이

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전관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사고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외부인들이 매매해 버리고 하면..... 아까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권 주장하고 뭐하고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들장논을 후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아마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다음은 8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경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 현황입니다. 청산면 경관관리 식

재는 당락리와 국산리, 두 개 마을에 157필지 13만 6,000평방미터에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동계작물인 유채는 110필지에 10만 5,000평방미터를, 하계작물인 코스모스는 47필지에 3만 800평방미터를 식재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관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경관관리 지원사업은 청산면에서 경관을 재배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임차료를 농촌관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면 평방미터에 170원을 지원하는 경관보존직불사업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 지원사업비는 2018년부터 매년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죄송합니다. 다음은 9쪽, 미흡한 점과 사업성과입니다. 경관관리 사업은 매년 청산의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 재배 및 보존활동을 통해 청산도의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은 연간 25만 명 이상 방문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은 평균 15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청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경작 포기 등의 휴경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동일 필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병해충 및 생육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고령화되어 제초작업 등의 관리가 어려워 기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살포 등을 통해 토양

개선과 유채 수확기에는 제초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경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방금 전과 동일하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산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청산관광의 기초는 농업축산과 경관관리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유채와 코스모스 파종과 제초작업 시기를 놓쳐서 작황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마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유채는 보통 10월하고 11월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을섬 여행축제로 인해서 파종이 좀 늦어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동해하고 강릉 등의 이상기온에 의해서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해서 제

때에 꽃이 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좀 신경을 덜 썼죠? (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했듯이 청산의 최고, 처음에 시작된 관광의 모태가 아마 이 경관작물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한해 시작 점들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그 부분은 이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만 놓쳐버려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리고 과장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답변서에 보면 “지금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다.”, 뭐 정확하게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고령화 때문에도 관리가 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기계화를 한다든가. 방금 여기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계화 등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된다고 보시죠, 뭐 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래서 이 사항도, 그전에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기존대로 할 것인가,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청산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의견과 청산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경관작물 파종시기나 제초작업 뭐 그런 시간적인 것,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시스템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 농민들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하다 보면 아마 새롭게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청산도..... 이제까지의 관광객들이,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좀 관광객들이 감소됐다고 보는데.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새로 태어날, 시작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앞장서 가지고 경관작물 관리사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다음은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읍면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억 7,986만 5,000원, 2020년에는 3억 7,930만 원, 2021년에는 4억 312만 3,000원으로 2021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농기계 지원 예산액은 도비 보조사업과 순군비 보조사업의 확대입니다. 읍면별 지원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신청대비 농기계 보급률 현황입니다. 2019년 289 농가가 신청하여 279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보급률은 98%입니다. 이후 2020년 보급률 91%, 2021년에는 449농가가 신청하여 281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보급률은 74%입니다. 농기계 보급률이 2019년 98%, 2020년 91%, 2021년 74%로 보급률이 낮아진 사유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농기계 지원 예산은 매년 유사한 신청 농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기계 신청 농가는 2019년 289농가에서, 2021년에는 449농가로 55%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020년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 공익수당 등 농업 관련 지원금이 증가하여 소규모 신규 농어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읍면별 농기계 신청 대비 보급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은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비 내에서 읍면별 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군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비 배정기준은 기본량 네 배에 기본직불 지급면적 비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 비율 등 실제 농가를 짓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은 읍면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

안 및 대책입니다. 향후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농기계 예산으로 대략 400여대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5억 1,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2억 원은 순군비 사업 예산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예산의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농작업 수행 시 필요한 농기계는 용도별로 다양하나 신청자 중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밀려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 향후 지원받은 이력을 3년 이내에 후순위로 선정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침이 지원액 기존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부담이 증가하여 부담이 가중됩니다. 향후 순군비 사업의 경우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지원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의 지원신청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2020년도에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그 농어민 공익수당금하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신규 농업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어민들이 영농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농기계가 필요해서 추가 신청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욱 의원

결론은 어쨌든 농가들의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농기계 보급률이 2019년 98%, 2020년에는 91%였는데 2021년은 74%로 저조합니다. 농기계 지원신청은 많아지는데 2021년 농기계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최근 3년간 그 농기계 지원 예산을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신청 농가가 아주 갑자기 급격히 계속 늘어난 것을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 지원자격도 여기에 영향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최정욱 의원

특히 고금면 보급률을 보면 2019년도에는 100%, 2020년도에는 44%이고 2021년에는

47%에서 2019년에 비해 보급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급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금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까지 보조가 되는데, 보통 보면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고금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 보면, 표에 보면 고금도에도 작고 우리 완도도 보면 지원율이 거의 40%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완도도 똑같은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같은 현상입니다.

○최정욱 의원

그럼 올해 특별한 이유네요, 이것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최정욱 의원

그전에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전에는 거의 100% 선에서, 한 80~90% 선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공익직불금이나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최소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이렇게 농어민으로 인정 받으니까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신청량이 늘어났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것이 늘어나면서 농기계도 비싼 것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보조사업 이외의 순군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답변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과 순군비 사업비를 확산한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만 도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2배로 늘어났고 순군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순군비 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비로 보여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 수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결론은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순군비를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 과에서는 신청했는데 예산서에서 안 준 것입니까? 안 할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이것이 한번 이렇게 밀려버리면 계속 밀려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농기계 구입이 1년에..... 매년 늦추면 계속 이것이 늦추게 되거든요. 못 해주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최정욱 의원

우리 농업이 지금..... 담당관님, 한번 들어 봅니까. 농업인구..... 지금 농어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어업인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가는데, 우리 농업인 농어업 정말..... 소외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그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듣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우리 예산에 정말 얼마 아는데 이런 것을 놓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예산이 우리가..... 정말 큰 예산이 투입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만 정말 한 2억, 3억 이렇게만 해도 이것이 원활하게 풀어나갈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외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완도는 타지역하고 다릅니다. 대농가인데 우리는 소농가거든요, 완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우선 그 최근 3년간 소형 기계 보급예산을 보면 대부분 4억 원 안팎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약 2억 정도, 그다음에 순군비 사업에서 2억 정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합쳐서 한 4억 정도 되

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그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신청하신 분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급증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신청량이 폭주했습니다. 폭주된 차이를 분석해서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추가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늦춰지면 계속 늦춰지거든요. 올해 사실은..... 저도 민원 제기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번에 맞춰서 그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저도 요구를 안 했었는데요. 그런 민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벌써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뭐하더라도 지원부서에서 한 번은, 이런 것을 이미 파악했으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인근 시군에서는 10억 이상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인근 시군보다 농업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서로 형성된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이런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 축산과에서도 농업인의 고충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앞으로 농기계 수요가 다양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쨌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농어민의,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예산기획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또 예산실도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 농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10개소로 민간투자 1개소와 도서지역 소각시설 9개소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약산면 소각시설은 시간당 350kg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시설인 자원관리센터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입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읍면 폐기물처리장은 최초 신규설치 시에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설치 후부터는 운영경비, 설비 교체, 개보수 등에 대한 관리예산은 순군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개소별, 연도별 사업비가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생활폐기물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총 40건에 7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와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당일소각 처리하지 못하는 적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고지역으로 위탁 처리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 중 소각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신속한 정비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현장여건 변화로 기존 인력만으로는 수거 운반과 처리, 재활용 선별 등 노동력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시점검과 인력관리 등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격려하고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94회 임시회 때, 군정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화흥포항하고 정도리 삼거리에 있는 무궁화공원하고요. 그리고 치유공원 내에 있는 배롱

나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무궁화 언덕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완도군에 또 99호 보호수로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언론과 SNS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타부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도군의 폐기물시설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운영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용 연수가 좀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 사용 연도라고 하면은 그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설치 후부터 약 15년 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15년이나 하면 우리 시골정서상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1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

리 군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태풍 등에 의한 그 부분이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노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골이나, 이제 환경부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시골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염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15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부식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진단결과 노후화로 그것이 판정이 되고 또 이를 환경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11년째부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완도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도가 조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한 2024~2025년이 되면 1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시기에 정비라든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미리 과장님께서 선수를 쳐가지고 또 노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소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불법 소화기라든지 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법행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퇴근했다든지 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선 의원

제가 전에는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일반쓰레기들은 이렇게 태울 수 있는데, 각 마을에 소형,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것이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에 그렇게 맞게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 관련, 폐기물관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런 실정이 있는데. 또 그 일반..... 각 마을에서 태우는 쓰레기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 소각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 그런 부분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충분한 그 소각량은 갖췄다고, 시설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도 있는데. 개별 소각보다는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인데요. 청소차들이 계속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각 읍내 소재지는 그렇게 자주 하겠죠. 그런데 각 마을에 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고, 두 번씩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을 좀 충원해서 그 물건들을 그때그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안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님과 상의를 통해서요. 회수 시간대를 좀 증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럼으로써 홍보도 좀 해주시면서 무단불법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거를 하고 소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또 그 지역에서 보면 항상 이것도 민원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15년에서 11년까지라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혹시나 소각기가 뭐 이상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미리 수리도 좀 하고 민원 거리에 안 걸리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이 사실은 과장님,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가지고요. 민원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본안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스팩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활용을 위해서 읍면에다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거함을 설치한 후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군정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함 설치를 했고 또 실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된 양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하지는 않고 있고요. 배출이 되면, 적정량이 모아지면 그 부분은 뭐 인근 상가라든지 또 재래시장 그런 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제 수거해 가지고 군으로 뭐 수거해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뭐 차서..... 어디다 모았다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은 없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상황은 없고요 자체로 지금 소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완도읍 같은 데에는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읍면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은 제가 봤을 때 저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아이스팩 수거함인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읍면장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또 읍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홍보라든지 수거 그런 부분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 아이스팩이 진짜 썩지 않고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다음은 3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총 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하였으며, 시행사인 아라연 환경에서 2026년 4월까지 15년간 운영 후 완도군에 관리운영권이 귀속됩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 31일 기준 불변가를 적용해 전년도 12월 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매월 1월 중 단가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은 연간 1만 306톤의 반입량을 예상하고 가동률 협약 기준 300일에서 335일로 조정, 운영하여 8월 말까지 7,8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연간 처리 추정량보다 초과 반입된 1,078톤은 외부로 전량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입량과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및 운영주체 변경 실효성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받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사에 15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기 투입된 투자금액 상각액과 미래 기대수익의 현재액 등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남은 잔여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구에 따

른 우리 군 입장입니다. 지난해 자원관리센터 임금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12%를 인상하였으며, 금년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6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임금협상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노조에서는 9월 23일부터 파업과 함께 군 청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사측에서는 노동정의 방어권 차원에서 10월 7일부터 직장 폐쇄를 단행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지난 주 10월 25일 우리 군에서는 벽산 서울본사를 방문하여 총괄본부장 등 경영진 면담과 설득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노조 측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달했으나 인력 충원과 환경개선 등 미반영 사유에 의한 수용불가 의견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파업기간 중 적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출퇴근, 점심식사 시에 우리 공

공연대 그 집회현장을 보고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집회..... 파업 그 집회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아침저녁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그 공공연대 인력들이 전부 우리 완도군 출신인지, 우리 군민인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것은 업체하고의 계약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앞을 비롯하여 주요 시가지에 연일 현수막과 피켓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직장 폐쇄 이후 노사 대립도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진척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시설이기 때문에요. 우리 관에서,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조원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조 입장에서 많은 대변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사측하고 중재안을 제시를 해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장기화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그 서울본사에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해금이 발생하고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공연대 측에서 자원관리센터의 관리책임 그리고 임금문제 해결을 우리 완도군에서 직접 나서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노조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총원, 시설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 집회가 이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재안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조인호 의원

아라연환경이 벽산에 지불한 올 하반기 선지급 그 금액에 대하여 위탁하여 반출한 톤당 금액만큼 전액을 완도군에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재위탁 비용이 들어간 부분만 완도군에 반납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현재 반환된 금액이..... 지난 주 수요일 날 우리 군이 반납을 조치했는데요. 반납액은 8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해 가지고 12월분까지 반납을 한 상태고요. 금액으로는 1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액은 저희들이 위탁처리 비용이 아닌 자원관리센터에 지급하는 소각단가, 그 부분을 적용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조인호 의원

타지역에서는 환경지키라는 이름으로 마을 이장이나 지역주민 등이 분리수거하거나 관련..... 관련 우리 (청취불능)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부터 신문에 분리배출 협조 서한문을 내고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우리 쓰레기에 고철이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농공단지의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고 다닌다는데, 이런 우리 군에서 좀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라든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빨리 치워달라는 항의성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우리 완도군 폐기물 반출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한 업체와 계약당사자 현황과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근거. 아라연 환경, 벽산과 관련된 단가 위탁업체와의 단가 차이 이 부분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완도군이 맺은 협약서상 상기된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제 운영인력 현황도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은 부족한 상태이죠, 사

측에서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지금 현재 협약서상 인원은 24명이고요. 실제 운영은 25명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서는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조인호 의원

협상과정에 인원 보충을 하게끔 협상과정에 조율할 것이 있으면 조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년이 끝나면 2026년 4월 20일 이후로부터 자원관리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2021년 이후의 향후 일정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2023년도에 소각로 등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 후에 진단결과를 토대로 또 타당성조사 외부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지금 공공연대 파업이 2026년, 우리 완도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할 때 이런 기존의 사항이 안 벌어지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은 공공연대가 왜 파업을 하는지..... 우리 군에서 잘못해서 파업을 한 것인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공공연대 축하고 우리 벽산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군민들이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입장문을 발표해서라든지 오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연대 직원들이 우리 군민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머릿속에 두고 협상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분쟁이 터지면 국가에서 나서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중간에 조정을 잘해서 하루빨리 복귀해서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일단 저희들이 그 협상에 대해서는 오늘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오늘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차후에 협상이 결렬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소상히 올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에 더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과거 모습을 유지하면서 노후된 주거 환경과 쇠퇴한 원도심들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완도읍 원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시작해서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인정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9건의 사업을 29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금일읍 감목리 소규모 재생사업 등 세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노화읍과 군외면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2018년 완도읍 향동리, 2019년에는 완도읍 중앙리와 가용리가 선정되었고,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2021년 완도읍 향동리, 2021년에는 완도읍 성내리와 남성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9년 완도읍 용암리, 2020년에는 완도읍 노두리가 선정되었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0년에는 구 문화원이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 소방서 리모델링 사업과 노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완도읍 원도심인 중앙리, 주도리, 서성리, 용암리가 2020년에 선정되어 13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일읍 감목리구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과 4쪽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우리 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있는데 차이점, 이런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정사업의 차이는 금액 부분에서는 뉴딜사업은 100억, 인정사업은 50억 범위 내에 하고요. 사업비 매칭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6, 그리고 도비 1 그리고 군비 3. 그리고 인정사업은 6 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뉴딜사업은 4년, 인정사업은 3년. 그리고 크게 주요사업 내용.....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이런 사업. 그리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건축물 그리고 폐쇄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 생활 SOC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 2018년에는 1건, 2019년에는 2건, 총 3건이 선정돼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쇠퇴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원 발생은 주민들의 생각 차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의 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은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인철 의원

소규모 재생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소규모 재생사업 성과는 저희들이 작게는 2억, 크게는 4억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했던 사업들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해수욕욕시설 이것 작년 연말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또 시범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해수욕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변공원 주변에 즐길거리,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이하게 해수물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중순경에 준공된 다음에 11월 초까지는 매일 운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주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반응을 보니까, 그 해수를 39도로 데워서 합니다. 그랬더니 피부병 그런 데에 좋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됐기 때문에, 생활

방역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제가 듣기에도 아주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구 문화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완도를 원도심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문화원을 리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성가족관에서 부족했던 공간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충분히 협의한 끝에 그것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앞으로 저것을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지금 인정사업으로 구 소방서하고 노두리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구 소방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은 뭐 안전건설과에서는 사용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안전건설과 그리고 노두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CCTV 관제센터, 지금 군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지역에서는 즉, 구 소방서가 도에서 우리 군으로 지금 넘어왔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뭐 사회단체의 무슨 사무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청사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 비율이 7 대 3 아니면 6 대 4 아닙니까.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완도읍, 금일읍 이쪽인데. 그런 데에만 준하지 말고 노화나 다른, 고금이나..... 우리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

이..... 이 읍면지역만 해당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쉽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완도군 내에, 도시지역 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 이렇게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군외면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박인철 의원

아, 군외면까지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박인철 의원

그렇죠, 금일 감목리 이런 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촌 뉴딜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인정사업을 하고 나서 더 다른 큰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 감목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소규모 사업을 신청할 것인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입니다.

○박인철 의원

예비사업 성격?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해년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시기 바랍니다.

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감사합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다음은 5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읍 시가지 도로 맨홀 현황입니다. 완도 중앙리, 향동리, 개포리, 신기리 등 주요 시가지 내에 지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된 도로 맨홀은 우수맨홀과 오수맨홀 그리고 가스맨홀 등 약 1,050여 개가 있습니다. 기타 통신과 제수변 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 도로노면과 높이가 맞지 않아 정비 필요한 맨홀은 점검결과, 10개소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완도 시가지 도로포장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LPG 배관망 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 사업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한 도로포장 현황은 총 52.4km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과 시가지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였고, 도로포장 시 부서장 일일 현장감독과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시고 있고, 군수님 지시사항과 공사 중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맨홀 31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 맨홀은 도로공사 시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높이가 맞지 않아 도로 균열과 침하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침하되고 돌출된 맨홀과 완도읍 도시 정비에 포장이 필요한 도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각종 사업 시 맨홀과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완도읍 도로계획도로에 도로맨홀이 1,050개가 있는데, 이 맨홀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맨홀은 우리 군에 해당되는 우수나 오수 그리고 이번에 LPG 배관망 사업으로 해서 가스 배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된 것은 KT, 그리고 제수변 같은 경우는 Kwater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 맨홀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았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예)

사실 뭐 맨홀 이것이..... 어느 것이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타지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사소한 것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지역의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의 평가하는 기준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고. 사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불편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완도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지금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대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과정에서 관련기관들과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어차피 우리 지역개발과만 소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 뒷면 어떤 공사에 관해서 수도 또 전기, 통신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시지역 내에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이번 차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리고 어찌됐든 다른 실과에서 하더라도, 도로를 할 때 그 맨홀에 대한..... 불량맨홀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는가요, 보통?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사전에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하니까 이제 이것이 닳고, 또 소규모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합니다. 다마는 약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을 규정으로, 하여튼 딱..... 도로포장할 때 설계를 아예 딱 그것을 맨홀을 넣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어때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설계에 반영합니다. 설계에 반영하는데, 누락되거나 놓쳐버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아, 하는데 원래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나 통신은?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같이 합니다.

○최정욱 의원

같이 합니까? (예)

포장공사 시 불량맨홀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정비대상 맨홀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완도읍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완도읍,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인 그 경찰서 삼거리부터 항만터미널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 구간 안에 있는 불량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0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이것은 큰 도로변을 말한 거죠, 지금?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제 완도 시가지 내죠.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생활도로 이렇게 뒷골목들, 작은 도로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잘 봐야죠, 그런 곳 보면 아직도 지금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기나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맨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신 아니면 전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쪽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를 할 때면, 그쪽에서 일을 할 때 그 도로변하고 마치는 그..... 자기들 공사할 때 그것이 설계에 안 들어갈까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제 저희들은 큰 공사할 때,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반영하고요. 자기들 사업에 의해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약간의 안정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리가 나거나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에 보면 전기나 통신이 저속에 묻혀 있든가 그래요, 나와 있던가. 이런 것은 그쪽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대상 맨홀 10개소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포장 계획,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포장사업계획을 맨홀 관리기관이나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통보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구간을 포장한다, 설계를 할 때는 해당 그 맨홀에 대해서 해당 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은 것은, 소소한 것은 직접 하고요. 좀 개수가 많다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서 통보해서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 관련 부서 것이 아닌 것은, 그쪽 것은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던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먼저 사전통보를 해서 그것을 설계 반영에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을 그쪽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쪽에서 하죠. 그런 것을 꼭 해서 할 때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포장계획을 맨홀 관리기관이나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통보하여 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포장 전에 맨홀 높이를 포장 노면과 동일하게 정비하도록 한다면 예산 낭비도 막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량맨홀 정비와 같이 사소한 것으로 주민이나 차량 운전자가 불편을 느끼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하는 행정은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허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해남군 송지면 송호
리가 종점인 지방도 806호선을 완도 화흥포,
소안 횡간도, 노화, 소안 구도, 청산도, 생일
도, 금일 국도 27호선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806호선의 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을 전라남
도에 제출 및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건의한 노선은 시군 간 간선도로
망 역할 미비와 지방도 지정요건에 부적합하
다는 전라남도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선을 영암 삼호, 해남 송지, 완도
군외, 흑일도, 노화 마삭도, 노화읍, 소안 구
도, 소안 월항리, 소안 비자리로 변경안을 만
들어 전라남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본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
립용역 내용과 지방도 지정요건 내용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도 승격 노선 현황도는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
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화 구도~소안은, 이렇게 연도교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
고 또 지방도로로 내기 위해서 과장님이 많
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
문을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1차 구간과 2차 구간이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
니까, 그렇죠? (예)

지방도로 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방도 승격을 말씀하십니까?

○박재선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지
방도 승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2개 안으로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금 1차 구간은 도서개발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고요. 2차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지방도로 내놓은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용역인데. 거기에 도하고는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최근에 군수님도 모시고 10월에 도지사님도 뵙고요. 국장님도 뵙고 해서 저희들의 안을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 도서개발사업비가 계속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신지라든가 고금, 약산은 10년이 넘어서 예산이 없다시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빨리 승격되어야지 만이 전라남도하고 지방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지방도로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도 또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로 되어 있던..... 금일 간에 국도 승격도 됐지 않습니까. 860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할 806호도 지방도로 빨리 좀 돼서..... 나중에 후차되겠지만 또 전라남도 와 합쳐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상세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

게끔. 또 군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일부만 또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계기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단계에서부터 어떤 단계로 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 지방도 승격 요건은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도청 소재지하고 시군하고 연결된 도로라든가 또 시청 또는 군청의 소재지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완도 화흥포에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방도 승격 요건에는 부적합해서 불가피하게 해남 땅끝에서 806호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몇 번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빠르면 연말 안에 빨리 지정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 안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홍보도 더 해주시고요.

또 항간에 보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선공약에도,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 노선을 대선공약에 일부 반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이것이 국도 승격하듯이 지방도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대선 공약으로 인해서 구도~소안 간에 다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 같이 한 번에, “구도~노화가 되면 바로

연차사업으로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가 빨리 승격된다고 하면 도하고 빨리 연계해서 그런 다리가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스마트관제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인력은 총 28명이며 관제인력은 파견 경찰관 1명, 관제요원 24명이 4조 3교대 8시간씩 24시간 육안으로 관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연령대별 현황은 총 24중 20대 3명, 30대 10명, 40대 5명, 50대 6명이며, 남자 18명, 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총 329개소에 1,0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완도군청 관할이 741대, 완도교육지원청 관할 276대입니다. 완도군청 741대는 범죄예방 519대, 재난재해 2대, 쓰레기 투기 35대, 시설물 관리 70대, 어린이보호 107대, 차량번호 인식 8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완도교육지원청 276대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160대, 중학교에 73대, 고등학교에 43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관제실적은 화재 발생, 야간 주취자, 절도, 안전대응 관련 등 폭력사건 4건을 포함해서 총 69건입니다.

다음은 6쪽,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24시간 CCTV 관제업무 수행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접촉 빈도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CCTV 저장영상에 대한 반출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근무수칙 및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제요원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생활 침해 사례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등 기록이 가능한 저장장치에 대해 반입 금지 조치도 하겠습니다. CCTV 저장영상에 대해 상주 경찰관 이외에는 유출 및 열람 금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서약서 내용 중 근무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외부 누출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CCTV 관제센터 운영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CCTV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범죄예방, 군민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CCTV 관제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1,017대의 CCTV가 설치되고 있고, 경찰관을 포함해서 28명의 요원들이 24시간 관제하고 있네요. 요즘에 카메라 화질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기존에 오래된 시설들은 조금 화질이 안 좋지만 최근에는 고가의 화질이 좋은 CCTV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화질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누구는 어떻더라.”, 또 누구는 “차에서 누가 내리더라.”, “뭐 어떻게 어디서 술을 먹고 뭐하더라.” 등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냥 소문일 수도 있는데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가서 사생활 침해 여건들로 해가지고 온 동네..... 뭐 여자목욕탕에 가면 여러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든 말이 안 나왔으면 그런 이야기가 돌 수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든지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가 도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방금 보고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영상기록물을 외부에 반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외부에 이런 영상을, 그런 것을 반출하는 것을 본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런 사례는 없죠? (예)

과장님이 근무자들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하는 일들이, 그것이 이제 시내에 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제센터가 아주 비좁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가서 보면 기계 그런 관제..... 기계들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리가 좁아 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그 소방서 부분, 아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랄까. 지역개발과에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개발과하고 어떤 얘기가 나온 것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119안전센터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또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를 거쳤습니

다.

○이범성 의원

그쪽으로 갈 것은 명확하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미연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제요원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관제를 하다 보면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또 사회에 그런 노출 사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제센터를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시중에 흥흥한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다음은 7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올해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룡천 인근 축사가 침수되어 고금면사무소, 고금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양수기 2대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침수된 축사는 썰물 때에 완전히 배수되어 더 이상 축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 조사는 별도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시 일시에 많은 강우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만 우리 지역은 24시 이내에 대부분 배수가 완료되어 농작물 피해액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 상습 침수지역 대책 방안입니다.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은 노화 구석, 신지월부 등 총 7개소이며, 대책방안은 별첨자료와 같이 사업추진 중이거나 2022년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하천 내 토사 퇴적 및 갈대, 수초로 인한 유수의 흐름 방해로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서 2022년도 본 예산에 준설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농경지 침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각종 도로 침수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도로는 크게 2개소입니다. 첫 번째, 국도 27호선 고금장례식장에서 도남 삼거리 구간으로, 침수사유로는 암거박스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지연에 따른 도로침수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암거박스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77호선 완도중도리 만남의 광장 앞 인근 도로 침수사유 또한 도로변 배수시설 미비 및 횡배수관 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정비를 건의하여 2022년도에 정비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읍면 각종 도로선형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입니다. 국도 27호선은 고금 도남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개 지구에 27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및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임국도 77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13호선 선형 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에 71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17개소 중 14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변화로 일정한 지역에 물폭탄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나 이렇게 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경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농경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왔네요. 여기를 보면 농경지는 24시간 안에 빠진다고 그래서 침수피해가 아니고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백수, 흑수로 해가지고 나락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올해 태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침수가 전체적으로 이렇

게..... 논이라고 볼 수 없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저렇게 농민들이 엄청 아파하고. 도로 이쪽도 보면 전부 다 도로입니다, 첫 번째 사진 밑을 보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이 피해 원인이, 전부 다 이것이..... 빗물이 바닷물로 바로 배수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펌프장 주위는 배수가 잘되는데. 배수로가 하층이 아닌 상류층에서 이렇게 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계획에 따라 뭐 정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금 그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이라든가 또 중앙배수로, 이런 지역에 갈대들이 무성히 이렇게 있고. 또 제거하면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생태고, 번식력이 심해서요. 그것이 또 쓰레기하고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간조 시에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가 되는..... 짧은 사건에 이렇게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침수원인이 갈대하고..... 그 갈대가 유속을 다 막아버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아까 자료에서 보드시피 이런 생활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막혀버립니다, 갈대 사이로. 그래서 물이 안 빠져나가고 침수가 되는 원인입니다.

아까도 말했드시피 24시간 안에 빠져 나간다고 했는데 24시간 안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 그래서 본의원은 피해가

크다고 봤거든요. 피해조사를 보면 “24시간 안에 다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성한 갈대..... 그 배수 빗물 (청취불능) 현상이 되다 보니 매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 갈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관건은 갈대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천사업을, 단면을 좀 키워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대단위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 키우고 하천에 있는 갈대도 제거하고 또 포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는데, 그 외에 소하천, 작은 하천 이런 데는 사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가 어려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마는 최대한 확보해서 배수로로 정비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갈대는 치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월이 되면 모내기에 들어가고 뭐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천에 있는 갈대를..... 하천에 있는 퇴적물이라든가 갈대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겨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하시던데. 물론 다른 부분도 고생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적극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습 침수지역, 매년 반복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우선 겨울에 먼저..... 하천 퇴적물을 다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갈대라도 좀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침수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신지 월부리 침수관계 때문에 이번에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은 다소 준비가 되어서요. 지역주민들하고 축양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겨울철에, 그때 전복이 먹이활동을 적게 하고 그러니 가능하면 겨울철에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그쪽 주민들하고 양식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 준설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소하천은 순수 군비로 이렇게 예산 투여를 해야 되고요. 지방하천은 국도비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방하천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승격해 주기를 원하고, 또 도에 알아보면 전 시군별로 그런 건이 하도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요.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전에 지사님하고도 고금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다 계셨고요. 그 계신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청용하천에서 고금 석치 소재지까지,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바로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

사님까지 허가가 떨어졌다는데, 결재라인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실무진에서 도의 담당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400m 이상 되어야 도에서 점검을 하고 검토대상이 되는데, 덕암 소하천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렇게 승격되지 않은 것으로.....

○김양훈 의원

과장님, 400m가 아니고요 4km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4km입니다.

○김양훈 의원

4km인데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그 4km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도에서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4km로 자기들이 안을 잡고 그 잣대로 해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면은 3.7km입니다. 덕암 저수지까지 하면 4km가 넘습니다. 저도 한 3번 만나서 지역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4km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기준은 없어요. 자기네들 잣대로 본 기준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농지가 그렇게..... 긴 농지들이 많이 없습니다. 4km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건의

하시고 또 우리 군의, 도서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침수피해나 이렇게.....모든 축사가 됐든 도로가 됐든 농경지가 됐든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된 고금도 상정 청용 구간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 개량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총사업비는 412억 원이고요. 순수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5차 국토건설계획에 본지역이 반영되어서 2025년까지 사업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요. 또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하고 익산청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도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 위험한 도로고 빨리 공사해야 될 도로들입니다. 꼭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이미 예산 확보는 됐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를 빨리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청용 구간까지는 됐는데 청용에서

가교리까지의 구간이 또 이렇게 진등은 이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매우 선형이 또 위험한 선형이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쪽도 또한 방금 국토 5차 계획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해서 국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 진등 굴곡위험도로하고 교성리 교차로 구간도 본계획에 건의해서 이것도 반영돼서 사업이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좀..... 거기도, 그 도로도, 앞에 되어 있는 그 도로도 엄청..... 그 진등으로 가는 길이 급커브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자자분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방도 830호에서 27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덕동지구, 지금 굴곡위험도로 고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약산에서 금일에 가는 것, 생일에 가는 쪽, 그쪽 배들도 야간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시간이..... 6시30분이 막배였다고 그러면 또 급하게 달려갑니다. 지금도 9시30분이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 2개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금 덕동지구, 방금 말씀하신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보행로..... 덕동지구 보행로 정비사업 2개

를 하고 있는데요. 굴곡위험도로 정비사업은 7월에, 작년 6~7월에 착공해서 지금 기공승낙서를 징구 등에 있고. 11월 초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돼서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행로 정비사업 또한 4월에 착공을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전주라든가 지장 가로수, 지장물 이설이 지연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장물이 빨리 정리되면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뭐 준공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군도 미개설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개설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군도 미개설 노선은 총 6개의 노선 정도 되는데 1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각 읍면에서는 신규 개설보다도 위험도로 위주로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해달라는 건의가 많고, 사업비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2~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을 공사한다는 것은, 공사해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현재 군도를 보면 옛날 농기계나 겨우 다닐 수 있고 그나마..... 전혀 뭐 포장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이 엄청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순번을 짜셔서 진짜 위험한 데 먼저하고 차근차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도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것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18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용역은 언제.....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년이 되는 해는 2023년 6월이 됩니다.

○김양훈 의원

6월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간척지가 화흥포, 약산, 고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최근에 한 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 지정이 가쪽으로만 되어 가지고 있지. 안쪽에 있는 농로는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어쩌고 하든, 또 누가 오든 난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이미 지정이..... 간척지로 막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그것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방금 말씀하신 간척지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무영리 지역이고 그래서 다음 용역은 2023년도에 변경고시를 하면 2022년,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획 변경 시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제가 봤을 때 진즉, 농로로 진즉 이렇게 지정됐어야 해요. 그랬으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난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됐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완도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용역을 꼭 예산을 책기셔서 최대한 빨리 농로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다음은 12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외면 대문리 일원의 해안선 정비 및 호안 정비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위치는 군외면 대문리와 용계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호안도로 정비, 선착장 보강, 옹벽식 방호벽을 준공하였고 2차분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문천 말단부 내에 법정 보호종인 기수갈고둥과 대추귀고둥 등이 발견돼서 교량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있으나, 본사업 완료 후 현지어건 변화 시 추가사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사업 취지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예)

대문·용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태풍 내습이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언급되었지만 본사업에 대해 대문천 구간 정비를 제외하고 마무리가 된다면 본사업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대문천 지류가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바닷가 말단부에 보호종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내용을 환경..... 뭐야, 영산강환경청 협의결과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영산강청은 보호를 위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 구간사업을 못했는데요. 본사업은 그 구간은 빼고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그런 서식지가 취소된다든가 그런 생물들이 사라졌을 때는 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사업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올 12월에 준공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인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는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준공 때까지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다음은 14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일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화목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는 건물 철거와 붕괴 위험 사면 옹벽 시공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 위치는 금일읍 화목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2020년 12월 1차분 착수하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군소유 도로 경계를 위해서 경계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공승낙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현황 및 대책으로는 사업구간 내 보상 현황은 편입토지 21필지, 지장물 16건 등이 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기공 승낙 거부로 장기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금일읍 또 주민들과 일대일 방식으로 면담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일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일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실시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장, 읍장 그리고 또 실과 과장님이나 일대일로 면담을 한번 해봤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제일 문제되는 것은 3층 건물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승낙 내지 면담을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3층 그 건물주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수용되었네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거의..... 거의 뭐 다 이해를 하고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나 주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3층을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3층 건물을 배제하게 되면 도로사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3층 거기를 헐고 선형을 개선해야 됩니다.

○조인호 의원

예, 본의원도요. 3층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

면 그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이주하게 되면 보금자리를 또 마련하려면..... 그 돈이 사천 몇 백만 원 책정되어 있죠, 지금?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5,600인가 될 것입니다.

○조인호 의원

5,600이요. 그것을 가지고는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땅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예를 들어 보상을 더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라는 것이 평가금액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2개의 기관에서 하는데요.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준다고 해서 막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에 안 다치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감정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외에도 이 사비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혹시 과장님, 삼거리 부분에..... 그 앞에도, 도로. 개인 소유 땅이라고 측량에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 부분은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것도 아마 3층 건물 주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조서에는

이렇게 편입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이런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삼거리 부분을 우리가 도로로 몇 십 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땅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주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희석
고영상
최광윤
박창희
안태호
김성수
황창령
박은재
천종실
차재철
정광민
서길수
이성용
권 혁
김 일
이복선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2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문화예술과
- 관광과
- 체육진흥과
- 해양정책과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한상 관련입니다. 장보고한상의 제정 목적은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를 해외에 확장하는 데에 공로가 있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을 21세기 장보고로 인증하기 위함입니다. 장보고한상 수상자 현황은 2016년 3명, 2017년 4명,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명을 선정하여 총 15개국 3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니다. 연도별 국도, 군비 지원현황입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국비 7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8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장보고한상 어워드 추진을 위한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보고한상이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으로 장한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장한상 수상자 협의회에서 완도고등학교에 4차산업체험관 기증,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원 등 기부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은 완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해외 거주국에서 완도를 알리는데 조력자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 K-마켓, 일본 에스마트 등에서 완도 수산물의 해외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한상 운영을 통해 해상왕 장보고에서 세계인 장보고에 초점을 맞춰 장보고의 업적을 선양하면서 미래의 장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 발국을 위한 새로운 의미의 장보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진출 또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보고 글로벌 경영아카데미를 통해 장보고마니아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보고한상 수상자 상당수가 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장보고한상이 연결고리가 되어 국회 연구단체인 세계인 장보고포럼을 발족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이는 장보고의 국가 발전전략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장보고, 장한상 수상을 통해서 장보고 대사가 한상의 원조요, 재외동포 뿌리임을 강조하여 미래의 장

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보고한상 관련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발굴 프로젝트를, 장보고한상 어워드를 줄여서 장한상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주관하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럼 운영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운영은 저희들,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군과 재단이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럼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글로벌재단은 이제 순수한 글로벌재단의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상은 사실 저희들이 또 시설도 하고 지금 위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답변서를 보면 매년 7,000만 원씩 해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예)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장보고글로벌재단 보조금은, 장보고한상 어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한상수상자 선정 그리고 심사하고 시상식, 그리고 완도투어 등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심사, 시상식, 운영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장보고글로벌 재단의 회의라든가, 총회라든가 그다음에 국회포럼을 발족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보고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거의 대부분이 회의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회의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지금 장보고한상 수상자가 15개 국 31명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수상자들의 평판조회를 합니다. 평판조회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평판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

의 그런 평판을 듣고, 그다음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 김동영 이사장님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박진 국회의원님..... 윤재옥 국회의원님, 박진 국회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장보고전문가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은 그동안의 뭐..... 어떻게 보면 자격, 거기에서 정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도 알고, 충분히 그 심사위원으로서 덕목이 있는 분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지역대표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분들이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 많은 그런 또..... 많이 들어왔고 해서, 당연히 또 그분들도 장보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영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해외교포들이나 지원, 이런 사업까지 그동안에..... 그 이외의 외적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시상식에는 군수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완도군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시상식이길래 군수님만 참석하고 의회나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장보고한상 시상식은 세계한상대회라고, 여기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장보고한상 어워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해서 또 군민들이 일부 알고 계시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이 개관되었으므로 군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다 하지 못했던 의회의 협조 또 지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의 잘 모릅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시상식이 있으면 의원들 다는 못 가더라도 의장님 정도는 같이 가시고, 지역에서 그래도 덕망 있으신 분들이 같이 가서..... 그쪽 문화재연구원이거나 이쪽에 같이 가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또 그분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널리 또 알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유념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아무튼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의 그 장한상수상자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장학금 또는 기부금 출연, 완도군 명예 홍보대사 활동, 수산물을 해외 수출하는데 협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다문화가정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시에 행복복지재단에 2,500만 원의 장학금.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4차산업체험관과 또 900만 원의 장학금.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님의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참석, 배려를 받아 가지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 중국 심양에서 7일 동안 완도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완도 특산품을 홍보했고. 또 이 심양시에 동중부 유럽국, 유럽 그 16개국이 그 국가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한민국 국가관에 우리 완도 특산품을 설치하도록 또 그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투자유치설명회 때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투자설명회에, 기업인들이 참여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저희들이 해산물을 수출하는데, 그것이 딱 드러날 수 있는 성과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뭐 그것이 우리가 큰 어떠한 수치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벌써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조금씩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적으로 뭐 수출을 그쪽에다 해서 얼마 정도를 계약을 하고 뭐 얼마 정도 했다, 이런 것이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더욱 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뭐 수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그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1, 2년도 아니고 벌써 이제 6년차인데 내년이면 7년째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성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그 장보고한상 선정 과정이나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과정에서 느낀 문제인데, 과연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퇴직이나 이직하게 되면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이나 선양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에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관장은 행정업무에는 경험과 감각이 좀 부족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아마 장보고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또 장보고 선양 분야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

를 추진하는 데에, 사실 저희 일반 공무원 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양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장보고한상 수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 지역 청년들을 연계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때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을 봐서 세 명 정도가 최종 선발된 적이 있어요. 세 명 정도 그쪽에, 기업에 들어간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최종합격이 됐는데, 세 명 다 최종합격이 되어 가지고 두 명은 가고 한 명은 그때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때 저희들과 오스트리아 영산그룹의 소통의 부재로 비자 발급에서 관광, 이런 비자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산그룹이라는 그런 기업체 명이 들어있어서 취업비자로 판단해 그것이 거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미리, 그 정도면 착오 없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과 영산그룹의 소통부재로 비자 문제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상당히 좀 많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우리 군민들은 장보고한상이 개정되면서 ‘장보고 선양사업이 탄력을 받겠구나.’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완도군이 어떤 순기능적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보고 마니아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현실과 조합하는 그런 일을 타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는데요. 우리 완도군에서도 장보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2년 전부터 광주에서, 또 1년 전부터 서울에서 추진해서 약 45명을 지금 배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장보고의 도전 개혁 정신에 대한 역사인물 장보고에 대한 강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도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 “완도를 잘 몰랐는데 이 강의, 장보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완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 광주와 서울, 그 10개월 동안 아카데미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예산은 우리 완도군에서 예산 지원은 없

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CEO 대표자들이 우리 완도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미치는 영향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 하면 완도군이 적극적으로 장보고 대사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먼저.....

○김양훈 의원

그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카데미의 성과로는 저희들이 사실 뭐..... 그 분들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성과를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완도, 완도에 대한, 장보고에 대한 그런 의식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 장보고한상 수상자들 이분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말씀..... 이번에 개관식에도 아카데미에 스무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래서 과장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완도를 얼마만큼 또 홍보하고 알리냐가 아니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정 또 그분들이 성공한 스토리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쭙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강의하면서도, 물론 완도 얘기도 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

인 홍보. 또 '완도 장보고 대사가 어떤 분이 다.' 이런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쪽에만 치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군의 특산물의 홍보라든가 또 우리 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들의 스토리도 좋지만 우리 완도군에서 같은, 똑같은 우리 홍보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카데미 원로들이 총동문회를 또 구성했다고 했거든요. (청취불능)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완도에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그분들은..... 금년에 이제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완도에 오십니다. 그 특별히 골프동호회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족단위로 이렇게 완도를 찾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뭐 동문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와본 적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때 한 20분이 참석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이라고 군비 8억 5,000 포함해서 총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주에 개관을 했었습니다. 건립 목적이 무엇이고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는 군비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분들이 15개국 31명이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수상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협찬에 의해서 이분들의 그런 협회를 통해서 가지고 위탁을 장보고글로벌재단에 맡긴다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우리 명예의 전당에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 우리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 건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장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단, 전에는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이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통할, 관리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장이라는 표현은 정식적인 공식 명칭, 직위는 아니지마는 그분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그분들이 밖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수님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대외에 나가서 부를 때 뭐 사실 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제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분명히 저도 관장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개관식 때 교수님이라 했다가 관장님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고려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관리

소장이면 소장, 뭐 아무리 교육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장이 아닌데 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정확한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에서..... 저는 관장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그 발언을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것 어땠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후에 행사가 끝나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진솔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은 평소 우리 수상자, 장보고한상 수상자들 대다수가 완도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긍정적인 분. 그런데 일부 극히, 일부는 또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완도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말을, 그 반대여론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그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도 군민들이 정말 호혜적으로 이것을 ‘완도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개관

까지 하는, 이렇게 했다.’ 그것을 아마 본인이 표현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김양훈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날은 진짜 장보고한상 어워드 전시관을 군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느닷없이 나와서 뭐 군민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훈계하듯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죠,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사를 또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 의원

그날도.....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 열척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말로. 많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충분히 그렇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앞으로 계속 장보고 한상에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뭐 성공스토리나 콘텐츠를 전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당초 그 제안 업체에서는 매년 붙이고 또 떼고 철거하는 그런 그래픽 패널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계속 매년 여섯 분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모니터 형식으로 세웠고. 거기에 8만 기온 수상자들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추가하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상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정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뭐 하다 보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시적으로 해가지고 전자로 해서 그냥 터치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당해 연도 수상자들이, 저희들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그분의 업적이 쪽 나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2층 아카이브로 올라가서 그분의 사진과 명함이 있으면 그것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업적 그런 것을 터치하면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서 직접 이렇게 혼자서 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은 군민들께서 그 아카이브에 가서 사진을 보고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그런 과정은 젊은 층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드신 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조력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뭐 직원이 가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따로 운영하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숙련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부지런히 사실.....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본의원을 비롯해서 군민들께서는 장보고대사 선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군비까지 대비해 가지고 장보고한상을 추진한다면 최소한의 완도군에 어느 정도 순기능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현재 장보고 한상수상자들이 지금 31명인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면 또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수상자들을 활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시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명예의 전당 관리에 따른 예산은 정부나 장한상 수상자들이 좀 부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비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도 사실 고민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그 설득력, 설득을 해서 어떤 보조를 받는 방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상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어떤 장보고글로벌 재단에 위탁을 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꼭 그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분명히 뭐 투입은 되겠지만, 매년 7,000만 원씩 계속 감당하는 것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해놓은 것인데 ‘정부나 아니면 그분들이 좀 어떻게 관리예산을 좀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장보고한상 말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장보고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학생들과 군인들 대상으로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 이외에 어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은..... 사실 제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박인철 의원

전혀 없죠,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런..... 예.

○박인철 의원

지금 고금 덕동리에서 이순신 장군 사업을 한다고 2,000억, 뭐 묘당도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인물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하는 것이 전혀 없죠, 뭐 계획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아니, 엇그저께 용역심사에 2028년 장보고 1,2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고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놨던데. 그런 것 말

고 우리가 지금 쪽 해왔던, 장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지금. 딱 장보고한상 하나 그것만 보고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사실 민간단체 장보고연구회 같은 데에서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그리고 어떤 업적을 알리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장보고 아카데미로 학생들과 또 군인들 외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선양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자꾸 장보고 선양사업, 선양사업 하는데 뭐 장보고아카데미, 뭐 그것입니다. 중국도 갔다오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봐서 학생들, 그 초등학생들 그것 다 아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다른.....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좀 장보고 대사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은 전혀 없죠? 옛날 그대로 지금 놔둔 것 그대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들 스스로 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장보고 대사, 해상왕 장보고의 수정을 도와 가지고 했던, 선양사업을 했던 그것을 벗어나서 더 플러스해서 세계인 장보고로 해서 어떤 우리가 장보고한상 발족으로.....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보고한상 좋아요. 자꾸 해외, 해외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군은 자꾸 모든 것을 해외로만 눈을 돌립니까? 우리 내국을 보라니까요. 요즘 관광객들이 다..... 외국인들 해외에서 누가 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아니, 우리 눈을 좀 안으로 돌립시다, 밖으로만 돌리지 말고. 왜 멀리만 돌립니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박인철 의원

아니, 홍보도 좋고. 아니, 장보고에 대해서 쪽 꾸준히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보고 한상하고 장보고 대사의 스토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보고 한상도 좋지마는 장보고 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좀 우리 군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 다뤄보고 그러면 전혀 그런 데의 예산은 안 올라와요. 따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관음사 절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박인철 의원

그것도 세 차례 용역을 해가지고 발굴해 놓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복구를 할 것인가. 저번에 신우철 군수님이 문화재청장이랑 해가지고 금방 그것이 관음사 절..... 관음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법화사지입니다.

○박인철 의원

법화사지죠? (예)

법화사지가 금방 복원될 것처럼 하더구먼.

지금도 말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법화사지는 이제 그..... 사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법화사지터에 대해서는 그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해서 복토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지금 복토 작업을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단, 이제 법화사지를 재현하는 사업은 향후에..... 그 전에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불교재단에서 이렇게 하게 한다면,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더 검토해서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분발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내년도 장보고 대사의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장보고한상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예)

물론 이순신 장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장보고 대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 쪽 묘당도 진린 장군한테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던 것 같은데. 고작 진짜 중요한 우리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산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동안 장보고기념관이 지금 건립된 지 13년 정도 되어 가는데 내부 콘텐츠가 굉장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의 사업비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장보고한상도 좋고, 이순신 장군, 진린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 업적을 더 널리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어서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모두 6개소이며 이중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은 2001년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모감주나무 군락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은 모감주나무 474주가 타수종과 함께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수치료를 했던 수종은

모감주나무 17주, 서어나무 4주, 상수리나무 등을 치료했습니다. 매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식물 보수치료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관 청소, 고사목 제거, 유해 덩굴 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군외면과 해당 마을이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보수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4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에 노후화된 방목용 보호펜스를 철저히 보수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모감주나무의 고사 등 자원멸종에 대비하여 2022년부터 종자를 채취하여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후계목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 제428호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김재홍 의원 부재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로서 가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범성 의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범성 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하여튼 보수 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등 현황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환경 관리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좀 인상을 찌푸린다고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환경관리 부분에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방안이?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국토로 넓은 광장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개인 사유지여서 해변과 가까운 관계로 각종 어구, 어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서 상당히 좀 보기가..... 경관상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방문객들은 여기가 무엇을 쌓아놓고 뭐..... 거기는 순전히 지금 어민들이 가져다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가져다가 다들 쌓아 놓으니까 여기가 보호수인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완도 대문리 모감주 군락은 우리 대표적인 모감주 군락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으며, 완도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대문리 모감주 군락지의 중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큰 나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유전자, 이곳만의..... 모감주나무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대문리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자원멸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책은..... 이번에 질문이 들어가서 그런지 앞으로 모감주 종자를 채취해서 발아, 양묘, 후계목 양성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금 후계목 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 모감주나무도..... 일반 수종도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모감주나무 묘목을 가지고 올 경우에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유전자가 서로 교배가 되므로 엉뚱한, 지금 순수한 군외면 모감주나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군외면 모감주나무의 씨를 이렇게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어린 묘목을 길러서 그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범성 의원

아니, 보호하자고 하는데. 지금 2024년 5월 후계목 식재 추정 소요예산 4,0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기한을 길게 잡아요?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해 주셔야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될 텐데. 뭐 2024년 5월 추정 소요예산 4,000 후계목 식재.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때 이제 씨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발아시키고..... 그러면.

○이범성 의원

그럼 어디다가 이것을 씨를 받아 가지고, 어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그 나무를 기르는 전문,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은 흘러가고, 그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 올해는 무엇하고, 올해는 무엇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후계목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천연기념물 보호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이 무엇인가 느끼고 살 수 있고, 관광객들이 꼭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본안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도시를 제하

고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문화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인구감소 중요요인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섬 주민들은 문화갈증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도 체도권은 작은 영화관이나 체육시설, 취미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함평 자동차극장이 참 좋은 지방자치 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군은 함평에 앞서 작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자동차극장을 실시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일명 섬마을 자동차극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금일과 노화에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마땅히 있습니다. 금일은 수협 다시마위판장, 노화는 전북테마공원 등의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본의원이 주말에 함평 자동차극장을 보고 왔습니다. 섬마을 자동차극장은 상설극장이 아니니까 관련업체에 영사기와 스크린을 임대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자동차극장은 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도읍권에서는 상당히 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화, 금일 또 기타 도서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정말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내년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어서 7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지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향토 유적은 이도재공의 적거지를 포함한 총 20개소의 유형문화재와 1개의 무형문화재 등 도합 21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문화재 명예관리인 제도는 당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문화재 소재 지역주민을 명예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쓰레기 줍기, 잡풀 뽑기 등 간단한 주변 정리와 또 홍보활동 등 민간차원의 문화재에 예

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시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25개소에 총 25명의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인당 매월 5만 원씩 지급하여 연간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 명예관리인 임명도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지킴이 제도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은 2019년에 최강 장군 가리포해전 대첩비 홍보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총 10개소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송모사를 포함한 4개소에 4,400만 원, 2021년에는 허사겸선생 서재 조성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했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는 읍면 건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유적에 대해서 보수하고 있으나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국도비 지원이 없어 사실 군비만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향토유적 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 일상관리 및 경미한 수리 등만 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전수조사 실시를 통하여 보수정비 필요대상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위주로 연차적으로 보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지 관리와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 향토유적지가 2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토유적지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왜 지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향토유적지, 향토문화유산은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좀 못 미치지마는 역사적 또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후 어떤 고고학적, 그리고 역사문화 연구에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향토유산을 향토유적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성자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화재 명예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사실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지금 다들 연세가 드셔서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를 줍고 잡풀을 뽑는 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토문화유적 관리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봅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좀 불편해서 못 하실 정도가 되어도 바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대부분 우리 향토문화유적의 제의를

올리는 문화유적은 거기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후손들이나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은 교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니, 그분들이 이제..... 보수는 한 달에 5만 원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우성자 의원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래도 정해 놓았으면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명예관리인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보면 “향토문화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기록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 향토유적 20개소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그 상반기 때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그 어떤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우리 향토문화,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가장 최근에 점검한 것이 상반기 때 하셨다고요? 아니면 언제 하

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상반기 때, 물론 저희들은 그 현지 출장을 가면 그곳에 향토문화유산을 한 번씩 둘러 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자주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군외 허사겸 창의사 그다음에 신지 신호사, 청산 송모사 그다음에 배씨삼강문, 이도재적 거지 그다음에 보은사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또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이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나서 다른 생각은 안 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혹시 읍면에 명예관리인으로부터 “내가 관리한 향토유적지가 아주 열악하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런 것이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씨삼강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거기에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1번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현재 제일 제의를 지내는 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가 어디냐 그러면 향토

유적 17호 덕암사 사진, 일부 사진입니다. 그것을 지금, 참 가서 보면 이것이 향토유적이라고 누가 방문을 열어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것이 어떻게..... 제의를 지내는 방은 저것보다는 낮게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이 향토유적지 덕암사 그 일개의 방이고요. 저것 과장님, 저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 덕암사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어떤 기둥과 또 기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창호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사실 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해야 하는데. 내년 2022년도에 좀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리고 이제 덕암사 건물 앞을 이렇게 보면 천막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지금 현재 완도 그..... 지금 향토문화유적 사진에도 천막이 친 상태 그대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 옛날 집이 비가 오면 들이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들이쳐 가지고 창호가 이렇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여서요. 저희들이 아크릴이나 이런 자재를 활용해서 지고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2번 자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것은 이제 그 천막.

또 3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고금면에 있는 성산배씨삼강문 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 지붕이 무엇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일반 그 코팅.....

○우성자 의원

컬러강판.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코팅 그 철판.

○우성자 의원

컬러강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향토유적지에 컬러강판이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것이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 후손들께서 컬러강판을 올려놓은 것인데. 저것을 이제 옛날 옛 기와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 의원

예, 저것도 지금 그 배씨 후손 한 분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요. 비구니 스님이 너무 비가 새고 저 밑의 나무가 다 썩고 그래서 지금 사비로 저것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씨 문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유적지로 정해지다 보니까.....

자꾸 저 민원이 오죠, 민원이 자꾸 오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오고.....

○우성자 의원

예, 의원들한테 자꾸 저것을 부탁하고.

또 배씨삼강문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충신, 효자, 열녀 세 업적이 있는 분을 모셔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저 배씨삼강문을 유족들이 정하는 것도 아주 시기가 늦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그 도로가에다가, 더군다나 안에 도로까지 있는데 저것을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과연 완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이것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것은 군수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정해만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볼 때 완도를 도대체 뭐라고 할지, 이것이 나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이제 이것은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정말 우습스럽지 않을 정도로 좀 관리를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원 기와, 전통기와를 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 30%를 적용해서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어떤 기와를..... 고전적인 그런 기와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여기에 이제 기와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20개의 유적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데부터 하든지 어찌든지 간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가지고 좀 확인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리고 또 이제 향토유적 13호 금당 가학리 제당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위치가 고금면 가교리 765-1번지로 나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성자 의원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향토유적지 자료가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가학리 제당이 유적 14호로 나옵니다. 해전대첩비라는 우리 군 향토 유적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마 지금 이것이 망남, 망석리, 망석리로 저쪽 저수지로 넘어가는 그곳에 최강 장군 가리포 해전대첩비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압축해서 해전대첩비라고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향토유적지라고 나와 있고, 인터넷 자료에 보면 해전대첩비가 향토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청산 제상 그것도 아예 그것도 빠지고 없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최강.....

○우성자 의원

이 정도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도 이제 일부러 거기를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가리, 최강 장군 가리포 해전대첩비나 이런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문화예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정말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유적지 보수 답변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그런데 2021년에는 한 개소에 2억 원을 또 하셨던데요, 허사겸선생 그..... 그렇게 한 군데에 2억 원을 또 지원하셨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허사겸 창 의사 그 본건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건물을 또 새로 신축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항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예산 확보방법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기획예산담당 쪽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이것 통 크게 예산 확보를 하셔서 가지고 좀 예술성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쓰실 것이고 해서. 제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꼭 그것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94회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문화예술회관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것이 추경에 조금..... 사실 그때하고 추경이, 그동안의 추경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반영을 좀 요구했습니다. 바로 본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사진 한 번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지금 저 사진이..... 며칠 전에 우리 노인회 행사할 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저 왼쪽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죠? (예)

그 왼쪽에는 방송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아예 막아놓고. 오른쪽에는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아니 오른쪽 좀 더 오른쪽..... 예, 저기가 아주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좁고. 계단이 저 어르신들을 다 잡아주고 그랬는데, 잡아주는 사진은 지금 못 찍고. 올라갔을 때 저것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저 옆에다가 난간을 하나 한다면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관련 없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것을 보시고 한번 가서 또 점검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아이들이 올라갈 때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옆에다가 손잡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참살이마을 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청학동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체험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과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건축물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은 고금면 청학리 농촌체험마을 웰컴센터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숙박시설 신축, 웰컴센터 리모델링,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상 이용객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장보고대로 개통으로 인근 강진과 완도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유입 관광객 추정치는 연간 3,063명으로 우리군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주요비율 3.9%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9년 지역개발 사업공모 선정 이후에 2020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숙박시설 변경 승인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2022년 관련부처 및 전남도 협의 후에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해당부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전라남도 심의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인구 감소 고령화로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 의원

예, 사업계획을 보면 체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기존에 지금 농촌체험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숙박시설이나 체험 관련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했던 청학동 마을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범성 의원

마을 운영은 지금, 지금까지 녹색마을 체험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맡겨도 잘 되겠네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우리 군에 어촌체험마을 등 그 시설을 통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시설 중에는 가장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넣었는데.

그러면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겠네요?

○관광과장 서길수

기존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험시설이나 숙박 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확충하면 충분히 더 주민 소득에, 창출에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군에서 뭐 지불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본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 간에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관광객의 쾌적한 전원 휴식공간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은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기존에 녹색체험마을을 하면서 그 체험마을 앞에 지금 갯벌체험 또 김 뜨기 또 유자체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무엇, 무엇을 해도 우리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관광객 유치에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인데. 와서 좀 자고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체류 그 기간별로 운영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것이 이제 사업이.....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할 시 뭐 개발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시설이 확충되면 프로그램의 운영방안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민 소득사업으로 아주 좋은 그런 기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업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숙박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이 지역은 이것을 어떻게 풀것

다는 소리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것이, 이 사업이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의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쯤이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가지고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20년, 2021년 조금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사업완료인데. 지금 추진 과정이 조금 더딘,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관광과장 서길수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는 행정절차가 조금 더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숙박시설로 변경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그 구역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더뎌져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다음은 5페이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섬을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주도형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소안도를 시작으로 2016년 생일도, 2018년 여서도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금당도까지 총 4개의 읍면,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고 싶은 섬 소안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0여억 원 중 3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미라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 걷기길 및 풍경카페 조성, 가로경관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여파에도 연간 12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다녀갔으며, 특히 소안도의 천연자원과 항일운동의 섬 이미지가 낳은 시너지 효과로 특색 있고 가고 싶은 관광 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섬 그대로 풍경길 미라·진산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풍경카페의 내·외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현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고 싶은 섬 연차별 완료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생일도는 섬길 탐방로 조성, 금곡펜션, 용출 게스트하우스 신축, 케이프 조형물 설치,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35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금곡 해수욕장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인 생일도 카페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1차 물품을 구매, 필요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여서도는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치유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징조형물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금당도는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으며, 최종보고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향후 각 사업 대상지별 추진계획입니다. 생일도는 카페 운영을 위해 11월 중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금곡 해수욕장 배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가고 싶은 섬 생일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도는 어촌활력센터 부지 협의 후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당도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원만한 의견 조율과 협조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걷기길 조성 현황입니다. 생일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성, 용출, 금곡에 이르는 길을 연결하여 총

16km 3구간에 걸친 길로, 안전로프와 돌탑을 설치하고 돌담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안도의 섬 그대로 풍경길은 소안 미라리 3.5km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로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소안도 해안과 마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고 싶은 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화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완료사업인 소안면에 대하여 궁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안도는 완료사업으로 관리 중인데 사업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풍경길에 대해서 조금 여쭙보겠습니다. 그 풍경길이라고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풍경길 개통식을 할 때 제가 그곳을 직접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석우 국장님께서 면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 버려서 문제성이 좀 유발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관광과장 서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 그 후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소안면 사회기관 단체장들과하고 저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일들이 다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하고는 뭐 좀 얘기해 본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탐방로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작년 7월에 국립공원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로를 지정하는 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긍정적 반응을 갖고 가서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국립공원중앙심의위원회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요,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무엇인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탐방로로 지정이 되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군에서도 국비를 신청해서, 군특회계를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또 특별하게, 그 풍경길 입구, 미라리 해수욕장 내려가는 데에 보면 원래 철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감쪽같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우회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철 계단으로 또 해놓으면 태풍 오면 100번, 1,000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동감합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우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풍경길을 조성만 해놨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가 사라져 버렸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초 우리 설

계 부분은 무시하고라도 다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리고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 생일도와 여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일도 카페는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과 함께 2층을 증축하여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도 현재까지 카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그동안 카페를 운영할 주체에 대해서 생일면에서 지금 확정을 못 짓다가 올 하반기에 최종.....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10월 중에 거기 카페를 운영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 전부 구입해서 설치가 다 됐고요. 11월 한 달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하고 나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할 사람들을 못 찾고 있다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의 일꾼들인데 잘 운영되리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저희 부서에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십시오.

다음은 여서도, 여서도 어촌활력센터 건립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길수

당초에 기본계획서상에는 회관 옆에 창고를, 창고를 하고 그 위치에 활력센터를 짓기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 건물을 살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부지를 계속 여러 군대를 협의했습니다. 결국 지금 그 목포지방해양청이나 또 우리 지역개발과가 담당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니 관련법상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부지를..... 행정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으로 이전 주에 기존 계획대로 회관 앞의 창고를 허물고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최종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조만간에 목포 해수청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섬지역 발전과 관광,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되면 초기에 했던 사업들이 퇴색되고 또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완료되었더라도 매년 유지보수비를 예산 반영에 꾸준히 올려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지구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업지구가 마지막 연차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 좋은 사업이 퇴색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도 이러한 풍경길이랄까 아니면 소안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등산로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보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버리면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니까. 하여튼 꾸준히 관리해 가지고 가고 싶은 섬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서는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안도는 보면 연간 코로나19에도 계속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청산이 2019년.....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안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개발되기 전에 관광객 수하고 비교대비 했을 때는 월등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청산도 같은 경우는, 비단 보길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전보다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해..... 그전에 왔던 관광객들을 더 올 수 있게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청산도 서편 제 촬영지 아니죠? (예)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박재선 의원

좀 어떻던가요?

○관광과장 서길수

특별하게 좀 보수할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관광과장 서길수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박재선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가서 점검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범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

까?

○관광과장 서길수

맞습니다.

○박재선 의원

있는 것 먼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노화 전복오감여행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북고리에서 법인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북고리 마을에서는 “무상으로 이것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법인을 설립하면 북고리를 운영 주체로 지금 위탁계약을 할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무상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준공이 정확히 언제 됐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준공 금년 6월에 됐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리고 나서 지금 법인이..... 얼마 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이죠, 마을에서?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원하고 있고, 마을은. 또 법적 증거로 우리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전에 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 내에서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지 않아서 제가 마을에 두 번인가 세 번 마을에 가서..... 그래도 이 사업이 북고리로 온 취지도 있고 부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마을 자체로 해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을에서 포기해서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마을에서 의견을 통합을 시켜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엔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지금 법인 설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지금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안 된다고만 얘기했고요. 처음에 업무보고 때 1,500 예산에서 지금 많이 다운됐죠, 500까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장 서길수

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봐서 최대한 적용을 해서 감면조항을 반영해본 결과, 700만 원까지 연간 사용료를..... 감면하면 70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법리 검토를 해서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박재선 의원

지금 사회법령 감면 법적 근거에 따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지방지자체에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일시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것을 알고 있거

든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렇죠.

○박재선 의원

맞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에 준공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군정 질문 또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여쭙본 것입니다.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스마트 치유마을을 하면서도 민간 위탁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이것은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저 불목리 치유마을에 민간위탁한 성격하고 이 사업하고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서길수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무상으로 안 된다면 원가분석이라도 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군내에서 한번 직영으로 해봐라, 운영해 봐라.”라는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에요. 빨리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을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조만간에 빨리 그것 법인 설립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다음은 10페이지,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지정, 공모전 등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출품작 28점에 시상작은 10점입니다. 2017년 전복껍데기 활용 관광 기념품 공모전 출품작 32점에 시상작은 10점 등 2회에 걸쳐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진으로 각종 기념품을 제작하여 박람회 참여, 팸투어, 관광홍보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도군을 주제로 한 공예품, 가공품 등 2022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까지

지 공모전 공고 및 홍보, 작품 접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기념품의 경우 지역특산물과 연계 하다 보니 개발과 상품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위적으로 특산물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완도를 상징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상품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 후 조례에 근거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길수

먼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본조례를 입법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및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코로나19로 관광기획산업이 위축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을 발굴하는 데에는 코로나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것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공감합니다.

○조인호 의원

공감하죠.

그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최근 언제 했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본안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거기서 선정된 아이템을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렇죠? (예)

관광기념품은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투이나 배지, 여행용 파우치 같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 완도군의 관광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렇죠? (예)

과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2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 자격이 판매에 필요한 인허가를 갖춘 요건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앞서서 우리 언급되었는데, 조례 15조 2항에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이 발굴하여 군 관광상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단체보다 개인에게 아이템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군에서 위원회에 접수해서..... 그것이 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당초 우리 계획은 실제 아이템에서부터 어떤 상품화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심의를 통해서 업체에다가 상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고. 단체로, 개인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과장님이 또 기획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해서 이번에는 성공해서 완도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끝으로 12페이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일반음식점 현황입니다. 한식

297개소, 중식 32개소, 일식 3개소 등 총 740개소입니다. 지정음식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2개소, 2020년도 4개소, 올해는 20개소에 총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36개소에 대해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혼자서도 편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존 설치를 우선으로 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입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경우 업소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였고, 영업장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성수기 등 민원발생 시기를 대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전에 요금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업 지부 및 숙박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복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복거리에 입주한 일반음식점은 총 8개소입니다. 이중 수산시장 55호에 5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완도회타운은 완도맛집 및 남도음식명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복거리 조성사업은 완도 해변공원로 일원에 150m 구간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휴게공간 조성 및 디자인간판 교체, 전복조형물 및 스토리텔링판, 입구 외벽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전복거리 내 일반음식점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거리 조성에 따른 일반음식점 참여 실적입니다. 2016년 상인회를 구성하였고, 전복 단품요리 7종을 포함한 총 34종의 메뉴 개발 및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 2020년도에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복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파워블로거, 여행사 관계자, 여행작가 초청, 전복 요리 시식 및 주요관광지 팸투어로 전복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를 주재료로 한 해양치유밥상 레시피를 보급하여 치유프로그램과 함께 치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업주 대표 및 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생활과 관광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식품접객업소의 수준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서 일반음식점이 740개로 나와 있죠? (예)

지정음식점이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도음식명가는 5개 업소이고 대물림향토음식업은 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이고 선정은 어떻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관광과장 서길수

남도음식명가 식당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식당 중에 저희가 군의회에 추천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심사해서 지정한 것이 남도음식명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섯 군데, 한국관 등 다섯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향토음식점은 30년 이상의 식당을 직계가족이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 그런데 그것이..... 그 두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두 군데는 문화식당하고 청신히집입니다.

○우성자 의원

문화식당이요? (예)

그러면 남도음식명가, 대물림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맞게 명가다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정통성을 잘 이어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남도음식명가는 도에서 음식전문교육..... 교수, 미식가, 관계공무원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대물림향토음식점은 일단은 30년 이상 운영하는 토속, 그 지역음식점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격기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고 도에서 지정해 준 것만 가지고 합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우성자 의원

추천만 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전혀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서길수

당연히 관리를 하죠. 이제 이 교육.....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메뉴라든가 식품 위생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성자 의원

당연히 명가나 대물림향토음식점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 자치법규집을 보면 완도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완도맛집과 보고서의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지정하는 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완도맛집은 저희들이 2019년 7월 달에 제정한 자체 완도군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식약처에서 예규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성자 의원

완도맛집은 매년 지정하지 않는가요?

○관광과장 서길수

2019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실은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2020년도에는 못 했고요. 2021년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총 금년 4월에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매년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맛집이라고 올라온 곳이 없는 것 같던데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저희들이 10개소 지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맛집이라고 지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서.

보통 과장님, 아침식사 시간이라면 몇 시를 말할까요?

○관광과장 서길수

어떤..... 이제 관광객 입장 기준으로 보면 대략 7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성자 의원

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사이트를 보면 아침 식사 가능한 식당으로 12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개 업소는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업소가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아침식사로 생선회, 삼계탕, 해물탕, 백숙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먹을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혼밥식당, 코로나로 인해서 혼밥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이 메뉴를 이야기한 식당들은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예약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은 예약손님들, 예를 들어 횃집 같은 경우에는 전복죽이나 회덮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약손님들은 혼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성자 의원

혼밥 가능한 식당은 32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올려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예)

저 부분이 전화번호가 없는 식당들입니다. 전화번호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혼밥이 가능하다고 식당이 있는데 38개 업소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업소는 폐업했거나 아예 문을 닫아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혼밥 가능한 식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 횃집에서 혼밥을 할 수 있을지, 난 그것이 더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횃집 부분은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횃집에서는 회나 회덮밥, 그 다음에 전복죽에 대해서 관광객이 사전예약을 했을 때 자기들이 “아침 혼밥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침식사를 혼자 혼밥하려고 예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죠. 우리가 단체로 여러 명 먹을 때는 예약문화가 있지마는 혼자 아침에 가서 먹으려고 전복죽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꼭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축제행사 사이트에 보면 2022년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홍보영상이 지금까지 있고요. 또 2019년 장보고 수산물 축제, 2019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아직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박람회 부분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하고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2019년도까지 하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에도 이 두 축제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어떤 축제다.’, ‘걷기축제가 어떤 축제다.’ 홍보 차원에 저희가 지금 게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지나서 지금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신흥사 템플스테이가 올해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지금 올라와 있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우리 군이 관광완도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스템이 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스템을 보면 완도 관광은 이미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실태를 점검해서 앞으로는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완도맛집 상차림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쓰키다시 엄청 먹고 나중에 본메뉴는 못 먹고 이제 뭐 튀김해서 먹고 이런 것 있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업소들하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보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음식문화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전체요리입니다, 전체 메뉴 중에 지금 쓰키다시라는 메뉴인데. 이 부분이 전체 음식 단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은 3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음식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좀 관광객이 앞으로 오더라도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완도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런데 처음에 차려진 그것을 보면 호기심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맛있는회는 못 먹고, 튀김해서 먹고. 내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깐 완도 횃집에 와서 튀김기가 있는 곳은 완도군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좀 이런 부분도 업주들하고 관리를 해서 가지고 조금 가격을 낮추고 쓰키다시를 줄이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회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복거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10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아직까지 전복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판도, 완도 전복거리라는 그것도 장보고마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전복거리라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후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활성화가 되면 우리 완도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음식도 좀 신경을 쓰시고, 관광에도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앞으로 완도가, 더 잘 사는 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현황은 총 14개의 전지훈련장이 가능한 체육시설 목록입니다. 국제경기 개최 가능 경기장 여부는 경기 개최 직전 종목별 중앙협회를 통해 경기장 공인, 승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 전남체전 개최에 앞서 각 협회에 의뢰하여 공인,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교육부의 초중고 전지훈련 자제 방침으로, 2021년도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유치는 4개 종목 6개 팀 총 109명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매년 전지훈련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방문 감독과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여 새로운 선수단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기간 중 선수단 실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스포츠 토브리그 개최와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전

복, 해조류 시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대기실 컨테이너 지원과 체력단련시설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지훈련팀 방문 시 관내 숙박과 식당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여 주고 있으며, 스토브리그 개최 시 타지역 선수단을 초청하여 관내 숙박 및 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지권역 숙박 선수단의 경우에는 버스 등 교통을 지원하여 지역별 균형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외 선수단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와 그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지만, 선수단 PCR 검사결과를 사전 제출 받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훈련하도록 하겠으며, 선수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을 사전 홍보하여 전지훈련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종목별 선수단 방문 증가가 예상되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종목 다양화, 팀별 이용시간 조정 등 시설을 균형 있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지훈련이 우리 군에서 유치되면 사실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죠? (예, 그렇습

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 14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시설은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지훈련을 우리 시설에 맞게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도서지역에서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노화 같은 데에서는 테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고. 군외에 군민체육센터 이렇게 완공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하고 고금 군민체육센터에서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길에도 생활체육이 완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먹는 음식점, 이것이 참 많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지훈련팀하고 숙박업소하고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데 방금 그리고 또 공·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금액이 들어가서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받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잠깐 받으

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스포츠시설은 중앙협회에서 이 시설에서 경기가 가능, 개최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갖추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먼저 일찍 받아서 승인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내년에 경기장 개보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보면, 책자에 보면 보고를 받았습시다마는 이렇게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은.....

○박재선 의원

그러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이렇게 유치해서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주면 엄청 효과가 큼니다.

○박재선 의원

효과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지원을 우리 완도군에 비례해 보면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여건상 완도 같은 경우는 또 섬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만이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많이 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길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완도군에 체육을, 활동을..... 전남도전도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주셔야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우리 전지훈련이 우리 섬에, 완도군에서 정말 타지역보다 뒤쳐지지 않게끔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우리 지역에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다음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다음은 4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목적 및 개요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23년도 4월 중 4일간 개최되며,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20억으로 총 23억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2만여 명이며 22개 시군 22개 종목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의 목적은 전남체전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황입니다. 주요 경기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개·폐회식 및 육상은 공설운동장, 축구는 해신축구장, 축구전용구장, 공설운동장, 완도중학교 운동장 등 총 4개 구장에서 개최되며, 테니스는 야외 코트장 포함 실내 테니스장 조성으로 우천 시에도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구, 당구, 유도, 탁구 등은 관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예정으로 교육청 및 각 학교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종목은 화흥포 간척지의 곧은길을 이용하여 자전거 경기장을 조성하였으며, 사격과 골프, 볼링은 관외 개최가 불가피함에 따라 적절한 개최지를 찾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주차 수용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기간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농공단지 부지와 여객선터미널 부지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좌리와 체육공원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막식 당일 행사 개최 등으로 관내·외 관람객들이 몰려 혼잡할 것

으로 우려되어 개막식 행사시에는 관내 주민 셔틀버스를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및 관광객 관내 유인방안입니다. 행사기간 중 숙박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바, 인근 시군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연합회와 바가지요금 철폐 협약 체결 후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각 시군 체육회를 통해 사전에 숙소예약을 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완도읍권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극복하고 신지·고금권역 숙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셔틀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체육회에 대표메뉴 등을 포함한 식당 리스트를 배부할 계획이며, 체전 개최 주간에 관광지 무료 개방을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완도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 불가능 종목 시설 확충 방안 및 대책입니다. 관내 개최 불가능한 종목으로는 사격, 볼링, 골프가 있으며, 사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볼링과 골프는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해남경기장을 활용하고 해당 종목 선수단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유치하는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이 처음 개최예요, 첫 신청이고 첫 개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서에서도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전에 체육대회가,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된 이유는 시설이 좀,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 유치의 최대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완도군의 체육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예)

또 많이 부족합니다. 이전에 바로 마케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미흡하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아까 완도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25M 6레인이면 도민체전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양훈 의원

기록 인정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기록 인정까지는 확실히.....

○김양훈 의원

공인을 받는 것은 기록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봐서는 아마 공인만 받지, 기록 인정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나왔드시피 도민체전의 제일 큰 목적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전부 이렇게 체육 종목이 다르다 보

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가버리는 사람들. 또 인근에 완도 같은 경우 숙박이나 볼거리나 먹거리나 참 좋은 데입니다. 이것 진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전에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도민체전을 많이 개최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인근의 예로 보면 해남이나 강진,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지. 본개최지에서는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그 주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마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생해서.....

○김양훈 의원

아마 음식업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바가지, 음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시즌만 되면 방을 절대 안 내주더라고요. 숙박 같은 경우 방이 뻥히 있으면서도 방이 없다고 하면서 방값을 올리고. 이 분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안 들어옵니다. 다 인근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사전에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로지만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우리 완도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큼니다. 그래서 체전을 유치할 때 2022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마는 그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해초등학교 인근, 장보고공원이 있는 그쪽 인근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청해초

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그쪽에다가 하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 1,000여대는 가능합니다. 개막식 행사 당일에 차량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개최기간에는 종목별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개최기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2부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첫날, 아마 개회식 때만 이렇게 주차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나중에 다 종목별로 다 흩어져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절대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라든가 자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본인들 차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은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광객들이면 모를까, 선수들은 다 타고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근..... 못하는 종목들 세 가지 있습니다. 사격, 골프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볼링.

○김양훈 의원

볼링. 그전에 완도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할 때 “볼링장을 시설하네, 어찌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당초에 주차장을 3층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볼링장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으로 이

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김양훈 의원

볼링장을 시설하는 데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것이 14레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그 정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운영.....

○김양훈 의원

보류한다는 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로 큰 것이 도민체전 기간 동안 진짜 완도관광지, 완도이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완도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와서 그냥 행사만 치르고 시합만 하고 가버리면 개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충실하게, 착실하게 잘 구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다음 7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완도군 단위 시설물은 13개소, 읍면 단위 관리시설물은 다음 쪽 표와 같이 23개소로 총 36개소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확충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 등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외 8건 372억 3,400만 원, 3개 사업은 준공,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소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2건, 4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은 준공,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확충계획은 노화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외 5건 39억 5,000만 원으로 균특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유지보수는 해당 읍면에서, 대규모 유지보수는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용객들의 이용료 부과 및 징수도 해당 읍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물 이용객들이 체육동호회, 사회단체 등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지역주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매칭률이 국비

30%, 군비 70%로 군비 부담이 크며 사전 토지매입은 군비로 총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설군 이래 도민체전 유치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또 그리고 2024 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큰 행사를 대비하여 우리 군 체육시설이 현재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좀 열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8건의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 5건 그리고 계속사업이 그 외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이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청산이나 노화 군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중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니,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현재 47%밖에 공정률이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 현재 계획 공정률은 약 55%인데 현재 공정률은, 보고서에는 4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53%로 계획 대비 96%의 공정률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전에는 공사초기에 파일 등 이런 지반이.....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약간 공기가 지연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일요일에도 공사 승인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붕 프레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천 시나 다른 기상상황에 변화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의 거의 준공일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공설운동장 같은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자주 봤습시다마는 체육시설은 동호회나 단체들이 이용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전혀 근처에도 못 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현재 주이용층이 동호회나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군민들도 사용승인신청서만 작성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개인이 가서 오늘 운동하려고 하는데 사용신청서를 내고 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원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나 동호회는 매년 한 달씩 계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걷거나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사용신청서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경기나, 운동경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 확충에 약 4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 그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부분이 혹시나 문제점 같은 것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물론 체육시설이 건축물로 되어 있을 경우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고 특히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 많이 듭니다마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정도 유지비는 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표에 보면 우리 읍면에..... 다목적 구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읍면에 투자하는데만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봐보십시오. 우리 보고서에 한번, 답변서에.....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우리 군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전체 도서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해도 효과는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 체도권 위주로 많이 경기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앞으로 노화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 어디 명칭은 내가 호명 안 할게요. 답변서를 보면 좀 치우쳤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외된, 만약에 소외된 읍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좀 소외감을 더 느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래서 뭐 금일이라든지 또 소안이라든지 노화, 그다음에 청산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있고. 또 보길은 생활체육공원도 지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금당도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었고 차근차근.....

○조인호 의원

아니,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은 12개 읍면에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금일 청년들 71명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것 다목적구장을 하나..... “아니, 소안도 했는데 금일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요. 다목적구장을 2023년도 균특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아마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섬지방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청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동향보고를 띄우죠, 매주? (예)

그 동향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일읍장 출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우리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2023년도에 확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뭐 시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보고공원에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놀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2022년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볼경기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을 현재 진아리채 거기 앞에, 그쪽 옛날 고물상을 철거한 자리에 내후년에는 그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청소년을 위한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풋살경기장, 길거리농구 뭐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참 부럽거든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성인들을 위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

면서 뭐 인구정책, 물론 과장님이 인구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다 맞물려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내년 예산은 없고요. 2023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뭘니까, 게이트볼장. 한 면에 뭐 게이트볼장이 3개나 있는 면도 있고. 뭐 완전 막사로 된 곳이 있고 반 막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저도 그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 앞으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투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이번에도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예산을 예산계에서 확보 못한 것은 뭐 총액예산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쪽 부지를 보면 확실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쪽 임시주차장을 주차타워가 완공됐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도록

해서 거기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볼까 그렇게.....

○박인철 의원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들어 놔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체육경기가 큰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모를까,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 가까운 인근에 뭐 현대나 우성팰리스입니까? 아니, 진아리채입니까? (예)

진아리채아파트 그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쓰고 또 잠깐 걸어가면 다 5분 거리 안인데. 그런 데에다가 얼른 얼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 부분도 주차타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그쪽에다가 시설하는 방향으로.....

○박인철 의원

꼭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다음은 1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읍면별 놀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8개소이며, 그중 노후화된 10개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에 일제히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전문인력을 통하여 안전검사를 받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 수요조사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노화 석중리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금당 차우리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설치계획은 금일 척치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이 18개소가 있던데,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어린이 놀이시설 18개소에 대하여 1~2월 중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매년

일제보수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노후된 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일제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만약에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보상 1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과장님, 꾸준히 이렇게 매년 관리하십니까, 이것 수시로 돌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또 수시로 가서 파손된 부분이나 정비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전에 보면 잘 안 되는, 방치되어 있던 데가 많던데. 잘되고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현재 우리 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욱 의원

조금 전에도 전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만한 데가 없다는 이야

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지역의 부락이나 어디 그쪽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로는 못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읍면별로 보면 소재지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소규모 놀이시설보다는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 같이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읍면에, 더더군다나 도서로 되어 있어서 문화라면 전혀 해줄 것이 없잖아요. 단,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갖춘다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아이들을 키우는데 (청취불능) 아이들이 크기 좋은 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읍면 추가 시설을 건의한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추가 시설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욱 의원

읍면에 추가 시설할 건의내용이 들어왔거나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 이제..... 만약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니,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가 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을 보면 다 있는데..... 고금, 보길, 청산밖에 안보이거든요. 아니, 청산, 고금하고 군외.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런데 고금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한 쪽에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상당히 크게 1억.....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이고요.

○최정욱 의원

이것 언제 계획이 잡혔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지금 고금 생활체육공원 내에, 거기를 조성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된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 이제 공사를 한 12월경에나 착공하게 되면, 완공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군외 같은 경우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여러 읍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2개, 3개씩도 있는데. 특히 3개인 지역은 하나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경을 써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이장의 협조를 통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최정욱 의원

보길도 한번 내가 가서 민원사항을 받았거든요, 그 청별 쪽에 있는 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한 20~30명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노화로 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가면 가라고 해서 참 눈물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래서 보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까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보길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최정욱 의원

보길?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거기에도 설계에 들어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읍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해 달라고 건의하면 읍면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설하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군유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 수나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부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래서 부지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방향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이제 어린이..... 아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놀 것이.....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공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놀이시설도 굳이..... 뭐 예전 같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필요한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해도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오히려 옛날보다..... 옛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었지.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종합놀이대나 트램펄린. 트램펄린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워커힐 같은 데에 해놓은 데 인기

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서로 거기까지 놀러간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 정도인데. 그런 것 하나 해봐도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놀이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건강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일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 해양정책과 업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착장려금 및 주거공간 마련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와 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현황 중 귀어가 완도군 연고자와 비연고자 세부현황으로는 최근 3년 현황은 총 208명으로 연고자 163명 78%, 비연고자 45명 22%이며 연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완도군 연고자와 비연고자 세부현황은 최근 3년간 총 31명으로 연고자 24명 77%, 비연고자 7명 23%이며, 연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종류별 세부내용 중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은 가구당 군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8명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지원사업은 귀·어업인 및 신규어업인과 선도어업인의 일대일 멘토링으로 어촌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1회당 10만 원 최대 5회 50만 원을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0명에 대하여 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에게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1명에게 2억 8,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효과분석으로는 사업로 선정된 귀·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어촌정착에 적응할 수 있어 더 많은 귀어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귀어가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착장려금과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맞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지원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귀어가가 총 208명 중에 비연고자가 45명이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

다. 그 얘기는 비연고자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하는데 과장님,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애로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이 어촌계에 귀어하게 되면 먼저 어장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장 행사계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촌계 실정이 각각 다르므로써 거기에 진입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동네에 (청취불능)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도만의 특별한 자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깨끗한 청정환경과 전국 제일의 수산군으로서 해조류양식과 전복 등 양식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성 의원

희망을 걸고 정착을 시도한 이유가 청정환경, 전국에서 제일의 수산군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걸고 내려오죠? (예)

그런데 막상 내려오면 여러 가지 봉착한 부분들에 안 풀린 숙제들이 많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김발 한 줄도 맘대로 시설할 수 없는 현실에 접하게 되고, 또 연고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고향이고 그러니까 어촌계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비연고자들은 막상 와서 보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식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위에 없으니까. 과장님, 특히 청년들과 비연고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

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들과 비연고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것이..... 무너진 5만 인구를 지금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고 또 여기 완도가 좋아서 수산물을 찾아오신 분들이 전복 값이랄까, 해조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가야 되나?” 그런 소리까지 한대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더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어렵게 찾아온 완도에 한 분이라도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11월에 준공돼서 운영되는 완도청년센터와 연계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리고 과장님, 금번 시범사업으로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과거에 멘토로 해가지고 활동해 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멘토로 해가지고 선도어가가 그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 선도어가들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선도어로 뭐 지정되어 있다든가 또 수산과학원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그냥 막 무조건 김발을 많이 한 사람, 전복을 많이 키우는 사람

을 선도어가로 지정해 버립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지역에서 일정량의 양식업을 갖추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양식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을 우선으로 해서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멘토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알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뭐 좀 가르쳐 주라고 하면 소주나 한 잔 먹어버리고 이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일 멘토링사업은 정확하게 선도어를 책정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 뭐 와서 올 때만 지원을 조금 해주고 한다는 것보다도 꾸준히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서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런 분들이 완도에 살려고 와가지고 ‘아,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중앙정부의 2020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에 의거 우리 군 어장정화선 915호를 대체하는 선박으로 국비, 군비 각

37억 5,000만 원,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친환경 정화 운반선을 건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총 75억 중 2020년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66억 6,000만 원 중 국비부담금 30억 3,0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20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0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 시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20억 3,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현재 지방비 확보액은 이월금액 포함 17억 5,000만 원으로, 군비 부족액은 총 20억 원에 대해서 군정질의서 제출 시에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2021년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위해 11월 초 건조 발주 의뢰 후 장기계약 추진방식에 의거 사업을 추진, 2022년 말까지 신규 건조를 완료하여 적조 방제활동과 도서낙도 해양쓰레기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 관련 보충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화선은 전라남도 소유

입니까, 우리 군 소유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건조된 선박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우리 군 소유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우리 군 소유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들이 다 늦춰졌죠? (예)

예산 때문에 그랬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 뭐 10억 감이 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화선이라는 것이 낙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이. 쓰레기랄까, 모든 것이. 지금 도지사님도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소리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에 발을 맞춰가려면 정화선이 아주 귀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기존 선박은 1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0톤으로 건조해도 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도 7월에 건조되어서 전남도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운영해 왔으며, 우리 군 친환경 정화운반선이 내년에 신조되면 반납 조치할 계획이고요. 2020년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건조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시군에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화선은 설계부터 양식어장의 정화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었던거요. 그래서 적조 방제 및 도서낙도 해양쓰레기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조할 정화선은 주목적이 도서낙도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으로 설계 시 우리 군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5톤 차량 2대를 탑재 가능하고 어장사고, 어구 인양, 크레인시설 및 적조 발생 시 황토 살포 등 다목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선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장기계약 방식의 조달청 건조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11월 중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정화운반선에 적합한 기관장비를 설치, 우리 군 어장환경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군비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전라남도지사님 우리 군 방문 시 제정, 건의사항으로 도비보조금을 지난 11월 1일 가내시 통보받아 우리 군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건조 발주와 함께 책임감리를 선정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설계대로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관장비선정위원회는 지금 어디..... 우리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뽑아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한

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6개 시군이 같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여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이렇게 발주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정위원회 구성에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럴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6개 군에 같이 모든 것이..... 신조 어선이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은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분들. 우리가 쓰다 보면 배는 노후화되고 기계도 노후화되는데 기계 자체에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마력 수가 적은 것들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선정, 기계장비 쪽에 선정위원들을 확실하게 접근해 가지고 마력도 좀 높고, 우리 기본 노트가 13노트 나가면 한 15노트 나가게끔 한다든가. 좀 색다르게 이것이 돼야 될, 징수까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과장님이 좀 다니면서 챙겨주시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완도군이 청정 바다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다음은 5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외면 동부해역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갯벌 1,000헥타르 중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지락서식장 및 자원조성, 해삼 및 꼬막 자원조성, 모니터링 및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업무관리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꼬막, 바지락 자원조성 및 자원조성 어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효과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연도별 사업추진 및 효과 분석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 효과조사 기준으로 바지락은 평균 5.9배, 꼬막 평균 2.3배로 증가하였고, 마을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바지락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660루베 이상의 모래살포 및 경운을 실시하였으며, 꼬막은 348만 75마리, 바지락은 11만 500kg을 살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살포한 꼬막 모패의 폐사가 발생하여 생존환경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질 우세로 발생한 부유 벌로 표층산소가 부족해 폐사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방류지역 확대와 어업인 참여형 환경 개선사업으로 생존율을 증대하고, 경운장비 보급으로 꼬막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

문하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김재홍 의원님께서 부재인 관계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안목장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좀 시행착오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김재홍 의원님께서 부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하셨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1~2년차 2018년부터 2019년 사업은 바지락과 꼬막이 거의 폐사하였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사진도 찍고 뿔도 하고 수십 차례 현장방문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폐사가 몇 %나 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때 생존율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마을어촌계원들이 추정한 폐사율하고는 다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래도 폐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범성 의원

아니, 50억 사업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폐

사가 나오면 해야 될 사업이나, 안 해야 될 사업이나.”라고 김재홍 의원님께서 열을 엄청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듣고 보니까 이것이 진실로 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뭔가 우회하는 방법은 없는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폐사 발생 이후에 생존환경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꼬막의 생태적 특성상 수관이 매우 짧고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라 부유물질 침전현상에 의한 폐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항만 및 벌대를 이용한 어장저질 개선방법을 도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꼬막 모패보다 환경적응이 용이한 꼬막종자로 모패단지가 아닌 꼬막이 서식할 수 있는 어촌계 전체 면적에 자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바다목장 3년차 사업은 생존환경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작한 사업이라 살포된 바지락과 꼬막 생존율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식환경에 대하여..... 아니,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범성 의원

다시 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것 대충 알았는데요. 방금 작년 11월에 폐사원인 규명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생존환경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인지 (청취불능) 우리 지역하고 이것이 지금 잘 안 맞는다는 뜻 아닙니

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옛날 서식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고 아무튼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어촌계장들, 어촌계 회원들하고 거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생존환경을 개선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니까 어촌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래서 당초에, 1차 연도에 실은 일부 어촌계에서 꼬막하고 해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2018년도에. 그런데 해삼이 별로 사업성과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꼬막하고 바지락으로 다 변경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꼬막 모패단지를 조성했었는데 모패단지에서 폐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사업지구 어촌계에서도 현재 사업지구에서 자연 서식하는 꼬막이나 바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식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촌계의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는 그 면적에다가 종자를 다 살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이범성 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3년차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4년차입니다.

○이범성 의원

아, 4년차입니까. 그러면 어촌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자고 하는 부분이 거의 다 공유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

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재홍 의원님께서서는 뭔가 아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덜 되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직원들이.....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 사업을 투자하면서 다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은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력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 한국수자원공단과의 서식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여 생존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50억입니다. 국비 25억에 군비가 자그마치 2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할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은 이제 총..... 전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박인철 의원

군이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의 성과가 없는데. 다만 얼마라도 남겨 가지고 시급한 데에다가 이 예산을.....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다른 데에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쪽에다가..... 군외면 9개 마을에다가 했는데.

과장님, 사내호, 만덕호 뜬 것 잘 알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기존에 저기 고금도로 해가지고 뭐야, 해남 쪽에도 개불도 안 나오고. 고금도 김, 이런 것 다 잘 안 되는지 알죠? 고금도에 기존 바지락도 다 폐사된 것 알죠? 이것 처음에 위치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사업 장소부터. 기존에 우리가 살포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지금 사내호, 만덕호 때문에 다 폐사되는 입장인데. 이런 데에다가 군비 25억이나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꼭 5개년 사업이라 했는데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스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당초에 꼬막으로 말씀드리면 모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모패단지가..... 모패가 일부 이렇게 폐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지구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어장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치패로 해서 종자를 살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치패 종자를 살포했습니다.

지금 속단해서 제가 내년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보다는 내년에..... 올해 살포해 놓은 종자에

대해서 내년 봄에 생존율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이렇게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꼬막이나 바지락을 살포하면 몇 년 있다가 수확을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꼬막은 4~5년입니다.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완도에..... 기존에 바지락단지가 많이 있었죠, 바지락단지가? (예)

전체 작업을 못하는지 알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물바지락 같은 경우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바지락조업을 몇 년째 못하는지 알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존 바지락도 지금 이렇게 폐사가 나오고, 집단폐사가 나오고 또 완도 바지락이 지금 씨알도 안 찬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왜 그런 것인가를 밝혀야 되는데. 아니,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비는 25억이나 넣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전혀 지금 사업성고가 안 나와요. 내가 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그냥 직원들 월급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이.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다만 얼마 남은 것이라도 다시 반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권혁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올해 살포한 종자의 성장, 생존율 그런 부분

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 봄에 판단해서 그런 것도.....

○박인철 의원

아니, 과장님. 내년이면 이것 마지막 사업인데, 5개년 연차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열거된 마을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득사업도 안 되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만 모래 살포해 가지고 거기가 뭐 모래지역입니까. 모래가 있습니까, 거기가. 거의 벌하고 자갈인데.

거기에 모래만 살포해 가지고 기존에 서식하는 것도 다 배려버릴 것 같아요. 거기가 낙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존 생태계만 교란시켜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얼른 이것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이것 법적으로 우리가 스톱해도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면 뭐 제약을 받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외면 동부권 9개 어촌계는 진짜 소득이 전무한 어촌계입니다. 지금 주소득이라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라든가 석화, 뭐 꼬막 일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눈에 띄게 성과는 없다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것이 꼬막만 보더라도 꼬막 한 마리 모패가 300에서 350만 미 정도의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바지락만 봐도 한 200만 미 정도 산란을 해요. 그래서 100%의 성과보다도 50% 미만 그

생존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이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연식하고 있는 자원량과 또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살포한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하면 어촌계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외면 이쪽 동부권이, 마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적대로 지금 안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군외면 사후도 장자리, 죽청리, 송곡, 고금도 쪽 앞바다에 얼마나 바지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랬는데 조류 흐름이나 방파제, 농공단지를 하고 나서 조류 흐름 또 사내호, 만덕호의 물이..... 아니, 우리가 집중호우..... 마랑 쪽도 봐왔지 않습니까. 마랑 쪽에서 흘러온 물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옛날 생태계하고 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것은 사내호, 만덕호를 어떻게..... 우리 군에는 아닙니다마는 강진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업성과가..... 물론 과장님, 바지락, 꼬막이 3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기 서해안 쪽이나 여수 쪽 이런 데를 보면, 대천 쪽 이런 데를 봐보면 그냥 살포해 가지고 2년 안에 수확합니다, 충남 쪽도 그렇고. 그런 곳 환경하고 우리 완도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런 사업들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다른 용도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예산만 집어넣어 가지고 어민들한테 이것을 하게 되면 금방 소득이 될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다음은 7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은 12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및 양식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약 1만 2,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약 60%에서 70%를 처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군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및 업체별 수의계약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0년부터 도급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 시행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 4종의 사업을 매년 반복 추진하여 깨끗한 여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리, 처리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해양쓰레기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면 지난 7월에 페스티로폼 친환경 소각기를 노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것 시범운영하는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문제점 같은 것 없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금 현재 문제점 없이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 문제점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친환경 소각기를 이용한 페스티로폼 처리방식을 우리 군이 지자체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잘한 일이네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제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매우 잘한 일이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금 내년도에 동부권 금일 쪽에 또 이렇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 금일을 하고 나면 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앞으로 해양쓰레기하고 우리 군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과거에는 읍면장이 전도해서 해양쓰레기를 전부 읍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서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이 이제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읍면장님들께서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지금 실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읍면장을 하실 때는 읍면에서 해야 한 차라도 더 치운다. 군에만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지금 쓰레기 한 차를 치우는데 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이 이제 그..... 배출신고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해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군에서 처리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정부시책이 지방으로 자꾸 (청취불능) 우리 군 시책도 읍면으로 전도를 해줘야 읍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빨리빨리 치우지. 군에서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얼마나..... 이렇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읍면 쓰레기를?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조인호 의원

이제 이 쓰레기..... 뭐냐, 해양쓰레기 업체들은 우리 완도업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읍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차를 할 것 한 차밖에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읍면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면장을 해봤으니까..... 과거에 면장을 하실 때 하고, 지금 군에서 과장하실 때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을 던지기 전에 화전리 선착장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왜 안 치우냐고 해. 읍에서 빨리 좀 처리하라고 했더니만 안 된다고 해. 그런데 질문을 던져놓고 가니까 그 다음날 원동에 가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읍면하고 행정하고 지금 군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쓰레기는 앞으로 1년이면 1만 2,000 정도 발생한다고 했죠? (예)

6,000톤은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고생스럽더라도 방금 본의원이 말씀했던 이 부분은 진짜 연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읍면에서 과거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방식대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잘해서 간소하게 하십시오, 간소하게.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업자는 완도군에 있는 업자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다음은 10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간으로만 한정된 여객선 운항으로 이동권을 제한 받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우리 군에서는 야간운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약산면 당목항에서 금일읍 일정항 야간운항은 2021년 10월 15일 시행되었으며, 19시30분과 21시에 1일 2회 왕복 운항하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양식시설물 10세트 철거, 야간점등부자 2개소 설치, 여객선 입출항시 야간 안전운항을 위해 접안장에 야간조명 2개소를 설치하여 야간운항 인허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

완도군과 완도농협은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2월 23일 목포청에서 야간운항 현지 확인 결과, 항로상 양식시설물 철거, 야간점등 부표 설치, 당목항, 일정항 조명설치 보완 등 인허가 기간 및 일정 주민과 당목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5일 목포청에서 보완사항 이행 현지 확인 후, 10월 15일 야간 운항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상 교통체계 개선에도 탄력을 받게 되고, 도서민 및 관광객의 여유로운 체류시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쪽,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입니다. 1,000원 요금제 근거 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와 해운법 제44조 1항 및 농어민의 삶의 질 법 제35조의 2와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은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이용하는 1,000원 요금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에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그해 8월 1일, 8,340원 미만 구간 1,000원 요금제를 추가 시행하였고, 9월 1일 8,340원 이상 전 구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녹동항에서 신도, 원도, 초도와 여수항에서 초도의 1,000원 요금제로 도서민의 여객선 부담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야간운항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항되기까지. 그간 전 과장님인 서길수 과장님과 권혁 과장님이 마무리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까지 운항이 시작되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야간운항이..... 야간에도 이렇게 운항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운항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본의원도 한 두 번 야간에 가면서 타보고 했지만 매표소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선원, 선장까지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아주 생기발랄하게 하고 있고, 또 차량이 매일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완도군 도서지역에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야간운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항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접안장 시설이라든가

야간점등부자시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야지 만이 야간운항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호 의원

아니, 2차적으로는 화흥포하고 남산면 쪽에 운항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관여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불법 어장지가 있으면 해경에서 허가를 안 해주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목포청 검사관들이 오서 가지고 이제 일체 점검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만이 항로 허가를, 정식으로 야간운항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약산, 금일 간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루트를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2차 구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어장지가 있으면 또 인근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금일..... 저도 약산 어촌계, 금일 일정 어촌계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약산 당목 어촌계하고 금일 일정 어촌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두 어촌계에 애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마을보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2차적으로 할 화흥포에서 노화 구간. 이 부분은 진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준비를 차근차근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섬 주민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실과 주무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목에서 일정을 하는데. 화흥포에서 동천, 소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가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본예산에 얼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약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것이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 그것은 많이 부족하죠.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 서길수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일정하고 당목을 할 때 같이, 화흥포하고 같이 하자고. 3억 6,000 지금

예산이 남은 것, 분명히 같이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길수 전임과장하고도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남산면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용역을 다시 합니까? 그전에 전임과장은 용역도 같이 해가지고..... 물론 작년도 예산이 적게 잡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시작해 가지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채운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노화나 소안, 보길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노·소·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꼭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예)
알았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다음은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2015년 선포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폐어망, 어구 등 폐합성수지 3,47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12개 읍면 36명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443톤의 쓰레기를 수거, 해양쓰레기 무

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예방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으로 저녁 및 새벽시간대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CCTV 설치도 검토할 계획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및 참여도가 높은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양쓰레기 처리비 추가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에는 해양쓰레기 ZERO화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정바다 완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성자 의원입니다.

전국 최초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통해서 해양관광 완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건강해요. 깨끗해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슬로건으로 본사업을 추진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후속대책의 추진..... 말씀하신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계획 시행 후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에 의해 2017년 12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정바다 보전 관리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바다 보전 관리 기반 마련, 깨끗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 어업 생산성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후 친화적 해양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 해양 수질 오염의 관리체계 선진화,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관리능력 고도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기능성 강화,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강화, 5개 분야의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시행계획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우리 과에서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시다마는 현재 세계적인 공통사항인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육상 및 해상 김 오염원 처리 관리체계 구축,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체계 마련, 재해 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5년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여 농업, 수산,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산호 서식지 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였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안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역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개의 해역에 대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금당면 소화도 주변 해역, 2013년도에 청산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 두 곳의 해역은 연산호, 뽕산호, 둔한진총산호, 자색 수지맨드라미 등 대규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특이생태계의 학술적으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년 국비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탐방로 조성, 안내판 설치 보수, 수산종자 방류, 보호구역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엠을 활용해서 하천수질 개선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여 농어가에 공급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약 20톤의 이엠 활성

액을 공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첫해에는 주로 지역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이엠사랑과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가 수요가 없어서 2019년에는 수산분야 육상양식 21어가에 수질 개선을 위해 소독용으로 공급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수산 분야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실적 및 효과분석을 통해 신청접수 후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여 양식어장 환경개선물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엠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 완전히 중단이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후속대책 중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1만 52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전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동,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소각시설은 1일 1톤 재활용시설은 1일 47톤, 매립시설 4,0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소로는 완도읍 망석리, 고금 농상, 약산 해동 3개소 군유지를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를 건의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예비 대상후보지 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기계획 수립 등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계획 없이 무산되게 생겼네요.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 교육, 자율참여 유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환경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순회교육, 자율참여 (청취불능) 시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초 청정바다 보전 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 시 어업인 자율참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어촌계 상황은 초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우리 군 수산 관련 분야 단체 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단체로 읍면 어촌계 구성원 중 바다환경지킴이 365 기동대의 자율참여 효과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선단체, 수산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현재 다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과연 효과가 있는 시책이었습니까. 그것이 되가져오기가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때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하기 위해서 매년 어촌계 화흥포구에 선상집하장을 설치해

났습니다. 거기에 직접 해놓으면 우리가 그 빠지를 육상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뭐 조인호 의원께서 본안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의 답변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만 6,0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가 가장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매년 우리 군 해양쓰레기 발생량 대비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자재, 인접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또 집중호우 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 부서 최우선 업무과제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과장님, 해양쓰레기를 저희들이 보면 바다에서 조류에 따라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가서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쓰고 남은 폐자재 같은 것을 바닷가에다가 많이 놔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난해하게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는 잘 써서 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

까 바다에 밀려온 스티로폼이나 폐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바닷가에 버려진, 또 바닷가에 쓰고 남은 배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하셨으면 하는데.

각 읍면에 세 분씩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분들이 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분들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서 특정장소에 모아놓으면 읍면에 위탁.....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해양쓰레기 지정업체가, 처리업체가 지정되면, 정해지면 그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내에는 그분들이 청소를 잘하는 것으로, 수거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분들이 수거해 놓은 쓰레기도 어쩔 때 보면 가마니가 다 헤지도록 안 가져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수거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57억 원의 사업비로 79만 개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중 스티로폼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페스티로폼 사용 근절을 위해서 정부시책으

로 2015년부터 페스티로폼 회수제를 실시하여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페스티로폼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친환경 양식자재 사용을 위한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 2022년 하반기부터 1차적으로 굴, 김 양식어장, 또 2차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양식어장에서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개정된 관련 법령을 어업인 지도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부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도 군비 지원을 더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춰주면, 그러면 어업인들이 편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부표 사용 정착을 위해서 국비 확보, 또 지방비 확대 지원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과인 수산경영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은 교육 홍보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되면 완도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완도이미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도 하셔서 가지고 정말로 바다에 가면 냄새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3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휴회의 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휴회의 건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수산경영과
 - o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 o 상하수도사업소
-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휴회의 건

(10시00분)

먼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조례안 심

사를 위하여 11월 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11월 4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질문 총 7건 중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전복 ASC 인증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복 ASC 인증 현황은 2021년 10월 말 현재, 전복은 총 39개소, 해조류는 김, 톳, 다시마 등 총 38개소를 인증 받았으며, ASC 유통가공 인증의 경우 현재 총 6개 업체가 인증 취득을 받았습니다. 인증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전복 ASC 인증 지원 및 활성화 검토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사업 지침 개정입니다. 2022년도 지침 변경을 통해 사후심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하였으며, 두 번째로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한국립수산물 학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인 자료 제출로 어가들의 인증 진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워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온·오프라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ASC 인증을 받기 시작해서 지

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 39개의 어가가 받고 있고 또 김과 다시마도 38개소가 지금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처음 시작한 것 하고 현재 지금 해온 것하고 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계속해서 그 ASC 인증 어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어가들에서도 인증 참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받고 난 후에 ASC 인증을 받았다는 그 목적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군에서, 우리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ASC 인증은 이제 국내의 유통보다는 해외 수출에 의한 그런 국제인증제도이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 우리 어가들이 생산하는 그 제품들이 수출하는 데에 많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홍보에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사실은 ASC 인증을 받았다 한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받고 교육을 받고 해왔습니다. 해마다 또 이렇게 새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죠? (예)

예, 그것도..... 우리 완도 같은 경우에는 블루플래그 같이 똑같습니다. 해수욕장 그 마크를 받듯이 해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ASC 인증을 받았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군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왜 ASC 인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ASC 인증제도가 좀 더 국가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는 ASC 인증 그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뭐 양식이 됐든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MSC와 똑같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ASC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에 얼마나 위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시 ‘왜 인증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비용 또한, 저 또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마는 ‘왜 1년에 몇 백만 원씩 줘가면서 개인이 이것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도와고 또 우리 군하고도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또한 잘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뭐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한 3개 정도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유기식품 인증 그다음에 무항생제 인증,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이 3개의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3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친환경 수산물에 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예)

화학약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일 모르고 있고요. 그것이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절대 규제인데. 지금 우리 어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박리제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박리제가 뭐냐면 구연산을 쓰고 있습니다, 구연산. 구연산이라 하면 우리가 식용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비타민제인데도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런데 그 산도가 높음으로 해서 못 쓴다고 하지만 그 약, 쓰는 약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이쪽에 아까 어가..... 받은 대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그쪽에 이렇게 질의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SC를 받고, 인증을 받고 또 우리 어민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이렇게 만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조금도 받는 것도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SC 또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ASC..... 항상 할 때마다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교육도 많이 못하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달리 생각하시고 또 군수님께서도 달리 이런 ASC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직불금 또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3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 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해조류 양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주요 해조류 작황은 수온 상승으로 엽체가 탈락하는 등 작황

부진이 우려됐으나 순차적으로 회복되어 생산량은 작년 대비 비슷하거나 증가하였습니다. 해조류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 유지 방안으로 첫 번째, 김 양식은 전년 대비 시설량과 생산량은 비슷하였으나 전국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이탈 초과시설들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과잉생산을 방지하여 품질 좋은 완도 김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미역, 다시마 양식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 가공용 미역 가격 하락으로 일부 먹이용으로 전환되었으며, 다시마는 적정생산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은 비슷하나 평균 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과잉생산 대비 전복 먹이용 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수급 조절을 통해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톳 양식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시설량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톳은 일본 소비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최근 일본 소비층의 고령화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함께 국내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생이 양식은 어민 자발적인 시설량 축소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소득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정시설량을 유도하여 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입니다. 시설량은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함께, 올해 작황 부진 등으로 시설량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산 김 시설량은 10월 말 현재, 60% 이상 시설 중이며, 곱창 김의 경우 채묘시기가 작년 대비 2도씨 높아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일부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 미역 시설량은 70% 이상 시설 중이며 초기에 업체 탈락이 발생하였으나 2차 시설을 통하여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시설물 강력단속과 함께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을 통한 시설물의 면허지 내 이설 및 적정 채묘시기 정보를 사전에 접하는 등 해조류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고수온으로 인해서 사실 해조류 좀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또한 계속 하락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사실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꼭 군에다가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또 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조류 생산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고수온으로 인해서 탈락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사실은 진도 냉수대가 8월, 9월, 10월 정도면 우리 완도해역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냉수대가 완도해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도씨 그 높은 수온이 완도해역에서 한 50일 간 지속이 됐고, 그런 시기에 이제 미역을 시설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어민들에게 시설시기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어민들은 전복먹이용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빠른 시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과학원 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수온에 강한 수과원 203호라는 품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가에 보급하기까지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주 정도는 군수님과 함께 해수부에 방문해서 조기에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이것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또 이렇게 해조류를 많이 양식해서, 또 가꿔놓은 것을 가격이 너무 또 싸다 해가지고 어민들의 고충이 좀 많습니다. 이런,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우리 농수산물의 문제점이 항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해조류 같은 경우는 각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측면에 어떤 한계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불법시설에 단속을 하고 또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언론매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현재 보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이, 이제 우리가 해조류를 하면 또

미역, 다시마로 전복어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생산된 것이 그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먹이가 없어서 전복을 못 키우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 의원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감태..... 그것 지금 많이 말씀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감태는 해양바이오산업 일원으로 저희들이 시범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 신지, 금당에.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시범양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감태 같은 경우에는 그 추출물에서 치매 지연제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있다고 하니까 감태뿐만 아니라 그런 의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조류들로 저희들이 품목을 더 개발해서 해양바이오산업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야간운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면허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불법면허지를 먼저 재배치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야간운항이 예기되는 그런 면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장 재배치사업을 통해서 이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요. 또 사실은 이설하고자 하는 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어촌계와 논의를 해서 가급적 야간운항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허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

예. 저쪽 약산 쪽도 사실은 일찍 초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늦어져서 10월 15일부터 이제 운항이 됐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쪽도 미리 지금부터 손을 봐놔야지, 내년에 일할 때 쉬울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 하면 사실 지금 어장 다 작업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내년에 빨리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인호 의원님께서 엇그제 해양정책과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척척 나가야 내년 예산에 100% 나올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보고 있었지만 안타깝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재배치 사업을 하는데 꼭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요즘 미역 종묘 포자 대단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매년 하는 이야기지마는 우리 종묘협회하고 또 우리..... 과장님, 혹시나

워크숍 같은 것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직 안 했습니다.

○조인호 의원

안 했죠. 제가 3일 전에 종묘협회 회장님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우리 수산박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말만 박사들이지. 그 포자, 종묘하는 사람들이 수산, 그 포자에 대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포자를 이렇게 시설해서 가지고 가면 죽는지 탈락되는지 안 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와서 급하다고 주라 하니까 줘서, 주면 대금도 가서..... 고사되면 대금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그것을 시설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시설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인건비에다가 다 지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수산이 제일 미역 1차 산업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다시마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포자 종묘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채묘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군수님도 수산박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군에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봐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 달 늦게 채묘하고 업자들하고 해서 좀..... 물 맞은 포자나 종묘나, 좀 탈락이 쉬운 포자들은 업자들이 아니까 이런 부분은 방출을 못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나서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전간담회를 가져서 어민들이 그 시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민들도 그 시기에 시설을 하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전복 입식할 때 치패들의 먹이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도 위험부담을 안고 그 시기에 꼭 시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9월 정도에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동군수실을 할 때 어민들한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안정을 시키면서 연기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래도 행정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의원들은 그 양쪽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간담회를 해보면 그렇게 신뢰할 만큼 또 그런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능력도 워낙 출중하고 그러시니까 올해는 이런 위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업자들하고 그리고 군수님과 이동군수실을 하실 때 어민들한테 “고생하지 마시고 한 달 있다가 끼웁시다.”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5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전북주식회사의 역할과 전북 수급조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유통업의 덤 문화를 근절하고 유통시설 확립을 위해 2009년에 설립한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총 직원 수 27명과 자본금 89억 1,700만 원, 발행주식 177만 9,000주, 주주 수는 1,222명으로 총 매출액은 510억 원입니다. 완도군은 대주주로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최근 3년간 완도전북주식회사의 전북 유통실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판매량은 4,088톤이고, 총 매출액은 1,276억 원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출은 감소한 반면 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가공제품의 생산 및 수매계획 등 전북 수급조절을 위한 회사 차원의 전략과 방안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소비 트렌드에 맞게 전복죽, 순살 냉동전복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주주들의 균등 기회를 위해 어장거래처를 점차 확대하고 전북 집중 출하 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특정미수에 대한 냉동용 전복 비축을 실시하여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북주식회사의 역할과 전북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 주식회사 지금 잘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왜 요즘에 와서는 잘할까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잘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회사 운영상에 오너, 오너의 그 회사에 대한 책임감, 도덕성,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전에는 많은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너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새로운 그 오너가 오면서 회사가 다시 새롭게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지난, 흘러간 이야기지만 18억 적자가 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다 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군 행정에 중요한가를 본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유통구조와 덤 문화의 개선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덤 문화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 10kg짜리 전복 광주리 하나를 유통하는데 14.8kg, 덤 포함해서 14.8kg로 정량제로 해가지고 지금 생산자하고 유통 간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런 생산자와 유통과의 그 협약사항을 사실 우리 또 생산자들이 좀 무너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전북산업연합회 맞죠? (예)

지금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랄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연합회하고는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무슨 수출협회, 유통협회, 남도유통, 주식회사. 지금 주식회사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 우리 행정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자 또 단체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서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경쟁의 취지가 아니라 협조의 취지로 가야 되거든요, 이 전북산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기적으로..... 하여튼 서로 계속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홈쇼핑하고 인터넷쇼핑 또 모든 것이..... 전북이 완도산 전북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는 완도산 전북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우리 전북이 이제..... 뭐 어느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완도산 전북이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행정의 다양한 홍보와 판촉의 노력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혼밥, 혼술 문화가 국내에 또 보편화되고 있는데. 홍보와 판촉의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발 맞춰가는 것이 조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저희들은 그동안 지상파나 또 언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요. 단,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체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온도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상파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완도 전북을 모르는 국민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죠? (예)

그럴 정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국내의 내수만이 아니라 수출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서 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혼밥 고객을 위해서 소포장 판매, 간편식 제품, 장기보관용 냉동전복, 전복절편, 통조림 등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시장개척팀장님, 그쪽에 홍보는 뭐 계획된 것 있습니까? 간편식에 대해서, 홍보.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간편식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이버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 올해만 해도 11회에 걸쳐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온라인 트렌드는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쪽의 홍보가 좀..... 앞으로는 대단위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도전북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주목적은 유통이나 개선이었죠? (예)

이제 개선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이제 많이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소비 대중화를 위해 시장 개척하고 가공식품 개발도 설립목적에 들어가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맞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 부분들에, 앞으로 주식회사가 경영의 방향이..... 지금 단순 유통을 벗어나 완도군 전복산업의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가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먼저 전복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주식회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님도 마찬가지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동의합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완도전북주식회사의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경영수익금 중 완도군에 배당된 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한 번인가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한 것 같은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 2013년도에 1억 1,800만 원을 배당했고요. 2014년도에도 1억 1,800만 원을 배당했었으나 2013년분은 우리 완도군이 포기하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배당이 있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그러한 배당의 과정도 앞으로 전북주식회사가 정상화, 일원 정상화로 이루어졌을 때 무엇인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배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민에게 더 많은 것을 배려하는, 꼭 돈으로 배당해 가지고 얼마씩 주는 것보다도 전복이 오늘..... 우리 답변서에 보면 “270어가에서 340가가를 커버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270가가의 물건을 지금 340가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전복을 팔아주고 돈으로 바꿔준다는 소리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70어가에서 340어가만 완도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완도 3분의 1을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전북주식회사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어민을 위해서, 우리 전북 산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군수님 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전북 주식회사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려고 노력을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마음으로는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다들 고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유 차원에서..... 그동안 이익금과 향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전북산업의 대중화라는 큰 틀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유도해 가지고 무엇인가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에, 내가 가끔 우리 이유성 대표하고 자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북미역국 이랄까, 전북죽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과거보다는 지금 엄청 회로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정국을 맞아 가지고 판매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홍수출하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수출하 부분들이 3, 4.....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때 주로 홍수출하를 하는데. 그 홍수출하를 못 막아 가지고 계속 어민들은 뭐 단가가 떨어지니.....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좀 올랐습니다.

○이범성 의원

엄청 올랐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 우리 업

무보고를 할 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6개월을 키운 것이 아니라 2년 6개월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라.” 분명히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홍수출하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홍수출하 시기가 4월, 6월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읍면별로, 권역별로 출하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4, 5, 6월 달에는 동부권역, 또 뭐 9, 10, 11월에는 서부권역 이렇게 좀 권역별로 출하시기를 조정해 주면..... 우리 생산자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만 하면 홍수출하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름철 고수온이 오기 전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의향들이 높아버리니까 4월, 6월로 집중되고 있어서요. 그것을 더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시기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전북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우리 행정에서 전북을 안 팔아준다고 뭐라 하지, 참 우리 공무원들 이래도 전북을 팔아야 되고, 저래도 전북을 팔아야 되고 그러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잡아가면 뭔가 해결점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지고 홍수출하를 대체할 만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좀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꼭 그 홍수출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내수실적을 한번 내가 우리 주식회사 표를 보니까 수출이 2019년도에 330톤, 2020년도에 168톤, 금년 전반기 33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간 것입니까, 안 나갔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활전복은 주로 일본으로 한 80%가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일본의 수출량도 많이 줄었고요. 또 사실 이제 국내 소비가 어렵다 보니까 각 업체들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이것이 좀 굉장히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일부 덤핑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 덤핑 때문에 주식회사가 상당히 거기서 경쟁력을 잃고 국내 소비 쪽으로 지금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원

그렇죠. 주식회사는 지금 자체적으로, 일본 부분들보다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남아 쪽이나 신규 시장들을 개척하는 데에 주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덤핑에 들어가면 주식회사가 무조건 집니다. 개인들은 막가파예요. 뭐 지금 보통 일본 수출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 한 3,000씩 다운시켜 가지고 보내버리는 곳도 있어요. 직접 제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적정 폭이랄까 잉여의 여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일본 수출량이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왜 수출량이 감소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공식품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 개척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주식회사를 이만큼 일궈오는데 우리 과장님과 실무부서진, 우리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완도 전복산업이 꾸준히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우리 전복주식회사를 끌어가는데 개인 하나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가 바뀌어졌고, 첫째.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책임경영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 것이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도덕성과 개인이 잘 들어옴으로 더 잘 된다 이렇게 해야지. 개인 하나가 잘 들어와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와 뭐고 조례도 다 바꿨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결산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이 사업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책임경영제가 지금 바뀌어졌다는 것, 이제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우리 분식, 이제 결산이 지금 3, 4분기..... 3, 4분기 지금 결산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저번에 이사분기 볼 때도, 그때도 수익이 꽤 난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 있거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한 13억 정도 발생으로.....

○최정욱 의원

그렇죠? (예)

사실 주식회사는 그야말로 공공성과 수익, 두 가지를 창출해야 돼요. 수익도 내야 되고 공공성도 창출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힘든 구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견되느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를 바라볼 때. 분식회계가 되냐, 제대로 결산이 되냐, 두 가지를 잘 짚어야 되거든요. 분식회계란 즉, 말하자면 제품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서 결산을 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과 제품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면 뒤로 항상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 회사들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제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재고 파악을 잘 하느냐, 거래처 관리를 잘 하느냐. 즉 재고가, 탱크에 있는 재고가 제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결산을 본 것인지. 또 거래처를, 예를 들어서 10어가 치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무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놓고 결산이 제대로 됐을 때 이것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잘 관리되고 있죠, 우리 군이 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관리 잘 되고 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의회에서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최정욱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주식회사 그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

셔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주식회사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3억이라고 했는데, 그 분식회계가 아니고 진짜 13억이 제대로만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결산을 본다고 하면..... 지금쯤, 한 번쯤은 우리가..... 그동안 아까 이범성 의원님의 질문에 “2013년도인가 주식배당을 일부 했다.”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럴 때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 어민들, 그 주민들이 전부 주식에 대한 불신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배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그 광주리를 사는 것도 다 어민들이 사죠? (예)

그런 것이라도 우리 주식회사가 좀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참고로 그 3분기 수입, 순수익, 이익 매출액은 17억으로 결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또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개최를 해가지고 주식배당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또 한 번쯤은 해보고. 또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짤 때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해서 잉여가 발생되고, 열심히 하면. 그때 처우개선을 올려주겠다는, 그때 처음에 우리들이 사업계획서 제도 개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직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회사라.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참고 좀 해보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직원들을 그동안 이제..... 한 50명 가까운 직원들에서 거의 한 20명을 감축하고 30명 직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사님들과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 성과 상여금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도 지금도 이렇게 잉여를 냈는데도 그대로 가버리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떨어진다고 보죠. (예)

이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7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81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1,753평방미터에 지상 2층 건물로 수조실, 냉동냉장실, 급속동결실, 홍보관 등 주요시설을 갖춘 수출물류센터는 조합원 22명으로 완도 수산물수출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5년간 임대계약하고 조합원 1인당 1,000만 원을 출자하여 2억 2,000만 원의 자본금을 조성, 운

영 중에 있으며, 올해 1년간 사용료 8,000만 원을 완도군에 납부하였습니다. 수출실적은 현재까지 7회, 18톤,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급속동결시설 및 냉동창고 컨테이너 직수출 체제를 갖춘 최고 시설로, 유통, 가공, 센터 내 검역, 수출로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하절기 고수온이 됐을 때 냉각수를 주입한 저수온 수조를 활용하여 폐사량을 저감시켜 업체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국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바이어 상담이 어려워 수출이 저조한 실정이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팬데믹 현상이 다소 진정되면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며, 해외수출과 국내 유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승인을 해수부에 건의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뭐 수출물류센터..... 뭐 주식회사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를 운영하기가 참 어렵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범성 의원

우리 수출, 완도전북주식회사도 처음에 운영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물류센터도 금방 뭐 국비 들어서 지어놓았다고 해도, 운영의 묘미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아가는 것은 22개 업체,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금 거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런데 오늘 내가 아침에 오면서 들여다보니 냉동고도 좀 차 있고 또 지금 수조도 일부 차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운영을,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선 냉동고를 좀 빌려주고, 수조를 빌려주고, 그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출 부분이랄까, 또 앞으로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그랬을 때는 뭐 동남아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어..... 옛날에 지금 광어 부분들의 사업이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됐다든지, 반납을 했다든지 안 그랬습니까. 광어 펠릿. 그런데 그런 것도 거기에다가 접목을 좀 했으면 나는 좋겠는데. 요즘에 광어가 단가도 있고 서울에 가면 지금 전부 다 그냥 포를 떠가지고 직접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그게 아주 잘..... 또 뭐 유통이 잘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광어도 지금 꼭..... 수출물류센터는 전북만 취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어도 아마 두 곳인가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펠릿 기계만 한대 들어오면 광어도 해가지고 뭐 택배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버스랄까, 택배랄까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급속냉동을 시킨

다든가. 뭐 요즘 서너 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냉동은 약간 식혀줘야 더 맛있랄까, 영양가랄까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내가 아침에 돌아보고 나서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들어간다던데. 지금 뭐 1년이나, 한 2년이나, 3년간은 조금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수출은 전혀 못 하고 수조냉동..... 뭐 냉동저온저장 그때 창고 그것 몇 개, 3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빌려줘 가지고, 그것 뭐 인건비에다가 전기세에다가 뭐하면 전혀 뭐 내가 봤을 때는 저렇게..... 그것 회원사들이 50만 원씩 낸 것으로 또 뭐 이것저것 해버리면 다 없어져버릴 텐데. 그것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말했을.....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작년에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시작도 안 하고 벌써부터 지원할 방법을 찾느냐.”라고 해서 지원 조례가 사실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좀 더 업체들이 말하는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럼에도 운영이 어렵다면 그때 가서 이제 지원할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무조건 지원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꼭 어려울 때 한 번씩.....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한 번씩 냉정하게 생각해서 도와줄 때 좀 도와주면 다음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오는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예)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은 우리 홍수출하 시 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 법률을 보니까 다른 것은 안 되는데, 기금조성에 따른 그 부분에..... 다른 곳은 전부다 농수산물로 다 정해져 있는데, 5장에 보면 “농산물”, “수”가 빠져버렸어요, 글씨 하나가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기금 설치랄까 안정화기금을 못 받습니까?

제가 얘기는 이런 기금을 받아서 홍수출하 때 급랭을 시키든지. 시설을 보니까 아주 뽕뽕 돌아가면서 뚝 떨어지게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개인들은 저런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온저장에 재어놨다가 홍수출하 시 이런 기금을 받아 가지고 “아, 주식회사가 물건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판매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자금 여건들을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제 5장을 보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수”가 빠져버려서 이 부분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수출물류센터에서 이런 기금이, 안정화기금이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홍수출하 시에만 정식으로 연중에 좀 가동을 해가지고 또 수출할 수 있으면 자체 수출도 하고. 만약에 주식회사가 물건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주식회사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맺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부분들을 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잘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뭐 건물이랄까 시설은 완전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서 우리 수출물류센터가 또 뭐..... 지역의 우리 신문들한테 “이것이 뭐냐? 돈만 투자해 놓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할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꾸미 종자 방류사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꾸미 자원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4월에서 6월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만 미, 올해는 2만 5,000미를 군외 영풍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현행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금어기가 끝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꾸미 낚시가 시작되면서 방류된 주꾸미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체장에 대한 제재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금어기 이후에 어린 주꾸미를 포획하는 낚시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홍보하고 주꾸미 금지체장 설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다음은 10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전후 완도군 이숍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이숍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 판매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마케팅 홍보지원을 위해 2004년 3월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후 완도군 이숍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5년간 완도군 이숍 총 매출액은

12억 8,000만 원으로, 연간 평균 매출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전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019년 대비 2022년도에는 52.4% 증가하였고 2019년 대비 2021년 9월 현재 매출액은 93%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주문건수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63.5% 증가했고, 2019년 대비 2021년 9월 현재 주문건수는 60% 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와 완도군 이숍 활성화 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4월 군의회 동의 얻었으며,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 운영 자를 모집 후 운영자로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완도군 이숍이 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라인쇼핑 시장 트렌드와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했고 또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발간한 2020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책자에서 보면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가 내년에 22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에 197조 4,800억보다 15.4%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일쇼핑이 올해는 127조 500억에서 147조 3,300억으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특산품 관련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각 지자체 쇼핑몰의 매출액이 국내 전체 농산물 온라인 거래의 주문가에도 상이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말해주듯이 온라인쇼핑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완도군 이숍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을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을 증대하고자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억 원을 들여 만든 후 2004년 3월 10일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나오는 우리 군 이숍 매출실적으로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의 거래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매출액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주문건수나 매출액이 늘었는데 연중 어느 시기에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는 설하고 추석명절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가정의 달, 7월 8월 삼복더위 때, 그때가 이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지금 완도군 이숍에서 해조류, 전복, 건어물 등 여러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복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조류가, 톳, 다시마 등의 해조류가 한 15%, 그다음에 이제 기타 건어물, 종합선물 세트 이것이 연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거래 건수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는데, 입점업체도 늘리고 더 많은 개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입점 업체가 104곳인데 모두 다 운영 중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현재 104개 업체 중에서 65개소만 운영 중이고 또 상품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9개의 업체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미운영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은 이제 나머지 그 미운영하는 업체들은 영세한 업체들이거나 운영전략상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쪽을 택해서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9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판매상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입점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전남도 내 농수산물 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이 여러 곳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으로 넘어갔고. 지금 보니까 해남만 직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은 직영임에도 올해 추석명절 때 추석 특별상품전을 통해서 17억 7,000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도 보면 명절 때 매출이 많이 오르는 합시다라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을 보면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데, 민간위탁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전문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인력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나 또 풍부한 노하우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너무 또 이윤만 추구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시, 또 부실운영 시 별도의 대책은 뭐 세워놨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매월 매출실적 등 추진상황들을 제출 받고, 또 이제 배송지연이라든가 입금 지연, 고객 불친절 응대 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 넣어가지고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민간위탁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인건비, 운영비, 광고비, 할인행사비 등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 정도 액수면 충분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좀 부족합니다.

○박인철 의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는 데, 위탁한다는 데 광고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농수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쿠팡, 위메프, G마켓, 우체국 쇼핑몰 등 대형 오픈마켓과 연계한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대형오픈마켓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체국 쇼핑몰과 네이버 쇼핑몰을 연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의 경우는 우리 군 관내에 업체 상당수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우체국에 각각 2,000만 원씩 광고비를 지원해서 작년 도에는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22억 9,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2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잘하고 있네요.

구매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완도군 이숍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타사이트에 비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위탁관리하게 되면 다 보완이 되겠죠, 과장님?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지금 해남군에서 해남 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팀장 1명, 또 정규직은 4명, 공무원 3명 등 8명이 지금 거기 전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09년도에 온라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2015년 이후는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요즘 타 홈페이지를 가보면 회원가입을 할 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같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NS 계정을 활용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결제시스템도 간소화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군 온라인숍에는 이런 간편 시스템들이 미흡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이용하기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면 해외에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군납도 하고 학교급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기업들의 고용인원이 5만 명, 3만 명..... 이런 회사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뭐 조선소나 자동차회사 같은 데. 그런 데에 한번 과장님 이..... 우리 전복이나 해조류가 급식에 하루 한 끼만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양인데, 그런 데에 한 번씩 문을 두드려봤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접촉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요즘 추세가 거의 이제 그런 곳도 외주 업체에다 급식을 맡기죠? (예)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발 빠르게 좀 뚫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시장도 좋지만 국내에 좀 눈을 돌려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하면 우리 뭐 전복이나 해조류 판매가 월등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물 농수산 축산물 거래액이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소비자의 82%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향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잘 선정하고 운영해서 지금의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마지막으로 1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허용 업종으로는 해조류, 어패류 분야가 있습니다. 해조류양식 분야는 우리 군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장으로 한정해서 2022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신청하여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33명을 확정 받았으며 필리핀 딸락주와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추진계획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2022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와 함께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필요인원을 배정받은 후에 적기에 계절근로

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목적으로 단기취업은 90일, 외국 계절근로자는 5개월 두 가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는 수산 분야도 있고 농업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업무는 수산경영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 분야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MOU 체결 등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 업무 일원화가 필요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우리 수산부 분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

각으로는 수산 분야는 수산경영과에서, 농업 분야는 또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박인철 의원

과장님의 답변처럼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수산 분야에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 건설현장이나 어떤 식당이나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 부족하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보며)

부군수님.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경제교통과 아니면 일자리창출팀에서 총괄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군수 봉진문

(좌석에서) 예, 전반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마는 방금 수산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업무별로 시기라든가 그런 적정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저희가 지금, 물론 우리가 바다 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들어서 알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씩 한다고, 일당이.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국인보다 지금 일당이 더 비싸..... 하루 일당이 더 비싸게 쳐줍니다. 그런데 어디 뭐 보니까 어디든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렇게 포자도 막고 해야 되는데, 또 전복을 입식시키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 가지고 일손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군에서 재작년인가 법무부에 건의해서 해상사업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뭐 원인은 코로나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인력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신규인력이 2019년 5만 명대인데 2021년 때는 5,000명대로 10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고창군이 한 29명, 양구군이 193명, 몇몇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매년 12월부터 이제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어가들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15일, 1월 15일까지 법무부에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제. 배정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그 인력을 다하면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고 필요 인원만큼 배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사증 발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입국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후에 해당 어가에 전부 다 보냅니다.

○박인철 의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어가에 수요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매년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인원제한이 따로 있습니까? 어가당 뭐 배정인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은 아니고 어가에서 필요인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다시 그 인력을 배정할 때 해조류 같은 경우는 한 2명까지만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수산, 유통, 가공공장 이런 데는 6명까지 배정해 줍니다.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현식 부군수님이 계실 때, 박현식 부군수님. 권혁 그 당시, 지금은 해양정책과장님인데. 팀장님이 2018년도 그 때 베트남에 한번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 가서. 그 후에 진행상황은 전혀 뭐 진행된 것은 없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다른 외국 지자체하고 뭐 MOU 체결 사항은 있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7월에 그 필리핀 딸락주하고 체결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했을 때에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어가들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했구요. 11월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그리고 베트남 이후에 필리핀의 세부시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군수님이 출장을 가려다 못 가버린 적도 있죠, 이 문제로? (예)

그 이후로는 뭐 전혀 그런 데에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MOU 체결을 진행 못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그쪽 계절근로자로 써주면 필리핀에서는 우리 농수산물, 수산물을 수입해 가지고 판매를 해주고,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버린 것 같네요? (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 계절근로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산업경영과장 김일

사실 이제 한시 계절근로자들을 우리 어가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 계절근로자들의 일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당 부담 때문에 지금 많이 못쓰고 있습니다.

○박인철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각 지자체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들에서 하는데는 전혀 없던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하고 또 코로나로 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뭐 서울시가 됐든 아니면 서울에 무슨 구가 됐든 경기도에도 무슨 시가 됐든 구가 됐든 간에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우리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들은. 그리고 우리가 읍면에 보면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받기 위해서 숙소들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굳이 못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보다는 우리가 도시의 근로자들을 완도에 살아가기, 완도에 한 달 살아가기, 두 달 살아가기.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일손이 부족한 어민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그분들을 완도로 모셔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업경영과장 김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의 근로자들이 그런 일당을 받고 여기 와서 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면 거의 숙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읍면은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 정도의 일당을 받고 하는데. 그 정도 일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자고만 해결되면 도시에 남은 인력들을 완도로 데리고 와서, 완도에 인력 총원도 되고.

또 그분들이 완도에서 살아보면서 완도가 살기가 좋으면 또 주소도 옮겨서 인구도 더 되지 않나. 구조가, 우리 완도 5만 인구가 무너졌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이것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수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완도군 전체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일할 인력들이. 그래서 TF팀을 만들든지 어찌든지 해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내가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매일매일 오랫동안 착용할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또 보건의료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고에 대한 사기 방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부군수님, 그런 무슨 계획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군수 봉진문

(좌석에서)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전 직원들에게 하루 정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워드 코로나로 접어들고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과로 해가지고..... 아니,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각 팀별로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좀 우리 부군수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봉진문

(좌석에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여기 질문하고는 관계없는..... 지난번 그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해녀대합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죠. 그 해녀 마지막 남은 여섯 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좀 소리를 주십사 했는데. 그 때 9월에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해녀대합실은 당초 있었던 곳에서 119, 해양안전119구조대 있는 곳 옆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도 항만과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가 선정됐고요. 이제 컨테이너를 새로운 컨테이너로 준비해서 옮겼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해녀분들께서 지붕이라든가 방수시설을 또 해 달라 하니까. 사실은 저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했던 것이라, 올해 안에 정리추경이 끝나면 좀 조정해서 바로 올해 안에는 그런 것들을 조치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해녀 분들도 만약에 우리 군에서 없으면 안 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참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지고 뭐 호화롭게는 못할망정 지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농업의 다양한 내·외부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지역농업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2011년 친환경농업반을 시작으로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작년 9기까지 총 403명의 입학생 중 333명이 수료하여 수료율은 83%이며, 올해는 39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친환경농업반, 기후변화 대응반, 버섯반, 치유농업반 등 매년 다른 과정, 다른 교육내용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농업반으로 스마트팜, 기후 변화적응 아열대작목, 곤충산업,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료기준은 총 교육시간 중 80시간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며, 수료생에게는 농업 관련 각종 시범사업 신청 등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선발 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신규 농업반과 기존 수료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화반 등을 별도 편성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완도농업 비전제시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전문역량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11년부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렇죠. 최근 3년 현황을 보니 2019년도에는 이제 8기 294명이고, 2020년도에는 9기 333명, 올해에 372명인데. 83%를 이제 수료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17%는 수료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대부분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다시 타지역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뭐 피치 못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물론 그렇겠죠. 이제 처음 입학할 때하고 달리 항상..... 있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업인대학을 이제 수료해서 수료한 후로 뭐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후속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수료하신 분들에게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하도록 해서, 추천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배운 작목에 대

해서 혹시 창업을 한다든가, 할 때 어떻게 센터에서는 어떤..... 뭐 홍보 안내라든가 협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 졸업생들에게는 저희들이 그 센터의 역할이라든가 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범, 각종 시범사업들이라든가. 또 국비나 도비 그러한 시범사업들을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이라든가 또 농장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스스로 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농장 창업이라든가 어떤 작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시범사업 신청 등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혹시 뭐 딱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그 8기 버섯반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수료한 후에 버섯연구회를 결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두 개 사업, 1억 정도를 하였고요. 2021년 3개의 사업으로 해서 1억 2,9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과 농가가 이렇게 확대되고 또 가공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 품종도 새롭게 개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흥청에서 실시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쟁대회에서 저희들이 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또 육성하는 그 담당자는 진흥청 이렇게 청장상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우성자 의원

저희들이 듣기에는 별로 이제 뭐 농업인들

에게 성과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네요.

그래서 농업인대학 운영을 하면서 미래완도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위해서 농업인력을 양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신안군에서 그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어업인 양성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2019년도 신안군에서 김, 왕새우, 개게굴 같은 3개의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그 양식학교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자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사업에 우선하고. 또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또 신규양식장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수산일자리사업단에서 김, 새우, 굴 품목을 일정 간 교육을 시키고 창업까지 군에서 전담하여 추진했던 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이래 가지고 중단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나 창업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 군 농업 부분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제 그럴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 뭐 타지역에 비해서, 규모나 기계와 경쟁력 부분에서 열악하죠? 뭐 엄청난..... 해남군 같은 경우는 땅이 커서 그렇지. 이제 우리 군에서도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서 집중 교육해서 창업까지 이렇게 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그런..... 소장이 그런 또 의견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타지역은 그 재배면적이 이렇게 넓고 또 농업인들도 다양하고 또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완도군도 타지역에 비해서 또 기후여건이라든가 재배여건이라든가.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신규 농업인들을 청년 농업인들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아열대작물 시험재배를 했고 또 (청취불능) 운영, 농촌지도사업,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만족도라고 하면 각기 그 형편이라든가 이렇게 사정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뭐 100% 다 만족한다고는 좀.....

○우성자 의원

좀 그럴것죠,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어렵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은.....

○우성자 의원

만족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만족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회의를 자주 하고 또 (청취불능) 단체의 회장들이나 또 전문가 분들이

나 이런 것, 이런 분들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그 후에 농가의 모니터링이나 혹시..... 또 성공사례, 뭐 전파, 실패요인 분석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마치면 평가회를.....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농가 그 품목별로 재배면적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를, 데이터를 매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의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어느 누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또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내년에는 또 작년보다 더 나은 기술을 또 보급하고 이렇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말했다시피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3년째 계속 다니는 학생도 있죠? 조사해 보니까 2년을 다니신 분 몇 분이 계시고 3년을 다니신 분 몇 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맞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봐서는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인데 3년까지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혹시 미달되어서 입학을 허용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꼭 다니겠다고 해서 입학할 시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업인대학을 이렇게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입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것이 분야가 다양하고 또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속적으로 3년을 다니시는 분들은 없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농업인대학을 1년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이 그 1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좀 모르는 분야도 많고 또 배워야 될 분야가 너무 많더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대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싶어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다녀서 또 다른 분야도 공부해서 자기 농장에 투입을 하고 또 그런 구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인대학은 미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보통 미달된 적은 없고요. 인기가 좋아서 보통 1회에, 회당 보면 몇 분씩은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 농업인대학을 다니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귀농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 다각 쪽에서 오신 그런 분들하고 또 친밀 관계가 되고, 그분들한테서 또 많은 정보도 받고, 물론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연속해서 3년을 다닌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나는 농업인대학을 올해 졸업해 가지고 이것 하나는 확실히 배웠다,” 이렇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교육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래

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나 이것 농업인대학을 다니면서 배워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책자에도 나왔지만 또 심화반을 조성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인대학을 나와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딱 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농업인대학 그냥 그냥 가서 웃고 뭐 교육을 듣고 뭐 견학을 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심화반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특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분들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또 그 혹시라도 소외돼서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완도타워를 2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국화 전시를 너무 잘해놔 가지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잘해놔서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조류센터에 가보니까 너무 좀 빈약하다는..... 작년에는 너무 잘해놔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타워까지 못 가신 분들도 거의 다 구경하고 밤에도 구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조금 빈약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고생하시고, 예산도 조금 많이 요구해서 가지고 그 해조류센터에도 국화를 좀 예쁘게 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의원님. 국화를 이렇게 1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전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화전시회는 1억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 한 50% 이상은 다 인건비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노동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외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구조물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도타워에다가 할 때에는, 그 외부손님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완도를 와서, 그래도 완도타워에 가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되고요. 해조류주제관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군 관내의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는 시대가 오면 완도타워를 주변으로 해서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을 섬마을 뭉 국화 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산만 주어진다면 해조류센터 등 어느 곳에든지 더 이렇게, 멋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다음은 2페이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추진목적은 기후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작물재배 한계지역이 북상하고 있어 새로운 아열대 소득작물의 발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보급

함으로써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23개 사업, 103개소에 농업인 자부담을 포함하여 26억 4,3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목적으로는 비파, 감귤 재배면적 확대와 천혜향, 레드향, 레몬 등 만감류 시설재배 시범, 그리고 최근에는 바나나, 망고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투입요소의 적정성과 작물의 재식거리는 생육특성을 고려하여서 시범사업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목에 대한 사업 확대는 비파는 현재 71헥타르로 전국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지감귤은 소안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현재 30헥타르로 내륙에서는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확대 보급되지 않고 종결된 사업으로는 만감류 시범사업 중 천혜향, 레몬, 카라향이 소비자 선호도에 맞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종결하였고, 아열대 채소 여주, 인디언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은 지역 내에서 소비처 확보, 소득화가 어려워져 보류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재배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아열대작목은 시설 재배 하우스에 재배를 하게 되는데, 초기시설 비용이 많고 면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로 평균기온은 상승하였지만 여름철 폭염과 폭우, 겨울철에 한파, 기상형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재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조율이 높은 국도비 시범사업과 또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또 유휴 시설하우스 아열대과수로 전환한 사업, 에너지 절감 및 동해피해 경감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 변화 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범사업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 대비 생산성 낮은 우리 지역의 농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우수작목이나 고소득 작목의 발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시범사업 대상작목이 비파와 만감류, 아열대 소득작목만 제출하였는데,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서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방울토마토, 포도 또 삼지구엽초 또 (청취불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여러 가지, 몇 가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의 선정방법에서부터 확대재배까지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고를 하고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심의

회를 거쳐서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포함한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기술원이나 진흥청의 보고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 자체 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사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군수님께 보고하고 시범사업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에 따른 평가를 하고,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농업축산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비파 재배 관련 시범사업이 9회에 걸쳐 추진되었는데 9회 모두 다른 비파 재배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인지, 동일한 재배기술을 반복해서 추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대체적으로 다른 목적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또한 그 답변자료를 보면 비파 재배면적이 10년 동안 8헥타르에서 71헥타르로 확대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반복적인 시범사업에 재

배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확대사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이 비파사업은..... 향토산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향토산업을 하면서 확대 시범사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플러스 재배면적 확대사업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최정욱 의원

여기가 반복사업도 들어갔죠,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에 보조율과 농업축산과에서 출시하고 있는 보조사업 보조율을 보면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월등히 높던데, 이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보조율이 뭐 50%에 달하면 우리 기술센터는 100%에서 90%도 안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재배기능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차이점은 저희 진흥청에 지도사업으로 가져온 그런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100%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또 100%로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용비율이 있고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70%로 지금 협의해서 70% 보조, 30%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시범사업 보조

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가 처음해서 시범으로 하니까 위험부담을 안고 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되면 그다음에는 축산과로 넘겨서 보조지원을 거기에서 하게 해야 맞죠. 우리 기술센터 계속 반복해서 해버리면서 안 맞죠, 과에서도 안 맞고. 우리 농민들은 “이것은 뭐냐?”라고 할 수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센터에서 더 이렇게 확고하게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놓은 후에 확대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기술, 재배기술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농업축산과에서는 확대보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정욱 의원

그렇죠. 우리 그 기술센터는 주로.....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정리를 봤는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첨단 농업기술과 영농 방법을 연구하고 농촌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농사와 기술을 전시홍보, 집단 후견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인식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농민들의 기술 습득과 능력을 키워주는 일들을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성이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갖추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우리가 본연의 길을 가야 서로 또 다른 길을 찾게 되고 그러지. 이 일을 축산과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본연의 일을 놓칠 수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명단을 살펴보면 중복되어 지원된 사례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중복 지원했던 것들은 주로 비파사업을 하면서 시설하우스를 이제..... 시범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또 이제 노지에 이렇게..... 그 노지에도 재배 확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범..... 시설하우스 재배개념하고 노지 재배의 개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들을 이렇게 보면 시설하우스도 하면서 또 노지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든지 주상단지를 조성하려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그래도 이렇게 표에 보면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길을 찾아서 더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2010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2010년도에도 감귤이나 비파 뭐 이런..... 레몬, 레드향 이런 것들이 주로 중복되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은 그것으로 끝내서, 철저하게 조사를 끝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즉시 바로 하고. 그 다음까지는 할 수 있죠,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몇 년에 이어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이라 똑같은 역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감귤이라든가 비파라든가 유자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재배면적이 많은 것들은 그 품종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소비패턴이 또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시범사업 중 확대 보급되지 않고 종결된 사업의 이유가 소비자 선호도가 낮고 판매가 어렵다. 소비처 확보가 어렵고 소득화가 어려워 종결되었다는데, 이런 내용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조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작목을 선정하면서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작목을 택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공격적인 그런 시범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일반적인 시범사업의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를 다 예측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작목들 중에서 한 10개의 작목이 있다 그러면 그중

에서도 한 서너 개는 조금 미스가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방향성을 틀어야 될 그런 시범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중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항상 노력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조사를 철저히 좀 해서 그런 폐단이 안 나오게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란 특정한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시범사업은 연구와 확대재배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추진되어야지, 동일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우리 군 예산을 생각한다면 깊이 고려해 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도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업무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고 건은 1건으로, 1페이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예방접종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포된 현행화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접종 대상자 수는 4만 8,990명으로 백신 확보는 대상자 대비 약 60%인 2만 9,800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2일 현재 예방접종 실적은 2만 528명을 접종하여 백신 구입량 대비 68.8%를 접종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80%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코로나19와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방안입니다. 지난 절기 독감예방접종에 따르면 전국 이상반응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은 지난 절기에 2만 6,055명을 접종하였으며 이상반응 신고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질병청에서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계속 의료원 전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독감예방접종 대응하고, 코로나19를 2차까지 맞았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표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여기에는 독감예방접종을 맞아도 아

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가렵고, 그래서 긁고 나면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예, 독감접종 후에 두드러기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대부분 완화되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의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우성자 의원

없고요.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려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동시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독감 사망사고라든지 이상반응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아무런 이상반응은 없다는 이 말씀 이시죠? (예)

저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강진의 식당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세 부부 여섯 명이 갔는데 한 상에 세 사람씩 이렇게 앉아도 된다고 하면서 옆자리에는 못 앉게 하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저 뒤에 멀리 가서 앉으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 2차 접종한 표시를 왜 안 하고 다니느냐.”, 나는 “무엇으로 우리가 인증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거기는 그 식당에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핸드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만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외부에 나갈 때 아니면 또 우리 관내에서라도 이런 방법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부분 좀 혹시 생각하신 것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일단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신을 맞고 나서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앱으로 쿠브 앱이라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접종센터라든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읍면사무소에 가면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떼어다 주면 조그마한 띠로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식당에서 요구하면 제시해야 됩니다.

○우성자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백신접종을 맞으러 가지고 마지막 맞으면서 그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병원 여기에서 접종하면서 확인서를 해주라고 하는 사람 딱 두 사람 봤다고, 무엇 때문에 해주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읍면사무소 가서 그런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마을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한테 상의를 받아서 하시라고 그 부분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또 입력을 못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필요해서.

저는 그 독감예방접종하고 그 두 가지를 질

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간상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제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읍면별 지하수 등록 현황입니다. 완도군 지하수 개발이용 등록현황은 9월 말 기준 7,003건으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 현황입니다. 올해 초 환경부와 도 주관으로 전국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하여 6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실시기간 내에 미등록 지하수가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마을 방송과 홍보물 게재 등을 요청하여 미등록 지하수 17건을 발굴, 양성화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는 0건이며, 11건은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개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지하수 시공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며, 절차 이행 및 지하수 시공 여부에 대한 빠른 파악을 위해 읍면에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지하수 등록 후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개소 수가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 어디서 착오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시스템에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추출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자료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정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리고 과장님, 좀 바쁘게 흘러갑니다. 마는 업무보고 때 그 150개로 추산된 미등록 지하수 방치공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수치는 그 추정치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미등록 지하수가 있을 경우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지금 지하수법에 따라 음용수는 2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는..... 공업용수까지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본의원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횡간도, 소안에 있는 횡간도가 식용 지하수로 해서 식용 음용을 하고 있는데, 음용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수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을 나가서 그 어디다가 대공을 좀 뚫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 지금 그 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지금 계속 마땅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그렇게 쉽게 지하수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계속 상의해서 기존 지하수는 수질을 계속 좀 소독 분야 조치도 하고, 해서 사용하되 새로운 지하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

하여튼 조만간에 그것이 조치가 되겠죠? (예)

횡간도에 간다든가 그쪽에 조치가 되면 본 의원한테 좀..... 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사후관리를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이관을 한다고 지금 체계 개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사실 그..... 지금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7,003개나 되는 지하수가 각 읍면에 또 산재되어 있고,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 실정상 저희 본청에서 현장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되, 신고 준공 처리된 지하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읍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의원

예, 그 효율적인 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깨끗한 지하수 이용과 지하수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민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폐공 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다음은 2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해수담수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식수 공급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자체 식수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인 도서는 총 37개소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 및 공급 규모에 따른 마을 상수도 공급지역은 금일 총도 등 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금일 다량도 등 7개소, 미 급수 지역은 금일 섭도 등 14개 도서입니다. 취수 형태는 지하수, 해수담수화, 지표수 우물, 빗물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도서별 식수 공급현황은 5페이지 별첨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내용별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 상수도 미공급으로 생활용수 공급난을 겪고 있는 금일 신도를 비롯한 20개 도서에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지금까지 총 사업비 223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담수화 5개소, 급수관로 및 물탱크 10개소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금일 신도 외 4개소에 대한 해저관로사업으로 금일 신도, 총도 및 군외 사후도 지역의 해저관로 매설은 60%에서 95%으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률이 저조한 군외 고마도와 금당 비견도에 대해서는 역공정 계획을 세워 준공기간 내에 완료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4억 7,7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전기요금, 시설물 보수, 병물 지원 등으로 대부분이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식수공급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일 총도 외 13개 낙도지역은 해저관로, 해수담수화 시설,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활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나,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섭도 외 14개 낙도지역은 현실적으로 공급이 어려워 평시에는 병물과 물탱크를 지원

하고 갈수기에는 급수 운반을 위해 2022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수담수화를 유지하는 데에 문제점으로는 해수담수화시설 노후 및 낙뢰 등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의 전문업체 및 분기별 수시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해수담수화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담수화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군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수 개발이나 해수담수화시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도서지역 식수공급의 영구적인 해결방안은 자체 댐 신설이나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예산 확보라든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큰 부담이 따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인호 의원

우리 도서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데 경제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그 지방상수도과 인접한 도서지역은 인구 밀집도나 시공여부 판단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해 해저관로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식수를 공급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대부분 도서지역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지방 상수도과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병물 지원 등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과장님, 그 우리 해수담수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저관로로 못가는 데는 해수담수화나 물탱크나 지하수를 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가능하다면 해저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지, 금일, 신도, 충도, 고마, 사후. 비견도를 뺀 나머지를 혹시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추가로 지금 고금 넓도가 내년엔 지금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해저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환경부에 어떤 그 승인 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예, 최선을 다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관리, 우리가 위탁주고 있죠? (예)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지금 전남업체 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인호 의원

두 군데 그 실적들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웃음) 공식적인 자리라.....

○조인호 의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공개입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조금 저희들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가 뭐 그런 사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부터 내년 발주 전까지는 직영하면서 다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도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아니, 소장님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면요. 업체가 두 군데니까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로 될 것 아닙니까, 두 군데. 그러니까 사업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터를 한 번씩, 다른 데를 봐보면 9개씩..... 2, 9, 18. 18개를 갈아야 돼요. 이장이 한 번씩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섬에 사는 것도 참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섬에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심리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

업체관리를 잘하십시오, 업체관리를 잘해야..... 나도 듣는 이야기는 많은데 말씀을 못드리는데. 업체관리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서지역. 특히 낙도, 섬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낙도에 우리의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1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경제교통과장
환경산림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수
박은재
정광민
서길수
권혁
김일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9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4.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4.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5.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외 7명 제안)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0호, 제2781호, 제278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우성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0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으

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1호,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2호,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바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6.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

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사신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과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등 다양한 상징물의 일원화된 통합 규정을 통하여 각종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완

도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2020년 단체협약의 체결 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와 당연직 위원의 변동 등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0조 제2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용어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주소정보시설 규칙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주소정보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사 건립의 목적 달성과 청사 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해양치유센터 직원 숙소용 펜션 매입,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도로부지 매입으로 토지 8필지 1만 5,940평방미터 19억 3,600만 원, 건물 2필지 1,021평방미터 5억 9,100만 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4.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5.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6.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에 사용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명칭과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임시시장의 개설, 시장 사용허가 권한위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가업승계 신청 및 선정, 선발에 관한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내용 중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창고의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 제4호 마을공동창고의 신축 및 개보수 3,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를 마을공동창고 신축 3,000만 원 이하, 개보수 1,5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생태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생태전시관 개관 및 휴관과 관람 매표시간, 관람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8조 운영위탁은 삭제하고 안 제9조 손해배상 등은 안 제8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칠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

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된 12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출석의원(8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불출석의원(1인)

김재홍(청가)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9명 발의)
 2.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허궁희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주민생활안전 분야, 교통 및 경비 분야, 수사

분야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

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3호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물의 일원화된 통합 규정을 통하여 각종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징물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군기,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문장, 휘장 등 우리 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기, 문장,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각각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과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완도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상징물의 사용 승인,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범성 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84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4

호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9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2020년 단체협약 체결결과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완도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5항 연가보상비 8시간 미만 잔여분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 저축하여야 한다는 조항 보완과, 2020년 단체협약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제9항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사용횟수 개정, 동조항 제19조 특별휴가 개정으로 제19조 제11항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변경사항과 완도군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협약 체결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그 19조 3항 11호에 보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14조 1항에 의거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했을 때, 연가를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특별휴가를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과 중복되어서 그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디에 써져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관계 법령 발췌에 나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 그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생활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사항을 지역치안 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제4조 제2항의 당연직위원에 소방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공정하고 실용성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제4조 제2항 당연직위원에서 우리 군, 우리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제8539부대 제2대대장이 누락되어 당연직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양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을, 당연직위원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제8539부대 제2대대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직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 각 사회단체, 직능단체별로 대표자들을 선임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 예를 들어..... 그 직능단체가, 단체장이 바뀌면 또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 직에 종사할 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바뀌면 또 다시 그다음 분이 또 올라가고 그렇다는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바뀌면 다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우성자 위원

항상 이런 위원을 보면 꼭 직능단체만, 그분들로만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다르게 이렇게..... 이쪽 부서에 대해서 혹시 연관이 있다거나 또 유능한 분이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각급기관 단체라든지 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좀 그렇게 단체장이 뭐..... 그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꼭 직능단체만 하지 말고 그쪽에 연관되시는 유능한 분이 또 계시면 같이 초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당연직에 군부대도 포함해도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검증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건립한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부터 제9조에서는 시설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비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제 이것이 처음 해보는 그런 사업이고, 또 프로그램이고 해서요. 운영비, 좀 운영비가 마이너스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군비로 조금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조항을.....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을 넣어놓은 자체가 좀..... 왜냐하면 지금 내가 법도 따져보면 이것 참 애매한 법인데. 지금 그 문화관광..... 아니, 관광과에서 (청취불능) 하고 이것하고 하고 있는 법 조항을..... “등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했던데.

이것을 위탁을, 공짜로 위탁하면서 다시 또 위탁자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뭐 운영비를 지급,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돈이 십 몇 억이 들어가지고 애당초 목적대로 마을에다가 줘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두 분이 와가지고 한 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모든 것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운영이..... 그 사람들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박인철 위원

아니요, 활성화 그것은 자기들 문제고.

지금 우리가 또..... 어제 이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산물가공물류센터도, 거기도 해주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삭제를 했는데. 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도 의회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아니,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지금. 아니, 그 건물을 저기..... 우리가 뭐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십 몇 억이 들어간 돈들을..... 처음에는 이것이 지금..... 김희수 완도읍장하고 황소연 생일면 총무과장이 왔을 때 처음에 가지고 왔는데, 이 안을. 그래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가지고 와 가지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마을하고 저 불목리입니까, 영풍리입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삭제, 이 안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예, 저.....

○위원장 김양훈

예.

○우성자 위원

저도 박인철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이 부분을 제가 군정 질문이나 심의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다가 일정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을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마을에다가 좀 도움이 되게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도 서로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외부사람, 위탁자. 또 공고를 해서 위

탁자가 어떻게 해서 위탁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좀 이제 하다가 정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이것은 저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전체 다 시설해 주고 또 “장사가, 뭐 운영이 안 되면 지원해 준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죠. 이런 데에 이런 것은 다 안 맞다 생각합니다. 다른 의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여기 다들 보면..... 금액도 다 정해졌네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정해졌습니다.

○최정욱 위원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고 다해서 주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까지..... 그러한 계산을 안 해봤었나요, 최대한.....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 추계라든지 수익성 분석을 해봤는데, 그 위탁업체에서도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 과정에서 운영하다가 뭐 마이너스가 너무,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군비로 지원해 줘서 안정화

시키고 정상화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삽입시켰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그것이 다 어렵다는 얘기구먼, 운영이.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 현 상태로,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당분간은 조금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욱 위원

치유마을 시설이 잘못되었네, 그러면 결론은.

이것 부락에서 하는 것이야 뭐 까먹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취지대로 하면. 이제 결국은 개인 것이 되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제 일정기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소유권은 우리 군이,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그럼 저도..... 이것 한번은 해보죠. 한번 해보고 지원을 해야지. 처음부터 지원해 준다는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도 아마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도 자기들이 우리 군 직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제 조금..... 뭐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구요.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저기..... 저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위원장 김양훈

조인호 의원님, 의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아니, 저.....

○위원장 김양훈

예.

○박재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전에 임시회를 할 때 이것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여기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던 사항들은..... 그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던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지정되면 “군에서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근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위탁을..... 최정욱 위원님이 “그것 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되면서 이 위

탁업체에 대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그 지역민과 함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이렇게 협약조건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함께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항에 넣어서요. 이것이 개인 업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 치유마을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명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운영상의 경비라는 것이 “우리가 너희들 인건비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이 사항은 아니고요. 스마트 치유마을이다 보니 저희들이 1년간 1년 동안의 운영사항을 매년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도 인건비를 얻으려면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수익을 올리려면. 그래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적자의 몫은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운영적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치유마을을 하다 보니 통신비라든지 또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자가..... 너희들이 운영은..... 당연히 적자를 보면 너희들이 감수해야 되지만 그 적자 폭이 커져서 문제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좀 고민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넣었지. 그 업체에다가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선 위원

방금 말씀처럼..... 이것을 이제 위원님들이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조항에 정말 문구를 넣어서 해줬으면..... 저희들도 처음에 그 임시회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항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리고 이 위탁업체에다가는 저희들이 지금 2년간 위탁을, 조건을 걸어놨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협약서에 다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인건비 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당연히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당연히 안 해줄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구조물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한정 없더라고요. 보면 내가 충분히 내 손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제. 뭐 조금 누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래서 그 위탁을 줘 본 사람들이 해보면, 목욕탕 같은 것도 위탁을 주고 우리가 하는 것을 봤긴 봤는데.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고장이 났다고 수리해 달라고 문을 닫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성자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다가 시설 보수 한계점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군에서 고쳐야 할 범위, 너희들이 수선해야 될 범위를 정해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이행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마을에서 생산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 이미 이 스마트 치유마을에 대해서 불편함이 일어나 가지고 상황이 안 좋은데, 그 마을에서 무슨 협조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위에, 이장 위의 사람들의 갈등 부분이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위탁자가 운영과정에서 양 이장, 전직 이장하고 현직 이장의 갈등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치유마을이 군외 불목 인

근 마을의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래요, 그렇게 과연 소득 창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예.

○최정욱 위원

운영비라면..... 특별히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갈 것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공공 운영적 성격이 지금..... 그 안에 AI 컴퓨터, VR? VR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스마트다 보니 통신료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고요. 또 전기료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스파,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스파를 운영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전기·수도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스파를 운영하다 보니, 전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산업용 전기로 들어가니까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결국은 그 운영비를 주면 인건비가 적자나죠. 운영은 무조건 인건비거든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렇죠. 예, 인건비.....

○최정욱 위원

인건비죠, 운영비는 실제 별 것 아니에요. 먼저 주다 보면 인건비를 못 줘서 운영이 적자가 되는 것인데.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금방 말한 공공성의 운영비가 조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스파는, 그것이 지금 전기식 스파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박인철 위원

그런 문제들은 위탁 공고할 때 다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이 위탁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다 했죠.

○박인철 위원

그런데 위탁이 다 끝나 가지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하면 뭐가 되냐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협약에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공고를 하지 않고요.

○박인철 위원

아, 그런 것들도 양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 위탁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해줬습니까, 위탁할 때? 이 안에는 어떠한 시설이 있고 어떠한 시설은 공적인 시설이고 어떠한 시설들은 뭐 사적으로..... 뭐야, 저번에 과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커피숍도 하고 뭐 특산품도 판매하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항은..... 여기에서 100%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동안 분기별로 저희들이.....

○박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

왜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전기료하고 통신료를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박인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비 일

부분을 우리 군에다가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아니, 이제 그 소득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비용이 나오면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죠.

○박인철 위원

아니,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 그러면 그런 조례를 넣어 놔야지.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조례에. 조례에 없는데 뭘 당연히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저희도 협약해서, 협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은 스파를 무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 스파 자체를. 그러면 그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스파는..... 나중에 전기세 부분들에 솔직히 고민이 있어서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스파를 이용하는데 몇 분이 이용할지도 모르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십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지역주민이 하는데 몇 분들이나 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까지 다 공고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아니, 그것은 공고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죠.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위탁공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몇 명이 이용한다거나 전기세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해봤어야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할지도 모르겠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것은 이제 운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지금..... 저번에 동의안도 나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와서 준 공을.....

○박인철 위원

아니, 왜 목적대로 안 가냐 이 말이에요. 행정편의예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아니, 행정편의라고 말씀하시면.....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목적대로 가게끔. 목적사업들이니까, 목적대로 가게끔 해야지.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박인철 위원

그 공고 문제가 아니고 그전의 문제예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렸고,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 저희들한테 포기의사서까지 다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 처음부터 이 시설이

잘못된 시설이 아니냐고 따져버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박인철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지. 지금 목적대로 안 가고 있으니깐.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운영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왜 이렇게 지었냐고 따져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의회에 와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고, 했다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러니까 그 후에 절차들은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모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반대를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찬성하니까 뭐 그것까지는 따라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여기에다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수탁자한테 운영비를 일부 지급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 “지원을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인철 위원

아니,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할 수 있

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예. 위원님의 판단에 따릅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여기서 계속 뭐 이 건만 가지고 논의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훈

아니요, 이제.....

○이범성 위원

일단 위원들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의견을 첨부만 하십시오.

○위원장 김양훈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성 위원

저희들도 이것은 뭐 수출물류센터 같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스파 우리 지금 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업체한테 공고를 할 때

위탁료를 얼마 받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일단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고 공고를 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것이 동의 없이 위탁을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기가 산업용이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전기료가 매달 발생을 해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럼 여기서 나중에 위탁업체들이 보증금이 없으면, 나중에 손을 들어버리면 우리 군에서 환불해야 돼요. 3개월이 안 되면 전기를 잘라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했어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도에 유능한 업체가 나타나서 그 시설을 운영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도의 지역역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증료가 없이 그냥 위탁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무조

건 군에서 큰 지분을 안게 됩니다. 이것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 금일 목욕탕을 예로 한번 들어줄게요. 그것도 전기료가, 사용료가 그 산업용이에요. 거기다가 물도 수돗물을 써야 되고. 그 보증료를 안 받다 보니까, 한 3개월 안 내니까 전기가 400~500만 원이 되어 버려요.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위원님들 의견 다수가 “이것은 해보고,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저기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고요.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자가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년, 2년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 결산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추가로.....

○위원장 김양훈

이것은 추후에 운영을 해보고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는 (청취불능)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예.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8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동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안 제8조 2항 내용 중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촌유학지원센터라고 하는데. 뭐 별도로 사무실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통상적인 회의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여성가족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센터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엇그저께 교육감님께서 육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초등학생들이 농어촌으로 이렇게 유학을 와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근거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이 새로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왜 지원 조례에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월 20만 원씩 한다고 하더구먼. 그것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그 근거가 이 부분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박인철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정

제4조.

○박인철 위원

아, 예. 제가 잘못 봤네, 안 봤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어서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전부개정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관련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타 도로명주소가 인용되는 조문을 주소정보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주소정보 안내시설을 이용한 광고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제8조 3항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궐위원회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저촉되어 전체 삭제, 제11조 관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장”을 “주소정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제13조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면상 조례를 따르면 되므로 전체 삭제, 제14조는 제13조로, 제15조는 제14조로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및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사건립 목적 달성과 청사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1,000분의 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청사신축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사건립의 목적 달성과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청사건립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의 1,000분의 7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청사 신축을 해마다 12개 읍면에 계속 지어야 될 것인데. 이 37억 정도의 출연금..... 이 금액으로 해마다 제가 봐서는 청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또 군청 본청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우리 본청 포함해서 12개 읍면 청사를 살펴볼 때 굉장히 노후화된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본청 청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일, 뭐 이렇게 몇 군데 읍면 청사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일부 군내 청사들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40억..... 37억의 예산이..... 1년, 매년 37억을 조성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여쭙본 거예요. 제가 왜.....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제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지금 읍면 청사도 청사지만, 가장 그 큰 문제가 우리 군 본청 청사입니다. 군 본청 청사가 1975년에 신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6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군 청사 같은 경우에 새로 신축을 하면 평균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국비나 여타 다른 보조금액 사업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군비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6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평균 40억 정도를 하더라도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현재 청사가, 군 본청 청사가 46년이 됐는데. 15년 후면 61년이 됩니다, 우리 군 청사가, 우리 군청 청사가.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군청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자, 이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읍면이 지금 다 30년이 넘었고, 군외면을 제외한 나

머지 읍면은 전부 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길 그리고 고금, 금일 이렇게 신축을 할 예정인데. 나머지 읍면도 순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매년 3개 읍면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신축에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미리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1,000분의 7이라는, 약 0.7% 금액을 적립을 좀 해보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으로 되냐는 얘기에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500억에서 600억 정도 드는 본청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도 40억..... 37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15년인데, 읍면 단위로 전부 다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것 순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 퍼센트 비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매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퍼센트를 낮춰서 그럼 이것이라도 좀 적립을 하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혹시 시급하게..... 우리 군 본청 청사 적립금이지만, 시급하게 읍면에 D등급 이상이 나와서 청사를 신축해야 될 경우면 거기에서 일부 좀 빨리 조달해서 신축하고. 여건을 봐서 향후 조례에 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하여튼 읍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C등급, D등급이 나온 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보길만 지금 완공이 됐고요, 준공이 됐고. 나머지

고금하고 금일하고 그 나머지도 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요. 그렇게 들어간다면 한 지역마다 30억 이상씩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기본 한 37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재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미연에 좀 더 출연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좀 비축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추후 요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끝으로 의안번호 제279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21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괄내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내역을 취득 및 용도 폐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내역으로는 하반기 취득 토지가 8건에 면적 1만 5,940제곱

미터 13억 3,700만 원이며, 건물은 2건에 1,021제곱미터 금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더해서 취득재산의 총 합계는 55건에 5만 6,423제곱미터이고 금액은 5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세부내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안건은 해양정책과와 해양치유담당관 2개 부서에서 제출한 부지매입 등 총 3건입니다. 내역별로는 토지취득이 8필지, 건물이 2필지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역은 총 10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한 건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3쪽,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노화읍 미라리에 각종 전복 등 기자재가 산재되어 어촌환경 제외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어촌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으로 매입 후 어업인 안전쉼터

및 어구 보관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재지는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233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만 485평방미터,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동사업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추후 어촌계에 매각,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이것을 군에서 매입하고 다시 이 어촌계에 재매각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 번, 세무회계과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그 우리가 수협 땅을 했듯이 똑같은 조건이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이제.....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 위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다.

저희 과 소관 해양치유센터 직원숙소용 펜션 매입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직원숙소용 펜션 매입입니다. 2022년 준공예정인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치유센터 내에 근무할 직원들이 사용할 숙소용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진 전문테라피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테라피 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군 단위 이상 대도시에서 호텔, 리조트, 테라피실 등 웰니스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다 보니 지리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지면 신리 내에 위치한 펜션을 구입, 리모델링을 하여 직원용 숙소를 마련하고 원활한 인력 채용으로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지적현황에 표시된 신지면 신리 815-11번지와 994-5번지 2필지, 963평방미터 건물 2동입니다. 신리 815-11번지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하여 6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신리 994-5번지는 3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개소의 토지와 펜션 구입비는 감정평가 후 내년 추경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펜션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도로부지 매입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신지면 신리 153-11번지 일원에 건립합니다. 명사십리 제2주차장 인근에 신리 산 6번지와 산 5-1번지 2필지 중 일부 면적 4,492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신리 산 6번지는 현재

신리 새마을회 소유로 전체면적 2만 8,359평방미터 중 3,80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억 5,618만 3,000원입니다. 취득 후 단지 내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리 산 5-1번지는 현재 내 정리 새마을회 소유로 면적은 593평방미터이고, 취득에 필요한 소요예산 6,745만 3,000원입니다. 취득 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도로는 뭐 그렇다 치고 직원숙소요. 이 숙소를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직원들 처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전문테라피스트들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숙소를 마련해 줘야 그 사람들이 지금 완도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사 형태로 숙소를 준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펜션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전에 작년도, 그 작년도 질문답변서에 군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죠. 고급인력들이 완도로 올 것인가, 그러니까 완도에 아무 이상 없이 온다고 했죠. 그때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속기록에 봐보십시오.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완도까지 와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상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직원 관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그분들이 완도로 오면 자기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이 뭐 섬도 아니고. 이제 와서 직원들 관사까지 이런..... 우리가 채용도 해주고 관사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 뭐 신지..... 내가 신지..... 뭐 연륙, 연도가 안 되어 있는 다른 섬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도읍에서 가나 고금도에서 가나 약산에서 오나 뭐 다들 5분, 10분 거리면 가는 거리인데. 우리가 굳이 관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숙소가 그렇게..... 우리 완도읍도 구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박인철 위원

아니, 담당관님. 왜 완도읍이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아파트고 짓고 있는 것이..... 빌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원룸이고 그러는데.

아니, 그 정도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일단 숙소는 준비를 하고요. 관사용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직장을 주고 관사까지 주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더구나 내가 저기 외딴섬 같으면 뭐 그렇다, 그런 데는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완도읍은 뭐 남은 것이 건물들인데, 지금.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그러면 이 직원들은 공단 직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죠, 운영 주체가 공단이니깐.....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것도 없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이것 만약 공단이 안 들어서고 위탁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직영한다고 하면 이것 필요가 없잖아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럼 이제 건물을 위탁한 분한테 다시 해서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인철 위원

참 답답합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에만, 해양치유에다가만 돈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이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더군요. 이렇게 돈만 펄펄 쏟아 부으면서 우리 군민들이 뭐 좀 해주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고 군수한테 가라 그러고, 완도군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 해주라고 해도 군수 찾아가서 하라 그러고 자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돈을 펄펄 써버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당장 필요해 가지고 가로등을 하나 해주라고 해도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우리 군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이것 소요예산이 12억 4,000이

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이 또 들어가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짓는 것이 어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으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

지금 펜션이 얼마나 돼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이제 신리 815-11번지는 2010년도에 건축을 한 것이고요.

○최정욱 위원

그것 벌써 11년이 지나버렸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리모델링을 작년에 한 건물입니다.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군에서 건물을 사서 할 때는 30년 정도 지나면 계속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으로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신건물을 지어 버리면 오래 가고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유지에다가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투자 비용이 오히려 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예산 차원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박미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훈

예?

○전문위원 박미정

박인철 위원님.

○위원장 김양훈

예.

○박인철 위원

그것 안 물어 보니까? 이것 동의안.

○위원장 김양훈

크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박인철 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뭘니까, 숙소 이것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그래도 그것은, 그 부분은 다수결로 하죠.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안 물어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건물 같은 것은 아주 낡지만

않았으면 사놓아도 괜찮을 것 아닐까요? 앞으로.....

○박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그 건물이.....

○조인호 위원

(의석에서) 군청에서 군 재산으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군 재산은 되는데.

완도에 왔으면 자기들이 살고 해야지, 이분들이.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성을 바꿔.

○박인철 위원

아니, 나는 내 뜻만 하면 상관없어. 나는 반대한다고.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재산이 되지요.

○박인철 위원

아니, 땅을 사면 좋지, 땅을 많이 사놓을수록 좋지, 그런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님.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아니, 이 건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100% 사용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뭐 얼마의 소정의 금액을 내고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양훈

그냥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숙박, 직원숙소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아니, 반대를..... 나만 반대한 것 아닙니까.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특별한 의사가 없을 때는.....

○조인호 위원

(의석에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제 박인철 위원이 그것 질문을 하면 “반대 질문 있습니까?”,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것이고, 해결이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해보고 다수결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양훈

아,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6호 완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7호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9호 완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0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1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1
호 2021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법무팀장님, 뭐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 수정안이 생각보다 많아
요. 법무팀에서 미리 수정될 부분은 좀 꼼꼼
히 챙겨서 수정하고 올리세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거기에서 빠질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세요.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해양치유담당관

총무과장

여성가족과장

세무회계과장

해양정책과장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안봉일

안환옥

한희석

최광윤

안태호

권혁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2.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35분 개의) 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이범성 위원입니다.

일단 김재홍 위원께서 병가 중이라 진행을 못하는 탓으로 본위원이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 등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 개설기간 등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각각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박재선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

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인구의 감소를 막고 농어촌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업승계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어업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신청 및 선정, 자격요건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위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인데.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 갑자기 부모님이나..... 뭐 승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식이. 그렇죠? 그러면 육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밑에 갑자기 와서 하는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로 승계할 수 있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3년 이상이라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선

이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 와서, 고향에 귀촌해서 가업을 승계 받는 것보다는..... 지원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3년 이상 정도 농어촌에 정착해야..... 그래야 만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와서 지원해 주고 나서 뭐 6개월 만에 다시 또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그러면 가업승계를 받으면, 그분은 육지에서 와가지고 가업승계를 받으면 부모의 경영

체등록증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업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희선

여기에서 가업승계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이나 허가권 이런 부분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농어업에 관련된 그런 어업,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녀분이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농어업인이라고, 저희들이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라고 판단하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경영체등록 같은 이런 것을 다 새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전문위원 박희선

경영체등록은 새로..... 승계한 자녀 분이 경영체등록을 새로 하셔야 되겠죠, 명단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3호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조항 중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례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4항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를 당초 신축 및 개보수 모두 3,000만 원 이하에서 신축은 3,000만 원 이하, 개보수는 1,500만 원 이하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내용

중 비합리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자구상 문제가 있어 제6조 제4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4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입니다.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 4~5년 전에 만들어진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래 해양생태전시관은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이제..... 기존에 있어서 그 조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서가 다른 관계로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3조에 개관과 휴관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완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재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람료에 대해서는 뒤쪽에 별표를 보시면요, 성인은 1,000원으로, 기타 청소년과 어린이는 500원으로 그렇게 관람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해양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전

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제8조 운영,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것 위탁할 생각 있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위탁할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조항을 넣어놓은 것은요. 다른 시설들, 민간위탁 부분도.....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도 오래하다 보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조문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들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을 위탁한다,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또 2항에 보면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8조는 당장 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마는. 위탁도 안 하고 뭐 안 할 것인데 뭐하

는데 위탁한다고..... 내가 보니까 해양생태전시관은 위탁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던데.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좌석에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8조 삭제입니다. 이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5호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범성	박재선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정책과장	권혁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5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4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우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계획서 작성, 서류 제출 및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 수행을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매년 1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에 대해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으로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주요 시책사업, 예산 및 집행사항 등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와 산업건설 분야로 구분하여 2개 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반원 및 소관부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감사 일정입니다. 11월 30일 사무감사 첫째 날 부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선서를 받은 후 12월 8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위원님께서도 필요시 계획서와는 별개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욱 위원

이번에는 팀장들 선서할 때 안 옴니까, 이번에는?

○위원장 우성자

실과장들만.....

(「원래 팀장까지 오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사무에 관계되는 완도군 산하 공무원

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셔서 감사 전까지 필요한 자료 수집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우성자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김재홍

○ 전문위원 : 박미정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이 범 성		
의 원	조 인 호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00분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문송태)

(09시59분 개식)

○의사팀장 문송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송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차원에서 비말 차단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산홍엽의 끝자락에서 세월이 쏜살같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고통을 감내하며 슬기롭

게 대처해 오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등 정례회를 대비해 많이 고민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원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적극행정이나 성과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어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일을 해서는 군민의 신뢰와 완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완도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차이를 찾고 이를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훈련과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더

불어 청렴생활을 솔선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땀땀함으로써 군민들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와 집행부가 창조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 받는다라는 의정 및 군정성고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직자들이 군민들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없는 자긍심이라 생각하면서 직무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팀장 문송태

이상으로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6분 폐식)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

(10시06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 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9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욱 의원과 김재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최정욱 의원과 김재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완도군수 제출)

(10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6호, 제2797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2796호,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1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27억 6,119만 8,000원, 보조금 3,000만 원, 예탁금 회수 71억 6,56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24억 6,789만 9,000원, 이자수입 4,475만 6,000원, 기타수입 500만 원으로 총 324억 7,448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66억 6,139만 2,000원, 예탁금 74억 원, 예치금 146억 4,060만 3,000원,

예수금 및 원리금 상환 35억 8,313만 3,000원, 기타지출 1억 8,935만 8,000원으로 총 324억 7,4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00억 658만 7,000원, 지출이 178억 3,388만 3,000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21억 7,270만 4,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46억 4,0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기금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6,340억 79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90억 3,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150억 664만 1,000원으로 482억 1,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129만 2,000원으로 8억 2,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150억 66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82억 1,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경상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3억 1,63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교부세 추가분 등을 반영하여 28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8억 278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타전입금 반영으로 9억

3,56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82억 1,685만 5,000원이 증액된 6,150억 664만 1,000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216억 4,46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2억 2,004만 원, 문화 및 관광비 4억 4,065만 6,000원, 환경비 33억 1,453만 1,000원, 사회복지비 84억 3,196만 4,000원, 보건비 11억 1,314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24억 2,373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2억 5,211만 1,000원, 교통 및 물류비 26억 4,25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9억 823만 2,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1억 5,693만 5,000원, 기타 30억 1,776만 7,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경상이전비 180억 2,907만 5,000원, 자본지출비 102억 3,233만 원, 내부거래 124억 1,629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8억 1,276만 7,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25억 858만 7,000원, 물건비 6억 6,502만 1,000원, 융자 및 출자 1억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660억 1,011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4,7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2,887억 7,779만 원으로 228억 1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404억 3,112만 6,000원으로 10억 9,0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은 368억 2,529만 5,000원으로 8억 5,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1억 5,086만 8,000원으로 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

한 내역은 37쪽부터 47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42억 5,925만 1,000원이 신규반영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90억 129만 2,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내용 조정으로 2,76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계속해서 8쪽,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수입 감소로 7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세입 감액으로 2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1억 76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부지 매각대금 반영으로 7억 5,2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70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5,021억 2,606만 8,000원에서 10억 9,115만 3,000원이 감액되어 5,010억 3,49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5억 9,385만 7,000원에서 변경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부터 23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202건에 434억 4,59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50억

4,08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24쪽부터 3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

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되도록 하여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인호 의원을, 간사에 우성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9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회기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1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4.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26.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2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4.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5.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최정욱 의원 발의)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최정욱 의원 발의)
17.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6.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7.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인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6호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2021년 말 현재액은 146억 4,060만 3,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억 1,128만 3,000원, 청사신축기금 5억 6,071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67만 7,496만 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283만 9,000원, 재정.....재난관리기금 7억 5,487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9,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이 200억 6,058만 7,000원, 지출이 178억 3,388만 3,000원, 2020년도 말 대비 총 21억 7,2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에 대한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7호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340억 793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150억 6,6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190억 1,12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9억 3,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총 편성액은 6,340억 793만 3,000원이었으나 세입예산 6,058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어 6,339억 4,213만 3,000원으로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3억 2,02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6,580만 원을 삭감하여 1,871억 1,543만 1,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비 예산 편성액은 1,506억 595만 8,000원이었으나 6,580만 원을 삭감하여 1,505억 4,015만 8,000원으로 예산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추경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은 적극 삭감하는 등 집행부의 노력한 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4.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5.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상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른 완도군의 여성친화도시 구성을 통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완도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서 따라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고 피성년 후견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분리되어 정

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기간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4호,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양육비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 지원목적에 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어패류를 이용한 간편 편의식 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등 군내 영세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7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사업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9호, 한국지방세연구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회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

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1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최정욱 의원 발의)

16.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최정욱 의원 발의)

17.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18.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5.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26.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완도
군수 제출)

(10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상여건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서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숙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에서의 발전시설 입지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소상공인인 지역주민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날을 지정하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두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4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5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자치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6호,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 재정을 알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정 지원 대상 중 일반 협동조합마음을 예외로 하고 있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

부 단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우수선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9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국공립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1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에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4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남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관광사업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청 직장운영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

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청 직장운영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휴회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9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

(09시59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

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26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신우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에

담긴 2022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라는 목표를 위해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차별화된 완도만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문에 발열체크소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중학교에 세면대 설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청산과 보길 등 입도 통제, 전국 최초 드론을 활용한 해수욕장 3단계 방역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역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이동 멈춤 운동을 전개하여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향우에게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통화로 가족 안부 전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딴 섬 주민들은 해군 함정과 행정선을 이용하여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고, 원거리 섬지역 주민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버스 활용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현황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할 것을 중대본에 건의하여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대응책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 한 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은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어 약산에서 금일, 금당, 고흥까지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전남도민체전과 2024년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대규모 행사 연속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5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금 상정과 청용 구간 시설 개량도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의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82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363억 원,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352억 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낙후된 농어촌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를 39개의 전복양식 어가에서 획득하였으며, ASC-MSC는 톳과 다시마를 생산하는 11개 어가에서 획득하여 우리 군이 친환경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인 NASA에서 친환경적인 완도 해조류양식장을 전 세계에 집중 소개하였으며 국제 학술지인 마린드럭스에도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이 게재되었습니다. 자연그대로 완도 쌀은 러시아, 미국 등으로 수출되어 품질 등 우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완도의 뛰어난 생태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준공으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건립한지 35년이 지나 노후된 군민회관은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아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되는 국제인증인 블루플래그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재인증과 더불어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중앙부처와 외부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사업 등 19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연기했던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람회는 취소됐지만 해조류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와 라이브커머스 등의 대체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행정역량

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소멸위기 가속화와 지구 온난화로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안착시켜서 미래완도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추진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선도 지자체 선정, 해양치유 법률 제정,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완도는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우리 군을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1번지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내년에 모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주체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리조트와 골프테마파크, 해양치유전문병원 등 민간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완도를 해양바이오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과 해조류 기능성 소재 유효성 평가센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구축하여 다양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스타트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해조류와 전복 기능성 소재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조류와 전복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수축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풀뿌리 산업인 농수축산업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를 확대 추진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와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ESG 수산경영을 선포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통해 어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인양기와 부잔교 설치,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 그리고 해조류 고차가공시설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페스티벌로품 감용기와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 신규 건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귀어가와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량종자 개발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해조류양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과 완도 자연그대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동백과 황칠의 특화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아열대 소득작목과 신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 조업선단을 유

치하고자 전용부두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후부지에 급랭창고와 제빙 및 급수시설, 선별장 등을 확충하고 얼음과 식수, 하역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농공단지 해수 인입시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마음치유 프로젝트, 음식, 숙박, 목욕업소, 시설 개선 자금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권역별 특화 개발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5개의 크고 작은 섬과 깨끗한 바다,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을 체도권,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해양관광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난대림 군락지인 국립난대수목원의 조기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개 읍면을 연결하는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 약산 해안치유의 숲의 본격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을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도해 일출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 여서도와 금당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금일 명사십리 명품해변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리포진 자원화사업과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 조성,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자원을 관광벨트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안 해양생태공원, 보길 예송 명품어촌 조성, 청산 구들장 논 보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이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여 생태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완도여행 알뜰패스 운영,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시티투어와 국내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지역 개발입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광주에서 성전까지 1단계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성전에서 해남, 남창 구간이 중점 추진노선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은 우선 약산에서 금일 간 연륙교 조기 착수를 위해 제20대 대선 공약 반영과 예비 타당성 면제에 집중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에 타당성조사비 5억 원이 확보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사업은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균형 발전, 낙후도 등 우리 군에 유리한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시설 개량 사업도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보편적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영유아 그리고 어린이 등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소외와 차별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세심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속 지원해 나가고,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LPG 원격 검침 및 안심서비스 장비 설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차상위 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복지재단과 1 대 1 희망 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정착지원금과 통번역 서비스 지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양육비 지원, 임신부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 지원,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 준공에 이어 보훈회관과 가족센터를 내년에 준공하고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포용적인 사회 공동체 구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과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문화예술의 전당 등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와 지역 교육사업을 통해 명문고 육성 등 미래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100세 시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지속 실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별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서 읍면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2022년 전국 역도선수권 대회, 2023년도 전남도민체전과

2024년 전남생활대축전 등 연이은 대규모 행사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스마트 드론 통합 운영시스템을 통해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과 고수온, 적조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공익 숲 가꾸기, 어린이 통학 LPG 차량지원,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탄소 중립 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보길 지하수 저류조 개발사업 등을 통해 군민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0원 여객선 요금제, 100원 희망택시, 1,000원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여객선 야간운항은 금일 방면 시범 운항을 정착시키고 내년도에 소안, 노화 방면으로 야간운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점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 5,485억 원보다 0.17% 증가한 5,49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47억 원으로 올해보다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이 감액된 147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소폭 상승한 6.48%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제적 불황 등을 고

려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농수축산업 지원, 군민의 복지 증진, SOC 확충 그리고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안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와 역량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군민에게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우리 군은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 협력하며 완도 발전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큰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95억 2,56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68억 8,123만 원, 이자수입 2억 7,330만 9,000원, 기타수입 30만 원으로 총 366억 8,315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44억 4,411만 원, 예치금 322억 3,904만 2,000원으로 총 366억 8,3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68억 8,123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98억 192만 2,000원, 지출이 44억 4,411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53억 5,781만 2,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22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우성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자료의 수집·분석 등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29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수사례 14건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 56건을 발굴하였으며, 감사 시에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서 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해조류스파랜드 배당금 분배 및 실시협약 개정 추진, 완도군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완도추모공원 제레실 설치 및 운영 개선, 공사 감독공무원 임명 개선, 해양치유방송 개발제도 개선 등 25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9페이지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청산도 경관작물 관리사업 개선, 농업축산과 예산 불용액 최소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개선,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 사업 중단 등 31건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한 우수사례는 희망 더하기 결연사업 추진 등 총 14건을 발굴하였으며, 우수사례 상세내용은 결과보고서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그리고 각 위원

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3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에 전파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일곱 분의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3.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5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이 6개 기금 168억 8,123만 원으로, 내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4억 1,128만 3,000원, 청사신축기금 26억 7,706만 3,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67억 7,770만 4,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05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7억 6,847

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9,618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98억 192만 2,000원, 지출이 44억 4,41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3억 5,7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94억 6,347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347억 6,210만 2,000원, 특별회계가 147억 137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예산 총계 규모는 5,494억 6,347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어 356억 986만 7,000원으로 수정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3억 9,134만 2,000원이 감액되어 1,429억 5,189만 5,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삭감된 예산 5억 7,934만 2,000원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삭감액조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삭감된 예산은 해

양치유담당관 1건, 환경산림과 3건, 지역개발과 1건, 관광과 3건, 해양정책과 3건, 수산경영과 2건, 농업기술센터 3건, 총 16건으로 삭감액은 7억 7,934만 2,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삭감액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란, 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여 미리 정한 계획을 건전 재정 운용 기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본예산안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들을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토론 요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내 사업진행이 어렵고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은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여 주시고 마을주민과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상황과 여건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된 사업 중 성과가 없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중단된 사업을 재편성한 예산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와 방향이 맞지 않은 용역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에서 일원화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과도한 홍보 관련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22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궁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반드시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수산경영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안태호
김성수
황창령
박은재
천종실
차재철
정광민
서길수
이성용
김 일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9.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의원 발의)
2.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3.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9.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79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

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절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주민청구 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서명해야 하는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청구인 명부, 안 제8조에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9호 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인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완도군의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여성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양성평등 정책협력 기반구축 등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구성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여성친화도시 구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여성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여성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우

성자 위원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0호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사업대상은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지원이며 민법 제32조와 전라남도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목적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어패류를 이용한 간편편의식 제품 개발 및 기술 이전, 신제품 생산·마케팅 등 관내 영세 가공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4억 원으로 현금 출연입니다. 별지 2, 출연사업 계획입니다. 출연사업 개요 중 사업기간은 1년이고 바이오해양연구센터의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고 그중 4억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사업 추진, 해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수산가공기업 육성 지원, 해양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및 관련 기업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연구개발로 해서 완도산 해조류와 전복을 활용해서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3종의 세포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복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순으로 코로나19 침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업 지원 차원에서 수산가공기업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우리 군 18개의 기업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고용창출 43명의 창출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생산지원분야에서 수출용 전복통조림 등 해조류 가공, 전복 가공 신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14개사에 93건을 지원한 바 있고, 제품 개발로 해서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5종을 개발

해서 2021년 1월부터 GS더프레시 320개소, GS편의점 3,050개소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9.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완도

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4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07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808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80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지자체에 배포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구성, 청년위원회 활동 보장,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위원회 운영,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 구성, 운영점검 및 정비를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폐지되고 새롭게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조사위원회 역할을 명시하여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제5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받은 사람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호 수상대상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에서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해양문화관광국장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폐지되고 신설된 내용을 정리하고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 위촉 및 조사위원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3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지방공무원 총수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35명에서 738명으로 3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 세부사항으로 인사 독립 관련해서 의회 인사 담당자 1명,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

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4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과 위탁에 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용도, 관리 운용, 존속기한에 대해서, 안 제9조부터 제1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4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2807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출연동의안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본 자료를 책상 위에 별도로 놓아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당초 남북교류사업을 2003년부터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시군 출연으로 운영하다가 교류가 잘되지 않아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변경하여 전라남도과 22개

시군이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 페이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시 단위는 4,000만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북한주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 평화통일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 확대, 인도 지원사업 및 시군 특화사업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중단된 사업 재개 및 교류협력 분야 확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3,000만원에서 갑자기 6,000만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것은 2019년도에 3,000만 원을 납입해야 했었는데 미납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치하고 2022년도치, 내년치 합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여성가족과 소관 (재)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예산으로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총 23억 8,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이며, 출연기관 현황은 다음 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사업 개요는 지금까지 221억 1,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내년 23억 8,500만 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보고장학기금 적립금

3억 9,000만 원과 2022년도 군비 출연금 23억 8,500만 원 등 총 27억 7,500만 원을 장보고장학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산출기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의 유출 방지 및 관내 학교 및 유입 유도와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완도군의 장보고장학회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드시피 221억 1,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3개 사업에 투자해서 교육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재선 위원

제가 전에도, 장보고장학회 이런 출연을 하기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받기 전에는 이자율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이제 그렇게.....

○박재선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자율이 낮아서 수익성이 없으니 출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원 기금을 계속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출연금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기금하고 같이 출연금하고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제 기금은 아무리 그래도 그 장학회 유지를 위해서 기금은 조금 적립을 하고 우리 군비 출연금으로, 출연금하고 이자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그 기금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 30일에 많이 가지 않게끔 해서 일부를 쓰고 또 출연금으로 같이 마련해서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장보고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계속 앞으로 가면, 출연금으로만 가지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기금을 꼭 출연금과 같이 합쳐서 하는,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훈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저기 국장님, 언제까지 해년마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번..... 처음에 120이라 했습니까, 150이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그때 정확한 금액은.....

○박인철 위원

처음에 우리가 목표한 금액.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당초에는 100억으로 조성을 하다가 이자 수입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최종 200억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71억은 현재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출연금하고 해서 사업을 운영.....

○박인철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할 때는 200 몇 억이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아니, 지금 그 적립금하고 출연금하고..... 그것을 보태서 지금 한 것이, 가용재원까지 해서 2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남아 있는 돈이..... 지금은 이제 다 썼을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예.

○박인철 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지금 현재 17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0억, 20억씩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23억씩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목표를 200억으로 이렇게 조성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목표까지 채우려면 출연금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어야.....

○박인철 위원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얼마나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올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금년 제가 정확한 자료는 다 모르겠으나 한 5억 정도로 나온 것으로.....

○박인철 위원

그 정도로 안 도와주네요. 그러면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목표, 그 기금 200억 정도로까지는 출연을 계속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박재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사회하고 한번..... 이사회 때 정식 안건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여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비가 계속..... 계속 그 사업들이 그 사업으로 가는데. 뭐 성과분석들은 연말에 한번 해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좌석에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어제인가 왔습니다. 한 부 별도로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9호,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도 결산 보통세 228억 8,742만 9,000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군 추정금액은 274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주요 연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사업 계획입니다. 출연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세정 연구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사업 개요 및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 재정, 세제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021

년 주요 추진실적 및 붙임1 관계법령, 붙임2 2022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1호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2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4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4호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6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7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7호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8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8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의 부와 모로 되어 있고 출생아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출생아의 타지역 전출을 예방하고자 출생신고 후에 보호자가 출생아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혼가정, 사실상 부양가족 등 가족 구성의 다양화로 올 수 있는 순위 결정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둘째아 이상 자녀 순위 결정 근거 마련과 함께 첫째아 출산산모의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 감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양육비 명칭이 양육수당과 유사하여 출산장려 목적에 부합한 알기 쉬운 용어 정비와 출산지원금을 구분하

여 조문 전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항의 양육비를 출산장려금으로, 신생아를 출생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정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에 이용료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은 출생신고 전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출생신고 후에도 출생아와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분할지급 기간 중에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더라도 출생아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달부터 분할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의 4는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를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이전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 세분화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대로 “2022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출산장려양육비 지원대상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해양치유담당관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안봉일

안환옥

최광윤

황승미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9.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최정욱 의원 발의)
4.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11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

예,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서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들의 육지 체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는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연안여객선 결항으로 인한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서 작성 등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상여건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서 체류하게 되는 섬 주민에게 발생하는 숙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허궁희 의원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0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선, 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1,000미터로 이격하고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에서의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창고, 버섯 재배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은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박재선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3호의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대표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날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도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에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3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역주민과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지정하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두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이범성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완도군수 제출)

8.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4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15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16호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2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82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3건의 제안 조례안 및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4호 경제교통과에 제출한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 참여와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 일자리창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4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

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예, 전체적인 우리 완도군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 포함입니다.

○박재선 위원

이것이 인원수가 정해졌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가서 많이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좀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 위원

예, 예산을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좀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5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과 1시군 1공동체 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신규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18조에서 제21조까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5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

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6호 경제교통과에 제출한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20조 재정 지원은 협동조합만 지원 제외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내용 중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청취불능) 사회적 경제 생태계 노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6호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정 지원 대상 중 일반 협동조합 마을을 예외로 하고 있는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2호 경제교통과에 제출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전라남도 3차 중소

기업 육성비용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지금까지 9억 2,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6,190만 원이며 10회 중 2회차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합니다.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은 해당 출연기금은 창업중소기업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시설자금 용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2021년도까지 우리 군 지원실적은 1,252개사에 4,108억 원 대출을 추천하였으며, 101억 원의 이자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3호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3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1억 7,700만 원이며, 금융 취약계층 특례보증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 지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7,700만 원을 추가 출연하

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제7조에 해당되며,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은 출연기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운용자금과 관내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2021년도 우리 군 보증실적은 10월 30일 현재 39개 업체에 11억 원을 특례 보증하였으며, 214개 업체에 43억 원의 일반 보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4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4호 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5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5

호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6호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6호 완도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82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1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4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제2818호입니다.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제 연봉관계가 좀 있어서요. 다른 시군들하고 좀 조정을 하면서 약간 현재보다 상향했고 수당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별첨 별표2를 보시면요, 뒤쪽에 별표2를 봐주십시오. 연봉의 심의범위입니다. 제11조 관련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도자하고 선수로 해가지고 지금 5명, 감독 한 사람, 선수 4명해서 총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800에서 3,300만 원까지 연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적어서 그 금액을 약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3에 있는 지도자 및 선수수당도 기존의 훈련수당, 급식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을..... 수당을 정확하게 나눴고요. 명절 수당 이후로 국가대표 수당, 신기록 수당은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제 별표 4와 5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우수선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아닌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희 지금 그.....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관련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뒤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앞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료

그 부분, 이제 수당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1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자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수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관련, 그런 법에 의해서 관련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부분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제10조에 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요. 그 시설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2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
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의무를 다하고
자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
과, 관련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1호 서
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
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제2821호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내용은요, 기존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
는, 그동안 쇼핑몰운영위원회..... 그 관련 규
정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
금..... 15조, 본문 15조를 보시면요. 비용 지
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산경영과에
서 이것을 운영하면, 완도군 이숍을 운영하면
서요. 매년 이제 인건비 말고, 인건비를 제외
하고,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네이버 그런
데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 본예산에 올렸습니
다마는, 1억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
다마는, 그러면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을 좀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15조 비용 지원을 보
시면 홍보마케팅비, 상품촬영 콘텐츠 제작비
용, 할인쿠폰, 물류비용 이런 부분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21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
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이 없
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예,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위탁 수수료로 이제.....

○이범성 위원

수수료요?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타시군과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저희도 지금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이 정도 가지고 되는지는 내년에 일단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광고비거든요,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그런데 광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랄까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관여가 될 필요 없고.

운영상 내용에서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했던 것보다 매출 실적이랄까, 그런 것이 확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탁만 줘가지고 또 안 되면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4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매년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지막..... 우리 국장님, 마지막 설명은 아니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위원장 김재홍

마지막 설명은 아니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이것이 저는 오늘 마지막..... 예.

○위원장 김재홍

아니, 오늘이 마지막.....

아니, 왜 그러냐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힘을 좀 내시라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홍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도 관계공무원과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9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1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1호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4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4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허궁희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인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에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796호 2021년도 기금운

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쪽, 재정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2021년 수입 총액은 35억 8,250만 원

이며, 지출 총액은 109억 8,31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2021년 수입 총액을 합한 최종액은 지출총액과 같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액 35억 8,25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4억 6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4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5억 8,31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595만 3,000원이며, 수입은 61억 3,533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 수입액을 합한 64억 1,1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1억 3,422만 6,000원, 예치금 회수액 2억 7,595만 3,000원, 이자수입 110만 4,000원, 총 64억 1,12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4억 1,12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추정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던 110억 원 중 35억 원의 원금과 8,313만 3,000원의 이자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1,778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12월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86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496만 3,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3,198만 4,000원입니다. 2021년 수입 총액은 5,2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4억 9,114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수입과 지출액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2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5억 8,398만 4,000원으로 전입금이 2,000만 원, 국비보조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5억 3,198만 4,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7년도 행안부 옥외광고 추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한 비용자성사업비 4억 8,448만 7,000원, 일반회계예치금 9,283만 5,000원, 생활 SOC 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반납 그리고 기타 지출 665만 8,000원입니다. 45쪽부터 49쪽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스스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1,542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 총액은 3억 9,744만 8,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3억 5,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944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 8,92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1,542만 6,000원, 이자수입 821만 1,000원으로 총 11억 1,287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용자성사업비 기존 3억 5,800만 원에서 1억 8,270만 원이 감된 1억 7,530만 원이고 예치금은 7억 5,487만 4,000원에서 기타 지출 일반회계 1억 8,270만 원입니다. 총액 11억 1,2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용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조성사항입니다. 2021년도까지 조성액은 32억 1,4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집행액은 24억 5,982만 원이며, 잔액은 7억 5,4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자금운용계

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6호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7호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262억 2,200만 원 증액되었고,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등 특별교부세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지방교부세는 28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된 178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 반영액은 469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매각대금 7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8,2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 증감액은 482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등 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

는 제2회 추경예산 5,850억 원 대비 490억 원이 증가한 6,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6,3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150억 600만 원으로 482억 1,700만 원이, 특별회계는 190억 100만 원으로 8억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2,687억 6,200만 원으로 207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군비 부담금은 930억 9,800만 원으로 40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08억 3,200만 원으로, 10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사업 관련 예산은 총 35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필수사업만 편성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총 6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기본급 보수 등 28억 5,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7,400만 원과 포상금 4,4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8,9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전출금 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4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낙찰차액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 조치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총 10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6,340억 793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38%인 490억 3,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6,150억 664만 1,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6%인 482억 1,6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190억 129만 2,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

산 대비 4.53%인 8억 2,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6,902만 2,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6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내역은 재산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998만 원. 사용료 수입인 하수도사용료 4억 4,270만 7,000원. 기타 사용료 6,165만 3,000원이 각각 늘어났고, 수수료 수입은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원의 일시진료 중단으로 인해 진료수입 등 보건의료 수수료가 1억 5,166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31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1,885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214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의 2억 4,6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은 62억 6,195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5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628억 7,032만 1,000원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262억 2,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9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안전건설과 소관 1건에 1,000만 원은 오기로 세입과목을 변경 편성하여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67억 3,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조금은 2,650억 7,15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8억 2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80억 5,220만 5,000원이 늘어난 2,029억 8,2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985만 7,000원이 증액된 372억 1,508만 1,000원입니다. 기금은 126억 7,479만 7,000원이 늘어난 173억 1,6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경제교통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7억 5,29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1억 8,27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일 추경예산대비 6억 5,947만 8,000원이 증액된 558억 6,7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은 7,660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9,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68억 7,607만 5,000원에서 95억 6,055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8,6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755만 1,000원이 감액된 353억 2,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왜 이것 재난금을 반납하게 된 것인지.

○총무과장 한희석

아, 그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국고 받은 것 중에 정산해서 다 주고 남은 액을 정산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어떤 재난이요, 긴급재난이?

○총무과장 한희석

국민 전체에..... 국가에서 주는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그것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아, 그것을 이렇게 주고도 이 돈이 남은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총무과장 한희석

예, 예. 그 대상이, 대상자들을 다 봤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랄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

뭐 그분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없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었고. 또 교도소에 있는 분들까지 다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있으면서도 예산을 반환하는 금액이 생겨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의료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1,002억 5,669만 5,000원에서 104억 3,796만 9,000원이 증액된 1,106억 9,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95억 2,553만 6,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억 9,912만 8,000원으로 국민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환금이 16억 8,0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사업 가져와서 안 하고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반환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일정들에 참여를 못해서 지금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계획들도 코로나로 예산을..... 소요 예산에 추가되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일정 때문에 참여 못해서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

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최정욱 위원

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쓰게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복지관도 중간에 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좀 완화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도시락 배달을 이제 저희들이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최정욱 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쓸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정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74억 9,175만 8,000원에서 1억 2,757만 2,000원이 감액된 273억 6,4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3회 추

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인호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박창희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26억 1,604만 7,000원 대비 1억 6,041만 1,000원을 감하여 24억 5,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설명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215억 5,297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1,8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142억 2,887만 4,000원이 늘어난 총예산은 391억 8,486만 2,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은 38억 1,8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85억 6,43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4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107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완도군 관리계획입니다. 완도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위치는 완도읍 전체입니다. 사업량은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물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38억 8,122만 5,000원이 증액된 765억 489만 5,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1쪽에요, 대야2구 어항진입로 정비 공사인데. 토지보상비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것은 사후도에 들어가는 대합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민원이 해결돼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그 도로를 우리 군으로 편입시켜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홍 위원

대충 보면, 뭐 도로나 이런 부분을 보면 토

지보상비가 거의 없던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 사후도 선착장, 대야리로 들어가는 선착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보상을 해서 완도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인호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 완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부 반납금 2억 6,500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착공은 2016년도에서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그때 잔액이, 지금 반납을 안 한 금액이 2억 6,000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이자가 5,500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양훈 위원

꼭 반환을 안 해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사실 이것이..... 중앙부처나 전남도에서 “반납해라.”라고 하는 공문은 아직 안 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그때 보면, 반납하라는 내용도 없다고 그러면 우선은 반납하지 말고 쓰고, 나중에 반납하라고 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그래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예, 최정욱 위원님.

○최정욱 위원

아, 금방 그것이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총 1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50억 8,106만 8,000원에서 16억 4,174만 7,000원이 증액된 567억 2,2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1쪽, 농지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234억 6,106만 8,000원에서 19억 4,574만 7,000

원이 증액된 254억 68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등 기정액 대비 12억 127만 7,000원이 증액된 290억 7,105만 2,000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문화예술과장님이 청산도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이번 추경은 12억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완도읍 가용리 50-21번지 일원에 2층 연면적 7,136제곱미터로 2019년까지 지출액이 38억 7,000만 원에서 76억 9,300만 원. 2020년 지출액이 22억 1,400만 원에서 3,31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완도 가용리 50-10번지 외 1동 연면적 2,116제곱미터로 2020년 지출액이 8억 4,100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길면 부항리 일원에 부지면적 1만 7,012제곱미터로 2020년 지출액이 4억 5,4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 고금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금면 덕암리 일원에 부지면적 2,052제곱미터로 당초 사업기간을 2021년부터 2022년에서,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화, 완도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노화읍 도청리 청산면 양중리 일원에 각 1층 연면적 999제곱미터로,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체육

진흥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1,862만 7,000원이 감소된 154억 7,221만 6,000원입니다. 완도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를 통합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2021년 제3회 추경안 기정액 대비 3억 9,279만 2,000원 증가한 307억 9,0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22년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44억 3,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부속도서 도서민 1,000원 요금제 지원사업 2억 원. 금일읍 동백리 부잔교 설치사업 3,000만 원. 노화읍

방축리 부잔교 설치사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어업재해 고수온 피해어가 복구 지원 7,990만 원 중 국비 6,580만 원을 (청취불능) 시스템을 통한 피해어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완료되었기에 축조심사 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6억 95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6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 예산 67억 9,160만 원에서 12억 889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7,9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예산액은 56억 5,960만 9,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5,6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7쪽,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5,700만 원에서 187억 6,300만 원으로, 32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공사구간이 10.028km에서 8.8km로 사업구간이 축소되었으며 빗물받이 358개소에서 218개소로 변경, 맨홀도 397개소에서 260개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85억 2,255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1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저희 담당관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7억 483만 8,000원에서 2억 6,768만 1,000원이 감액된 264억 3,7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인호

해양치유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표시해 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8분 계속기록)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중식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야 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총 4건에 4억 5,189만 1,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건은 이상과 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에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797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
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 출석위원(8인)

조인호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09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완도군수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

o 기획예산담당관

- 민원봉사과

- 총무과

- 주민복지과

(10시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오늘 최정욱 위원장님께서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

까지 심사하게 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5호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영총칙입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1,12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총액은 141억 1,658만 7,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39억 6,377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 64억 1,128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5,281만 원이며, 전년도 수입액보다 141억 1,658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은 일반회계예탁금 205억 2,787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41억 1,658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2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2020년에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하여 25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억 1,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으로 예치금 회수 26억 7,706만 3,000원, 이자수입 4,200만 원으로 총 52억 1,906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지출계획은 52억 1,906만 3,000원으로 비용자성 사업비 41억 1,793만 원, 예치금 11억 113만 3,000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

입으로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7,706만 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 원. 총 52억 1,90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청사 신축 18억. 고금면 청사 신축 23억 1,793만 원.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11억 113만 3,000원으로, 총 52억 1,9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40억 6,000만 원. 2021년도 37억 3,000만 원. 2022년도 25억 4,200만 원으로 총 10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집행현황입니다. 비용자성사업비로 2020년도 11억 8,168만 2,000원. 2021년도 38억 3,125만 6,000원. 2022년도에는 41억 1,793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억 3,086만 7,000원을 집행하게 되어 잔액 11억 113만 3,000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26억 7,706만 3,000원 중 2022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15억 7,593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2년도 말 예치금은 11억 1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021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67억 7,770만 4,000원입니다. 2022년 조성액은 정기예탁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금이자를 합해 지난해 대비 27억 2,515만 4,000원이 늘어난 95억 285만 8,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금으로 2022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이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립목적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중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051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200만 원, 지출이 4,880만 원으로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원 조성 등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자금운용계획의 내용은 45쪽 수입계획과 46쪽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5억 8,398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1억 7,251만 8,000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5억 8,398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1억 7,251만 8,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으로 2022년 말 예치금은 1억 2,36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로서는 재난의 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 7억 6,847만 4,000원에서 1억 1,51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365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지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 긴급복구비,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 대비 11억 1,287만 4,000원에서 4,808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6,095만 5,000원입니다.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3억 8,9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5,30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847만 4,000원

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511만 7,000원 감액된 309만 4,000원입니다. 이월에 따라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7억 1,287만 4,000원에서 4,808만 원이 증가된 11억 6,095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용자성사업비 전년도 대비 1억 1,560만 원이 증액된 2억 7,730만 원입니다. 비용자성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1,360만 원. 재난복구 지원에 2억 3,100만 원. 코로나19 안심숙소 임대료 8,10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3,270만 원. 예치금은 전년도 7억 6,847만 4,000원에서 1억 1,51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365만 5,000원입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 부분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비하여 세운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57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조성은 전입금 22억 2,195만 7,000원, 보조금 9억 9,182만 원, 이자수입 3억 297만 9,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액 36억 717만 5,000원입니다.

59쪽, 2022년도 집행액은 비용자성사업비 25억 4,082만 원. 기타지출 1억 8,270만 원이고 잔액은 8억 8,365만 5,000원입니다.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7억 6,847만 4,000원에서 1억1,581만 1,000원이 증가된 8억 8,36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관광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에 9,618만 8,000원에서 370만 원이 증가된 9,98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예치금회수금이 230만 8,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39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체금액 9,988만 8,000원을 전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이 70만 원. 그리고 과징금 수입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9,618만 8,000원에 증된 370만 원을 합한 9,988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5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여비 및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비 보조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의 군비사업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군정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추이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

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여 2022년도 총 세입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5,485억 원 대비 0.17% 증가한 5,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2022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49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47억 6,200만 원으로 42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7억 100만 원으로 3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2,030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83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40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147억 100만 원으로 총 2,548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2,980억 6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액은 요구액의 83%인 2,481억 2,1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의무 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원의 경우,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기준으로 2022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를 반영, 6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22년도 최대 임금 9,160원을 적용

하여 54억 1,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준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32억 800만 원,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31억 5,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117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4개 기금에 55억 6,2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4개의 특별회계에 20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액을 적용하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6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23억 1,300만 원, 여비 31억 4,800만 원, 일반보전금 94억 5,3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금은 118억 8,900만 원 등 총 465억 2,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458억 5,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68억 800만 원, 자산취득비 22억 1,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8억 3,700만 원, 민간위탁금 15억 9,4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13억 6,100만 원 등 총 78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등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되어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에 변동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서히 하십시오.

-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 시설비. 화장실 개보수 건에 대해서,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349쪽이요?

○김양훈 위원

시설비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시설비.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약산 화장실 복리회관이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약산 공유재산 복리회관이요.

여기는 지금..... 약산 복리회관이 작년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완도군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산 복지회관 건물을 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 작년에 리모델링했던 그 복리회관입니까?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맞쵸,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쵸.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아, 리모델링. 금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복리회관 그것이 아니고 청년회관, 그것이 리모델링. 약산 공유재산 그것은 청년회관입니다. 번영회와 같이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곳하고 지금 이 회관하고 다른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다릅니다. 건물, 건물이 다릅니다. 위치

도 다르고요.

○김양훈 위원

그 건물인지 알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51쪽이요, 자산취득비 진개덤프 구매. 고금, 생일에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 우리 지금 현재의 쓰레기차와 똑같은 거죠? 진개덤프 차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일반 청소차보다는 이제 압축이 있고, 신는.....

○김양훈 위원

기계는 그냥 일반 쓰죠? (예)

이것도 고금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물량이 많아요, 압축도 힘들고. 이것도 압축식으로, 압착식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음, 이제 읍면 쓰레기의 그 수요물량을 봐서 새롭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진개덤프가 고금하고 생일에 내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생일 것만 사고 고금 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요.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고금 것은 압축으로 한다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금에는 엄청나게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맨날 물어보면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많다보니까 위에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진공을 못하면 지게차를 빌리고 인근 (청취불능) 불러서 싣더라고요. 그래서 압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압착식으로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334쪽.

○김양훈 의원

시설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조사용역,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현재까지는 일반 읍면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사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사에서 일제조사를 거쳐서 빈집에 대한 활용도 또는 귀농·귀촌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전문용역 사업입니다.

○김양훈 의원

전체적으로, 완도군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빈집을 다니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인테리어해서 쓰고 이런 용역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면단위에서 하는 대로 하면 어렵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뭐 나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법이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읍면을 조사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현장만 보고, 집 상태만 저희들이 조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까지 일체조사를 해서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만약 이 집이 좀 쓸 만하다 싶으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살아보기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지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 약산 그 커뮤니티센터. 주민들하고 다 합의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합의해서 공증까지 서로 받아서 이장하고 커뮤니티센터 대표이사하고 협약도 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앞으로 뭐 민원은 전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그런 것을 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의원

과장님, 금방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그 빈집을 여기 계신 분이 많이 없고 밖에 있고 집만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용역사에서 그분들한테 고치고 그것을 허물고 할 때 그분들하고 다 책임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집주인하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집주인까지 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다 돈을 대주면서 빈 집을 허물자고 그래도 자기가 산다고 어찌고 그러면서 안 했는데, 이것을 용역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실체조사, 소유자까지 파악해서 이 부분을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동의를 받아서 수리하신다는 이 말이죠. 용역비가 따로 있고 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정비는 매년 수리하고 정비..... 지금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그전에.....

○우성자 의원

아, 그전에 용역을 준 것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한다는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체조사 세부..... 그러

니까 세부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성자 의원

예. 이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그 헌집을 하나 놔두고 큰 재산인 것처럼 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용역을 주는 사람한테 잘하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한희석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25페이지, 스마트치유마을 운영 서비스 지원에 2,16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다

시 해주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6개 마을 60세대에, 독거노인들 60세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치유마을사업 중에 말벗 서비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활동 감지기하고 말벗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이용 회선료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이 회선료가 한 달에 한 60~7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그 치유마을 안에 저희들이 인터넷 통신료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좀 계상하였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 말벗 서비스를 치유마을 안에 관련된 그 마을만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벗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마을은 따로 예외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마을 대상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대상마을만 독거노인 60분만 저희들이 케어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공모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만 해당되었습니다.

○우성자 의원

그러면 다른 요양원이나 이쪽에서는 이중으로 중복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상단 민간사업보조요. 행정동우회 어떤 군정 협력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한희석

행정동우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리더 워크숍 관련 행사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일반단체들도 이렇게 워크숍하고 환경정화사업을 하면 다 해줍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원 근거가 작년에 법으로 공포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 기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민간단체를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환경 정화사업 뭐 어떻게 쓰레기를 줍는 일인데. 행정동우회만 이렇게 특정단체한테 해준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법령하고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동우회에서 저희에게 지원 요청이 있어서 도와줄 사항이 있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양훈 의원

일단 알겠고요.

2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어업 실태조사.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어업 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5년이 도래해서 호남지방통계청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실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이렇게 수산 분야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수산 파트에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통계 중에 특허통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통계하고 어업실태 통계를 특화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수산 파트에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계청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총무과장 한희석

아, 예.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우성자		

○ 불출석위원(1인)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관광과장

서길수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여성가족과
- 경제교통과
- 건강증진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문화예술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최정욱 위원장님께서 교육일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
다.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
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시설비 신규 여성이장 마을 상사업비. 이것 신규 여성만, 이장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이장을 연임해도 계속 해줄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니, 지금 여성이장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신규 이장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예. 부기가 좀.....

○김양훈 위원

명칭을 좀 바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러니까 이장이 매년 1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신규 이장은.....

(「그러면 여성이장이라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예. 여성이장.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288쪽예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통역, 다문화 통역 서비스사업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번에는 세 군데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통번역을 말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작년에는 캄보디아로 해서 세 군데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500으로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베트남을 새로 한 분 더 증원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도 세 군데로 해가지고, 1,600만 원씩 해가지고 4,800만 원을 올 본예산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뭐 9,500만 원, 완전히 대행투자인 것 같아서. 그것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2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통틀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교육청에다가 미루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작년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우리가 대행투자를 전혀 할 수는 없고..... 아니,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4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양훈 위원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18조 세금도 더 걷었는데, 지금 교육청..... 거기에 10%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청을 보면 돈이 남아돌아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육청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회나 지역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투자를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교육시설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315쪽에 시설비, 섬마을로 커뮤니티 공간 증축 카페,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300.....

○김양훈 위원

15쪽. 시설비에 섬마을 커뮤니티 공간 증축.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작년, 금년에 거기를 준공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그쪽에다가 이렇게 카페식으로 운영하면 섬마을장터를 운영하면서 또 관광객이 거기로 왔을 때 차 한 잔을 하면서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뿐만 아니라 노화주민들도 그쪽에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휴게음식점이나 낼 수 있게끔 소규모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양훈 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그때 설계를 그러면 잘못 뺐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럴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민간자본이전. 리모델링 조성사업인데 약산면에서 1,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양훈 위원

317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317쪽.

○김양훈 위원

민간자본이전.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빈 공간 또 상가나 놓고 있는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초기자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나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김양훈 위원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그쪽에 오는 사람들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기는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식당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서 그 창업주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젊은 사람들 초기자본이 몇 억씩 들어가니까 선뜻 창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최소한의 군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281쪽이요. 양성평등 2,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200.....

○우성자 위원

81쪽.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어디?

○우성자 위원

양성평등 2,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 이 부분 2,000만 원을 말하시죠?

○우성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읍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고급하고 노화하고, 그리고 군 여성단체가 있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

○우성자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행사하는 데에 준다는 이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작년에는 군은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고급, 작년에는 고급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300만 원에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읍면에 200만 원씩 올려서 500, 500 이렇게.....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87쪽 친정어머니 방문하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200.....

○우성자 위원

287쪽, 친정어머니 방문이 있고 288쪽에 친정나들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287쪽, 방문하고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이 부분입니까?

○우성자 위원

예, 친정어머니 방문, 친정나들이 사업. 이것 2개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나들이, 나들이 사업. 예, 나들이 사업 이 부분은 우리 이주여성 국적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가게 된다, 친정에 이렇게 가족들이 가게 된다면 비행기 값으로 4인 기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행기표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방문 지원은,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그분들의 친정어머니가 되어 준다고 빈손으로 가기 뭐하다. 그래서 조금 소규모 물품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차원을 수용해서 작년에..... 아참, 금년입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 변경해서 지원해 줬더니 다문화가족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친정어머니를 봉사로 했는데 그 봉사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물품을 들고 갈 수 있게끔.....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본인이 다 준비해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방문할 수 있게끔.

○우성자 위원

예.

그러면 295쪽예요. 미세먼지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66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재료로 우리 해조류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우성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만 해준다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아니, 학교 전체가 들어갑니다.

○우성자 위원

전체가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급식으로.

○우성자 위원

급식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우성자 위원

이제 급식은 따로 들어가는데 우리 해조류를 이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좀 천천히 읽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서서히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5페이지를 보면요. LPG 배관망 안전용역비, 그것 내용 뭘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전관리 용역비, 이것은 가스 공급 이후에 종합상시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스 노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데요. 배관망이 총 54km 정도 되는데 매일 방문해서 차로 점검하고 있는.....

○김재홍 위원

시설이 완료됐어도 그런 사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점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재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를 한 마디로 딱 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각 페이지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통계로 본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쯤 돼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어촌버스요?

○김재홍 위원

지금 분야별로 싹 나눠놓으니까 그러는데. 뭐 항시 듣는 얘기를 보면 농어촌버스 적자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한 25억 정도.

○김재홍 위원

여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한 25억 정도.

○김재홍 위원

25억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지금 393쪽이요, 해양생물단지 분양대금 경사면분 환급. 이것 이 금액이면 전체 다 정산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을 저희들이..... 경사면이 다 있다 보니까 10%는 본인이 인정하고 10% 이상부터 경사면의 20%라든지 30%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이것이 다 되냐는 이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경사면이.....

○이범성 위원

그러면 민원 발생 제기를 안 하면 안 해주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 경사면에 대해서. 그래서 10% 이상 되는 데는 이번에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이범성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군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당, 공당을 팔아먹은 식 아닙니까, 이것이? 경사면에 있는 그 땅까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원래 팔아먹었던 것이 맞죠?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범성 위원

왜 곤란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죠,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처음에 다 경사면을 인지하고 업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이범성 위원

아니, 처음에 인지를 시켰으면 이런 돈이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경사면이 있는 것을 알고 그 경사면까지 포함해서 분양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알고 갔으면 무슨 민원 제기를 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처음..... 말씀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이 돼서 서로 그런 부분까지 다 협약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된다는 이것이죠? (예)

하여튼 이것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상공인 마음 치료 프로젝트.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검사나 건강검진,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회복에, 복귀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은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검사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

우리 군에 소상공인이 100명은 훨씬 넘을 텐데.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실시를 하고요. 또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한다면 본예산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합검진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스트레스 검사하고 종합검진과는 좀 차별화된 검사입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건강증진과장 황승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 연구용역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400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훈 위원

415페이지요, 용역비. (예)

농축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이것 매년 해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것을 작년부터 지금 하는데요. 작년에 흑염소 관련해서 포장재를 연구개발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특정 동식물을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흑염소하고 한우 그리고 돼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연구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 포장재 디자인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소를 팔았다고 그러면 박스 포장재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뭐 다른 자연 그대로 포장도 많이 했는데, 같이 그때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매년 한 품목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라,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라서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염소 포장재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포장재가 많이 나갑니다.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도 있고 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종류가 예를 들어서 그램 수로 따지면, 그램 수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포장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재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서히 갑시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5쪽 재료비, 거기에서 완도읍 향동리 유

채발 조성 있죠. 전부해서 3,000만 원이 되네요? (예)

여기 향동리 유채밭에 예산 3,000을 들어서 뭐 그만큼 성과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금 (청취불능) 약간 활용도는 떨어지는데요. 다만 완도타워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부분에서는, 경관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 유채밭은 한철 꽃 아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타워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도 매년 사계절 내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데 다년으로 볼 수 있는..... 매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다년초라든지 안 그러면 화목류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498페이지요. 도시지역 내 소규모 민원처리 5,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도시지역 내 소규모 민원처리를 말씀하십니까?

○우성자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도시지역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완도 금일,

노화, 군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예비로 세워놓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쪽이요. 소규모 시설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2억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509쪽 말씀이십니까?

○김재홍 위원

509쪽.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면 요즘에는 토지 보상을 해줘야 만이 소유권을 완도군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

군으로 이전이 된다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김재홍 위원

군으로 이전이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11쪽이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억 5,000이면 이것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510.....

○김재홍 위원

511쪽, 마을회관 신축.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 신축 수요를 조사했는데 그 예산 한계 내에서 추진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을회관이 없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이 오래된 곳, 그런 곳을 신설하고 재건축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김재홍 위원

1식으로.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511쪽.

○김재홍 위원

1식.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1식, 1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아, 1식으로요? 이것은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청취불능)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예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기술경연대회 참가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것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 그..... 전남도 내의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일어날 경기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2,000만 원씩 해가지고 큰돈이 들

어가요? (예)

며칠씩 하는..... 이것 며칠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작년에 안 해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박 3일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전체 소방대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대외 참가자들만 갈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거의 이제 소방대원들이..... 거의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경진대회를 그렇게..... 많이 가는가 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안 하고 그전에는 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이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산만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528쪽예요.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이 4,3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영세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화재 시에 울리는 경

보시설이라든가 부엌에 가스 잠금장치, 그런 데에 지급,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계속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많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금 추진을.....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1쪽예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561쪽이요.

○김양훈 위원

민간단체 운영비에 문화원 운영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561쪽에 문화원.....

○김양훈 위원

예, 9,000만 원짜리.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 9,000만 원이요?

○김양훈 위원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9,000만 원, 예.

문화원은 있던 사업이 아니고..... 완도 문화원의 주민문화교육에 1,000만 원. 향토 (청취 불능) 발간. 그리고 무형문화 향토사업 발굴 보조 1,000만 원. 읍면.....

○김양훈 위원

아니, 아니요. 561쪽.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561쪽?

○김양훈 위원

민간보조 운영비. 운영비라 해가지고 9,000

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9,000만 원이요?

○김양훈 위원

예. 9,000만 원,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완도문화원 지역 문화사업 9,000만 원.

○김양훈 위원

아니, 그 밑에 완도문화원 운영비에서. 있는데, 거기에 9,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예. 완도문화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9,000만 원을 이렇게 운영을, 보조 운영을.....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그러니까 문화 사무국장님, 그리고 종사하는 사무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부분 그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그런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의 경상 경비,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을 세분화했었다면,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예)

그러면 또 문화예총 운영비도 똑같은가요, 그것도 뭐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문화예총..... 완도예총, 완도예총도 2,800만 원은 여기는 이제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위에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 문화원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한번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리고 564쪽예요, 아까 민간위탁비에 영사장비. 저희들이 운영비를 6,000만 원 주고 있고. 영사장비를 1,140만 원을 또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영사장비는 그동안 위탁업체. 그러니까 완도문화사랑 협동조합에서, 문화사랑 협동조합에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영사장비를 1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1,144만 원을 가지고 민간으로 시설을 계약했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양훈 위원

아니, 저희들..... 잠깐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 원래 작은영화관의 수익금은..... 지금 우리 군으로 한 30% 정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2020년, 2021년도는 거의 지금 수익금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30%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70%만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잘됐을 때.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70%를 가져가면서 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수익금만 가져가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동안에 이제 물론..... 본인들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 문화사랑 협동조합은 사실 2022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후에, 그것이 선정된 후에 사실 그 동안에 운영을 계속 못 해가지고 그것이 마이너스여서 별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작은영화관 조합은, 사실 현재 그 조합은 우리 전남 시군에서 한 4, 5개 운영을 해오다가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이것은.....

하여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수익 창출할 때는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우성자

○ 불출석위원(1인)

최정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광윤
김성수
황창령
박은재
천종실
차재철
정광민
황승미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 o 해양치유담당관
- 관광과
- 체육진흥과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o 농업기술센터
- 보건행정과
- o 상하수도사업소
- o 의회사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담당관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치유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해양치유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행사운영비요. 노르딕워킹대회 유치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이 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면서 해양치유산업도 홍보하고 우리 군에 대한,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한 노르딕워킹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그만큼의 성과가 나와요,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노르딕워킹에 대한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동두천시 체육회에서 한번 우리 군을 다녀 갔습니다마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엄청 우리 군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

느냐,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뭐 치유하고 해양하고 양쪽 다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해안 쪽 모래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숲속까지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이것이 치유 프로그램은 별도고요. 노르딕워킹만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정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면에서?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치유산업에 대한 부분도 알릴 수 있고. 홍보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른 홍보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205쪽, 제일 하단 위탁사업비. 미세먼지 독성 저감물질 연구 지원. 이것 전에 코로나 억제 지원 효과를 한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뭐가 많이 다른가요?

○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이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북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또 해조류 미세먼지 독성 저감물질, 이 부분에 대한 새로

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산입니다.

○김양훈 위원

이건 전에 안 했었나요? 미세먼지,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한 것 같은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왜냐하면 서울에 갈 때도 보면 이것이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퍼포먼스까지 하고 그때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미세먼지 부분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해양치유기획팀장입니다.

미세먼지에 해조류가 좋다는 것은 수산경영과에 있을 때 해조류팀에서 서울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는 저감물질까지는 아니었고요. 이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질까지 확보하는 근본이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김양훈 위원

이렇게 보면 그쪽 수산과에서 했다, 여기에서 했다. 이름 조금만 바꾸면 다 예산들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한군데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쪽에서 마무리까지 지어야죠. 또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이 연구분야와 일반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때도 미세먼지라고 해서, 그쪽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실과에서 바뀌서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어떤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고 맞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아니, 정책과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205페이지 상단에 해조류 파빌리온 석고팩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이 이제 치유..... 청산에 있는 해양치유공원에서 해조류를 활용해서 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일반 다시마팩 같이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석고, 석고팩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를 얼굴에 페인팅을 해서 그것을 팩으로 활용하고 벗겨내는 그런 팩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청산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청산에 무슨 이런 것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치유공원 내에 그런.....

○박인철 위원

그것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들어갔습니다.

○박인철 위원

언제나 준공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4월예요? (예)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해초샐러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것이 치유공원에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아무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해초샐러드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박인철 위원

판매를 한다고요? (예)

그것 누가 판매를 해요,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죠.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석고팩도 우리가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박인철 위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노르딕워킹도 참가비를 하나도 안 받죠. 해년마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참가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저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완도 관내 사람들은 보면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나 마을이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강제는 아니고요. 자율 신청을 받아서.....

○박인철 위원

아니, 현장에서 그러는데 담당관님이 그렇니까. 현장에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그리고 206페이지 상단 바이오 메디컬 R&D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어디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산업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은.....

○박인철 위원

왜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3억 2,000인가, 3억 200인가.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이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한 예산사업이고요.

○박인철 위원

어떤 지자체하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장흥하고, 정확히 제가 그.....

○박인철 위원

이 사업이 올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닙니다. 다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 부담금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좌석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 메디컬 R&D 기반 구축사업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화장품 GNP 공장이 들어가는, 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센터라는 그 말입니까?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앞에 부담금 4억은 뭐 따로 이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자체부담금.....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좌석에서) 예, 그 부분하고는 달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좌석에서) 이것이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 총사업비는 90억인데,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은 25억 정도의 공장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지자체가 하는 것입니까?

○해양바이오팀장 김채호

(좌석에서) 아, 장흥하고 나주. 이것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그러면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이것은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은 160억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공모사

업에 선정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담당관님, 머드팩. 202페이지, 머드팩이 있죠. 지금 당장 이렇게..... 내년에 머드를 구입해서 활용하실 것인가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노화 동천에 있는 염전에서 머드를 채취해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치유센터가 상반기 중에 건립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 아직 건립이..... 하반기 정도로 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 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앞장 201페이지에 머드에 대해서, 머드를 채취해서 또 성분을 검사하고.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머드팩을 주문해 놔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 가지고. 이미 여기에서 성분이 잘 나와야 뭐 구매할 것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시범적으로 구매해서 이 성분은 괜찮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준비해서 완료하고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담당관님, 201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이것 어떤 용역비인가요? 해양치유센터 관리운영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치유센터를 공사 중인데요. 그 치유센터 내에 시설 관리하고 프로그램하고 운영 그리고 고객관리센터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뭐야, 치유센터에 들어갈 집기 같은 것을 말하나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공단이나 치유 이런 것은 아니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자체 내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 천천히 해주시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넘기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본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86페이지요,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완도군의 관광명소들을 전자지도화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네이버맵을 통해서 공간 현실처럼 이렇게 지도를 검색하듯이 완도군 관광지를 전자지도 형태로 만들어 저장해서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그것을 어디에서든 눌러도 완도에 와서만 눌러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네이버나 포털에 들어가서.....

○우성자 위원

네이버에다가 올린다는 이 말이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그렇습니다. 연동시킬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아, 예. 그리고 586페이지에 완도여행 알뜰패스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2,000만 원이 세워졌고. 그 밑에 완도여행 알뜰패스 사업체 지원으로 1억 4,000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런 내용은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관광이기 때문에 식당, 숙박업소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 등 이 부분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어때'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예약을 하듯이 거기에서 예약을 해서 하면 우리가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은 여기에 가입하거나 할인율을 적용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우리는 10%를 할인하겠다. 그러면 거기 앱을 통해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는 10%의 할인혜택을 주고 그 할인율만큼을 그

밑에 사업체 운영 지원금에서 할인율을 군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 관광객들에게 해주고 그 부분을 군에서 채워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광과장 서길수

결국은 이것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알겠고요.

589페이지에 완도 한 달 살아보기 있죠, 완도여행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부분은 1억 2,000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나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알뜰패스하고도 연동을 시킬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의회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 계획은 안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군요.

○관광과장 서길수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디테일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나머지 다른 것은 불 필요 없고.

601페이지 재료비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모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을 직원들이라도 가지고 가서 먹자고 싸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비닐밖에 없다고 안 싸주더라고요. 이렇게 포장용기를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데 골고루 식당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식당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손님이 원하면..... 어차피 버릴 것이잖아요. 원하면 다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588페이지에 시설비를 한번 봐보십시오. 22년도, 2020년도 수입지출 운영 관련해서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관광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지금 완도..... 일단 이 시티투어는 체도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에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진행하려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못했고요. KTX하고..... 나주 역하고 연계해서 SRT나 KTX하고 연계된 완도 체도권 순환투어, 시티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여행상품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일코스하고 1박 2일 코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우리 군에서 처음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서길수

예, 기존에 2019년도에 잠깐 한 해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관광과장 서길수

그때는 청해관광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계획을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청해관광하고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입찰할 것입니다.

○조인호 위원

이것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

○관광과장 서길수

실은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못했는데. 일단 내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관광에 대한 부분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아니, 코로나로 식사도 8명 이상 못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서길수

실제 지금 개별적으로 와서 식당을 둘로..... 한 식당에 나눠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식당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은 관광이 자가용으로 갔다가 조용히 몰래 다녀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를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관광과장 서길수

예, 지금 어느 정도 SRT하고 코로나를 대비한 그런 부분..... 코로나를 대비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방법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X나 SRT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이 말이에요, 코로나 이 시국에. 그러니까 시국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588쪽 그 용역비. 해양위터파크 조성 연구용역,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예, 지금 이것이 천동굴 그런 부분 저수지에 수상위터파크 그 부분을 진행하고자 2022년도에 군특으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난대수목원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은 부분하고 과연 이 위터파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시설을 했을 때 투자된 시설비하고 수익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추진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요? (예)

저수지에.....

○관광과장 서길수

수목원 그 밑에 저수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체육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614페이지, 노화 테니스장 아크릴 포장공사.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노화 테니스장 아크릴 포장, 거기가 포장이 아크릴로 안 되어 있고 저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크릴 포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지훈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거기가 약간 시설이 안 좋아서 보강하는.....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노화 테니스골프장을 준공한지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한 3년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무슨.....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아크릴이 들뜨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요.

○박인철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관급..... 관리자의 문제지, 관리 책임이 지금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니까, 여기에다가 관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급 그 회사한테 하자보수를 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계속 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균열 좀 발생되고. 저희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크릴 균열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든가 뭔가 시공이 잘못되었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인데. 엇그저께 준공해 가지고 얼마 치지도 못하고..... 내가 알기로는 테니스도 쳐보지 못하고 준공 전부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하자가 있어서 계속 복구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치는데. 그런데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밑에 콘크리트를 없애주고 아스팔트로 깔고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겠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것도 알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3년 좀 못되어 가지고 벌써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것은 팀장님이 오기 전에 이것이 준공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도 가기 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영원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박인철 위원

영원히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이상입니까, 박인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1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그것이 이제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경기장 점검 차원에서 대회를 우선 임시적으로 먼저 개최를 해보고 대회를 개최할 때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개보수하고 시정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미리 오기 전에 거기에서 시험개최를 해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떤.....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축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한 7~8가지 정도.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하고 해야 될 부분은 7~8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욱

우리 전라남도 축구협회에서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종목별로 축구 있고 배드민턴 있고 배구 있고 농구도 있고 여러 가지..... 군도도 있고.

○위원장 최정욱

어차피 군수, 의장배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전국대회, 이 부분은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최정욱

시군들을 유치한다는 얘기에요? 시군들을 유치해서 생활체육대회면 생활체육을 여기에서 해본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 생활체육대회는 그 다음, 2024년도에 하고. 도민체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경기장 점검 차원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점검차원에서 우리 군에 있는 단체들과 하는 것인지, 체육회를.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아니요, 전체 시군. 아니,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시군 전체를 한다고 하면 체육대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의장배면 의장배, 군수배면 군수 아니면 생활체육대회면 생활체육대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전남도대회, 전남체육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위원장 최정욱

아, 전남체육회에서 미리 여기 완도에서 해본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에 대한 지원인가요, 체육대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경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경비 지원이구먼.

(방청석에서 “대회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6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라고 했는데. 파크골프장을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클럽하우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골프장 공원만 우선 이렇게 된 사항이라 다음에 지을 때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클럽하우스하고..... 클럽하우스 내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하고 라인홀만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선 증축하기 전까지는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그 화장실이 지금..... 예.

○박인철 위원

그것도 뭐 생리현상인데 기본 아닙니까? 운동경기, 운동장을 신설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컨테이너를 임차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올해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하지. 왜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일단은 지금 9홀을 했는데 거기를 대부분 보면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하우스하고, 클럽하우스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더 확장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하는.....

○박인철 위원

아니, 골프장이 되기 전에 9홀이 됐든 4홀이 됐든 뭐 18홀이 됐든 하기 전에 그런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예, 원래는 그래야 맞는데요. 사업비가 10억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선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 언제 하려고 합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9홀 1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10억이라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9홀을 하려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승낙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토지 매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클럽하우스나 화장실이나 같이 이렇게.....

○박인철 위원

우리가 처음 애당초 예산을 할 때는 몇 홀 하기로 했습니까? 9홀, 18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는 18홀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18홀 이야기가 나오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기준이 2개 코스 18홀입니다. 타시군에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해야지. 갑자기 여기에서 18홀 이야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요. 부대시설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보다는 부대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지.

그러면 운동하고..... 여름 갈을 때 운동하고 그러면 샤워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클럽하우스 자체가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체육시설팀장 김상균

(좌석에서) 우리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비 30%를 받으려고, 저희는 그 생각 때문에 단계를 뒤로 늦췄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고 답변할 때 팀장들한테 먼저..... 본인이 그러면 팀장 대신 답변하라고 할 때 팀장들이 일어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 권혁

잘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미역줄기 수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비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62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인철 위원

예, 사무관리비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장비.....

○해양보전팀장 추영철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 625페이지. 말씀하세요?

○박인철 위원

예. 친환경 미역줄기 수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괄호하고 장비라고 했는데, 이것 무슨 사업이냐고.

○해양정책과장 권혁

잠깐만요. 그것이 약산 화가리 친환경단지 에다가 미역 생산이 종료된 후에 그 부산물을 친환경단지로 공급해 주는.....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박인철 위원

그것은 그 밑에 있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위원장 최정욱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20,073 말하죠? 중간쯤에 보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어민들이 바다에서 미역부산물을 수

거해 오면 그것을 육지로 운송하기 위해서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장비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박인철 위원

아, 그런 장비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각 어촌계마다 하이스터 같은 것이 다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라고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어차피 덤프 차량이 있어야 만이 화가리 친 환경단지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스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미역줄기도 우리가 수매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밑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이 지금 수매.....

○박인철 위원

옛날에 있다가 한동안 없어졌던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해양보전팀장 추영철

(좌석에서) 2019년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박인철 위원

코로나가 뭐.....

하다가 갑자기 없는 사업이 생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6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객지에서 계시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오신, 귀어하신 분에 대해서 어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수지역에서 수산경영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멘토가 되어 가지고 양식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 멘토한테 20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10만 원씩 이렇게 한다는 이 말 아니에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박인철 위원

20이니까. 그것은 됐고요.

과장님, 64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조류 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행사 지원 7,000만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위한 지원입니까, 무슨 심포지엄을 한다는 말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당초에는 박람회 일정 속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박람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 해조류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포지엄을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직 뭐 어떤 목적도 없구먼. 방법도 없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고.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좀 애매한,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해조류박람회사무국은 올 안에 해체됩니까

아니면 계속 별도로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소속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있습니까, 해조류박람회? 지금 해조류박람회를 안 한다고 해놓고 일부는 협업부서에 들어왔고 일부는 얼추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무리가 언제나 정리됩니까? 그래야 군비도 들어오고 국도비도 반납되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예산..... 반납고지서 교부 중에 있고요. 예산은 확실히 반납하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뭐 조직을 없앤다거나 일부 축소시키고 일정기능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가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인철 위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뭐 예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행..... 뭐 2개 업체입니까, 대행사가, 대행하는 데가? 그런 데하고 전혀 지금 결산이 안 된 것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는 사용을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군비를 가지고 아마..... 우리 군비 출연금을 가지고 사용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가. 그러면 전혀 그런 계통하고.....

우리가 지원팀이 있죠, 해양정책과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그냥 해조류박람회사무국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것 말미에 한번 와서 그분들이..... 뭐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와서 한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그러면 한번 박람회사무국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들이 전부 다 있고 또 나머지 군비도 있는데. 예산들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전혀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해조류박람회를 하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박람회도 스톱되어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쪽, 공기관위탁사업비 바다정원화사업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갯녹음 예방.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김양훈 위원

627쪽 상단에 공공위탁사업비 공기관위탁사업비, 바다정원화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

습니까? 갯녹음 예방.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김양훈 위원

627쪽 상단에 공공위탁사업비, 공기관. 바다정원화사업,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그것이 우리 군하고 이사업이 맞습니까, 뭐 성과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은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고요. 확실하게 1년 사업으로 그 큰 바다에서 일정 부분 어촌계 몇 군데 했다 해서 사업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안 바다숲 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주도 같은 데, 갯벌이 없는 데는 이것이 맞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아마 어촌계..... 과장님도 어촌계 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죠? (예)

이것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니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일부..... 예.

○김양훈 위원

실상적으로 큰 이런..... 바다숲 예방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후도 쪽이고 신지 쪽이고 청산 쪽이고. 이것이 제주도는 맞습니다, 갯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완도 쪽에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한 2~3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됐으면 이것도 한번..... 지금쯤은 성과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봐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그동안 사업했던 지구별로 추진사항을 한번 다이버를 넣어 가지고 점검해서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자산물품취득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 부지매입, 어떤 사업인지.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 이 사업은 노화 미라리 어촌계에..... 거기 현장을 다녀보셔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미라리 어촌계에 잡종지로 있는 그 부지가 마을 안쪽에 위치해 가지고 그 동안에 수없는 해양폐기물들을 다 야적해 가지고 쓰레기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된 쓰레기산을 다 정리하고 마을 자체에서 복토를 해가지고 소공원을 만들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좀 매입해서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특정해 놓은 건물은 없고요. 주민들

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뭐 공원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625쪽, 친환경쌀 미역줄기 수매.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논에서..... 약산에서 미역줄기를 끓여서 농사를 좋게, 쌀을 좋게 만든다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때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길래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때 성과가 없어서 삭감해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올해 또 올라와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양쓰레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39쪽에요.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639쪽 중간 부분에 바다지킴이 365.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1억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홍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도 일반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읍면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이제 매년 수거합니다마는 대부분 쓰레기들이 눈에 나타나는 쓰레기들만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경영인을 활용해서 지역의 취약지역을 어떻게 보면 장비를..... 이렇게 길도 없고 도저히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수산경영인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수산경영인. 물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봤을 때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고 좀 취약지구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 좀 하고 뭘 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운영방침이 꼭 이렇게 맞는지. 운영방침을 좀 뭔가 업그레이드한다든가 해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625페이지 다시마꼬리 자르기 있죠, 2억. 이것은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625페이지, 다시마꼬리 자르기 지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만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왜 확대해야 만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때 보면..... 올해도 조기산 미역 같은 것이 작황이 안 좋아 가지고 포자를 3번, 4번 이렇게 띄워 가지고도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전복먹이가 올해도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정 미역 부산물 수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마꼬리 수매사업 역시도 좀 확대해서 전복먹이가 부족한 시기에 어민들한테 공급해서 필요로 한, 양식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어선안전 기원 풍어제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선안전 풍어제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진행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완도어선협회가..... 세 군데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매년 어선안전, 말 그대로 안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를 모시는 그런 행사

가 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제 합계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합쳐서.

○우성자 위원

그것이 물론 마을에서도 제를 지내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를 한번 지내는데 4,000만 원이나 필요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들은 제수용품도 구입하고 또 그날은 선박이 동원되어 가지고 해상 퍼레이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류대도 지원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성자 위원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날 제를 지내는데 선박이 이렇게 동원되는 것이..... 유류대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30페이지, 제일 상단부 시설비. 다목적 인양기 정비 수리 철거사업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7,000만 원을 가지면 한..... 어촌계별로 해서 몇 개나 합니까, 1년에?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이 예산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범성 위원

아니, 어촌계에 가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이 인양기예요. 시설은 계속 새것을 요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도 안 하고 그냥 뭉뚱스럼다기보다도 더 보기가 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돌아가는, 언제..... 전체 어촌계들이 수없이 많은데, 언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 예산이 수리, 철거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대부분 수리예산으로 해서 상반기면 다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확대돼서 어촌계에 이렇게 좀..... 신규시설만, 이렇게 수리비가 없다 보니까 신규시설만 원하고 있는데. 어촌계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예산도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촌계들 신규 여건들보다도 더 귀중한 일들이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이범성 위원

기본적인, 우리가 꼭 수리를 해가지고 쓰면 잘 쓸 수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이 부분에 예산 부분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 부분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 부지 매입. 이것 어디를

말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여기 노화 미라리입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미라리를 사가지고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역실정에 맞는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부지 같은 것이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라리 어촌계 같이 필요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미리 부지 조성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그 지역만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아까 김양훈 위원님도 했고 금방 이범성 위원님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미라리 마을에 되파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미라리한테, 개인한테 지금 판매를 안 하니까 우리 군에서 저번에 고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지, 이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633페이지에 하나 좀 물어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귀어업인 정착 지원비.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어업인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 온다는 말이 많이 있던데. 들어와서 정착하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어촌계 행사계약 부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자리가 있고 그래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어촌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장이 충분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장이 협소한 그런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지금도 계

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금 그동안 해온 것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정도 금액이 적정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636페이지요, 감용기. 그것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이동식감용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예전에도 한 두세 차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다 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한 달에 보통 한 십 며칠을 수리하더구먼, 그 감용기를.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이 투입돼서 하지. 생산경비와 생산량과 효과, 이런 것이 전혀 안 돼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수리비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때요, 과장님의 생각은?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과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렇죠, 한번쯤은 이것 그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새롭게 뭔가 잡아가야지. 이것을 계속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하고 그러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사람도 투입되지. 인건비 이런 것, 경비, 수리비. 그때 이미 두세 차례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은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638페이지요, 김양식 무기산 폐기. 이것 이제..... 뭘니까, 무기산이라면 뭘 말하나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수산사업으로 해서 유기산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가에게 무기산을 이렇게 특정장소마다 숨겨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단속물량에 대해서 이것을 지정된 전문처리업체한테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아, 단속된 제품에 한해서만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기산이 있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가짜라.” 이것이 아니고. 적발했을 때의 이것 처리비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액은 군비 130억 9,700만 원, 도비 45억 9,700만 원, 군비 134억 1,700만 원 등 총 3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최정욱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7쪽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오프 하이브리드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이 행사는 지금 당초에 내년도 해조류 박람회 행사와 맞춰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온오프인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를 자체적으로 개

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디에서요, 완도에서요? (예)

그러면 상담회 그쪽에..... 수출하실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합니까, 이것?

○수산경영과장 김일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한 3박 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어느 시기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입니다.

내년의 계획으로 박람회 취소되고 해조류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5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상황으로 이것이 되겠어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그래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을 하고, 그것이 좀 불가하다면 오프라인으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양훈 위원

아까 페스티벌 그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도에서.....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장보고 수산물 축제,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하, 그것이 어떻게..... 이것저것 심포지엄하고 또 이것하고, 페스티벌 뭐하고, 또 노르딕

워킹이 올라가고. 엄청나구먼, 지금 예산들이.

그럼 지금 이것은 영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요. 내년도 해조류박람회에 맞춰서 할 계획이었으나 박람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혹시 5월 경에 우리 완도군 자체에 어떠한 축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660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동안 저희들이 품목별로 단체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었는데, 그동안 가공김을 만들고 있는 김 공장에서 “그동안 한 번도 수산사업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좀 해 달라.” 지금 김 가공공장에 보면 대부분 신안 김 박스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자제를 시키고, 완도 브랜드가 붙어 있는 김박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도 신안 김 박스는..... 여기는 완도 김인데 신안 김 박스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대부분의 김 가공공장에는 신안 김 박스가 거의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른김이라 그러면 뭐 가공공장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금?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소안하고 완도까지 하면 약 20개 정도의 가공처가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가공..... 그것은 됩니까, 무슨 조그마한 것까지 다 맞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니요, 김 박스 그.....

○김양훈 위원

큰 박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하단 시설비에 그 수출물류센터 배수로 정비요. 이것 뭐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유통가공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유통가공팀장 전호용입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그냥 이렇게 맨땅으로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었는데, 저희가 수출센터 하면서 주차장을 하면서 거기를 좀 막았더니 물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좀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양훈 위원

처음에 이런 것도 다 감안하지 않고 시설을 했던 것인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김양훈 위원

아니, 처음에 착공하고 할 때, 전부 다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배수시설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기 물 양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배수로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을 공사한지가, 지금 준공한지가 1년 좀 넘었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1년 됐습니다.

○김양훈 위원

1년이 됐는데 벌써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655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도서지역 명절 특수기간 물류 운영 운항 지원이라는 이것, 5,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노화, 보길 지역에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택배사업, 우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택배사업의 일부 물류비 정도를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노화, 보길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택배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 우체국에서 그 물량들을 최소한 오후 2시 정도에서 3시 정도에 마감을 하고 그 물량을 갖고 이제 영암집중국을 가야 되는데, 워낙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보통 12시에는 다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노화 지역에다가 우체국의 인력하고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를 지원해 가지고, 올해 노화하고 보길에서 쏟아지는 그 택배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이제 추석 때 태풍이..... 아니,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물류 지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구정에는 조금 더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원만하게, 또 원활하게 노화, 보길 택배 물량들을 원활하게 빼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런데 그 일반택배는 아니고 우체국택배로만 지금 하는 것이죠? 일반택배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일반택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우체국택배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성자 위원

아니, 우체국택배만 많이 이용하고 일반택배는 이용을 안 한다는 그 말은 또 안 맞는데.

○수산경영과장 김일

일반택배 같은 경우에 그 물량을..... 차들이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빼내고 또 바로 다음 날 차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성자 위원

연결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오늘 처음 세운 예산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올해 저희들이 9월에 추경에 좀 세워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655쪽에 금방 질문한 바로 밑에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및 판매 지원이 2억 4,200이죠? (예)

이렇게 수산물 소비 홍보를 무엇으로 해가지고 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를 보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복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올 1월부터..... TV 같은 경우에는 KBS1 6시 내고향, 또 SBS 만남의 광장, 그런 지상파를 이용한 홍보도 했고요. 또 유튜버 수빙수 이런 부분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홍보비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완도전복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완도전복 그러면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졌죠, 완도전복은?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초복, 중복,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정도 그렇게 방송을 해주면 그만큼 또 소비효과는 큼니다.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2쪽이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해조류 양식기술 보급 세부계획 용역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서 얘기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까? 662

쪽.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연구용역.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 지금 이 부분은 남북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세부계획 수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전남도와 또 통일부를 거쳐서, 또 UN 대북 제재하는 그런 기관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일부에 올리면, 통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남북 교류 협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북 제재하는 UN에 그 내용을 또 계획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거기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교류 협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세부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위원

나중에 남북관계가 좀 좋아진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놓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옛날부터 구상하고 있던 일들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범성 위원

예, 공약사항 이행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행 때문도 있고. 저희들이 남북 교류 협력을 해서 지금 해양바이오산업이 계속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한 그런 해조류를 북측 해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양식하는 계획을 갖

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위원

이제 해조류가 부족할 상황을 대비한다, 이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것도 있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그 북측 해역을 미리 좀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예, 이것 꼭 해야 돼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예,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6쪽, 연구용역비네요, 이것도. 완도지역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1식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1억 5,974만 2,000원. 이것은 뭐 해양치유산업 때문에 한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사실 우리 완도산 해조류나 또 완도에서 양식되거나 포획되는 그 수산물들이 다른 해역하고 다르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한 4개월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해수 중에 있는 (청취불능) 중금속,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용역에 의해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우리 해역이 다른 해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그런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완도 수산물에 대한 타지역과 비교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범성 위원

그러면 해산물은 뭐 어떤 종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해수 중에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범성 위원

아니, 우리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지금 해산물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뭐 품목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그 품목은..... 해조류하고 어류하고 그 것은 용역을 실시할 때, 저희들이 대표적인 그 품종을 좀 같이 결정해서 용역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아니, 용역비도 많고 이것이 좀 시간..... 뭐 1년 연중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 때문에 용역비가 좀 많이 세워진 것입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1년간 해야 합니다. 사계절.

○이범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55페이지. 소비 촉진 홍보 및 판매 지원 해가지고 아까 우성자 위원님이 했던 것. 이 홍보비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 일괄해서 안 하고 별도로 다르게 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별도로 뭐..... 이 수산물 소비 촉진이 아닌 다른 것도

같이, 아마 거기는 포괄적인 부분이었을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된 것만 12월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도 그 각 과마다 홍보비가 남발되어서 이것이 어디어디 서로 더블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 군데를 합쳐서 제대로 홍보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했었는데. 다시 또 다 나뉘지네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그렇게 가기로 안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산경영과에서 우리 수산물 홍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편스토랑, 만남의 광장 같은 프로그램은 또 수산경영과에서 직접 접촉을 해서 방송을 홍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에도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이라든지 해조류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비를 별도로 수산경영과에서 지금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럼 우리 경영과만 지금 그런가요, 다른 과도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다른 부서는 거의 없고, 관광과에 일부 축제 관련된 축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CF라든지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부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저희한테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수산경영과만 수산물 소비 촉진에 관련된 이런 홍보물, 홍보비가 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전문가답게 또 더불이 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다시 이것이 찢어나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거든요, 다른 과들도.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657페이지요. 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5,000이 세워져 있는데, 우성자 위원님이 했죠. 이것이 지금 수출상담회, 여기에 와서 현지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판로 개척 홍보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있는 것은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어디에 4,000만 원.....

○위원장 최정욱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4,000.

(방청석 관계직원을 보며)

예, 우리 팀장님.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시장개척팀장입니다.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수출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 4,000만 원은 우리 관내 수출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렇죠?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해외판로 기술..... 예.

현지에서 원래 나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갈 경우에는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못 나간다면 직접 기업이 안 나가더라도 해외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어촌을..... 그쪽에다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래도 이런 데에는 그 업체들이 수출하는 것이 훨씬 손이 잘 가거든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업체를 지금 현재 1,000만 원씩 저희가 4개소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밑에 온오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 수출기업에 혜택이 가는, 바이어를 많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수출업체 전체에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했거든요. 이때 상당히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바이어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렇게 잘되던가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위원장 최정욱

그래요?

○시장개척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일단 바이어를 직접 나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라도 접촉을 많이 해서 꾸준히 계속 연계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알겠습니다.

660페이지요.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 보면 아까 그 박스가 저기.....

○수산경영과장 김일

신안.

○위원장 최정욱

신안? 그런데 그것 제대로 파악한 것이에요? 신안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 공장들이. 신안 김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뜨면서 판매할 때 신안 김으로 해야 판매가 잘되기 때문에 신안 김 박스를 써요. 우리 완도군 김 박스를 안 쓰기 위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신안 김 박스를 써요. 두 가지를 놓고 써요, 김 공장들이. 마른김을 우리 완도 것과 신안 것까지 두 가지를 쓰고, 대부분 김 공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 말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일단 가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가공공장 내에 신안 김박스가 있어서 또 그 다른 사람들 왔을 때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 완도 김 박스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이러한 건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는 완도 김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좀 공급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가급적이면 신안 김 박스가 우리 완도군 가공공장에서 가급적 많이 좀 없어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그것 지금 신안 김 박스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마른김 공장에 김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죠?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런 김 박스입니다. 이렇게 큰 것.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신안 김 박스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 것이 아니고 신안 김 자기들이 맞춰서 써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지적을 해도 자기들이 판매망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쓴다고, 자기들이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예산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680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해양치유밥상 2호점 육성이 있는데, 2,8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1호점 지정을 해서 해양치유밥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다양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3호점에서 5호점까지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 보면 해양치유밥상 2호점 기술전수교육강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960만 원에다가 그 위에 또 있고. 이것은 2호점을 하는데 왜, 무엇을 하는데 2,800만 원이 들어가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제 식당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요되는 것이 돌솥밥을 만드는 그런 기계가 필요한 식당이 있어 가지고 기계 구입비가 조금 들어가고, 좀 약간의 리모델링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식당이 좀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할 그런 상황으로.....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식당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해양치유밥상 1호점 모래뜰 해가지고. 지금 거기의 그 전과 그 후 평가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계속 설문서를..... 외지인들,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게는 하루에 50상 정도, 그다음에 좀 적을 때는 15상에서 한 20상 정도 매일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그 결과라든가, 이런 그 내용 같은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꼭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가 해서 이제 물어본 것이고요. (예)

693페이지 상단,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단지라고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고. 계속 그것 이렇게 했는데..... 해초액비 최고품질 쌀 사업비가 4,000만 원. 이런 것들이 뭘니까? 해양치유기능성 유색미 생산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박인철 위원

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뭐 1억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지금 이제 노화하고 고금 또 청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색깔보리 단지를 조성하고 유통하는 그 체계를 좀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외지에 이렇게 홍보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50헥타르라고 해가지고 2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1헥타르 당 200만 원씩 이렇게 뭐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씨앗 값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종자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보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초기에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또 마케팅 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은 좀 구입하고.

○박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원래 종자 값에다가 생산하고 남은 판매, 마케팅비.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여기에?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산을 지금 시범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색깔보리를 이렇게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하고 나서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그 종자부터가 이런 일반보리 품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품종이 보급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매뉴얼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판매업체하고 이렇게 일괄 계약 재배를 해서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소득화 쪽으로 전망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된 양들은 거의 다 판매되고, 100% 판매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버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이 있는데, 2억 원이. 이 돈이면 됩니까? 이 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협에다가 위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그 농협의 방제기계라든가 방제단이 있어 가지고요,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또 고금도 같은 데에도 자체적으로 드론까지 해가지고 다 한 팀들도 있고 또 완도군에도 이런 방제사업을 하는 팀들이 있던데, 왜 외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관리 감독은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우리 군에 있는..... 완도 관내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농협에다가는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는 법인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관리 감독을 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가지고 비파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과수, 전남기술원 그 과수연구소에서 그 조아비라는 신품종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품종들이 이제 좋은 것들은 농가들이 시설을 선택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신품종이 나와서, 또 굉장히 성과는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 보면 비파와인 제조시설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까, 주류 허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완도, 지금 주류면 허 허가를 받은 곳이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 주류면허를 받았고요, 1~2년, 한 2년 정도 전에 울모래비파영농조합법정도 주류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주류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신지에 있는 그쪽에다가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한우고급화 브랜드 육성 연구를 한다고 했고. 또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됩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축산과 학기술연구소..... 전남도 소속의 축산과학연구소, 거기에 가서 그 소장님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정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우리 완도에 한우 계통을 정립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료를 먹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뭐 얼마만큼 이렇게 사료 정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적.....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이렇게..... 계통, 그런 계통에 있는 한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제 시작을 해서 농업

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재료비나 연구용역비나 밑에 민간사업보조 자체 재원이나 다들 그렇게 대동소이한데. 과연 완도만, 완도를 대표하는..... 횡성한우처럼, 또 다른 한우..... 그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 그런데 뭐 이런..... 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완도만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데는 뭐 수십억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들이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데에서 인공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완도 한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이것이 완도 전복처럼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끼워 넣기인가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런 예산들은 좀 하려면 제대로 잡아 가지고 하십시오. 완도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저기 저 692쪽, 사무관리비요. 색깔보리 특산단지 홍보, 이것 어떻게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692쪽.

○김양훈 위원

692쪽,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색깔보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색깔보리 특산단지 홍보 말씀이십니까?

○김양훈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은 저희들이 그 색깔보리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을 하면, 일단 일부는 계약재배로 해서 납품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요 경비로 세웠습니다.

○김양훈 위원

쇼핑몰에만 그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홍보도 하고 홈쇼핑에 론칭을 하는 데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하고요 또.....

○김양훈 위원

아니, 이런 홍보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통합적인 전체사업은..... 왜 그러냐면 축산과 기술센터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기술센터에서는 실험연구를 하고 실적을 빼면 축산과로 넘겨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제 앞으로는.....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같이 해야지. 분리해서 이쪽에서 홍보하고 저쪽에서 홍보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시다만, 이제 색깔보리를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자리가 잡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에 연구하고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넣어서 할 수 있겠지만 홍보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98쪽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양치유 기능성 생약초 단지 기반조성 시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삼지구엽초 음양곽이라는, 한방에서 말하는 음양곽이라는 그 삼지구엽초를 농가들에게 이렇게 좀 단지 조성으로..... 규모가 좀 작아서 단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시다만 이제 그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삼지구엽초가 생산이 되면 저희 약산 흑염소하고 음양곽하고는 이렇게.....

○김양훈 위원

소장님. 이것 생약초 단지, 옛날에 약산에서 계속 해왔었죠. 그래 가지고 문제성이 있어서 그만 뒀었죠? 그전에 생약초 이것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예.

○김양훈 위원

법인이 생겨서 그 생약초를 한다 해서..... 그것은 문제가 좀 있고. 고발, 고소가 들어갔었고. 이것 문제가 있던 사업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약산하고, 저기 또 생일도 하고 이렇게.....

○김양훈 위원

생일은 들어보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 생약초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단지를 엄청나게 크게 조성을 했었어요, 이것. 그 위치에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뭐 불황에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끝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인한테 간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김양훈 위원

개인한테 준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법인이나 마을이나 이렇게, 개인이나 이렇게. 개인..... 그 농가나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이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699쪽, 상단에 보면 소득작물 참다래 신규 과원 조성 시범이라고 했는데, 4,200만 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참다래도 마찬가지로요, 신품종이 기존의 헤이워드 그린키위에서 지금은 이제 골드키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금이라는 골드키위하고 또 제스프리라고 그 품종이 특허기간이 끝나서 그 품종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일반, 예전에 했던 우리 일반 그 참다래가 아니고. (청취불능) 보면 색깔이 있는 그런 키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한, 저희들이 참다래 재배면적 한 10헥타르 내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내년에,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지금.....

○김양훈 위원

신규 그것이 뭐 종자, 골드키위가 있는 종자를 갖다가 묘목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청취불능) 시설을 하고요. (청취불능) 시설하고 묘목, 그 신품종 묘목을 심어서 시범사업에 맞게 그 높이라든가 뭐.....

○김양훈 위원

기존에, 옛날 참다래는, 기존의 옛날 참다래는 많이 없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궤양병에 조금, 이제 죽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것이 또 매력이 있어서 재배하고 있는 또..... 죽은 것은 폐원하고 또 새로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제 폐원이 된 상태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작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705쪽 재료비, 이것이 지금 이엠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유용미생물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이엠? (예)

작년에 1억 정도 올라왔네요. 이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농가들이 갈수록 이렇게 유용미생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매년 저희들이 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마는 농가들이 양이 좀 부족하다고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김양훈 위원

아니,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요즘에 발효제, 그 퇴비를..... 예전에는 뭐 이엠에다가 섞어서 넣어서 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제화되어 가지고 퇴비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발효시켜서 하계곰 다른 사업이 또 나와요, 축산과에서도. 그런데 거기다가 축산 쪽에서는 이 이엠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시설.....

○김양훈 위원

그전에도 가면 다 창고에 쌓아져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농가는 좀 배제를 적극적으로 시키고요. 활용을 하는 농가, 많이 필요한 농가를 위주로 더 배정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 좀 잘 관리하시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 한쪽에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706쪽,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한우 수정란 이식 연구, 이것을 어떠한 위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체외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난자와 정자를 이렇게 최고급 육으로 된..... 초우량 그 어미소와 또 수소 이렇게 교배를 해서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면, 그러면 처음에 착상기 정도 이렇게..... 초기에 됐었을 때 대리모 한우를 통해서.....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밖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한우한테만 넣는 것이 아니고 젖소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그 난자를 넣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렇죠.

○김양훈 위원

쉽게 말하면 다른 데에다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대리모를 통해서, 예.

○김양훈 위원

이 수정관을 빌려서 쓰고 (청취불능) 그것이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렇죠, 예.

○김양훈 위원

이것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 축산과학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도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완도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 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해서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김양훈 위원

지금 이미 다른 데에서 공급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라고 해서..... 이미 이제 연구라고 새로 뭐 다른 것이 또 있는가 몰라서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그 농가들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정을 해주는, 배정을 해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연구소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최소비용으로..... 많은 사람, 많은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분들이 와서 그냥 여기서 같이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이 가능하나? 아마 저것 가능하지 않을 텐데. 지금 한 가구당 한 마리를 수정하는데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마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연구가 다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연구가들이 자기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와서 하지는 않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와서 이렇게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연구사들이 수정하러 다닌다는 얘기죠? (예)

연구가 아니구먼. 그것은 수정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식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80쪽이요. 그 해양치유밥상 지금 1호점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1호점, 1호점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이제 1호점은 지정을 했고요. 이제 2호점, 3호점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돌솥 기계, 돌솥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아니면 너무 또 치유밥상으로 완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내부가 너무 또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위원장 최정욱

아까 소장님, 아까 그 설명은 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면 계속 2호점, 3호점, 4호점을 할 때마다 이것 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이 한 3호점에서 한 5호점까지만 이

렇게 하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켜본 후에 이제.....

○위원장 최정욱

아니, 소장님. 왜 그러냐면 이제 모래뜰이라고 지금 해양치유밥상이라고 홍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요식업에서 조금씩 불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치유밥상만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식당 같으면 홍보하고 다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음식을 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까지도 저러느냐 그러는데. 홍보는 우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주는 것은 가능한데, 시설까지 해준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해줘야 맞죠.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 품목이 아닌데 지원을 하게 되면 공평성도 그렇고 다 식당에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해보고.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 우리 치유밥상을 할 때. 그런데 시설은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계속 늘어나면 또 해줘야 되고 어느 시점은 안 해줘야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형평성으로만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비용만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는 우리가 해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그리고 또 요식협회나 이런 데에 좀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방법.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대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정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올해 예산이 35억 8,300만 원까지 삭감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위원장 최정욱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5억 8,000 정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그 국비 보조사업..... 그 단위가 좀 줄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줄어들어도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예, 현재 지금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 냈기 때문에. 또 부족하면 그것은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문제가 없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예,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 출석공무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관광과장

서길수

체육진흥과장

이성용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신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
다.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
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
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
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
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

하여 예산의 타당성, 소모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시간이..... 오후에 있어서 바로 축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
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먼저 죄송합니다.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 상단 부분 비대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인 또는 소규모 가족 단위의 여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관광지를 사전검색해서 지금 관광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완도군의 주요 관광지를 전자지도로 제작해서 이 부분을 대형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에 연동시켜서 우리 완도군을 찾는 1인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전자지도를 통해서 쉽게 우리 완도를 찾을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제작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 하단 부분 완도여행 알뜰패스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알뜰패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플랫폼을 구축하면 우리군의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판매점들이 가입을 합니다. 이 가입한 업체들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율을 해주면 그 할인을 해준 만큼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부분으로 지금 금년에..... 전국에 몇 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특산품판매점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8페이지 하단부에.....

○위원장 최정욱

58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을 우성자 위원님이.....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거기도 같이 2개, 2개.....

○위원장 최정욱

같이.....

○관광과장 서길수

예, 금방 그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하단부에 시티투어 운

영,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 추세에 있어서 이런 추세를 내년부터 봐가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589페이지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추세를, 코로나 추세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청정완도 가을여행 CF 제작 홍보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 가을에 저희들이 청산도뿐만 아니라 완도전역이 슬로 시티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도 전역을 가을여행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일단 편성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편성해 봤다가 내년에 추이를 한번 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이것도 삭감?

○관광과장 서길수

아니,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어차피 봐서 내년에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서길수

내년에, 내년에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추경에 해도.....

○관광과장 서길수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90페이지 하단부 장보고수산물축제 관련 CF 홍보비, 이 두 건은..... 저희들이 금년도 장보고축제, 내년도 장보고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

하나씩 하고 갑시다.

장보고축제 그 홍보요.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보고축제를 하게 되면, 수산물축제를 하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은 안 오고 우리 향우민들, 기존에 있는 향우민들만 오고 12개 읍면 군민들만 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딱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서길수

지금 매년 장보고축제를 유명연예인으로 해서 간선 광고 CF 광고 제작비로 지금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하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보면, 매년 보면 외국인들 잘 안 와요. 거의 어떻게 보면 군민들 축제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이런 수산물축제라고 그래서 뭐 수산물축제를 한다거나 뭐한다고 해서 홍보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인지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이것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것 슬로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뭐..... 우리 향우민들은 뭐 다 그렇게 공문으로 통보하면 다 오는 것인데. 꼭 굳이 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야 되는 것인지.

○관광과장 서길수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보고축제 방

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 완도읍 주민이나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장보고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다른 행사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장보고축제를 하면 거의 뭐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관광과장 서길수

축제 부분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수산물축제..... 내년에 해조류박람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수산물축제에다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뭐 노르딕워킹 대회를 한다, 뭐도 한다, 이것 한다, 저것 한다고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 수산물축제 쪽에다가 이 핑계를 대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만큼의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처럼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덧붙여서 내가 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났어요. 행정사무

감사에 이번에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 것도 다 잘못 조사가 된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내비치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형식적으로 하고. 오늘은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그날은 적게 올라오고, 그 뒷날 적게 왔는데 많이 온 것으로 해버리고. 이제 그것이 인구통계조사가 어떠냐면 2번에 거쳐서 어떠냐면 읍면에서 온 사람들을 다 관광객으로 조사해 버리고. 이런 통계도 안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지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이제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도 많이 얻었고. 방금 김양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효과가 크게 없다면 군민들이 다 느끼는데, 이제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국제해조류박람회도 취소되고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잘 좀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제1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 환경부 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국립공원사무소를 당초에 매립지에 지으려고 설계까지 나와서 건물까지 헐었는데 지금 방향을 틀어서 부지를 다시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화흥리 서초등학교하고 환경부에 신지 제1주차장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매매 형식의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국립공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대토로 한다면 동의를 해준다고, 거기까지는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재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그 부분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597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제2관리사무실 증축입니다. 지금 제2관리사무실이 현재 신축된 기후치유센터에 위치해 있었는데, 기후치유센터를 지으면서 그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2관리사무소에 매년 거기에서 해상구조요원들이 상시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현재 임시로 컨테이너에서 금년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비를 지금 계상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치유센터에 있으면서 철거한 부분이죠? (예)

그러면 치유센터가 완공되면 그것을 보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치유센터가 아니고 기후치유센터 부지에.....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했었는데. 지금 그쪽 옆에 치유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다한 다음에 완공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과장 서길수

거기 앞에 부지는 해양 모래사구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치유센터 앞쪽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의 위치는 이벤트 광장 앞에 화장실 옆에,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죠? (예)

잘 설명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보길 예송리 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인증 관련인데요. 블루플래그는 신규 첫해하고 재인증이 필요..... 다음해에 인증비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년 이후에는 계속 인증비가 매년 500만 원씩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데. 신지는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500만 원이고요. 예송리 해수욕장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2년차이기 때문에 그 인증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0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에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구입비는 이것은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구입비가 1,560만 원, 거기에 각각 남은 음식포장용기하고..... 포장용기가 400만 원, 포장봉투가 1,160만 원, 그다음에 종이수저집 구입과 위생마스크가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560만 원이고요. 덜어먹기 위생용품 구입비가 위생찬기 등 앞접시 등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후에 없다는 얘기겠네요?

○관광과장 서길수

예, 1시에 금당으로 군수님을 모시고 설명회.....

○위원장 최정욱

우선 우성자 위원님. 586페이지, 스마트 전자지도 제작비 있죠.

○우성자 위원

예, 그것하고 아까 완도에서 한 달 살아보

기 그것은.....

○관광과장 서길수

그것은 추경에.....

○우성자 위원

추경에 하기로 했죠?

○관광과장 서길수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전자지도는 연초 때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장 최정욱

581페이지에 7페이지는 다 됐죠?

○우성자 위원

예.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은 2차 삭감조서 때 더 하죠.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2차 삭감조서도 있죠.

○위원장 최정욱

2차 삭감?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예, 2차 때.....

(「아니, 일단 가시라고 하고 2차에서도 봐 보면.....」 하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부족한 부분은 2차 때.....

○위원장 최정욱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관광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입니다.

193쪽, 지방행정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양치유산업 등 군정 주요 역점사업 홍보 광고 3,300인데요. 이것은 신문사 지면을 통한 특산품 역점사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보고수산물축제 광고 2,200만 원.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광고, 이것도 신문사 지면을 통한 축제 개최 시에 광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 활용 농수축산 특산품 홍보는 지면, 신문사, 인터넷도 광고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정영상 홍보 전광판은 지금 현재 용산역라든지 광주 송정역, 서울 광화문 등 이렇게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광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라든지 KBS 사옥 이런 곳은 영상을 전광판 형태로 광고하는 것을 같이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여기라든지 주

요..... 다중이 집합하는 공간에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완도 홍보 캠페인 광고는, 이것은 KBS, MBC, KBC 등 중간 중간에 스폿 광고라고 하는데요. 드라마라든지 뉴스 중간 중간 그때에 우리 전북이라든지 특산품 또 해양치유산업을 광고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 등 간행물 구독료가 3,69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기획예산담당관 등 이 예산에서 신문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정기록 보존 사진 인화료는, 이것은 일반적인..... 옛날에 비해서 직접 인화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 전경사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화를 해서 우리 읍면에다가 배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는, 이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사용료는 연합이라든지 뉴스1, 뉴시스, 통신사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군 대표 SNS 광고 1,200만 원이고요. SNS 기자단 발대식 물품 구입,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영상 카메라 소모품은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물 편집프로그램 구독료는 이 프로그램 구독료가 되겠고요.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은 지금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청 홍보팀 직원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콘텐츠에 한계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주 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금년에도 수빙수를 통한 우리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많

은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빙수 같은 경우에는 편당 40~50만 정도 구독자가 접속을 했고, 완도나이스는 약 5,000만 명..... 5,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접속을 했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용료 100만 원, SNS 홍보 물품구입비는 12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첫 번째, 전복 판촉 6시 내고향 특별방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전복이 시기적으로 집중 출하될 시기나 이럴 때는 6시 내고향을 통해서 특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시 내고향뿐만 아니고 전국시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를 골라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안도, 생일도 가고 싶은 섬 특집방송인데요. 금년까지는 생일도만 했는데 소안도까지 넣어서 지금 같이 특집방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해조류 포털 및 유튜브 홍보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조류 생산시기에 맞춰서 매생이, 미역, 다시마, 김, 톳을 포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조류 생산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급적이면 방송하고도 연계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세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해조류를 홍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홍보 전국시대 특집방송은 3,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어영차 바다야 10개 시군 공동제작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전남에 인근 수산 시군이 공동제작비를 출연해서 어영차 바다를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교양·예능 프로그램 제작 3,000만 원, 9편에 2억

7,000, 시사·정보 프로그램 제작 3,000만 원, 9편에 2억 7,000입니다. 금년 예산은 각각 6편이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품 홍보에는, 특산품 홍보라든지 군정현황을 홍보하는 데에는 교양·예능과 시사·정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가 큼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능은 12편, 교양은 약 41편 정도 유치해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워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있겠지만은 비대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어떤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방송 촬영 선박임차비인데, 이것은 방송에, 이것이 촬영할 때는 그 어업인들의 그 배를 빌려갈 때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 원 반영했습니다. TV방송 기록 보존용 저장장치 구입 288만 원, 각종 방송 프로그램 촬영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박인철 위원

그동안 쪽 해왔던 것들을 다시하고 그러는데, 평가는 한번,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지금 지면을 하는 광고는 지면 광고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지면보다는 영상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 지역 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약 4,700여 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영상을 통한 홍보가 앞으로 효과가 더 있다는 생각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2억 8,9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서는 딱 특정해서 바로 바로 성과분석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송을 한번 탐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더 판매된다든지, 인지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광고료가 6억 3,000이 되는데, 전년 대비 뭐 4,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이 6억 3,000이라는 우리 군비가.

내가 이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언론사 신문 광고료를 봤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뭐를 광고, 우리 군의 무엇을 광고하고자 했던 것인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했는가. 전혀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우리 광고가. 어떤 이러한 광고를 했으면 그 광고 효과는 우산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다 받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받은 것은 거의 없고 군 행정이 까라는데, 뭐 제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마는 군 행정이 태클을 거는데 그런 데에다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줬더라는 이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신문도 발행도 안 됐는데도 나가 있고, 전혀 그 신문들도 발행이 안 됐는

데도 그런 홍보자료들이 나가 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면, 신문지면 광고는 상반기, 보통 하반기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래도 중간 수신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는 전복을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고. 하반기는 광어를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광고를 보면 물빵 광고입니다. 해양치유, 해조류박람회, 물빵 광고입니다. 금방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시 적소, 시기에 따라 어떠한 그런 광고가 됐다 하면..... 그런 것을 뭐 소나기라 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리 어민들이 아니면 또 농민들이 이렇게 받아먹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해양치유를, 무엇을, 해양치유가 무엇이 있는가, 광고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고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해양치유 무엇이 있냐?” 그러면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노르딕워킹, 그다음에 요가. 그리고 해조류박람회도, 우리가 “하니, 마니.” 이런 입장에 있을 때도 계속 신문사들한테 해조류박람회 홍보가 나갔어요. 그런 돈들은 다들 아껴야 할 돈들인데. 다 다른 데에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써야 될 광고들인데. 내가 봐보니까 거의 해조류박람회.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를 “하냐, 마냐.” 하면서 대행사에다가 다 스톱을 시켜놓고도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나갔더라

고요, 그런 광고들이. 그런 것은 컨트롤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연초에는, 금년 연초에는 이 박람회가 정상 개최될 것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좀 홍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박람회 쪽은 가급적이면 유동적인,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제를 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연초에..... 연초에 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광고가 나눠주기식 광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아니면 우리 군정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거의 신문사들을 쪽 봐보면 뭐 맨 위의 신문사부터 저 밑에 인터넷 신문까지 해가지고 거의 나눠주기식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예산들은, 그 6억, 7억이라는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여기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방송사들 뭐 1억, 1억, 뭐 2억 몇 천씩 하는데. 이것 진짜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저도 이제 출근하면서 라디오, 7시부터 나와 가지고 라디오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들은 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군은 거의..... 저번에도 뭐 12시에 목포 MBC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나오더니만 요즘은 또 사라졌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것은 이제 기간이 경과돼서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 내가 3년 전인가 다른 시군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홍보비를 전부 다 훑어봤어요, 총액을. 그러

면 우리 군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특별하게..... 뭐 그해 연도에 홍보비를 많이 잡았는지, 다른 시군들이.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조금 '우리 군이 왜 이렇게 할까? 우리 군 예산, 홍보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인데. 집약적으로 우리가 못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자기 군,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자기 군 PR시대 아닙니까. 뭐 홍보 예산보다는 예산이 더 세워지더라도 진짜 적시 적소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라고 내가 이렇게 재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는 조금 그런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여튼 내년도라도, 2022년도부터라도 진짜 적시 적소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 관리용역, 관리운영계획 용역 5,000만 원 사항입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 시설과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이용객의 서비스 및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해양치유센터 시설관리계획,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계획, 해양치유센터 고객 관리계획, 해양치유센터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호텔이나 리조트, 테라피 시설, (청취불능) 시설 등의 경우도 총괄 매니저, 새내기 매니저급 직원이 총괄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범 운영한 후에 최종 오픈 전까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제품 구매 3,900만 원입니다. 해양치유센터 내에 1층에 머드 테라피실이 있고, 2층에는 해조류 머드 (청취불능)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머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르딕워킹 리듬체조 개발 및 동영상 제작 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르딕워킹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의 좀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리듬체조를 개발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리듬체조를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동영상 제작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입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은 치유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연계해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인데, 아직

치유센터가 준공되지 않아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제 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연계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체험비를 징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노르딕워킹대회 유치입니다. 6,000만 원입니다. 내년 장보고수산물축제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동호인부하고 일반부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한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노르딕워킹 3개의 코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이용해서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홍보에 효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해양치유공원 운영 재료구입비 중 해조류 파빌리온 석포팩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치유공원이 2022년, 내년 4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7개의 파빌리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조류 파빌리온은 해조류를 활용한 마스크팩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퀴진 파빌리온 해초샐러드 구입비는 거기에서 시식하고 시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해초샐러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조류 유래 미세먼지 독성 저감물질 발굴 연구 지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서 지금 학술상으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학술적으로만 나왔지,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해조류 추출물에서 처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타깃, 해조류 추출물을 선별하고, 나중에 향후 치료제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

는 데까지 연결하기 위한 그런 사전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해양치유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정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여기 시설운영 관리계획이요. 이것 용역보고에서 그 때 7,000만 원이 올라갔고 또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 범위를 보면, 과업에 보면..... 이런 것들이 꼭 용역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여기에 이제 5,000만 원 중에 거의 한 2,300만 원이 전문가 활용 비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센터를 짓고 있는데. 시설 관리계획이나 또 프로그램 고객관리, 뭐 홍보.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것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전혀 뭐 우리가..... 그 뭘니까, 노르딕워킹 빼고, 요가 빼고 하면 해양치유가 지금..... 우리 완도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무슨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설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것은 아직까지 치유센터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치유센터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좀 매뉴얼을 작성해 놔야 운영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이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좀 작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저기.....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 관리계획이나 이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짓고.....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건물을 지어서.....

○박인철 위원

아니,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지어지지. 그러면 그것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그 계획을, “이 용도로 어떻게 사용한다.” 그런 계획을 잡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저희들은 일반적인.....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운영 매뉴얼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돈이 600억..... 얼마 들어갑니까. 해

양치유센터 저것 뭐 하는데, 저 하나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320억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돈이 320억 들어가고. 그 옆에 또 건물에다가.....

그러면 지금 해양치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총괄 얼마가 들어갑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한 800~900.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보며)

김광호 담당관님, 팀장님 얼마 들어갑니까, 토탈?

우리 김광호 팀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영균 팀장님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해양치유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돈, 총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0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데. 그것도 전부 국비만 된 것도 아니고 군비가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먼저 그런 계획들이 서고 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떻게 이익 창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담당관님이 그런 건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것이 이제.....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또 변경 설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하다 보면 부분적인 설계 변경이고요. 그래도 그러나 운영에 대한 것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 같은 것.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옆에 놔두고.

머드팩은, 이것 뭐 당장 급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뭐가 되어야 머드팩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이 부분은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치유센터가 뭐 올, 내년 12월까지지는 완공이 됩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내년 12월까지지는 완공이 됩니다.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어떻습니까, 우리 김광호 팀장님?

○해양치유시설팀장 김광호

(좌석에서) 예, 현재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내년 12월까지지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인철 위원

12월, 그러면 뭐 당장 필요한 크게..... 뭐 어떻게습니까, 담당관님?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시급하게는.

○박인철 위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행사 운영비인데 어떤 것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지금 이제 읍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재 까지, 금년까지 해오던 프로그램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담당관님, 노르딕워킹이네요 요가하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기후치유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기후치유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공식을 했는데 내가 갈 때마다 문 닫아져 있던데요, 문이 잠가져 있던데요. 뭐 하는데 이런 건물들을 시급하게 지었는가,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다른 더 시급한 데에, 코로나 이런 데에 또 대응..... 내가 꼭 그런 날만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냐, 해양기후센터, 치유센터 그 현장을 진행사항 좀 보고..... 우리 군민들이 하도 관심이 많아서 대답해 주려고 꼭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문은 잠가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준공식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노르딕워킹은 제가 뭐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치유공원이.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범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운영주체는 아직 안 나왔죠?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여기에도 치유센터와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공단에서 같이 운영을 맡기든가, 아니면 지금 마을 쪽에다 마을기업 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마을에서는 “운영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지금 다시 이제 치유센터를 전체적으로 치유시설을 다 누가 하나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재료를 우리가 사주면 무료로 관광객들한테 나눠줍니까, 아니면 다 일정 부분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무료로 하고, 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팩도 그렇고 셸러드도 우리가 준만큼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이것은 작년도인가, 제 기억에는 수산경영과인가 정책과에서 조류학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미세먼지 뭐 한다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때 되어 가지고 우리도 다 올라오고 뭐 수산경영인들 오고 뭐 여럿이 완도에서 와 가지고, 여러..... 뭐 국무총리에서 누가 오고 청와대에서도 오고 이상 와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것은 이제 수산경영과에서 2019년도에 했던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에는 해조류 활용 및 산업화 방안 연구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논문 등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심포지엄을 미리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 미세먼지 해조류가, 나는 조류학회라고 하니까 무슨 새 학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나도 의아해 가지고 가봤는데. 보니까 뭐 군수님 기념사부터 해가지고 오신 분마다, 사람들마다 다 뭐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탁월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것은 아무 연구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학회 쪽에서, 외국의 논문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하더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으니까, 바이오연구센터에 의뢰를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해조류가 왜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효과가 큰지 정확한 연구, 과학적인 데이터를 좀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 해양정책과에 보면 또 뭐 해조류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인가 또 왔던데. 이번 예산에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어떨 때는 수산경영과, 어떨 때는 해양정책과, 어떨 때는 해조류 담당 이래 가지고 해당 과마다.....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돈이, 예산이 좀 들어가도 확실히 학술적인 것도 평가를 받으려면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내가 알기로 이번에도 해양정책과에서도 지금 뭐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해조류 심포지엄으로 해가지고 또 성격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와 있던데.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의 생각은 바이오연구센터에서 기본적인 과학적 증명, 입증이 되고 나면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좀 사업규모를 키워서 더 연구를 진행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뭐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좀 받아와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것으로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방금 말한 그 미세먼지요.

해조류에 대해서 우리 군만 이것 해도 되나요? 타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수산발전 위원회라고 섬으로 이루어진 그 군 같이 뭐한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해조류는 같이 협조해서 얼마씩 건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우리 완도군만, 해조류만 해놓으면 다른 타군은 우리 때문에 다 했거든요.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완도산 해조류가 효과가 크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하면 좋겠지만, 우리 완도군의

해조류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정욱

이제 만약에 진짜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하면, 바로 이 용도로 하면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 수산에 가까운 시군, 바다로 이루어진 도서와 협의해서요. 진짜 이것을 우리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더 좀 건너서라도 제대로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미예요. 우리 군만 하면 의미 없다고 나는 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타지자체하고 한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해양치유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설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도군 지방행정동우회 군정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방행정동우회 법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지난 해에 한 2,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군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는 데에 일부 사용을 했고요. 또 우리 군정시책 제안 분야에 워크숍 개최가 있었고, 환경정비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우리 완도 스마트치유마을 운영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2,16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60세대를 스마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응급안전 및 말벗 서비스 단말기 사용료가 연간 850 정도, 86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고 있고. 또 응급안전돌봄 시스템 중에서 관리서버 유지보수비가 한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60세대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비용이 한 1,400여만 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또 치유센터 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장비 유지보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4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그 다목적강당, 다목적센터 안에 치매예방 실감미디어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놀이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2,1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수탁기관 아들래에서는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화 회선료라든지 인터넷 회선료 또 TV 수신료, 상하수도 사용료, 이 부분들은 위탁기관인 아들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총무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행정동우회가 작년에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든 지원을 다 해주게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한희석

지방행정동우회법상 이제 6조 안에..... 2호, 3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상의 근거가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요구하면, 계속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동우회하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이 행정동우회에서는 주장을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계리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공직에 계신 선배님들인데. 더 행정을 더 잘 알 것이고 모든 것을 알 것인데. 민간인, 다른 군민들한테 쓰일 돈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사업비,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져간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이것은 운영비 성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사업비 성격은 결국은 보면 운영비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매년 나갈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동우회하고 먼저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까마는 선배 공무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금 난감한 점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들은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스마트치유마을, 전부 다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비용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 장비 뭐 보수.

○김양훈 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면 들어간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상수도, 하수도 뭐 그런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그 아들래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요?

○김양훈 위원

예.

○총무과장 한희석

거기는 저희들이 전화 회선료 하고, 그 AI 바리스타 같은 데 보면 인터넷 회선료, 그리고 힐링하우스에 있는 TV 수신료, 또 거기에서 쓰는 물, 상하수도 사용료 이 정도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는 큰돈이 안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이 간담회할 때, “모든 비용을 좀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 너무 어렵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하자.” 그랬었는데. 그럼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한 것은 완전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회신료밖에 아닌데.

○총무과장 한희석

그 당시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핵심내용은 “스파를 이용하다 보니 그 스파에 대한 전기 사용료가 대부분의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스파 이용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양해를 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부 사용료인데, 이것이 아들래에서 부담시키기 좀 애매한 장비 유지보수비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예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결국은 보면 그쪽 그냥..... 그쪽에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

○총무과장 한희석

그 예산 안에는 지금 다 담지 못하니까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에 올렸던 이 예산 2,160

만 원은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련된 예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이제 막 시설해서 프로그램이 다 잘됐을 것이고. 뭐 유지보수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최신형으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시킬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웬 예산 그런 것은..... “거기다 다 보조를 해주자.” 이런 뜻으로.....

○총무과장 한희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예산은 거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거노인 60분을 저희들하고 KT하고 연결해서 관리하는 비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1,300~1,4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이것이 과장님, 뭐 스마트치유라 해가지고 어딘지 몰랐는데. 그러면 불목리 거기라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말했던 독거노인들 어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불목리 마을 독거노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

서.

○총무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 불목, 영풍, 영흥 이렇게 6개 마을에 대해서 이 공모사업에서 치유센터만, 건물만이 그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그 치유센터에서 관리, 6개 마을에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총 6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래서 단순히 대면관리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요즘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노인을 케어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일일이 하루에 한 번씩 뭐 안부 전화를 해줍니까, 아니면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거기 60가구, 가구에 저희들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말벗 서비스라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말벗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에 대해서 집안의 노인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마다. 그럼 이 노인이, 어르신이 평상시에 활동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든지. 쓰러지고 활동이 없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우리 스마트 치유센터하고 119에 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뭘니까,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관리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곳에 가면 24시간 상주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시간이 좀 달라서 스마트치유센터가 열리는 시간대에는 위탁기관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또 119하고 같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급사항이면 동시에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160만 원에서 그런 것을 뺀, 공적인 그런 것을 빼고 그러면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한테는, 받은 분한테는 얼마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한희석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2,16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을 케어하는 데에 한 1,360만 원.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자가측정 헬스케어 서비스라 해서 심박동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케어를 하는 서비스 유지보수를 하는데 한 400만 원. 그다음에 그 안에 위원님도 또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마는, 치매예방이라든지 실감미디어 영상실에 있는 장비, 그 장비가 연간 한 400정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대상이어서 2,160만 원은 다 그런 예산으로 지금 집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했던 그것은?

○총무과장 한희석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전기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파를 사용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겨울에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한 150 정도의 전기 사용료가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빠져 있네요, 그런 것은?

○총무과장 한희석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박인철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민들이 뭐 겨울에 스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전기료가 뭐 한 달에 150 들어가고 뭐한다는 데. 이 예산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총무과장 한희석

예, 그 예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피 이것이 그 스마트치유마을 자체가 예산이 확실히, 수익이 정확히 예측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다 보면 저기에 우리가 수익이 나갈 것은 이미 예상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석 달 정도는 전기세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되, 거기에서 한 달간 운영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좀 올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안 가면 그 위탁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제 그 스파 같은 것을 사용을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일단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 시설물 관리예산에서 조금 지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총무과장 한희석

포괄적으로 우리 군 시설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아니,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목으로 정해놓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운데 없으니까. 그러면 시설은 해놓고 지금 사용은 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시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예, 지금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마을 분들이요?

○총무과장 한희석

예,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행정동우회를 사회단체라고 보니까 아니면 팀워크 단체로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희석

과거에는 그 공무원들 퇴직모임이라 해서 사적모임으로 규정을 해왔다가 정부가 이것이 지방행정동우회법을, 법령을 만들면서 그 법령 안에다가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법령에서 공포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예산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이제 이런 예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이것 정당하게 사회단체로 볼 수 없

네요?

○총무과장 한희석

이제 정부가 그 법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줘서 이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래도 이것이,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 근거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희석

예, 어차피 예산 지원 근거는.....

○위원장 최정욱

금방 우리 의정동우회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총무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예산 지원 근거는 국가가 법령을 지정을 해놔기 때문에 근거에 모순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1억 2,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조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이 해조류에 대한 관심과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4개 교 4,6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요. 공급업체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업체에서 148개의 품목이 제공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7억 원. 완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 3,000만 원. 학교 교육시설 지원으로 금일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5,000만 원. 화흥초등학교 골프장 보수 5,000만 원. 노화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억 원.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2억 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2,400만 원. 시설비로 명문고 만들기 우수교사 숙소 개보수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5쪽, 시설비 섬마을로 커뮤니티 공간 증축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여성가족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이것 혹시 가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설문조사를 보면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기에 1회 이상은 현지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조류하고 친근감 있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실상적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영양사라든가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전혀 다 안 먹는다고 합니다. 다 안 먹고 다 버린다는데..... 이것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운 예산이죠. 아이들이 전혀 안 먹고 다 버리는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년 나는 이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운영도 뭐 다른 성과, 아니면 정 안 먹으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매년 얘기한 것 같은데, “가공식품 만들어서 아이들의 입에 맞게, 그래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고 매년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똑같더라고요. 전혀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그 사업.....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훈 위원

꾸준히 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일사분기에 책임지고 제가 직접 학교를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그렇다면 추경 때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민들도 그렇고, 해조류를 하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굳이 뭐 안 먹고 버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그것.....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9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완도초등학교 외국어 체험센터로 쓰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오래됐고 노후화가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은 외국어센터로만 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4차산업에 맞는 AI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증축을 해서 우리 완도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완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차산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확대 개편을 위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총 이것은 한 26억 정도 됩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지금 (청취불능) 아니고 학생들한테

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만 사용하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4차산업하고 맞게끔 구축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

구체적인 무슨 예산은 안 나왔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총 예산은 26억으로 지금.....

○김양훈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지금.....

○김양훈 위원

교육청에서만 지원.....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우리 군에다가 대응투자를 해주라는 그 얘기죠?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관님, 저희들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페널티 먹는다고 해서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다시 대응투자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지금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총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이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그대로 규정이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예산에 지원했을 때는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조항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 고민하다가 작년도에 아마 어느 정도 범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를 재정적 페널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야지. 어느 지역은 대응투자를 페널티 먹으니까 안 해주고, 어느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2019년 전까지는 제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대응투자를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을 뺀히 아는데 페널티를 먹고 교부금 못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와서는 뭐 주민하고 상관 없이 주민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같이 사용을 하고 판단해서 대응투자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뭐 주민들하고가 아닌 그냥 자체적으로 학교 이렇게 한 사업 같은 데도 이렇게 대응투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3월에 교육청하고, 방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전혀 교육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하되 각급 지역마다 갔을 때..... 각급 학교에서 예산을 계속 요구한 것이 20억, 30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래서 “올해 행정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줘라.”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사업범위 내에서 현재 네 군데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김양훈 위원

요즘에 교육청 예산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4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과정,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되는 의안도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년 완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작년에 2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20억으로 100억 정도가 군 단위에서는 더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명문고 만들기 우수교사 숙소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왜 군청,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2003년 11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년 되겠습니다. 그때 완도고등학교 명문고 학생 육성 차원에서 현

대아파트 3동을 우리가 구입해 났습니다. 이것은 장보고장학회 재단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도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지고 1동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내년 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2동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 20년이 넘도록 도배, 장판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교체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양훈 위원

우리 군 재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우리 군 재산입니다. 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환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도고등학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 보수는 해놓고 또 환수 부분이나 앞으로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모든 사용료는 저희들이 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본인 부담이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그 우수교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교사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거기에 사는 교사들이요.

○김양훈 위원

그 모든 것.....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무상임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예, 무상임대로.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예, 제가 할 말은 김양훈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학생들이 음식을..... 취지는 좋으나 안 먹고 다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보면 모르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나는 지금 설명한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재설명하라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먹게끔 호소를 하셔야 되는데, 1차 때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을 하고 나니까 명문고 만들기도 다시 설명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재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구두설명을 듣고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렇게 오고 가고 안 할 텐데. 과장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다시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알려줬잖아요,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도. 그러니까 다음부터 재설명을 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알아먹고 공감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그 부분을 정말 저희들

이..... 나는 그때 당시에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의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온다고 하니까 확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예산담당관과 어떤 예산팀장은..... 학교에서나 학부형들이 그만큼 대응투자를 “1억만 해줘라. 5,000만 원만 해줘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돈을 5억을 더 갖고 올 수 있다. 10억을 더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전부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군수님 면담까지 해가지고도 이렇게 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니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얼마만큼 페널티를 먹습니까, 이 예산 대비? 몇 억을 페널티를 먹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안 하다가 금년에 청해초등학교 3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페널티가 어떻게..... 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가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페널티를 아직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형평성을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저도 읍면

현장에 있을 때 읍면 체육관을 짓는데 대응 투자 부분이, 해보려고 하니까 “전혀 안 된다. 방침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우리 군에서 정책방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인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을 거스르고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또 어려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보고장학회 장학금은 페널티를 먹지 않는다 해서 장보고장학회에서 어느 정도 그 대응투자를 해줬단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장보고장학회에서 우리가 150억이 끝나가고 200억을 하자고 해가지고..... 보통 해년에 대략 25억씩 장보고장학회에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쪽 관계하고는 또 어떻게 되어 가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어렵다. 그것은 페널티를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예외적으로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할 방법을 그때 고민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또 한계가 뭐였냐면 장학회는, 장보고장학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보고장학회 정관은 시설사업은 전혀 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수요가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대응투자를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도 장보고장학회를 통해서 시설투자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정관을 훑어보지 않고 전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 말인데, 장보고장학회에서 좀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학교 측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흔한 예로 완도중학교도 급식실하고 영상실을 지을 때 우리 완도군에서 단 5,000만 원도 좋다. 안 그러면 대응투자, 계약서라도, MOU라도 하나 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도에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도 안 해줬어요. 돈 그때 도에서 2억만 대응투자를 해주면 돈을 10억인가 더 준다고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뒤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뭐야, 시청각 교육까지 하계끔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말았던 말입니다. 완도중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슬그머니 이렇게 또 해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그런 쪽 학부형들이나 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가서 할 말이 없다 이것이지요.

기껏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보니까 군수 시정연설에 좀 올랐던데. 그때 5.48%인가 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페널티를 먹어버리면 예산은 배를, 지원의 배인가를 삭감해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수궁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 그분들한테는.....

학교 재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동문들한테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됐고요.

과장님,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도교육청에서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약 5,7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의 앞으로의 특기가 어떤 농업 체험이나 또 헤어디자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특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쪽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자기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년마다 받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다가 대응투자를 한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줬기 때문에 뭐 3년이나 이럴 때하고 뭐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감사는 아니더라도, 타 기관이니까. 그런 것은 한 번씩 받아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정산서뿐만 아니고 진짜 한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원래대로, 원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정산서 다 맞추겠죠. 기

관과 기관인데 정산서를 안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우리가 타기관에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한번씩 받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 아니면 스톱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하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315페이지 됐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미세먼지 완도산 해조류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영양사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초중고 학부형들 있죠. 설문조사를 하세요. (예)

집에서 먹는 횡수가 더 많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영양사한테 맡겨 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서 참고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민원봉사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에 놓여준 빈집 정비사업 조사용역 7,5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이 2021년 4월 13일 개정되면서 “군수는 빈집을 실태조사하여 통계자료에 의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읍면 직원, 이장 등에 의하여 단순조사로만 통계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기관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에 대한 조사항목이 세분화되면서 소재 및 관리 상황, 방치기간, 빈집 및 그 대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 빈집 발생사유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빈집 정비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가량이라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귀농, 귀촌, 귀어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견적을 산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내년도에 완도군의 모든 빈집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민원봉사과장님의.....

○우성자 위원

(좌석에서) 아니요, 한옥마을.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그것도 같이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다음은 한옥마을 조성 시설비입니다. 약산 한옥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3억 5,000만 원입니다. 약산 한옥마을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구암리 마을에 한옥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안정적 귀촌생활 정착과 주민 역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25동이 분양되어 17동이 완공되었으며, 8동은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구암리 이장으로부터 센터 건립 거래서가 접수되어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당초에 약속한 입주민들의 소통 공간에 커뮤니티센터가 설립되어 행정의 신뢰가 하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민원봉사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과장님, 이것 그때 우리가 여기..... 회의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약산 구암리 한옥마을 말씀입니까?

○우성자 위원

예, 한옥마을.....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때 저희들이 마을하고..... 지금 그 현재 한옥마을 (청취불능) 에서 주민동의서랑 마을 이장들 협의서를 말씀하셔서 그때 설계, 뒤에 좀 반영하기 전에 마을이장님이 지금 개발위

원장을 검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 건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할 때 그 동의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장 한 사람 사인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안 맞나요? 이것이.....

(「예」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들,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 그때는 우리가 그 마을에서 진짜 이것이 협의가 잘되어 있는지, 커뮤니티센터를 꼭 지어야 되는지, 파악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또 몇 사람 의견일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개발위원장님과 마을이장님..... 그러면 그 개발위원장 이름도 써와야 되죠. 그런데 이장님 한 분만 사인해가지고 와서.....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한 사람이, 이제 물론 한 사람이라고 금방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한 사람일지라도 직함이 2개면 2개를 써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봐서는 과연 이것이 진짜로 합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그 개발위원장은 마을이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제출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 예.

그리고 그 빈집 정비, 그것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에서 이장들이 하고 직원들하고 했는데. 과연 이것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그래서 전문기관이, 국가에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기관이 지금 한국국토정부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이런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입찰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당초에 30..... 나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옥마을 당초에 30명인데 변경이 20명,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재값 상승 이것.....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마을에, 한옥마을센터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처음에 마을 지분 30평 정도를 요구해서 예산 3억.....

○우성자 위원

아, 30평.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예, 30평 정도면 가능할지 알았는데. 인건비하고 자재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현재 20평 금액으로밖에 설계도 안 되고 건립이 안 됩니다.

○우성자 위원

20평으로 짓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실 분은 하시고.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이것 확실한 것은 예전의 그 마을과, 한옥마을과는 분쟁이..... 민원이 서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잘됐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것 협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오는 조건을 받고 하시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삭감 안 할 경우에.....

○조인호 위원

(의석에서) 이것 책임을 과장한테 지라고 하면 돼. 이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돼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협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을.....

○조인호 위원

(의석에서) 그것을 떠나서 과장한테, 과장님이 책임.....

○위원장 최정욱

그래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실히.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장 최정욱

자기가 책임지라고.....

○조인호 위원

(의석에서) 아니, 속기록이 있으니까. 책임을 묻는다고 했으니까요.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정욱

이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저희 과 보충설명 347쪽,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장보고장학회 사무실 임대료 1,6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12월 말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양치유담당관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담당관실을,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구내식당 2층에 장보고장학회하고 법률구조공단이 들어있었는데 거기를 빼내고 해양치유담당관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단체를 (청취불능) 2층에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한 쪽..... 그러니까 칸막이를 했죠. 이제 한 가운데에 칸막이를 해서 한 쪽은 장보고장학회, 한 쪽은 법률구조공단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서 2020년, 2021년 임대료를 계속 지원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계속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설명할까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예, 계속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다음은 3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아래쪽에 진개덤프 구입 고금하고 생일 청소차인데요. 지금 8년이 경과되어서 2개 읍면에 청소차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

에 제가 예산설명을 할 때 김양훈 위원님께서 “고금은 쓰레기 배출량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일반 진개덤프차보다는 압착식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이 어떨겠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고금면 의견을 들어보니까 고금면장의 이야기는 “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그래서 일반 덤프 청소차보다는 압착식 청소차를 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이 지금 차 한 대가 9,000만 원인가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5,000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기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랬더니 “조금 늦더라도 압착식 청소차를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이 관련 건 예산은, 부족한 4,000만 원은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고금 건은 그때 사주고요. 생일 건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충자료에는 그 설명 요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항목란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구 준설차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예산 설명할 때. 1억 7,000,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건은 지금 3억 5,000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1억 8,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고요. 예산은 6월에 집행해서 청소차를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구 준설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세무회계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보고장학회 사무실 임대료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재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보고장학회 사무실로만 쓴다하면 그쪽 장보고장학회에서 지출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률공단이 같이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개덤프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다들 받으려고 재설명에 넣었습니다. 꼭 추경에서 확보해서 압착식으로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마음치유 프로젝트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의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검진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일상으로 복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1억 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중

건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업체는 전남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하차시설물 정비 2,000만 원과 남양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하차시설물 정비사업은 장옥 지방 빗물받이 누수로 인한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서 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보수입니다. 남양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5일장 개장 시 거동이 불편하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노점상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양시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공중화장실로 운영하고자 남양시장 회장님과 협의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2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미운영되고 있어 내년까지 운영 의무화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센터 업무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컨설팅 지원 등 지역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용역비는 가스 공급현황 종합사무실 및 콜센터 운영, 완도읍사무소 설치 운영 및 안전관리 인원 상주, 매월 전용 차량을 활용한 배관망 점검, 매일 수용자 방문점검 및 굴착공사 현장 입회 등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2022년 청산 슬로건기 축제 순환버스 증차 운행비 지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에 버스 1대가 운

영되는데, 5대로 증차 운행에 따른 운행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조내역은 6대 3,5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축제가 없어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예, 과장님. 여기 373쪽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라남도에서 1시군 1사회적공동체센터 설립 취지를 목적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군에, 시군에 할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센터 업무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 또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막무가내인 그런 사업입니까, 막연하게? 그러면 센터장,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예산이 되어야 센터장 누가 뭐하고 그러겠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제 이 사업으로 도에서 6월 중에 전라남도 심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사가 이루어지면 확정적으로.....

○박인철 위원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약자나 뭐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아니, 그러면 그런 계획 전혀 없이 그냥 도에서 하니까 그냥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추진배경은 사실 도에서 1시군 1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도비도 들어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도비 30%입니다.

○박인철 위원

도비 30%요. 그러면 그냥 예산만 확보해놔지, 특별히 뭐를 한다는 것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박영민 팀장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민

(좌석에서) 예, 이 사업은 당초 중앙정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목표는 1시군 1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제..... 지금 22개 시군 중 여기가 설치가 안 된 시군이 1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내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예시..... 나머지 14개 시군에 예산 가내시를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일단 설립을 해야 되고.

이제 주요한 사업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문제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희망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이요, 청산 슬로걷기 순환버스 증차 운행. 이것 과장님,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 지니까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가지고, 뭐 차량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완도에서 차가 급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철 위원

아니, 이 슬로축제 시기에 증차 운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또 거기 차량들을 밑에 하는데 또 비용을 주죠, 관광차?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축제 기간에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올해도 보니까 관광객들이 갑자기 오니까 그것을 전부 이용이 안 되어 가지고 완도에서 막 관광차량들이 급하게 들어가고 그러던데. 그런 것하고는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제 완도에서 들어간 차들은 예약제로 해 가지고.....

○박인철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이 청산에서 안 되니까, 청산에 차를 안 가져오신 분들이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순환버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완도에서 차량들

이 막 들어가고 그러던데. 그런 것하고..... 그냥 내 개인대로 아니면 단체별로 차량들을 데리고 오는 것과 관계없이 뭐하던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청산에서 운영을 하는 순환버스 외에 보통 버스는 다 예약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약제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청산도에다가 슬로시티 기간 중에 해가지고, 순환버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주고.....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한 대분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일 때는.

○박인철 위원

팀장님이 안 왔네, 보니까.

그런데 미처 그것이 다 안 되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또 차량도 없는 사람들이 임차해 가지고, 순천에서인가 여수에서인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적시적소에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관광객 대비..... 관광객이 원활하게 청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박인철 위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뭐가 안 됩니까? 우리 담당팀장님도 안 오고 주무관도 안 왔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364쪽 의료 및 구료비 소상공인 마음치유 프로젝트 4,000만 원. 그때 예산이 너무 강하게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이 지금 1박 2일로 장흥 통합센터에서 하거든요. 한 사람당 한 40만 원, 그러면 100명 정도로 예산이 4,000만 원 되겠습니까.

○김양훈 위원

1박 2일이요? (예)

1박 2일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여기에 보면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검사를 한 다음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동맥경화 검사도 하고 또 체성분 검사, 소변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소금 찜질, 숲속 버스킹. 그다음에 둘째 날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명상이라든지 심리검사, 분석상담. 그다음에 통합치료라 해 가지고 종합 어깨, 손목 등 온열밴드 그다음에 뜸 치료, 이런 한방 (청취불능) 실시됩니다.

○김양훈 위원

거의 뭐 종합검사이구먼요. 지금 어디의 병원은 진행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장흥 통합의료원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김양훈 위원

거기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의료보험 혜택은 아마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우리 군에서도 하는 것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것이 도에서 당초에는 시군에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책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훈 위원

도에서 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책으로 작성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양훈 위원

장흥에 거기..... 통합병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 의료보험이 안 되나. 알아보신 것이예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것?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김양훈 위원

의료보험 그 조건을 알아보았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 조건을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의료보험..... 이렇게 다른 것은, 일부는 의료보험이 돼요. 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일괄 받아서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되면..... 이 돈이면 예산이 남는데. 안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수를 더..... 100명이면 200명 더 늘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가보자는 의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한 34만 원, 1인당 3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반절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늘릴 수 있으면 명수를 좀 늘리십시오. (예)

그리고 366쪽이요. 전통시장 하자시설물 정비.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체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양훈 위원

이것 몇 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3년입니다.

○김양훈 위원

3년이요? (예)

○우성자 위원

전통시장이 벌써 3년이 넘었나?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벌써 3년 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예, 2018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김양훈 위원

그것을 작년에 좀 빨리 발견해서 가지고 거기에서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예산서에 올라와서.....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이 하자라는 말이 좀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양훈 위원

이 하자라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바로 짚어서 바로 11월에 했으면 10월에도 충분히 이 예산서를 세울 때인데. 그때라도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신청을 먼저 했었어야죠.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것.

375쪽이요, 안전관리 용역비 LPG 배관망.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그쪽도 LPG 배관망 사업 위탁금을 받은 것에서 안전관리를 시행하죠? (예)

그러면 그쪽 사업체에서 안전관리비를, 이런 용역비를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는 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도나 신안 같은 경우에도 진도가 3,000세대인데 약 2억 3,000만원, 신안은 1,200세대인데 약 2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시군에서 다 용역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그쪽에서는 안 받겠네요. 안전관리 따로 저쪽에서 (청취불능) 선임하고 있네요. 거기 위탁을 받는 데에서 선임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원래 위탁을 받은 데에서 안전관리비를 전부 다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서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세워서..... 그 용역보다는 안전관리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매일 검사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하는 것이 맞는데. 뭐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남양시장 화장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 2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화장실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 상황이.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그것이 안 좋아서 2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했었는데.

남양시장 그 안에 있는 화장실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교통팀장 이양일

(좌석에서) 예, 경제팀장입니다.

그때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상당히 화장실 상태가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화장실, 중앙시장 내에..... 아니 5일 시장 내에 있는데. 자꾸 말 씀들이 저쪽을 이용하시는 노점상들이, 할머니들이 좀 화장실이 멀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 남양시장도 상인협회, 협의회장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같이 활용하게끔 협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을 갔었어. 너무 아 니어 가지고 거기 이용을 주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를 좀 하자 그러니까..... 너무 아니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 세워서 했거든요. 내가 하

고 난 뒤로는 안 가봤는데.

그러면 그때 대강 그냥 해버렸구먼. 환장하겠네.

알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빨리 하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화장실이.

○위원장 최정욱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하기 전에 예산심의 때 하는 설명과 이 보충설명은 다르죠.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위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심의할 때와 설명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업추진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불목 초등학교에 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치유산업 거점 공유와 치유농산물 가공산업 보도와 그다음에 유무형 자산을 집대화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초에, 12월에 농업..... 그 승인, 승인 작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내년에 아마 3월이나, 그 차후에 지금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그 액션그룹하고 거기에 그 사업추진을 할 때 추진단하고 행정협의회 그리고 전문그룹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지만 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활력 플러스 거점센터 조성 18억 1,000만 원인인데요.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21년도에 14억, 2022년도에 21억, 2023년도에 21억, 2024년도에 14억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2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나면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불목 초등학교가 굉장히 지금 낡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관을 정비하고 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특사업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18억 1,0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인건비.....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하고 있는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말합니

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그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아, 409페이지입니다.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9,0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친환경 논법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새끼 우렁이를 삼으로 해서 제초 효과를 갖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모내기를 할 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원예작물 재배농가 영양제 지원 1,6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산비 절감효과가, 수확량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이엠을 한다든지 생축진제를 한다든지 유기질 비료를 조달해서, 지급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18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150동에 4억 7,250만 원. 그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도비하고 보조매칭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들 그..... 농산물 생산하면서 그 생산품을 저온저장을 했다가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데에 쓰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업축산과장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요, 농산물 소형 저장고. 이것 참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어가들한테 인기 있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수요가 다 찼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명시이월 부분은..... 이것이 중간에 막 12월, 11월에 보니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 이제..... 그때 다시 교부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포기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포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대지를 그 구입..... 저온저장고를 할 장소를 마땅히 마련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뭐 사전에 그냥 신청만 해놓고 그런 것은 전혀 감안 안 하고 했던 사업들이네요, 이제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당초에,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요. 또 많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봐 보니까 포기한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나온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러면 신청을 못하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조사를 미리 전에, 10월이 됐든..... 어차피 10월 중에, 보통 10월 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여쭙보고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후순위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중간에요,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대타로 해서..... 그 당시에 신규로 사업을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말에 가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새로 이렇게 교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월하는 방법으로만.....

○김양훈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거나 허가를 내야 되죠?

○농업축산과 주무관 김형직

(청취불능) 대지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요. 농지나 그런 것은.....

○위원장 최정욱

대신 하시려면 마이크를 들고 서서 하십시오.

○농업축산과 주무관 김형직

전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지나 잡종지 이런 부분은 부지..... 그 설치할 부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작업만 해놓으면 그날 와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포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또 반영하고 했는데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도 지금 원자재 수급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가 안 되어서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지금 이렇게 완성이 안 되어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보면 농기계 저장창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또 있던데요. 그러면은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설계변경비가 많이 빠지던데.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좀 적게 들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농기계 창고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농가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갈 것 같아요. 예산도 좀 줄고 농가들한테 혜택이 있고, 이게 아마 좀 울산 쪽이나 그쪽 위에 쪽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한번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예산에 들어가게끔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소형 저장고는 지금 읍면에서 서로 주라고 빗발치는 사업이었죠?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어차피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읍면 신청을 받아서 순위에 올려서 군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빠꾸된 읍면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좀 한 곳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개선이 되지. 무조건 신청만 해놓고 넘어가겠다,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

니예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올해 그 사업을 받을..... 신청을 받으면서요,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청했던 사람, 그전에 신청했던 사람을 대조해서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그리고 읍면에 그 개발계에 통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만약 금일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빠꾸되었다면 다음에는 페널티를 줘서 한두 대씩 빠진다.”라는 이런 것 좀 물을 대충 만들어서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것을 주지해서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0페이지, 새끼 우렁이요. 이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해년마다 이 새끼 우렁이 사업이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이것이 그 도비하고..... 지금 뭐 도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안 좋아하시는데, 또 일부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제초제를 하고. 또 이 새끼우렁이가 어린 묘를.....

제초제를 하다 보니까 풀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어린 묘를, 다 나락을 먹어버린다고 다 굶어버린다고 그러고 있고. 나중에 수확하고 나면은 이것이 지금..... 그 전임, 전임, 전임 이순만 농업축산과장을 할 때부터, 7대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이것 한번 깊게 생각해서 좀 사업을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끼 우렁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우렁이가 월동을 해서 뭐 다음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403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이 사업은 당초에는, 당초에는 읍면별로, 읍면별로 분산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분산되어 버리면 사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에 집중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 농촌에 있는 유무형 자산을 한쪽에 집성하여 주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 아닌가요? “우리 농촌의 문화나 농산품을 갖고 4

차원 개발해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가들이 어울려서 그런 것도 개발도 하고, 그래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투자를 못하니까 우리 정책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보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하면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주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주체는, 내일 모레 교육이 끝납니다마는 아카데미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한 3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명 액션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액션그룹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우리도 관여를 하겠다. 거기에 관여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인데. 여기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에 보면 뭐 가공시설도 있고 로컬푸드도 있고, 뭐 계속 그.....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자기들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좀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그쪽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액션그룹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사업을, 내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집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이나 어떤 추진단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고 시작이 되면.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플러스 사업이면 우리가 저것을 완공했다. 그러면 운영을, 내가 말하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지원해 가면서 인건비 관리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위탁이나 금방 말한 그러한 어떤 협동조합에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을 한 것인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자체 운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자체적인.....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 있게 이렇게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지금..... 이것이 지금 일명 딱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까는 가칭 ‘대한민국 힐링 아일랜드’라고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이쪽에 와서 힐링도 하고 이쪽을 통해서 각 읍면에 가서 관광지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에 숙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이제 그..... 잠깐 저번에 우리 설명서를 잠깐 보여준 것을 봤는데. 거기에 뭐 카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럴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산물을 가지고 4차원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또 모여서 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그 문화와 그런 것 어울리는 어떤 어촌의 힐링.....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중점, 거점으로 해서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맞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지금 말하지만 협동조합에 따라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협동조합들이 와서 운영..... 자기들이 이용은 하되 관리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이예요, 두 가지 중에.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팀장님.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예, 농업정책팀장 김준남입니다.

저희들이 저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추진단을 법인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법인화를 해 가지고 모든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액션그룹을 발굴하는..... 지금 5개의 그룹으로 액션그룹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취불능) 운영하고, 이것이 되면 이분들은 협동조합이 법인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세를 주고 운영 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예, 세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우리 군비도 투입이 안 되겠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군비 투입은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위원장 최정욱

뒤로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가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관리가 이것이 되면 안돼서. 건물을 지어서 또 관리하면 이런 관리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이예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군에서.....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두 번째, 저런 것을 하려고 보면..... 좀 적어도 저런 것은 외딴섬, 즉 말하자면 읍면.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그 문화도 농민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모든..... 우리 기술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굳이 완도가 필요할까? 한다면 노화나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데, 금일이나 청산 이런 데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비계획 내용에는 지금 1도 1씩 해 가지고 12개 읍면에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민박은 민박대로 운영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 농촌 레스토랑, 이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접

근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던 분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도에 계신 분이. 또 섬에 있는 분이 섬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끝에 2019년도에 군외면 기관사회단체가 있어요. “군외의 불목분교를 농촌체험센터로 운영을 해줘라.”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군외면 불목분교에서 이 사업을 거점센터로 운영하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이제 그 의도는 들어서 아는데요. 우리가 숙박이나 카페나..... 뭐 거기를 보니까, 그때 보니까 문화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더군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완도는 카페도 여기에 원 없이 있지. 잘 데도 숙박,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군이 완도에서 그것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진짜 섬 같은 데는,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섬에다가 그런 것을 해서 혜택도 보고, 그런 투자를 한 만큼의 효과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왜 여기다가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당초에 읍면별로, 전체에 읍면별로 지금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70억, 막상 사업비가 70억인데, 뭐 역량 강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제외하다 보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한 5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또 분산효과가 나요. 그래서 쪼개기식,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버리면 막상 그 예산으로 읍면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아니, 이제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은 잘했는데, 묶어도 정말 이런 것을 하나..... 진짜 섬 같은 데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제대로 거기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진짜 숙소도 여기 좋은 데가 많이 있지, 카페도 많이 있지. 누가 과연 얼마나,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이용을 할지. 뒤로 가서 진짜 건물이 또 황폐화되지 않을까, 이윤이 잘 안 나오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섬에 지어놓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저런 것을 모아서 해놓은 것은 잘했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것이예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런데 막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거기가 3,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500평 정도로, 이런 시설을 할 규모가 있는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기가 폐교로.....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폐교가 되어서 그 땅을 선정했고. 이것이 분산효과보다 집중하는 효과를 더 누리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아니, 그것은 이제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군외 초등학교에 해놓은 것이야 얼마든지 좋은 데로 쓸 데는 많죠, 여기에서. 그것 아니고도 한다고 하면. 저기는 할 것이 많습니까, 사실.

이제 하여튼 저기, 그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네요? 군외초등학교 거기.....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지금 전체 마무리됐고요. 지금 그 승인만 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러면 지금은 하여튼 군비가 더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위원장 최정옥

과장님, 그것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그것을 운영하면서는 군비는 투입이 안 되는데.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운영비가 절대 들어가는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은 것으로만 끝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죠.

김재홍 위원님, 할 말 있으시면.....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정확한 설명을 좀 하세요. 군외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애당초 2억 9,000이 아니고 70억 사업이면 70억 사업이라고, 지금 사무장이나 이 부분에..... 지금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허담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70억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자체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 왈가왈부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위원들이 딱 알아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 밑에 인건비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뭐 이것.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아,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인건비요?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추진사업비까지, 추진사업비.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정옥

여기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도 개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이 추진단이여기의 플러스 사업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플러스 사업에 연관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그렇죠? (예)

그런데 건물만 지으면 여기 군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이 군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인건비는, 인건비는 그 사업비에,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보고 군에서 돈을 내줘야지. 누가 어디에서 낸대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위원님, 이것은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했을 때에 군비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를 지금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법인화가 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짓고 나면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예.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아무튼 운영할 때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수익사업이 꾸준히 올랐을 때는 5년간 사무장 월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4년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4년간입니다.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4년간이요? 1년이 줄어들었네.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최정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그 스마트 치유마을, 총무과에서 스마트 치유마을이 자꾸 여기 신활력 플러스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자꾸 그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카페를 또 한다고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지금 여기가 승인이 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준비상황입니다, 준비상황이고.....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AI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스마트치유마을에. 그런데 총무과에서 우리가 자꾸 거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 사업이 오면 거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카페를 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서로 겹치지 않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 치유마을 거기 그 사업하고 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용역을 하면서도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은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얀 간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파트에서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런데 원래 사무장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 2인 월급이라고 하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지금.....

○우성자 위원

누구누구 월급이 나갑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지금 사무장 인건비하고요 사무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하고 사무장하고?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입니다.

○우성자 위원

왜 거기는 또 사무원이 1명 더 붙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예?

○우성자 위원

(좌석에서) 왜 사무국장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사무관이 또 1명 더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아, 당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를 주는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이렇게 1명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승인이 되게 되면, 실시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 쪽하고 사무분장을..... 파트를 좀 나눠야 합니다, 인력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력 1명을 더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우성자 위원

보통 사무장 월급만 주는데, 거기는 2명 월급이 나가고 있어서..... 다르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저희들이 인근 해남 같은 경우 8명 정도 지금 추진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우성자 위원

아니, 남의 군이야 10명을 하든지. 다른 사업이 보통..... 우리가 농촌개발사업 이런 것 할 때 사무장만 사용을 하잖아요. 위원장은 월급이 없고 사무장 월급만 들어오는데, 여기는 또 2명의 월급이 나가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이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좌석에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 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 사업에 저희

들의 계획은 28억 정도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 집행 자체를 추진단에서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28억을 집행하려면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관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업추진에 보면 그 사업비 2억 9,000만 원이 홍보 마케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이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진단에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해남, 인근의 해남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인근 가까운 시군 하고도 비교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도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거의 하기 때문에 같이 비교성 있게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해봤자 뭐.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이제 세 사람이에요. 사무국장 1명, 사무원이 2명,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인근 해남은 농업도시에요. 인구가 우리의 배 가까이 많고, 농업도시에요. 우리는 수산도시라면 거기는 농업도시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안돼요. 그러면 우리도 농업도시, 그 농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9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했잖아요. 왜 그럴것어요? 농업도시고 여기는

수산도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군정질의 때 나왔던 말인데. 그 인근 농업도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돼요, 그것은.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아니, 그런 쪽에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투자 때문에 과연 여기가 필요한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네요.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그런데 요즘 액션그룹 이것을 교육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액션그룹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35명이라는 액션그룹이 이번에 참여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가공이나 생산이나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분들이 지금 이 액션그룹에 들어와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는 전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제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같이 토의하고 교육하고. 그런데 나는 정말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해서 한다면 우리 섬에 다 해야 맞죠. 섬사람들은 정말 문화해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 보니까. 이런 대형투자를 할 때는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해야 맞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그 효과가 있죠, 그런 데는. 이제 완도읍은 기술센터 바로 옆

에 있겠다, 기술연구하려면 얼마든지 하지, 카페 운영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모든 영화는 다 누리고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고 걱정해서 한 것이네요, 걱정해서.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다음 기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섬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의한 중앙정부의 대기오염 저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지게차와 굴착기로서, 우리 군 관내에는 굴착기 84대, 지게차 159대 등 총 243대가 해당되겠으며, 적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기오염 방지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잠재적 손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다음은 475쪽, 완도읍 향동리 유채밭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과거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으로 이를 심터로 활용하고자 2000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지금 마을주민과 마을이장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추경예산에 재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편백 숲 하나 더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아니에요, 같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묶여있어요, 이것까지?

○위원장 최정욱

475페이지.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편백 숲 했어요?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아니, 편백 숲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했다고요?

○위원장 최정욱

했어요?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예, 편백 숲이 유채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같이..... 예.

환경산림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채밭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추진이 필

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마을주민하고 이장님과 의견이 일치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유채밭인데 추경에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세워놓고 안되면 불용을 시킨다든지. 지금 향동리 유채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예, 유채는.....

○박인철 위원

우리 완도군민들이나 타워에 왔던 관광객들이 다 들려서 사진을 찍고 그러던데. 추경에 하면 올 유채는 다 끝나버리는데, 내년에 유채는.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아니요, 지금 내년 것은 이미 저희들이 파종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유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파종을 하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후년에 유치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와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해 보충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위쪽입니다. 국내여비 도서개발사업 합동직무 여비입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면 지금 공채하고 경력직으로 채용합니다. 경력직은 해당 자격증이 있어서 채용이 될 것이고, 공채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토목을 전공하고 않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만 합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이나 각 실과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설계를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 시 합동직무를 실시하고 그리고 추경 때도 합동직무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예산서상 부기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 집행 같은 경우도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는 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계속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다음입니다. 소규모 시설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업을 하게 생기면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은 세입자 토지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

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종전에 어떤.....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해야 되고. 또 새로이 사업을 할 것도 토지보상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저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가운데 쪽에 있는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 4,0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LPG 배관망 사업, 이것을 배수 관련해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506쪽, 가운데.....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506쪽입니다.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지금 시설비 9억에서 2억 삭감해서 7억으로 가고.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예, 계수만 조정하면.....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LPG 배관망 사업을 했을 때 1

억인데.

○위원장 최정욱

이것 말하죠,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9억 4,000에서, 거기에서 7억 4,000으로
정정하고. 그 밑에 2억을 3억으로 하는 정정
한다는 얘기죠?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3억을..... 예, 감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문화예술과만 합시다. 아니, 문
화예술과까지만.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관광까지 하시죠.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관광까지 해요?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관광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최정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
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서 군외 활어회센터 관로 보수공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군
외 활어회센터가 2010년도에 준공되어서 1
층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고요. 2층에는 홍
보관 및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1층에 특산물
판매장의 해수 인수관로가 도로 횡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 인수관로가
꺾인 부분이, 세 군데가 꺾여서 이렇게 유입
되다 보니까 수중모터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이번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횡
단해서, 도로를 절단해서 이렇게 관로를 매설
하고자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외 달도 테마공원 유지보수 공
사 2,000만 원입니다. 달도의 테마공원도 건
물을 지은 지 한 8, 9년 이상 되어서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서 원칙은 테마공원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개매기 행사라든가 개최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
나19 때문에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해서 몇 년
간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래서 2,000만 원을 요구, 확보해서 시설물을
좀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안전 환경개선사업비 1
억 원은 완도경찰서에서 협업사업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벽화라든가 또 공원 조성도
하고 쓰레기 수거시설, 보안등 설치, CCTV
설치 등 그 마을의 환경을 개선을 해서 범죄
없는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금 석치리 마을하고 약
산 장용리 마을, 신지 대곡리 마을을, 세 마
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1억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안전건설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외 활어회센터가 농촌마을 종합개
발사업으로 했나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맞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를 받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저희들이 지금 연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얼마씩이나 받던가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원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개발사업은 그것 지금 기부채납된 것이죠, 군으로. 됐습니까, 7,000억?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 시설은 이제 군 소유로 되어 있고요. 군 외면예다가 이렇게 시설물을 위탁했고, 군 외면사무소에서 번영회하고 이렇게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수리를 다른 데에도 앞으로 다 해주실 것인가요? 농촌 개발사업으로 했든지, 이런 법인단체의 그 건물이 낡으면 군에서 다 이렇게 수리해 줄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이렇게 보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국 어디에나 농촌마을사업을 하면서 운영이 잘되는 데가 한 20%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면 군비를 조금 세워서 작년에도 약산 일부를 보수했구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활어회센터, 여기는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우성자 위원

아니, 지금 농촌 개발..... 과장님이 알다시피 농촌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성공을 다 못했어요, 우리 군은 못 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완도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해주다시피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걱정이 돼요. 7,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그것은..... 이 관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더 큰 어떤 모터를 매년 갈아줘야 된단다가, 유지관리비가 사실 더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로만 새로 깔게 되면 더 이상 보수를 요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른..... 우리가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도 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 완도군에 이런 건물이 많이 있는데. 다 수리해 주라고 하면 해줘야죠, 어쩔 수 없이.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제 운영을 잘하는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보수됩니다마는 하여튼 큰 금액만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이제 마을예다가 운영권을 줬지만 실은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는 없고요. 뭐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시설물을 좀 완벽

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저 우성자 위원님을 이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여기에다가 얼마 넣었습니까, 그 작년도에는 또 얼마 넣었습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7대 때도 그러고 계속 예산을..... 작년도에 여기 한번 넣으면 마무리된다고 그러더구먼. 그러면 작년 예산을 가지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작년에는, 이제 군외 쪽은 저희들이 지원을.....

○박인철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활어회센터에 지원한 것들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금년에 그 활어회센터가 낡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손님들께 서비스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해년마다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공사하고 다닐 때도, 제가 공사를 맡아 가지고도 남한테 하청을 받아 가지고도 났습니다, 거기. 제가 공사할 때도. 그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여기 뭐 하나입니까, 이런 건물들이. 농촌, 금방 우리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완도에서 봐보면 장좌리에

있고, 대야리에 있고, 신지에 있고.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고금도 있어요.

○박인철 위원

고금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유난히 여기에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만. 다른 데는 지금 다 그렇게 못 받는데.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군외 첫마을 권역도 있고.

○박인철 위원

군외면.

이것 뭐 특혜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곳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뭐..... 하는 데는 한 번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못 봤는데, 다른 지역들은. 군외 쪽만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만 그러면 노후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세부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군외 마을하고 (청취불능)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활어회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들은 소유권 자체가 군하고 그 마을하고, 저기 권역단위 마을하고 같이 있든지 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완도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 그런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왜 그렇게 가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군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1년에 얼마를 수입으로 올립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0~6,000 정도 이렇게.....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많이 올려요?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이제 정확한 금액은.....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렇게 많이 내나요?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정산하고.....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지, 그럴 수가 없지.

○박인철 위원

오늘 것은 뭐하고 군외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저기..... 뭐 3년치면 3년 치, 그것이 있으면 내일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테마공원, 어떻습니까? 내가 가면 참말로..... 무슨 이런 예산들을 투자했는가, 이런 데에다가. 전혀 처음에 생각대로..... 물론 차재철 과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전에, 전에 있던 사람이 해냈던데. 왜 이런 사업들을 했는가.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준공만 하고 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함도 없고, 누가 사용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수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어떤 뭐 다른 방법들 없습니까, 획기적인 방법들이? 그런 데를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이제.....

○박인철 위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개매기 체험 그것 1년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막대한 사업을 투자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테마공원 화장실에 가가지고.....

○박인철 위원

그런 사업들을.....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지금 관리인.....

○박인철 위원

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차박 같은 것이 유행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본다든가. 뭐 건물만 지어놓고 아주 뭐.....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가면 뭐 풀투성이고 화장실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가니까요, 지금. 그래도 뭐가 좀 이루어지면서,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군민들 아주..... 우리 완도군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눈물이 나는 돈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적은 예산.”, “적은 예산.” 그랬는데 적은 예산도 우리가 알차게 써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몇 번, 여러 번 갔는데요. 하여튼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좋아지면 당장 체험시설도 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 두면 조금 행사라든가 어떤 편의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이제 저런 사업도 우리 이제 앞으로 의..... 우리 사업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런 사업들을.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고 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안 할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군 예산, 적은 예산을 잡아먹는, 군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참 저런 것, 몇 개 사업들을 보면 과연 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누구 배를 배불려 주는가. 안 그러면 우리 완도군의 자연환경이라도 좀 깨끗하게 만들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그러면, 이런 예산에다가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적시해 줬으면 우리가 부르는 않았었는데.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약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찰에다가 위탁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아니, 이제 그것은 경찰서에서 여러 유형으로 사업을 조금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마을에서 뭐 이 건의가 들어오면 한다 이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3개 마을이라고 딱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3개 마을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제 1억 예산은 조금 그..... 여러 시설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마을에 필요한 제일 시급한 사업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내일 하여튼 그것을 좀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군외 활어회센터하고 달도 테마공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쪽 지역구 의원입니다. 작년에 그 인수관을 작업하다가 못했죠?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거기가 6번 꺾여 있어요. 우리 어떻게 봤을 때 양식업을 하시는 분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외 활어회센터가 6번이 꺾여 가지고 (청취불능) 펌프가 2대 달려있어요. 1년에 한 2~3번씩 고장이 납니다. 그 원인은 간조 때 물량이 달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로를 절제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봤을 때 달도 테마공원 아까 우성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관리인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화장실이고..... 또 숲길을 뚫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등산객이나 탐방로 순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원된 것 같지만 저것이 2013년도에 착공되어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쪽 (청취불능)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제가 항상 주도하고 뭐하는 부분이에요. 사업비를 들여서 현장에 무엇을 했을 때 안 한 것만큼 못하면 쓰겠느냐. 너무 사실은 관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정 질의 때도 저희가 말하고 했습

니다마는 ‘해놓고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되어서 그렇게 보완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관광과장	서길수

제296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6호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자세히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 부서

별 팀장님이 보충설명을 할 때도 소장님이 팀장님 대신 설명했을 때 팀장들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 15건에 대해서 재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0쪽, 해양치유밥상 2호점 육성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전남 완도에 걸맞은 먹거리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완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양치유밥상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내용 항목으로는 컨설팅하고 또 약간의 식당을 개선해야 될 점 또 환경관리,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2쪽, 색깔보리 소포장 제작 개발 및 제작입니다. 색깔보리와 관리해서 사업비

로 올린 것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보리 특산자원 홍보 소포장 개발과 홍보는 저희들이 진흥청 산업기반을 통해서 신품종 색깔보리 종자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청산, 노화 그 다음에 고금, 여기를 주산단지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발..... 소포장재 개발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홈쇼핑도 해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색깔보리단지를 육성함에 있어서 50헥타르를 육성하는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2~3회 정도 들어가야 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 같은 것 또 필요한 기술지도를 전폭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1억 원을 올렸습니다.

페이지 693쪽입니다. 치유기능성 잡곡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서 발작물 기계화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해초액비 최고품질 쌀 사업은 4,000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완도 쌀은 미질이 떨어진다.”, “밥맛이 없다.”라는 평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자부터 새로 바꾸고 재배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 소식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도 쌀을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쌀 수출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식당들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밥맛이 많이..... 유기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다마는 아직도 전국브랜드 10대 브랜드에 들

어가려면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1회 처리 3,000만 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농법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자에 한번 방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초기 애멸구라든가 초기 도열병, (청취불능)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 완전히 방제가 거의 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나와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치유기능성 유색미 생산사업입니다. 진도에서는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검정쌀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는 우리 완도도 하여간 완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검정쌀, 특수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검정쌀하고 또 밥에서 구수한 그런 누룽지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누룽지를 안 눌러도 밥을 할 때 고소한 냄새가 나는 품종 중에서 향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공급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단지 시범사업은 4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2번 정도 종자가 (청취불능)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는 한 100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원에 원종산, 원종산의 (청취불능) 그 종자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증식해서 보급종 품종에 준하는 그런 종자를 저희들이 육성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농업인들이 또 한 해에 이상기온 태풍 등으로 인해서 종자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8쪽, 토종자원 코끼리마늘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코끼리마늘이라는 품종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남도마늘이나 스페인산 마늘이 아닌 구가 굉장히 큰 코끼리마늘 종구를 공급하고 또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가공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이중에서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시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 가지고 그 논문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코끼리마늘을 가지고 세 가지 제품을,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단지 조성은 기본적인 그런 생산 규모는 갖춰 나가면서 거기에 생산된 산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제품을 생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원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원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기능성 해양치유단지 3,500만 원 올렸습니다. 기존에 삼지구엽초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행정에서 확대 재배까지 들어갔습시다마는 농업인들의 역량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 기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삼지구엽초라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음양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좋은 약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살리고..... 저희들이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추진하면 진흥청에 가서 규모라든가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브리핑

하고 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나 받아와서 흑염소하고 약산 삼지구엽초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완도의 소득작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소득 작목 두릅 생산단지 시범조성은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릅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육상태를 보니까 '완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한 15mm에서 20mm정도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타지역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대상지는 생일 또 고금, 약산 이렇게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99쪽, 아열대 소득작목 재배면적 확대 기반조성 시범입니다. 3,500만 원. 아니, 3억 5,000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망고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타지역보다 망고재배단지를 선점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확보한 후에 유통망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보온시설과 또 전기난방 이런 시설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놓으면 망고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소득작물도 원활하게 재배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하우스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참다래 신규과목 조성 4,200만 원 2개소입니다. 완도에 가장 적합한 품목 중에 하나가 참다래이고 유망한 그런 작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와 더불어서 앞으로 참다래도..... 유자는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도 아마 그것에 준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이워드 그린키위를 재배해 왔습시다마는 그 농가들은 그렇게 그대로 재배해 가고 또 새로

운 품종으로, 골드키위로 해금과 제스프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스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프리골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신품종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705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매년 해마다 유용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16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톤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고요. 농업인들 중에서 조금 품질이라든가 또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은 이 유용미생물이 필수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금도에 마늘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양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애기도 많이 하고,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굉장히 유용미생물을 선호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도가 높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올렸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올리는 금액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편성돼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0페이지, 해양치유 2호점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질문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관광과 위생계도 있고 그래

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관광과 위생계도 보건의료원으로 돌리고 관광과에서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위생계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왜냐하면 연구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협업부서에다가 넘겨야 될 것들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가. 뭐 그런 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1호점을 했지 않습니까, 모래뜰에. 그랬으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협업부서로 이런 사업들을 넘겨야 되지 않은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협업부서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재배까지 성공해 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가. 또 다른 사업들을 개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이복선 소장님뿐만 아니라 그전에..... 제가 의회에 7대에 들어왔습니다마는, 누누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업부서에서 안 받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넘기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밥상은 저희들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사항인데요. 음, 저희들이 모든 시범사업을 이렇게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넘길 경우에는 기반도 안 잡혀 있고 또 홍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이렇게 조금

개발하고 해놓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한 2~3년 정도는 하고 거기에 시범사업을 추진 함으로 해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그런 기간 이 있습니다. 보통 품종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을.....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농업 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많은 그런 투자를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기반산업으로서 굉장한 그런.....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 또 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해양치유밥상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진단을,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해양치유밥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센터장이..... 소장님 이전에 김준열 소장님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김준열.....

○박인철 위원

거기에서도..... 코끼리마늘도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해주면 전부 청산도로 해가지고 다 재배가 끝나고 시범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농업축산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업무적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른 것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 전수도 하고. 이런 먹거리를 만들어 줘

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산안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소장님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진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과..... 기술개발과 사업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양치유밥상을 하는데, 저도 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뭐 관광객들은 어떻게 느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느낄 때는 과연 이것이..... 그 위에도 강사료가 1회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목적대로 달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한 예로 전에 생활개선회인가 뭐 한참 전복유자소스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뭐 개발했다고 하면 뒤돌아서면 없어져 버리고 또 뒤돌아서면 없어져 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잠깐 식당들에 특별한 소스가 나왔다고 그것으로 회를 찍어 먹어보라고 하느니 뭐 전복을 찍어 먹어보라고 하느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횡집에 다녀보면 그런 소스가 나온 것이 지금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일반식당들하고 상충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도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업, 목욕업을 하는데 이렇게 생활..... 뭐야, 개선하는 자금들을 얼마 주고 있다는 그 말

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월등히 더..... 그런 데는 뭐 500만 원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2,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식당들은..... 이것이 뭐 특별하게 기존적인..... 일반식당에서 팔지 않는 다른 것을 판다고 하면 뭐 2억 8,000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인해서 소장님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다시 한 번 연구.....

○박인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2쪽, 색깔보리 쌀 홍보요. 이것을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이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상품 개발을 하더라도 한 30가지, 100가지를 하면 그중에서 실용화..... 실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1~2건 보통 됩니다. 그런데

색깔보리단지 홍보를 저희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당분간은 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김양훈 위원

지금 저희들 색깔보리 이것 단지를 조성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2년.

○김양훈 위원

2년 넘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2년. 이제 3년차에 들어갈.....

○김양훈 위원

이것이 3년차면 우리 농가들에서 소득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기존 보리 생산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소득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논이, 논이..... 논에 심거나 밭에 심거나 그러는데. 논에는 심으면 이모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보릿짚은 축산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꾸준히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농업축산과한테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홍보를 한번쯤 해서 성과를 내고 싶으면 지금 2회 정도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1회로 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김양훈 위원

1회만 하고 1회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해초액비 최고품질 쌀 사업, 이것 해초액비..... 해조류를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역줄기 수매, 그래 가지고 그것하고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김양훈 위원

왜냐하면 해양정책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전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해양정책과에 친환경쌀 미역단지를 그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작년에만 안 올라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했었는데.....

○김양훈 위원

올해 또 올라왔어요, 3,000만 원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 센터도 그렇게.....

○김양훈 위원

이런 사업도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봅니다. 안 그러면 농업축산과로 가든가. 똑같은, 하나는 액비고 하나는 미역줄기인데. 미역줄기 그것이 뭐 효과가 없어서 그때 잠시 중단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해초액비가 또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은 유용미생물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해초액비를 살포함으로 해서 좀 이렇게 (청취불능)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서 지금 시중에서는 그래도 밥맛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만 이 단계에서 멈춰버리면 또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최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이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김양훈 위원

그런 것이 맞는데요, 맞는 것인데. 양쪽 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료비로 나왔는데, 이것 통계목이 잘못된 것이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앞으로는.....

○김양훈 위원

이것은 재료비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코끼리마늘단지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재료비는 아닙니다. 이것도 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이 순군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은 추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양훈 위원

그리고 아까 코끼리마늘단지를 조성할 때 용역까지 다해서 성과분석까지 다 나왔죠? (예)

그러면 계속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그런 것들이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유통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농업축산과 쪽으로 해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 아열대 소득작목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아열대 소득작목은 2개소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1-W용 시설하우스가 필요한데 평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선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망고 묘목 3년생 이상짜리로 이렇게 심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온실, 가온시설로 전기를 이용한 그런 가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그 기름 온풍기를 댔을 때는 기름이 이렇게 막혀버리거나 또 연료가 떨어졌을 때 냉해피해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작목을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로 해서 가온이나 보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온시설을 전기로 했다면 그것을 보온해 주는 보온시설에 부직포,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이중으로 설치합니다. 이중으로 설치하고 또 관수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희들이 아열대작목, 소득작목에 망고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바나나하고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제 커피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상품화하거나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데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요. 바나나는 지금 80% 정도 충수가 돼서 올해 2월부터는 판매가..... 바나나도 생산이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김양훈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두고 다른 작목을 물어봤느냐면요. 우리가 시범사업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작목이고요. 그런데 2개소가 들어왔는데 1개소부터 차근차근해서 거기서 성과가 나오면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2개소를 해서 크게 들어왔길래.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저희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개소가 들어와서 ‘1개소로 축소를 시켜서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것은 올해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개소를 했는데 생육 상황이라든가 또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게 잘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를 해주시면 망고가 어느 정도 완도에서 기반을 갖춰 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할 때 조금 해야 됩니다.

○김양훈 위원

소장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산서를 보면요. 전부 다 성과는 다나왔고 용역도 해서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였고. 그런데 전부 농민들이나 농어가들에서 왜 기술센터로 많이 가는지, 왜 기술센터를 선호하

는지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 사업은 7 대 3, 보조 70%, 자부담 30%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농업인들마다 다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다 달라서.

○김양훈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에 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시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은 보조율이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는 할 일이..... 진짜 오리지널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왜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조가 높은 쪽으로, 농민들이 힘들다 보니까 보조가 많은 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센터에서는 아까 뭐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실험, 학술단체를 운영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오면 추진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도사업의 체계가 진흥청에서도 시험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도나 시군에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도 체계는, 지도사업의 체계는 시험연구 이렇게 평가한 후에 시범사업까지, 초기 시범사업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시범사업까지가 성공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현장에다가 투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70%에서 많게는 100% 사업도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지금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까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부터는 망고사업도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제대로 성과가 나온 것은 사업부서로 넘겨주시고 또 다른 종목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성목을 잡을 때 재료가 아닌데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

○위원장 최정욱

담당관님.

○김양훈 위원

통계목, 이것은 정확하게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통계목은.....

○김양훈 위원

재료가 아닌데 전부 재료비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올해 기술센터 예산이 24억..... 20한 5억 4,000 정도가 늘어났네요. 왜, 어디에 중점을 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지금 저희 센터 예산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방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 후부터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큰 이렇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또 줄어왔고. 그래서 지금 25억 정도가 늘었지만 지금도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편입니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뭐라고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면 “논이든 밭이든 집이든 싸 짊어지고 인근 시군으로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야간 저는 농업인들한테 이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제가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고, 농업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헤쳐 나가고.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후계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완도에 와서 농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아, 나 농사를 짓는다.”, “나 시설하우스 몇 평을 하고 있다.”, “1,000평을 하고 있다.”, “내가 소를 1,000두를 키운다.”, “500두를 키운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직원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산 확보를..... 소장님이 하려는 의지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소장님, 다 좋은데 해양치유와 농사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것하고 그 이름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양치유를 넣어야 되나요, 이러한 문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완도가 섬으로 이루어졌고 바다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업이든 수산이든 뭐 도시든 농촌이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융복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완도의 좋은 점은 바다 일도 하면서 또 농사일도 하면서, 또 나이를 들면..... 젊었을 때는 수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가 나이가 좀 들면 농업 쪽으로 또 많이 투자를 하고. 농업 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다 수산 쪽으로 또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해양 뭐 수산 쪽에, 뭐 해조류 이런 것도 융복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최정욱

이제 소장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해양이라고 하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면 비료를, 예를 들어서 해양..... 해초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어떤 기능성식품이 개발되었다면 이런 문구를 붙이는 것이 맞는데. 그런 의미도 없이 무조건 해양치유 이렇게 써서 붙여버리면 뒤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대답할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어떤 기능성물질을 투입해서 그 식물체 내에나 아니면 소나 양, 소나 염소 이런 육고기에 함유가 되어 있도록. 그러니까 성분을 검사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

으로는 미세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추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고심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그렇게 이것 신중히 생각을 좀 해서요, 문구를 달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농업이지. 해양치유 쪽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꾸 기술센터 업무가 이상하게 보이니까. 소장님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김양훈, 박인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70% 보조하는 것은 신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어떤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넘겨야 맞아요. 우리가 2차, 3차해서는 안돼요, 기술센터에서. 그렇다면 본연의, 기술센터 본연의 일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술센터를 위원들이 볼 때 안 좋게 보면 예산을 오히려 더 이렇게 까다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저희들이 초기에 그런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신규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하죠, 그런 것은.

다른 위원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05페이지를 보면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이것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초균, 벵짚에서 기생하는 균을 고초균.....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엠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광합성균 또 효모균 이런 것들을 토양에, 토양에 미생물들이, 하여간 유익한 미생물들이 선점을 하고 있어야 병이나 해충이.....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엠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이엠하고는.....

○김재홍 위원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아닙니다. 단일 균을 원래 공급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그 종류별로.....

○김재홍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엠이 아니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예. 전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증액한 부분도 없고 원래 농업인들은 더 많은 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것을 농업인들이 많은 양을 원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예, 굉장히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보급하는 양 외에,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무상 공급하는 양 외에 자부담을 통해서 많이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소안도에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용미생물은 원래 축산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축산 쪽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추가설명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설명할 때 너무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알아듣게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61쪽 가운데 완도문화원 운영비 9,000만 원입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보다 약 1,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원현황을 보시면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소계로 시군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완도 문화예총 운영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금년 2회 추경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예총은 한국예총 산하단체로서 완도국악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예인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 시설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입니다. 16억 원은 금년에 도비와 매칭하지 못했던 군비 14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입니다. 금년에 매칭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리포진 성문 복원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2억 8,400만 원으로 감정평가 결과로 산출된 금액으로 남문, 청해루 등, 건축비 등 부지 매입비입니다. 배부해 드린 필지별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1쪽 하단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추진 및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605만 원은 우리 군 생물권보전지역을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알려져 우리 군이 생물권 다양성 보호종 (청취불능) 및 청정지역이니까 이에 따른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제작비입니다.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도를 넓히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음 연구용역비 8,800만 원 중 완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최초 세계유네스코에 심사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반드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진해서 관리조직 운영, 그다음에 교육, 생태, 관광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 활용방안 등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다음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 개발 1,800만 원은 대내외적으로 활용될 브랜드 로고를 개발해서 우리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로고 개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문화예술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리포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복원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오늘 완도읍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오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군비로 매입한다고, 복원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밑에 다세대 주택하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울산, 그다음에 거제, 통영을 방문하면서 시내에 주택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성, 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이 사업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갔다 왔다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처음 애당초 가리포진을 할 때..... 우리가 지역개발과에서도 논의, 심의를 할 것입니까? 마는 왜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조건부로 돌려졌는가. 과장님의 그때 견해는 어땠습니까? 주무과로서 과장님이나 주무과 부서의 의견들은?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리포진 사업은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이것은 추진해야 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들어서서. 저희들은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그런 문화역사 사업이다. 그래서 역사..... 문화재청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두 분 정도 그런 설명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는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립주택을 무작정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것이 어차피 연립주택이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이 된다면 이것을 비록 건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 교육자료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해루나 이런 경우는 인근 완도타워하

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바로..... 버스로는 뭐 30초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데. 우리가 저기..... 물론 연립, 그 다세대주택이 먼저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미리 발굴을 하고 했는데.

지금 저것이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가 문화재로 됐습니까? 뭐 된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인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화재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 고, 역사 어떤 그런 유적을 재현 내지 복원하더라도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주민과 공존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도..... 물론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준비해서 했다고 하면 달라질 것인데.

지금 매칭사업이지만 도 문화재로 됐으면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문화재는 도에서도.....

○박인철 위원

도 지정이 됐으면..... 여기는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15억 정도 나가고. 매

칭이 5 대 5만 되더라도 우리 군비가 얼마나 많이 절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거니와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으면..... 물론 해남 같은 데도 보면 민가에 붙어있고 낙안읍성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개발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다세대주택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의할 때 좀 우리 과에서 그것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서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조건부가 됐는가, 뭐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아쉬움이 많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건물을 투자하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 성을 쌓는데. 성 뭐 반절 이상이 가려지죠? (예, 그렇습니다)

성문 쪽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칭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부터는 바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내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물권 유네스코, 우리가 용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뭐 다 똑같은 것인데, 군민 아카데미하고 다 똑같은 것인데 한꺼번에 묶어서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용역을 해가지고 유네스코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저희들이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위원회 거기에 제출하기 위한..... 저희들이 사실 국제적인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계획을 저희들이 세계 유네스코에 신청할 때 이런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드러놔서 그러면 완도군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계획대로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해 준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하는데, 전혀 우리 군민들이 삶을 누리는데, 뭐 개발행위나 생활하는 데에 전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혀 우리 삶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은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처럼 또 다른 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뭘니까,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떤 페널티를 먹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동안에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지역 그런.....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뭐 다른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전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야튼 이것은 특별히 뭐 내라고 한 것이라 뭐 어쩔 수는 없고. 그것은 잘 알았고요.

제가 이번에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니까 제가 질문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장보고가 전혀 안 보입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뭘니까? 기껏 해봤자 동상, 어린이놀이터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지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실존인물이었고, 우리가 장보고 하나만 잘 살려도 관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 군민들의 먹거리가 생기는데. 왜 장보고에 대해서는..... 뭐 장보고한상하고 죽청리 동상 있는 데에 좀 예산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전혀 예산이 안 보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보고기념관 26억에 대해서 그 외에 뭐 장도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에는 사실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저희들이 정말 심의 있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장보고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들 말고는 우리가 장보고를 선양한다든가 이런 쪽 예산들은 좀 들어와 있는가. 10월 질문답변 때도 우리 장보고 좀 살리자. 이순신 호국 뭐 공원, 진린장군 공원으로 좋지만 왜 우리 고장인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장보고 1,200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던데. 왜 이렇게 다 놔버리는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박인철 위원

특별히 우리 군에서 장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한, 예산에 대해서 소홀히 한 특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전혀 그런 데에 우리 군 전체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우선 예산은 아시다시피 사업추진 부서에서 어떤 편성요구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근 7년, 내가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장보고라는 것은 예산서에서 그냥..... 뭐 장보고한상어워드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고, 진짜 장보고를 알리는 그런 예산들은 아예 없어요, 우리 군 예산에서.

하여튼 저기 담당관님,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추경에라도 예산이 있으면 좀 발굴을 하십시오. 발굴해 가지고 없는 것도 다..... 요즘은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왜 우리는 있는 것도 놔놓는 것인가. 그리고 헛발질들을 많이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진짜 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는 장보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좀 연구를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6쪽, 문화원 지원사업. 저희들이 상여금까지 이렇게 다 줘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상여금이 일부러 상여금..... 상여금을 인건비 기본급에서, 급여에서 분리해서 하는 시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본급을 좀 높여주는 방안하고,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높여주는 방안과 상여금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시군 어느 정도 그 정도에 맞춰서 하는 방법하고.....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한번 상여금, 이렇게 없던 것이 생겨서 나가게 되면 매년 횡수는 늘어날 것이고 다른 단체에서도 뭐 사무장 이런 데에 많이 나가던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같이 상여금을 요구할 것 같아서. 이것이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상여금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절반 정도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총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양훈 위원

문화예총 인건비..... 운영비요, 완도예총.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총. 예, 예총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없고 그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김양훈 위원

순수 인건비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우리가 보면 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까지, 운영비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문화예총은 따로 평생학습에서도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일반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완도문화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문화원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체로, 연합된 단체로 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향후에 개별 어떤 단일단체가 온다면 우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추진, 내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총 같은 경우는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예술 뭐를 한다면 그쪽에 운영비는 이해가 가나 사무장 인건비까지 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시군 예총 운영비 현

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예총이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산하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문화예총 예산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많네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저희가 요구한 2,800만 원 외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김양훈 위원

그 위에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도 문화예술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예총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완도군에 있는 전체 문화예술단체에.....

○김양훈 위원

문화예총을 지금 다섯 군데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단체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예총뿐만 아니라 예총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에도 다 조금 조금씩 예산들이 있다는 얘데요. 거기 예산을 배제하고 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라.....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지금 지원사업은 개별..... 단체별로 단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완도예총 운영비는 지금 현재 다섯 개의 단체, 다섯 개의 단체에

대한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 단 한 사람 인건비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김양훈 위원

과장님이 이전에 설명하실 때 문화예술 단체를 합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소속된 단체를 또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라리 한 군데로 묶어서 문화예총에 한번 이렇게 다섯 단체가 생겼으면 거기 한쪽에도, 그쪽에다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이 단체 또 주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또 주고.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예총에 포함된 5개 단체 플러스 거기에 추가로 다른 단체, 예총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별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완도읍에 예술단체들이 여기도 있고 이 사람이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단체 개인별로 주지, 문화원 주지, 예총 주지.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계속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문화원과 예총과..... 예총도 지원하려면 더블이 되지 않게 우리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어야죠. 또 주고 또 주고 이리 가고, 이 사람이 여기에 가고.

여기에서 문화원에 가입된 사람이 예총에도 가입되어 있고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제대로 그것을 앞으로 지원할 때 그것 한번, 틀을 한번 잡으세요. 문화원, 예총 이런 관계도.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포진 사업이요. 이것 과장님은 굽히지 않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도시에, 그러니까 서울에 가더라도 많은 현대적인 그런 건물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송례문, 남대문 하나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풍부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도가 보면 옛날 그런 문화 유적이 사실 이 주변에 객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아까 박인철 위원한테도 설명을 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와 우리하고는 달라요. 도시는 도시공간 자체가 시내에 문화공간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휴식도 되는 것이고 볼거리도, 역사..... 앉아서 쉬었다 가는 이런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다 쉬는 데고 도시 안에, 우리가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왜 사람들이 가리포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람들, 문화원에서 받고 있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가리포진 성이 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불빛도 켜놓고 어찌고 하면 우리 완도에서 또 다른 볼거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밤에도. 우리 타워처럼. 그런데 그런 것도 기대를 하고 거기에 그 성을 세워놓으면 ‘아, 이런 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가졌던 것인데. 성을 이제 가려버리니까 “그러면 저것이 뭐로 해서

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다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내가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데 물어보면 99%가 다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성이라는 의미도 없고 또 우리 군비가 90억에 45억의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달라요. 군비 45억을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데다가 성은 그 건물 안에 갇혀버리지. 거기에서 문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문화에 와서 역사적인 것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문화를 관광자원화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자원화 활용이 안 되어 버리지,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앞에 아파트, 빌라는 안 된다고 고집을 해서..... 심의해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저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안 된다.”, “된다.”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도시를 말하면서 과장님이 자꾸 하는데 도시하고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뭐가 있냐면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두고두고 우리 때 이것을 해줬다고 욕을 먹어요. 저것이 관리가 잘돼서 문화원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좋으면 참 좋은데. 안 되고 이제 처치 곤란이 되고 어찌고저찌고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죠. 문화원을 만들어 놓고. 안 해버리면 이제 예전 도시 같은 데에, 저기 위에 가면 문화원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처치 곤란이 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것이. 도 지정이나 이렇게 되면 도에서 운영비라도 갖다가 관리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의원으로서. 그냥 뭔가를 해놓고 두고두고 이것이 불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말을 해.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이렇게 연구검토하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먼저 625페이지, 다시마꼬리 수거사업입니다. 건다시마 규격 출하 후 발생된 부산물인 꼬리를 수매하여 해양오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다시마 가격 지지효과와 전복먹이 부족 시기에 전복먹이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다시마 생산가격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시마꼬리 일부는 일반상인에 의해서 매입되어 가지고 분말다시마로 생산되어 다시마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625페이지에 친환경 미역줄기 수매사업입니다. 해조류양식어장에서 미역엽체와 미역귀를 생산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줄기를 수거하여 친환경농업 퇴비화로 미역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해양환경보전과 쌀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미역부산물 구입

비와 장비대, 마대 구입비용으로 약 10여년 정도 계속 이 사업비는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건의에 의해서 재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입니다. 2022년도 5년차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바지락 서식환경 개선과 꼬막, 바지락 종자 살포로 수산자원 증감으로 어촌계에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정원화 사업입니다. 해양오염과 해수온도 상승, 갯녹음 확산에 따라 고수온에 강한 다년생 해조류인 감태와 곰피 서식 복원을 위한 연안해역 바다숲 조성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되면 2022년 사업추진 시는 그동안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사업지구 모니터링을 실시, 성과분석 후 2022년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 방류사업입니다. 일반수산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방류 제외 품종에 해당하는 바지락 종자와 정착성 어류를 해조류, 전복 등 양식어업 소득이 없는 도서 지역의 어촌계지역에 지원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다환경을 위기적으로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완료 후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매몰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속가능한 수산발전과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바다정원화 사업, 어패류종자 방류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모든 수산직 공무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어선안전 기원 풍어제 지원입니다. 관내 출어선 150여척에 어업인의 무상안전과 풍어를 위한 풍어제로 무대 설치비, 제찬 준비, 무속인 섭외, 선박 풍어 깃발 제작 등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속인은 무형문화재 등 등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보급사업은 고수온 및 적조 유입 시 관내 육상양식장 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소독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감용기 운영입니다. 감용기 운영 이동식 소각기 소모품 구입. 소각기 운영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감용기운영팀은 총 8명으로 1명은 장기 병가 중에 있으며 1명은 타부서에 근무, 2명은 노화 이동식소각기 근무, 4명은 감용기운영팀에 운영 중이나 2022년도에 금일 소각기 가동 시 필수요원 채용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해조류 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행사지원 예산으로 2022년 개최 예정이던 박람회 취소와 관련 해조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조류 페스티벌 행사 일부로 국내외 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완도 해조류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 학술회 개최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안바다목장 사업이요. 이것이 올해 마지막..... 내년엔 마지막 연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려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국비 25억에 군비 2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인데. 그동안 물론 성과분석도 과장님께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내년에 내가 봐서는 투자 대비, 예산액 투자 대비 어민들이 그 지역에 뭐 7개 마을인가 6개 마을인가 그 어민들이 뭐를 지금 여기에서 얻고 있는가. 오히려 환경교란만 시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이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엇그저께..... 과장님도 뭐 마지막 사업이고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다갯녹음숲, 이것을 원래 도에서 해가지고 매칭도 5 대 5라고 보니까 매칭도 다 바뀌웠네요, 이렇게. 군비부담이 많네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7 대 3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 사업들을 하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했던 사업지를..... 뭐 대다수 어민들은 못 만나봤지만 어촌계장님이나 몇 분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데 이 사업을 그동안..... 올해까지 해서 3년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버를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해조류들이 작황이 잘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에 전 사업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해년마다 이 사업을 바다갯녹음 백화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해서요. 거기가 뭐 어장서식지가 된다는가 산란지가 된다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산 뭐를 채취한다든가, 어민들이.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데 앞에 보면 수산물 종자 매입 방류사업과 해삼씨뿌림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고 이것은 순군비 사업으로 어패류 방류사업인데. 이런 해삼이나 이런 패류 같은 것, 어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그 종자는 어디에서 사옵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종자 생산업체가 등록된 종자 생산업체에서 정식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완도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완도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꼭 완도에서 소비를 하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많이 구매해 오던데. 그리고 할 때 진짜 1, 2차 다 내버리고 3차까지 이렇게 넣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차를 갖다 넣어 가지고, 이것들이 바다에서 안착을 해가지고 자라나서 맨 손어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소득증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해년마다 방류사업은 하고 있으나 거의 다 죽어버리고, 폐사되고. 전혀 어민들 소득 증대에는 보탬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삼만 보더라도 중국기술자하고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데는 야밤에 해삼 같은 것을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네요. 내려..... 한나절 하고 내려가면서 다 거의..... 뭘니까, 해삼이라는 것이 온도가 높으면 다 없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전복 같은 것도 다 다이버들이 심는다고. 위에서 뿌려버리면 돈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 연차별로 매년 해년마다 계속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방법을 달리 해서요. 그것이 잘 안착되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잘 자라나서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방법들을 달리 해주시시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해조류 심포지엄이요. 저번에도 그 질문할 때도..... 방금도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할 때도 그러는데, 해조류 페스티벌 이것이 뭘니까? 뭘 한다고, 자꾸 그런 말들이 들리던데. 그것이 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조류박람회 몇 가지를 말씀해서 가지고 박람회사무국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보

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예산은 담당관님,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그 예산안 그런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억을 했던 거기에서.....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그것은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박람회에서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해조류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라든지 유통하는 분들의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장보고수산물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대략적인 안을 잡고 지금 기본적인 것까지만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런 행사를 하려면 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인철 위원

저도 해양정책과 예산들을 봐봤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그 예산은 장보고수산물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장보고수산물 축제, 관광과는 7억 8,000. 그 예산은 해년마다 세워졌던 예산인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아마 박람회사무국에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았고요.

우리가 해조류 심포지엄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과장님,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가들한테 뭐 도움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 부분은 우리가.....

○박인철 위원

박사들 몇이 오고 교수들 몇이 와가지고 자꾸 심포지엄하고 뭐 토론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라리, 이러한 것들은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다시마꼬리 사업, 미역사업 또 아니면 우리 저기..... 동부권의 미역어가들이 남산면 쪽 전복어가들한테 미역을 할 때, 그런 데에다가 차라리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소비가 되고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까? 뭐 심포지엄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예산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학술회나 뭐를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우리 어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가는가. 또 해조류를 생산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만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려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함으로써 그 소득은 곧 어업인들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갖고 뭐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흔한 예로 작년, 그 작년에 다시마가 그러니까 백종원의 뭐 오투기에다가 다시마, 우동에다가 다시마 한 가닥 더 넣으니까 다 소비가 될 정도 아닙니까. 실질적인 어민들의 소득에 해조류..... 저기 판매에, 소득에 관여되는 그런 사업들에다가 예산들을 써야 되는데. 자꾸 무슨 미세먼지 뭐한다, 이것 한다. 뭐 각 과마다 이렇게 또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해양치유담당관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권혁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635쪽예요,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물질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개선 물질, 이것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말 그대로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수조 소독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

수조, 수조 소독제? (예)

아니, 동료위원님들도 광어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소독제가, 소독제가..... 난 수산물에 지금 몸을 담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것 소독제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최정욱

우리 팀장님이 대신 대답.....

(방청석에서 “소독제는 제가 정확한 명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광어양식 그 수조 내에 성분이 독한 포름알데히드로 소독을 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어성장에 치명적이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를 대신할 수 있는 아마 개선물질 사업으로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범성 위원

그러면 어류해수조합에도 쥐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공기관위탁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해마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어류양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셨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지금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양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전체, 그러면 전 양식어가에 다 배분해서 하는 그런 식이죠?

○해양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 충분한 그 양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 위원

아니, 누구 말대로 입맛에 다 맞춰주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조인호 위원님.

○조인호 위원

과장님, 다시마꼬리 사업이 있죠. 올해도 미역이 전부 탈락하고 앞으로 전복이 무너지면 우리 완도가 무너지는데 먹이 비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버리는 꼬리를 가지고 전복밥도 주고 상품가치, 덤으로 코로나로 인한 시장도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도 하고 심포지엄 같은 것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박사들은 우리 어민들이 박사예요. 이런 것을 좀 군수님이 하자고 해도 우리 실과 과장들이나 수산직들이 이것은 지금 여론..... 이런 것도 좀 지원도 하고 해야지. 전문직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군수가 무서워서 무슨 이야기를 못합니까, 실과장들이?

○해양정책과장 권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인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서 오후에라도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연구, 이런 부분이 되

어야 군정이 발전되고 그러지. 맨날 해년마다 했던 것, 이것을 그대로..... 저도 듣고만 있으니 짜증이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특히 전문직들은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전문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전문직종은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과거에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과거 순서대로 나가니까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데, 돌아가기는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과장님 보고,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역줄기 수매요. 이것이 지금 약산에서만 하는 것이죠?

○위원장 최정욱

예, 약산 화가리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

한 15농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그전에는 한두 농가 했었죠?

이것 그전에 했을 때 쌀 뭐 미질이 좋아진 다, 이런 성분검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품질검사를 해보셨어요?

○해양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주요 성분검사 같은 것을 그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일반 쌀보다도 몇 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해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 위원

저하고는 지금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것이 그때 당시 약산에서 할 때 한두 농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미역단지 줄기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미역 땅이 염도가 높아져서 그대로 곡식이 죽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전 회기 때도 내가 지적했던 것이고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두 농가에서 자기 미역을 했던 줄기를 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또 은근슬쩍 올라왔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이 있으면, 미역줄기 이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전복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이..... 해초액비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액비로 만들어서 위에서 살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미역줄기는 바다에 있는 염도 있는 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논에다가 넣는 것인데 논에 짠물이 들어가면 곡식이 되겠습니까? 염도가 높아서 모가 난 데 나락이 다 죽습니다.

이것 제가 봐서는 뭐 한두 농가에서 미역하 시는 분들이 처리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 돈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감용기는 어때요? 앞으로..... 올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내년에는 뭔가 결단을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이것이 투자됐더라도 그런 것은..... 왜냐하면 투자된 것을, 그것을 이용하려다 보면 경비가 더 들어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도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두세 달 전에 현장에 가서 다 했던 것이라 어떤 일로도 설명이 안돼요.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최정욱 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TV 광고 등 미디어 방송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전복 집중 출하시기와 다시마 재고량 누적 등 수급 조절이 어려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SNS, 유튜브 등을 활용, 사전에 홍보하고자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완도지역 해수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 1억 5,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우리 바다는 맥반석으로 이루어진 해조류의 특성상 정화 활동이 뛰어나고 그 영향으로 수산물의 맛과 영향에 미치고 있음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타지역과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을 위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출상담회 운영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어들을 초청하거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와 바이어 간 1 대 1 매칭으로 공개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현지를 연결한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거양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사업보조로 위생 마른김 포장재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해외나 진도, 신안 등에는 포장재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지원이 미미하고, 신안 갯벌 김박스를 지역가 공업체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완도김 브랜드화를 위하여 박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해조류 양식기술 보급 세부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어장의 개발과 해조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조류 서식과 환경이 좋은 북측해역을 개발하고자 하며, 북측 수산 인건비와 우리 측의 기술로 공동 협력하여 사전 세부계획 수립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

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수산경영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수성분 해양해산물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이요. 1억 5,900 정도인데. 이것은 좀..... 가만 있어봐, 우리 군에서 한다기보다는 국가나 도 아니면..... 그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이제 저희는..... 우리 완도해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나 또 국가 측에 요청하기가 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번 내년도 1년간 용역을 세워서 연구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우리가 항상.....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맥반석이나 이런 것은 다 완도가 다 뭐 했다고 진작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 사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남북 교류 해조류 양식기술 보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올해도 해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모든..... 톳 같은 것, 해조류가 지금 괜히 1차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막 대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어민들과 용역을 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지. 우리가 방금 과장

님의 말씀처럼 북한에 우리가 해조류양식을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하고 북한..... 남북 교류 협력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어민들한테 어떠한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계속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민들이 뭐 금전적으로나 노동..... 그렇지 않아도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올해도 보니까 미역을 뭐 3번 비었다는 사람, 4번 비었다는 사람도..... 또 다시마도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집단과 우리 어민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알려줘야 그런 금전적인 피해나 인력적인 소모나..... 모든 것이 다 지금 인력이 달려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도 해서. 이런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진짜..... 우리 지금 생산에 임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해마다 미역과 다시마 시설 시기에 그 종자들이 고사되어 가지고 다시 어민들이 채묘를 구입해서 다시 또 재차 1차, 2차, 3차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원인은 우리 전복양식하시는 분들이 치패를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치패를 구입해서 가두리에 입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민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이렇게 전복을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르게 입식하다 보니까, 그 치패를 넣어 놓고 먹이가 필요한 시기가 11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먹이가 되려면 보통 10월 초 정도에

시설해야 11월 초에 먹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10월 초에는 다시마나 미역 이런 채묘 시기가 너무 빠릅니다. 수온이 높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 피해 원인이 우리 어민들이 미역 시설시기를 너무 빨리 앞당겨서 수온이 높은 시기에 해가지고 많이 고사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남북..... 북측에 어장 개발하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이제 갈수록 어장환경은 악화되고 또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식하고 있는 수산물 특히 해조류 같은 경우는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군에서는 좀 발 빠르게 새로운 어장환경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북측 그 해역은 해조류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류성 어류, 하류성 해류가 크기 때문에 거기가 더 양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인철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우리 완도에 해조류 문제가 예전으로 흘러가면 김이나 모든 것을, 완도에서 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을 했는데. 완도에 사시는 분들이 해남으로 가고 진도로 가고 태안으로 가고 충청도로 가고 백령도까지 가가 지고 다 그 쪽들을 했거든요. 개발을 하고, 진도까지는 다 가가지고. 다 보면 완도에 사신 분들이 완도 어장지가..... 뭐 허가지라든가 모든 것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지금 우리 여기 완도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나 생산자들이 이제 그..... 많이 생산이 됐고, 타지역에서도 안 했던 것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연 북한에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그 북한

에 생산된 해조류하고 우리 완도 어민들하고 어떤 상각관계,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완도 어민들이 북한에 가서 그러면 할 것인가. 또 이런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완도 인구가 5만 인구가 되는데.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시급한가. 차라리 완도를..... 더 해조류에 적합한 해조류가 무엇인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전복이 지금 치패가 빨리 입식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어떤 먹이를..... 뭐 보니까 감태, 곰피 뭐 그런 것을 하던데. 이런 것들을 먼저 권장해 가지고 좀 계절에, 수온에 맞게끔 그런 연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영을 하고요. 이제 이번 용역비는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장 용역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기본계획, 용역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만이 다음 단계를 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좀 늦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굳이 남북 교류, 이것 뭐 저기..... 그쪽하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여기서 그랬으면 그랬다, 차라리 그러면 마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뭐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수산경영과장 김일

북측에서도 우리 해조류 종자 보급하고 기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제작년에

이 용역이 좀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측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시작된 그 시발점은 개성공단 이 가동될 때 우리 완도 미역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서 가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북측에서 생산된 미역을 가지고 하면 더 빠른 시기에 운반도..... 거리도 짧고 인구도 싸니까 더 나은데, 우리 완도에서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임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재료 제조, 공장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아니, 지금 우리 금당이나 저기 약산, 금일 이런 쪽에서 미역을 생산하면 30년 전의 단가입니다. 뭐 90원, 100원 한단는데. (청취불능) 감, 감량해 버리면 60원, 70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어민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그 고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단가밖에 안 받는데. 뭐 개성공단에, 지금 어디에 개성공단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지고 하는 일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봐 버린다는..... 그래서 내가 뭐야, 홍일식품입니까, 홍일식품입니까? 홍일식품에서 여기에서 미역을 반 가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실어 났으니까, 그나마 완도 미역 소비를 촉진시켰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하여튼 이것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것이 과장님, 필요합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이제 남북 개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런 남북 교류 협력들이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런 용역을 준비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 버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준비했다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바로 이것을 통일문까지 연결해서 승인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사전단계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는 좋은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는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우리 어가들이, 실질적으로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못됐다가는 더 피해만 본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을 때는 이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인철 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군 쪽, 군 입장에서 또 우리 어민들..... 우리 군은 우리 어민들을 대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크게 보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조금 그렇다. 지금 저는 그 생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각 지자체마다 각기의 특산품을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이것 물어볼게요.

우리 그 지역에 맥반석이 어디, 어디까지 어떻게 깔려 있다고 대강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용역 결과, 우리 완도의 해저의 한 70에서 거의 90%의 해저가 맥반석으로 구성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우리 완도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완도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지역은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인근에도 그런 정도는 다 깔렸다고.....

○수산경영과장 김일

아무래도 완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위에 쪽으로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분포가.....

○최정욱 위원장

있으면 좀 더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바다가, 우리가 여기가 가둬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터져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맥반석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가둬져 있는 바다면 모르겠는데, 터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어떤 무엇이 나올지. 나온

다고 한들 타지역에서 바로 따라서 안 하겠어요? 똑같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발굴한다고 하면. 우리가 독특하게, 우리만의 어떤 것을 독특하게 갖고 있다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만 맥반석이 깔려 있다거나.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용역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조금 더 깊이 저희들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욱 위원장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둬져 있고 우리만의 맥반석이 나오면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봐도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해도 또 타지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보면.

○수산경영과장 김일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마른김 포장재요. 이것은 이번에 할 때, 아까 그때 당시에는 어디 뭐?

○수산경영과장 김일

신안.

○최정욱 위원장

신안? (예)

그것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김 업체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완도만의 브랜드를 상표화해야 돼요, 포장에다가. 그냥 마른김이라고 써버리면 우리 박스를 다른 데에서도 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써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로고를, 완도군 상표를 반드시 넣어서 우리 군만의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북 교류, 방금 전에도 설명을 내가 좀 들었는데. 남북,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완도군이 벌써부터 그것을 해야 될..... 일단 언제 남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도가 가면 갈수록 우리 바다에다가 양식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더 걱정이지. 오히려 이북하고 그렇게 될, 이북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올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이북에 가서 할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청취불능) 그랬지만 지금도 젊은 애들이 이제 전복산업이 (청취불능) 들어와도 뭐 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몇 십 년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다면, 바다에서 이제 양식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 지금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연구해서 빨리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가 막 “이 어장이 부족해서 이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진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양식장에. 가면 갈수록 없어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남북 교류해서 그쪽에다가 무엇을 한다.”, 이것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은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원도 모 군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에 북한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해서 패류양식을, 기술을 전파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요.

이제 물론 “우리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어

장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북측까지 가서 개발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장이 아닌,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좋아지면 새로운 어장 개발과 또 해조류바이오산업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지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때는 그때 바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욱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는 달라요, 바로 인근 지역이라. 자기들은 맞죠. 바로 이것이 되면, 바로 인근지역이라 바로 교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 앞으로 군 양식업이고,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대체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더 발동이 떨어져야 해요.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완도는. 양식업자가..... 두고 보세요. 지금 나이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우리 어업인들을. 그 시대가 몇 살, 한 20년이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가 오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수산경영과장 김일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정욱 위원장

예,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입니다.

완도박람회사무국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 9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 결정을 했고요. 2021년 10월 해조류페스티벌, 가칭 해조류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박람회사무국의 1년 현황입니다. 박람회 취소 결정 후 정원은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10월 수시인사 시 6명이 복직했습니다. 대행사하고의 계약현황은 크게 행사운영과 전시관 설계 및 제작 설치입니다. 행사운영은 KBS아트비전, 전시관 설계 및 제작 설치는 옥토끼이미징입니다. 지금 현재 타절 정산은 미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박람회 사업비 집행실적입니다. 박람회 출연금은 국비 14억, 도비 14억, 군비 20억이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2021년 6월 저희가 출연액 입금을 받아서 박람회 취소 결정과 더불어 2021년 11월에 군청 해양정책과로 저희가 반납을 했었습니다. 군비 2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박람회 관련된 행사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올해 2022년 2월에 예상된 금액은 한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박람회 취소 전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총 7억 1,5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잔액은 12억 8,500입니다. 앞으로의 집행예상액입니다. 16억을 저희가 집행을 지금 한..... 1억 6,000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대행사에 대한 정산금 5,000, 홍보물 철거에 대해서 2,000을 사용했고요 기타 운영비 9,000입니다. 현재 잔액은 11억 2,500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박람회조직위원회 정산 및 결산을 준비하고요 2월에 결산 검토한 후 이사회 승인 후 군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가칭 해조류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고요. 6월에 박람회사무국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칭 해조류페스티벌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조류페스티벌 추진계획은 저희가 박람회 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완도의 강점을 살려서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축제로 간 다음에 ‘해조류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한 자문을 주셔서, 거기에서 인용해서 저희가 잡아서 지금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해조류페스티벌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8일, 6일간입니다. 장소는 완도해변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행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박람회 축제와 관련된 안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작성을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사항은 행안부의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심의신청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현황도 입출구를 분리해서 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시간대별 참여 인원 지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사장 입장 시 반드시 QR 체크, 발열 체

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공간 배치입니다. 저희들이 완도항 일원에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최정욱 위원장

해조류사무국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해조류 박람회. 그러면 지금 전시회장하고 폐장 운영,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납니까. 3,000, 2,000을 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지금 현재 KBS아트비전은 저희한테 타절 정산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가 보충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박람회사무국에서 주선하고 있는 것이 한 1,500이고요. KBS아트비전에서는 1,300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을 저희한테 정산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자료를 그쪽에서 안 준다는 말이 있고 그러던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주라.” 그쪽에서 “안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다른 한 분이 이제 전시연출..... 이 금액이 30억인데. 이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차례 공문으로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을 시 “좀

부당하다. 법적인 사항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저희하고 교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제 싹 끝내고 나면 11억. 지금 20억에서 11억, 이것이 남는다는 이 말이지요?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11억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것 해조류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니까?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인철 위원

아니, 장보고수산물축제 예산이 7억 8,000인가 올라왔던데. 이것을 다 해버리면 그것 다른 섬, 다른 행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장보고축제에서?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차원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고요.

○박인철 위원

이것은 지금 그러면 아이디어 차원이죠?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어떤 그런 부분도..... 심포지엄이라든가 수출상담회는 기존에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믹스해서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같이 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이 그림대로만, 이 설명대로만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장보고축제보다 더 크게 지금 그러고. 거의 유사한 무엇이던데.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특히 뭐 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공간을, 공간을 주고, “수익사업 차원에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펼치고 수익을 창출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제시한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안 그래도 자꾸 뭐 “페스티벌.”, “페스티벌.” 뭐 소리들이 들리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대행사하고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직까지 지속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많은 어떤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여튼 그 박람회사무국은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예, 한 가지만..... 이것이 주행사는 장보고 수산물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리가 이 페스티벌 행사를 한다는 얘기, 중간에.....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같이 그런 축제입니다.

○김양훈 위원

그 속에 끼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해조류 페스티벌이, 축제가 더, 행사가 더 크게 보여요. 말씀하신 예산도 거

의 없는 것 같은데. 저것을 보면 수산물축제일 것인데. 그냥 수산물축제라고 세부적으로 대한..... 몇 가지를 첨부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수산물축제보다는 페스티벌 이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아, 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에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진하는 부서 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이죠? “우리 사무국에 지금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것을 그 박람회에서 기존에 연구해 왔던 것을 장보고수산물에 접목을 좀 시켜보려고 지금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거기에 있는데 무슨 다른 일을 하기는 것은 그렇고. 그것인가요, 현재 지금?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웃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어차피 박람회 자체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최정욱 위원장

그러니까.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예, 앞으로.....

○최정욱 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옮겨서 지금 그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정욱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가 배부해 드렸던 해조류 페스티벌 추진계획 이 자료만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욱 위원장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대상 조서를 보시면서 제2차 축소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지금까지 축소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사업명과 금액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2차 삭감액 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논할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 위원

예, 이범성 위원입니다.

저기 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589쪽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 그리고 해양정책과 642페이지, 해조류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행사 지원. 이 부분은 조금 여려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

아니,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동료위원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관광과 2022년 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 1억 2,000, 이것과 해양정책과 해조류 심포지엄 준비를 위한 행사 지원 7,000만 원. 이것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이범성 위원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최정욱 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삭감액 결정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서는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킬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 배관망 사업 예산 일부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최정욱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16건에 7억 7,934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완도해조류박람회사무국장	오현철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6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최 정 욱		
의 원	김 재 홍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6.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조례안
1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18.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1.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5.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4.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6.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8.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9.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1.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6.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8.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4.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5.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허궁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회사무과장 이송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0일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 외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0분)

○의장 허궁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12월 2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2월 27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양훈 의원과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양훈 의원과 박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의장님께서 업무차 관외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용어 정비를 위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4.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6.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8.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9.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1.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6.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7.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 (14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조례안 중 용어 정비가 필요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이 하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입니다. 본규정안은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할 경우 고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정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완

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9.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0.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1.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2.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3.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

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미망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명예특별위로금 1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완도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완화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 재정비 및 법률 제명과 통일하기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 용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

사일정 제23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5.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8호,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

을 통해 변경된 소관 시설물 명의 변경, 부서장의 명의 변경, 각종 별지 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관 시설물명 해양생태전시관을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변경하고, 부서의장을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재선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9인)

허궁희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출석공무원

부군수	봉진문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호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
총무과장	한희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최광윤
민원봉사과장	박창희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황창령
환경산림과장	박은재
지역개발과장	천종실
안전건설과장	차재철
문화예술과장	정광민
해양정책과장	권 혁
수산경영과장	김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복선
김선종
이기석
황승미
이용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의사팀장
속기공무원

이송현
문송태
정홍비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
 8.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4.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조례안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

부의된 안건

1.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4.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7.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8.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9.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1.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범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어정비를 위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2.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4.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6.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7.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8.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9.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0.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1.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2.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4.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15.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이범성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 등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자치법규조례 중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문이 있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된 “총 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용어를 정비하고 오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자치법규조례 내용 중 용어정비가 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

라 법 제4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2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 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복무 선서, 책임 완수, 비상근무, 파견근무, 휴가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완도군의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지원기준, 절차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

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기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완도군의회 공무원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2호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완도군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으로 모

범공무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모범공무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이 하달되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수정하고,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완도군의회 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으

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훈련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본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부의장님 설명내용과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11호 용어 정비를 위한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0호 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2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3호 완도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4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5호 완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6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7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8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원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39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원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0호 완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1호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범성	박재선	김양훈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양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안봉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미망인, 전몰군경 또는 순

직군경 자녀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게 명예특별위로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특별, 명예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ㄴ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양훈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요. 이것 군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전액 군비입니다.

○김재홍 위원

군비죠? (예)

지금 인원을 보니까 좀 많네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698명입니다.

○김재홍 위원

698명에 196명을..... 이 금액이 거의 그러면 1억 3,000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1억 3,960만 원입니다.

○김재홍 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추경예산에 세울.....

○김재홍 위원

추경이요? (예)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와서 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편성 협조 요청 및 표준 조례안이 권고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동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자의 중복 지원 금지 및 이자의 지원 중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완도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의 위탁에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예, 우리가 지금 한 356명이 장학재단으로부터 13억 1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연간 이자 발생액이 한 2,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2,500의 한 15% 정도인 375만 원 정도를 출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위탁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상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아니, 이것은 전라남도로부터 제안..... 저기, 일괄적으로 시군에 시행이 됐고요.

○박인철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자격요건 중 주택면적과 대출금액 요건은 삭제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 하향 조정 완화로 폭넓은 대상자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함이고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 제2항 3호의 지원대상을 대출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및 4호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내용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

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이어서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 재정비 및 법률 제명과 통일하기 위해 조례명을 일괄 변경하고 법령에 맞게 조례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완도군 정보 공개 조례”로 조문단어 “행정정보 공개”를 “정보 공개”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제2항 심의회의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당초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기존 700메가바이트 기준으로 1건마다 5,0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2,500원을 부과해서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정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봉일 자치행정국장 설명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2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3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4호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5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6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7호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양훈	박재선	이범성
김재홍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봉일

○ 전문위원 : 박미정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9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848호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기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경제산업국 소관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보행자가 물리적으로

장애를 받지 않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 협력에 관한 사항, 완도군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48호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8호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8호 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50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의안번호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여기 장보고기념관 부속건물 중에 장보고동상과 해양생태전시관이 있었는데 해양생태전시관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번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이 추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부분을 부속건물에 넣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행규칙이 별도로 없어서 관련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 변경된 소관 시설물 명의 변경, 소관 부서장의 명의 변경, 각종 별지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85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읍면 축제에서 이번에는 군에서 공모한 축제를 같이 읍면 축제로 해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3조 축제의 구분에서 “축제는 완도군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군 대표 축제와 읍면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면 축제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대해서는 완도군 대표축제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2호 부분을 이제 읍면 축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읍면 축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가변은 “지금 현행 읍면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및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그대로 했고요. 나번에, 이제 나번을, 나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완도군에 공모하여 선정된 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 축제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읍면 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개정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선

의안번호 제2850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의 마을단위 축제에서 벗어나 읍면 특유의 콘텐츠 및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 축제를 발굴하고, 완도군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안은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그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를 하고요. 또 만약에 그 축제를 올해 했는데도..... 완도군이 공모로 당선되어 가지고 선정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지금 읍면 축제로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씩 한다면 8개 읍면이 대상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플러스 공모해서 선정된 축제로 해가지고 지금 8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추경에 한 1억 5,000 정도를 더해서 내년에는 12개 읍면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 축제는 4,000에서 5,000 정도, 기존에 지원해준 대로 이렇게 지원금이 되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축제로 발굴하려고..... 육성하려는 축제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에 당선된 축제는 약간

이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한다는.....

○우성자 위원

단가를 올려 가지고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런 식으로요.

○우성자 위원

뭐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올려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왜, 그것을 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을 정해놓지 않은 이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도..... 기존에 읍면 축제를 할 때도 딱 읍면별로, 다 약간의 읍면의 규모별로 금액에 약간 차등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축제..... 그 완도군에 공모해서 선정된 축제라도 축제 내용을 보고 약간 좀 차등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제 축제 내용에 따라서 그 등급이 차근차근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똑같지 않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성자 위원

큰 차이는 없고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사항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축제와 유사한데, 단지 이제 “읍면 주

민들을 좀 더 참여시켜 가지고 축제를 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자, 공모부터.” 그런 뜻으로 지금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읍면이 우수축제로 계속 거듭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해마다 축제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읍면의 축제를 격년제로만 실시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을 매년 할 수 있는 축제도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축제 비용이, 전체 예산이, 매년 예산이 뭐 3억씩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단 1억이라도 더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우수 읍면은 격년제로 한번 하고 또 공모 당선되어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뭐 계속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격년제로 아마 계속 해마다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형평성 부분 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보면 방향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번에 “생략”하고 “현행과 같음”, “완도군

대표축제” 이것이 있습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 슬로우 걷기 축제,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그리고 기타 종합 이쪽의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완도군 축제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이것을 완도군 대표 축제라 하고 나머지를 읍면 축제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축제 중에서 점점 그것이 좀 연륜이 쌓이고 점점 완도군 대표 축제로 육성할 만한, 육성하고 계속 해야 될 축제라고 이제 필요성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완도군 대표축제로 승격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물론,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제라고 하면 인구수가 많은 면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구가 아주 적은 섬에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읍면은 그렇게 뭐 노력을 많이 안 한다고 해도 화합이 잘되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잘한 사람은 계속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이 축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마을주민들, 읍면주민들을 서로 화합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잘 쓰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 위원

예, 이제 심의하시는 그쪽에서도 좀 형평성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이제 저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 읍면주민 한마당 축제인데.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좀 더 보태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우리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보고축제, 슬로우축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정 가을빛 여행축제..... 무엇 하나 똑바로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완도군 축제가. 완도군에서 하는 축제도 똑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읍면에 무슨, 어떤 것을 선정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격년제로 하더라도 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되는데.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좀 돈을 더 쥐가지고, 더 보태 가지고 그런 축제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12개 읍면을 보면 12개 읍면에 특색이 있는..... 자기 읍면에 특색이 있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제를 잡아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 군에서 한 5,000만 원을 주면 그 지역에

서 2~3억 원, 2~3억 원씩 그 지역민들이 뭐 협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을에서 얼마씩 대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보태주고 하면 되지. 무슨 또 다른 축제를 발굴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읍면 마을, 읍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읍면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번영회나 청년회나 그런 데에만 더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나” 이것은..... 전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공모한다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 이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국장님,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읍면 축제들도 지금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더..... 더 액기스를 뽑아 나오라는 것인가. 나는 이것은 참 우리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으면 더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좀 더 알차게 하게끔.

이상입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저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저희들이 읍면축제, 기본예산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지금 더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공모는 저.....

○박인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격년제로 하더라도 거기다가 더 보태주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어디 읍면에다가

줘어 짜가지고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화 같으면 전복축제 뭐 고금 같으면 유자 축제, 금일 같으면 다시마 축제, 금당 같으면 금당 8경 축제,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갖고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지.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위원님, 저희들이 읍면 컨설팅..... 읍면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공모하고 읍면축제하고 겸해서 추가예산을 더 지원한다고 지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청에서 12개 읍면을 공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2개나 3개가 되면 거기에다가 돈을 더 플러스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읍면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거기에 콘셉트가 우수한 관광상품을, 축제에 대한 관광상품을 거기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개 읍면에다가 공정하게 뭐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12개 읍면에서..... 저기, 여기 무엇입니까, 그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가 안 된 데는요, 방금 우리 우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안 된 곳은요?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우리가 이제 읍면 축제에 전체적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할 뿐더러.....

○박인철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예산계하고 더 해가지고 잡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올려줘야지. 기존의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뭐 많이 주면 5,000만 원을 줘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러면 노화 같은 데는 3억, 금일 같은 데도 그렇고. 고금도 같은 데도. 그래도 마을단위가 좀..... 면 단위가 큰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생일이나 금당, 좀 작은 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알차게 내용을 짜가지고 하게끔.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저희들이 그 컨설팅을 해보면 읍면 우수축제, 우수축제가 새롭게 지금 나오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기존에 4,000만 원을 주고, 인구당 비례해서 500만 원인가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박인철 위원

맞아요, 그것도 7대 의회에서 조례를 해가

지고 그렇게 만든 것인데. 너무 일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하자고 했는데. 그런 돈들이 나가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번영회나 청년회에서 각 마을단위로 아니면 뭐 기업체로, 어디 개인 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아니, 격년제로 해가지고 12개 읍면이 마을 한마당, 면 한마당이 됐든 뭐가 됐든 1년에, 2년에 1번씩 그 면의 면민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아니, 그런 데에다가 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예산계에다가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읍면 축제 주민 한마당 행사를, 비용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서 한 5,000만 원 더 해주면 실제로 읍면에서는 1, 2억을 더 걷어 가지고 축제를.....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축제 지원에 대한, 주민 한마당 행사 지원에 대한 현실화 부분은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계속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조례에 개정하고자 하는 완도군 공모로 선정된 축제는 저희가 이 조례 제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축제를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담당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처음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지역축제가 아니겠

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민주주의하고 관계도 되고 그래요.

이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주민 한마당 행사, 읍면 축제대로 계속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서로 읍면 간에 문제가 없게끔, 주민들이 서로 서운한 점이 없게끔.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축제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좀 더 고급화시키고 주민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 공모 부분을 넣었으니까요. 이것을 넣어주시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대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존 플러스 알파 몇몇 축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게끔 이 조항을 이렇게 놔두시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위원님들께서 지역축제 위원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다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홍

예, 국장님. 이것.....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전라남도 관광재단 위탁을 줘서 컨설팅을 했죠? (예)

지금 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아까 뭐 팀장님, 뭐 결과가 다 나오셨다고요. 그 호응이 어땠던가요? 좋던가요, 지역민

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컨설팅을 할 때 지금 담당공무원하고 축제추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양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간단하게..... 뭐 호응이 좋았어요?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조언해준 부분들에서 옹호하는 그런 시군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컨설팅..... 읍면에서 방향을 전혀 못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김양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도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고금에서도 그 컨설팅을 했다고 그래요. 유자축제라고 명칭을 했는데 컨설팅을 하는 그쪽 부분에서 “이것은 안 맞다. 왜 고금도가 유자축제를 해야 되냐. 아무 특산품도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옥신각신했는가 봐요. 관광재단에 있는 사람이 고흥 사람이예요. “고흥 유자지, 왜 고금 유자냐, 완도 유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재단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 살리기이지. 남의 지역을 죽이는 것이고. 이런 컨설팅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자기 지역 것을 살리려고, 그쪽에다가 자기 지역 것이 있으니까 자기 지역 것을 뭐 나온다고 해서 자기 지역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고금도가 그래서 고흥보다 유자나무가 좋습니까, 수확량이 좋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지

금도. 재질도 좋고 품질도 좋고. 그런데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고흥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고흥 것으로 가져가고. “완도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완도특산품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컨설팅은 제가 봐도 무의미한 컨설팅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취불능)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 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보통 보면 한 1억 위아래로 들어갑니다, 면 단위마다. 좀 큰 데는 2, 3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1년에, 매년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데. 우수 공모 선정을 해서 또 1년을 또 해요. 이것이 행사를 하면 할수록 지역민들한테, 면민들한테는 부담이 엄청 큼니다. 그냥 군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을 쥐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민들, 그쪽에 있는 사업가들 유지들 또 다..... 우리 향우민들 전부 또 이렇게 돈을 걷어 들여야 돼요. 이중부담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담이 커서.

그런데 여기서 완도군 축제를 여기에서, 읍면 단위에서 만들어서 군 대표하는 축제를 만든다고요? 지금 있는 완도군 축제를 차라리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축제를 그렇게 컨설팅해서 한번 공모해서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읍면 단위 축제할 때 어디 외부사람들이 옵니까? 온 것 보셨어요? 수익 창출해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축제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 면에다가 하라고 합니까? 군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읍면에다가 떠넘기십시오. 아니, 군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면에서 먼저 할 것이 아니에요, 군에서 먼저 해야지.

군 축제..... 지금 까지도 국장님 잘 알다시피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어요?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이너스 소비성 행사였지. 그래 가지고 “경제적인 뭐 (청취불능) 만 들고 있다. 몇 억했다. 몇 억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에요.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우수공모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읍면사람들, 옆에 있는 면 단위는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타지에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소득 창출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요, 부담만 더 커지는데.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보며)

저희 우리 팀장님..... 그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에 읍면 우수축제 이것이 선정됐는가요? 혹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 있거나 그럴지는 않죠, 컨설팅만 했죠?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예.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번에도 한 번 올렸다가 이것이 기각된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이 나오신 대로, 저기 이 개정 조례안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뭐 해주시면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읍면 축제 부분에 대한 관심하고, 그리고 또 그 읍면별로 이렇게 이번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게 된 그런..... 이제 그러고자 한 것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봐주시고, 제가 읍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방식대로 그렇게 하

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홍

예,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지금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으로 예산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꼭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로.....

○위원장 김재홍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세요, 팀장님.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상으로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게끔 판단을 했습니다.

○박재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해양문화관광축제팀장 이진범

(좌석에서) 추가로.....

○박재선 위원

예.

공모를 하지 않고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읍면으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예,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컨설팅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부분만 했기 때문이에요. 내년도 축제 예산이, 저희가 읍면 축제

예산이 4억이 잡혀있습니다만 그 4억을 집행하는 데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 위원

컨설팅은 컨설팅이고요. 이 읍면 축제에 내려가는 예산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래서 읍면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요. 여기 올해..... 이번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그럼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회를 봐서..... 박인철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나 지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아닙니다. 조례 자체를.....

○위원장 김재홍

조례 자체를?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조례 자체를 개정안에서 아예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그러면 기존에.....

○위원장 김재홍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2850호, 이 부분은 부결

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상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한 건의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 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9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0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수정안이 아니라 부결이죠.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부결이죠, 부결.

○위원장 김재홍

부결이죠. 아, 예.

수정안..... 심사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50호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박재선	이범성
김양훈	조인호	박인철
우성자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박기제
해양문화관광국장	이석우

○ 전문위원 : 박희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9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허 궁 희		
의 원	김 양 훈		
의 원	박 인 철		
의회사무과장	이 송 현		

